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박사학위논문

밈 이론을 적용한 국내 건축계의  
담론 분석 방법 연구  
- 공간지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A Methodological Research on Meme-Based Analysis of  
Architectural Discourse in Korea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양완석

밈 이론을 적용한 국내 건축계의  
담론 분석 방법 연구  
- 공간지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A Methodological Research on Meme-Based Analysis of  
Architectural Discourse in Korea

지도교수 최 재 필

이 논문을 공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양완석

양완석의 공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12월

위원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원 \_\_\_\_\_ (인)

위원 \_\_\_\_\_ (인)

위원 \_\_\_\_\_ (인)

# 밈 이론을 적용한 국내 건축계의 담론 분석 방법 연구 - 공간지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양완석  
지도교수 최재필

---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1976년 펴낸 그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Selfish Gene)’에서 ‘밈(Meme)’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밈은 일종의 ‘문화 유전자’로써, 실제 유전자와 비슷하게 인간의 뇌 사이를 오고 가며 변이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는, 인간이 만든 모든 형태의 문화적 단위를 총칭하는 개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리처드 도킨스는 밈을 소개하는 서두에서 “... 밈의 예로는 노래, 사상, 선전문구, 옷의 패션, 도자기를 굽는 방식, 건물을 건축하는 양식 등등이 있다...”라고 말하며 건축을 밈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밈 이론에 기반하여 건축계의 담론에 존재하는 밈들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려는 시도를 하고자 하였으며, 밈 이론에 기반한 담론 분석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건축 담론들은 건축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활발히 개진해온 매체인 잡지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하였으며, 출간 역사와 구독자 수, 범위를 고려하여 1967년부터 발간된 월간지 ‘공간’지를 분석 대상 잡지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공간지에서 먼저 작품을 리뷰한 텍스트와 건축가의 인터뷰만을 고른 뒤, 텍스트에서 글쓴이가 다른 사람을 언급하며 인용한

부분들만을 골라 언급한 부분의 내용과 함께 글쓴 인물, 언급된 인물, 글 제목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다른이에게서 영향을 받아 글쓴이가 기록한 글이 밭이 되고, 이렇게 창간지부터 전수조사한 밭들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밭을 주고받은 인물과 밭의 내용을 노드화 한 뒤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1. 밭의 포착과 채집, 2. 밭의 정제 및 분류, 3. 네트워크 작성, 4. 지표 산출 및 활용이라는 네 가지의 절차로 밭 이론 기반 분석 방법의 절차를 정하였으며 이 방법으로 공간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조사 대상 서적 수는 공간지 601권, 추출한 밭의 수는 708개였으며, 밭이 발산된 인물의 수는 349명이었다. 조사 결과의 개괄은 4장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 밭들을 주요 밭 발신자들과 주요 건축 사조들 - 모더니즘,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후기 구조주의, 생성의 철학, 현상학, 전통 - 을 중심으로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는 5장에 수록하였다.

6장에서는 밭 이론 기반의 관찰 분석법의 효용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대별 주요 밭 발신자와 밭 내용과 변화추이 등을 추가 분석한 뒤 이 결과와 기존 역사 연구를 비교, 대조 하였다. 그 결과, 상당 부분이 기존의 역사 연구의 결과 및 사실들과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의 밭 이론 기반 담론 분석 방법은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밭 이론 기반 분석 방법으로 한국 현대 건축 담론 역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새롭게 밝혀내었다.

1. 한국 현대 건축은 ㄱ) 1960, 70년대, ㄴ)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중반, ㄷ) 1990년대 중, 후반과 2000년대 ㄹ) 2010년대의 4개의 시기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건축가들 사이의 이론적 담론과 실제 지어지는 작품을 둘러싼 담론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들어와 한국 현대 건축의 담론계에서 현상학의 영향력 총합이 모더니즘의 영향력 총합을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내 건축인들은 주로 해외의 인물들에게서 밭들을 일방적으로 받아오는 모습을 보였으며 국내 건축인들끼리 주고 받은 밭들은 이론적 사조나 담론 보다는 ‘개인적 관계’나 ‘전통’과 관련된 밭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현상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국내 건축인들끼리의 논쟁이

부족하고 자생적 담론이 부재한 상황이다.

3. 밈 이론 기반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인물과 사조들의 영향력을 함께 분석하면 더 정확하게 중앙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해 정성적으로 평가되던 건축계의 주요 인물들과 사조들의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도출하고 비교가 가능했다.

본 연구는 진화 생물학, 사회학, 신경과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다루는 밈이라는 소재를 건축과 결합시킨 통섭적인 속성의 연구이며 밈을 직접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계량하는 시도를 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향후 건축이 아닌 다른 분야의 담론장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도 본 연구의 방법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밈, 밈 이론, 건축 담론, 한국 현대 건축, 네트워크 분석, 담론 분석

**학 번:** 2009 - 30142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3. 관련 선행 연구 .....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	9
2.1. 밈과 문화 복제자 .....	10
2.1.1. 유전자, 복제자, 그리고 다윈 .....	10
2.1.2. 문화 복제자, 밈(Meme) .....	16
2.1.3. 다양한 문화 복제자 이론들 .....	25
2.2. 건축과 밈의 접목 .....	31
제 3 장 밈 이론 기반 분석 방법 설정 .....	46
3.1. 밈을 조사하는 기존 방법들 .....	47
3.1.1. 텍스트와 밈 이론 .....	47
3.1.2. 기존 분석 방법들과 한계 .....	50
3.2. 조사 대상 설정 .....	59
3.2.1. 조사 대상 서적의 설정 .....	59
3.2.2. 서적 내 조사 대상 텍스트들의 분류 .....	61
3.3. 조사 방법 설정 .....	64
3.3.1. 밈 포착 및 채집 .....	64
3.3.2. 정제 및 분류 .....	67
3.3.3. 네트워크 분석 .....	68
3.3.4. 지표 산출 및 활용 .....	71
제 4 장 조사 결과 개괄 .....	75
4.1. 기본적 사항 .....	76

4.2. 밈의 흐름 .....	79
4.2.1. 기본 통계 .....	79
4.2.2. 국적별 통계 .....	79
4.2.3. 직업별 통계 .....	83
4.2.4. 주요 밈 분수 .....	86
4.3. 밈의 내용 .....	101
4.3.1. 기본 사항 .....	101
4.3.2. 세부 밈 및 밈플렉스들의 통계 .....	110
4.3.3. 작품과 밈 내용의 통계 .....	115
4.4. 소결 .....	118
제 5 장 인물과 사조별 조사 결과 분석 .....	120
5.1. 주요 인물별 밈들의 분석 .....	121
5.1.1. 질 들뢰즈 .....	125
5.1.2. 르 코르뷔지에 .....	129
5.1.3. 루이스 칸 .....	137
5.1.4. 미스 반 데어 로에 .....	142
5.1.5. 김수근 .....	147
5.2. 주요 사조별 밈들의 분석 .....	152
5.2.1. 모더니즘+구조주의 .....	152
5.2.2. 포스트모더니즘+해체주의 .....	161
5.2.3. 후기 구조주의+생성의 철학 .....	170
5.2.4. 현상학+장소성+일상(삶을 담아내는 건축) .....	183
5.2.5. 전통 .....	203
제 6 장 밈 이론 기반 분석 방법론 해석 .....	208
6.1. 시대별 밈들의 관계와 변화 분석 .....	209
6.1.1. 시대별 인물과 담론의 양상 .....	211
6.1.2. 시대별 양상의 변화 추이 .....	237
6.2. 기존 역사 연구들의 검증을 통한 효용성 고찰 .....	244



6.3. 밈 이론 기반 분석 방법에 의한 새로운 시각 .....	259
6.3.1. 담론의 양상들 .....	259
6.3.2. 국내의 밈 운반자들과 자생적 담론 .....	262
6.3.3. 정량적 분석의 틀 .....	266
제 7 장 결 론 .....	269
7.1. 연구의 요약 .....	270
7.2. 밈 이론 기반 분석 방법론 .....	274
7.3. 의의 및 한계 .....	277

## 표 차례

[표 1-1] 밈과 건축을 소재로 한 선행 연구들 .....	6
[표 2-1] 유전자와 밈의 비교 .....	19
[표 3-1] 건축 잡지에 실리는 건축 카테고리 기사들의 분류 .....	62
[표 3-2] 밈 발신자와 수신자 조사 항목들과 예시 .....	65
[표 3-3] 밈의 흐름과 내용을 함께 종합하여 조사한 항목들과 예시 .....	66
[표 4-1] 밈 조사 서적들과 밈의 발행 기간과 수 .....	76
[표 4-2] 밈 발신자들의 총 수와 성별 수 .....	79
[표 4-3] 국적별 밈 발신자들의 수와 비율 .....	79
[표 4-4] 국적별 밈들의 수와 비율 .....	82
[표 4-5] 밈 발신자들의 세부 직업과 직업군 분류 .....	84
[표 4-6] 조사된 밈 발신자들의 명단 .....	87
[표 4-7] 연결 중심성이 높은 상위 10 밈 발신자 및 수신자 .....	98
[표 4-8] 근접 중심성이 높은 상위 10 밈 발신자 및 수신자 .....	99
[표 4-9] 매개 중심성이 높은 상위 5인 .....	99
[표 4-10] 전체 밈들의 세부 명칭, 유형, 언급 횟수, 밈플렉스 분류 .....	102
[표 4-11] 가장 많이 언급된 상위 10개 세부 밈과 언급 횟수 .....	110
[표 4-12] 밈플렉스들의 명칭, 유형, 언급 횟수, 시대별 상대 지수 .....	112
[표 4-13] 조사된 밈들의 유형별 통계 .....	114
[표 4-14] 많이 언급된 작품들과 언급 횟수 .....	115
[표 4-15] 작가별 작품 언급 횟수 .....	116
[표 4-16] 많이 언급된 작품들과 함께 언급된 세부 밈들 .....	116
[표 5-1] 밈 발신자와 밈 내용의 근접 중앙성 상위 9개 .....	124
[표 5-2] 질 들뢰즈에게서 발산된 밈들의 내용, 유형, 밈 연결 중앙성 순위 .....	126
[표 5-3] 르 코르뷔지에에게서 발산된 밈들의 내용, 유형, 밈 연결 중앙성 순위 .....	130
[표 5-4] 루이스 칸에게서 발산된 밈들의 내용, 유형, 밈 연결 중앙성 순위 .....	138

[표 5-5] 미스 반 데어 로에에게서 발산된 밈들의 내용, 유형, 밈 연결 중앙성 순위 .....	143
[표 5-6] 김수근에게서 발산된 밈들의 내용, 유형, 밈 연결 중앙성 순위	148
[표 5-7] 모더니즘 세부 밈들의 근접 중앙성 .....	156
[표 6-1]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대해 언급됐던 시대상 .....	245
[표 6-2]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중반에 대해 언급됐던 시대상 .....	247
[표 6-3] 1990년대 중, 후반과 2000년대에 대해 언급됐던 시대상 .....	251
[표 6-4] 2010년대에 대해 언급됐던 시대상 .....	255
[표 6-5] 언급됐던 다른 사항들 .....	256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흐름도 .....	5
[그림 2-1] 생명체의 진화와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 핸드폰의 진화 .....	14
[그림 2-2] 종교의 분화와 생물 진화의 유사성 .....	17
[그림 2-3] 상단 그림 : 내표밈의 여러 가지 감각들로 구성되어 있다. B~F 까지의 행동들을 할 때 모두 소통적 운동 산출이 포함되어 있 다. ....	25
[그림 2-4] 칼포퍼의 세 가지 지식 세계 .....	30
[그림 2-5] 아르누보 양식의 곡선들 - 벨기에 브뤼셀의 Hotel Tassel .....	33
[그림 2-6] 기존 건축양식과 대비되는 초기 모더니스트들의 건축 작품 - 아돌프 로스의 로스 하우스 .....	34
[그림 2-7] L'esprit Nouveau 창간호 및 후속호 .....	34
[그림 2-8] 기존 양식과 대비되는 모더니즘 양식의 문제점들 .....	36
[그림 2-9] 세계 각국에 세워진 모더니즘 양식의 정부 청사들 .....	38
[그림 2-10] 1947년 영국 somerset의 bridgewater art centre에서 일주일간 열렸던 CIAM 6차 회의. 르 코르뷔지에, 발터그로피우스도 참석 했다. ....	39
[그림 2-11] 힐리어가 추출해낸 프랑스 농가의 유전자형들 .....	43
[그림 2-12] 유전 알고리즘과 여러 평가방법의 통합. ....	44
[그림 3-1] 르 코르뷔지에 <L'ESPRIT NOUVEAU> 창간호, 렘콜하스 <정신 착란증의 뉴욕>, 김수근 <공간> 창간호, 승효상 <빈자의 미학> .....	49
[그림 3-2] 경제에 관해 주로 언급된 밈 발신자들과 내용 .....	51
[그림 3-3] 가장 영향력 있는 밈들의 추출 및 시각화 .....	52
[그림 3-4] 2011~2012년 휴대폰의 진화 패턴의 진화계통도 .....	52
[그림 3-5] 토픽 분포 차트 .....	53
[그림 3-6] 유사한 담론 연구의 예 .....	54
[그림 3-7] 유사한 밈 연구의 예 .....	56
[그림 3-8]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텍스트들의 말뭉치 분석 .....	57

[그림 3-9] ‘건축’,‘공간’,‘건축과 환경’의 창간호들 .....	61
[그림 3-10] 본 연구의 밈 이론 적용 텍스트 분석 방법 과정 .....	64
[그림 3-11] 텍스트에서 밈을 포착하고 채집하는 예시 .....	65
[그림 3-12] 기존 텍스트 분석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작성 방법(左)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네트워크 작성 방법(右) .....	69
[그림 3-13] 학술지들 간의 인용, 피인용 관계를 시각화 한 연구의 네트워 크 관계도 .....	70
[그림 3-14] 네트워크 관계 계량화 지표들과 그 계산의 예시 .....	71
[그림 3-15]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공간 구조의 분석 .....	74
[그림 4-1] 연도별 추출 밈 수 .....	77
[그림 4-2] 연대별 추출 밈 수 .....	78
[그림 4-3] 밈 발신자들의 주요 국적별 분포 .....	81
[그림 4-4] 밈들의 주요 국적별 분포 .....	83
[그림 4-5] 밈 발신자들의 직업군 분포 .....	86
[그림 4-6] 밈 발신자와 수신자들을 연결한 네트워크 그래프 .....	96
[그림 4-7] [그림 4-6]의 중앙부 확대도 .....	97
[그림 4-8] 근접 중심성이 가장 높은 밈 분수 상위 5인 .....	100
[그림 4-9] 밈플렉스들의 시대별 상대 지수에 따른 순위 .....	113
[그림 4-10] 언급 횟수와 시대별 상대 지수 적용시의 순위 변화 .....	113
[그림 5-1] 밈 발신자와 밈 내용을 짝으로 실시한 네트워크 그래프 .....	122
[그림 5-2] 밈 발신자와 밈 내용 연결 그래프 중앙부 .....	123
[그림 5-3] 밈 내용 비 연계시와 밈 내용 연계시의 순위 변동 비교 .....	125
[그림 5-4] 질 들뢰즈 밈들의 출현 시기와 내용들 .....	127
[그림 5-5] 르 코르뷔지에 밈들의 출현 시기와 내용들 .....	133
[그림 5-6] 루이스 칸 밈들의 출현시기와 내용들 .....	141
[그림 5-7] 미스 반 데어 로에 밈들의 출현 시기와 내용들 .....	144
[그림 5-8] 김수근 밈들의 출현시기와 내용들 .....	151
[그림 5-9] ‘모더니즘’ 밈플렉스의 세부 밈들과 발산 시기, 인물 .....	154
[그림 5-10] ‘모더니즘’ 밈 발신자들과 밈 내용들의 연결 네트워크 .....	155
[그림 5-11] ‘구조주의’ 밈플렉스의 세부 밈들과 발산 시기, 인물 .....	159

[그림 5-12] ‘구조주의’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 연결 네트워크	160
[그림 5-13] ‘포스트모더니즘’ 밈플렉스의 세부 밈들과 발산 시기, 인물	162
[그림 5-14] ‘해우재’의 외관 .....	164
[그림 5-15]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현대산업개발 사옥과 로버트 벤추리의 빌딩 하우스 .....	165
[그림 5-16] ‘포스트모더니즘’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 연결 네트워크 .....	167
[그림 5-17] ‘해체주의’ 밈플렉스의 세부 밈들과 발산 시기, 인물 .....	168
[그림 5-18] ‘해체주의’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 연결 네트워크 ·	170
[그림 5-19] ‘후기 구조주의’ 밈플렉스의 세부 밈들과 발산 시기 .....	172
[그림 5-20] ‘후기 구조주의’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 연결 네트워크 .....	174
[그림 5-21] 매스가 분절된 형태의 웰콤 시티 사옥 .....	175
[그림 5-22] ‘생성의 철학’ 밈플렉스의 세부 밈들과 발산 시기 .....	177
[그림 5-23] ‘생성의 철학’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 연결 네트워크 .....	178
[그림 5-24] ‘주름’의 개념으로 설명되고 언급된 ‘선정릉 근린빌딩’의 실제 주름진 듯한 형태의 텍스처 .....	181
[그림 5-25] ‘현상학’ 밈플렉스의 세부 밈들과 발산 시기 .....	184
[그림 5-26] ‘현상학’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 연결 네트워크 .....	185
[그림 5-27] 미셸 공드리의 Let Forever Be-The Chemical Brothers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2차원과 3차원의 전환 장면 .....	187
[그림 5-28] ‘장소성’ 밈플렉스의 세부 밈들과 발산 시기 .....	192
[그림 5-29] ‘장소성’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 연결 네트워크 .....	193
[그림 5-30] 과거 서울컨트리클럽(좌, 나상진 설계)과 이를 리모델링한 꿈마루(우, 조성룡 설계) .....	197
[그림 5-31] ‘일상’ 밈플렉스의 세부 밈들과 발산 시기 .....	200
[그림 5-32] 모더니즘, 현상학, 장소성, 일상 밈플렉스들의 시대적 상대 지수 비교 면적 그래프 .....	203
[그림 5-33] ‘전통’ 밈플렉스의 세부 밈들과 발산 시기 .....	204

[그림 6-1] 5.2절의 사조들의 타임라인과 시대 구분 .....	210
[그림 6-2] 1960년대와 1970년대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 연결 네트워크 .....	212
[그림 6-3]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의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 연결 네트워크의 중심부 .....	215
[그림 6-4]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의 주요 밈 발신자 근접 중앙성 .....	216
[그림 6-5]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의 주요 밈플렉스 및 세부 밈 근접 중앙성 .....	216
[그림 6-6]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의 ‘전통’ 밈플렉스의 발신자들과 수신자들 .....	217
[그림 6-7]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의 ‘형태’ 밈플렉스의 발신자들과 수신자들 .....	218
[그림 6-8] 한국은행 본관에서 보여지는 과거 요소의 차용 형태 .....	220
[그림 6-9]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김수근을 중심으로 한 밈플렉스의 발신자들과 수신자들 .....	222
[그림 6-10] 1990년대 중, 후반과 2000년대의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 연결 네트워크의 중심부 .....	224
[그림 6-11] 1990년대 중, 후반과 2000년대 주요 밈 발신자 근접 중앙성 .....	225
[그림 6-12] 1990년대 중, 후반과 2000년대 주요 밈플렉스 및 세부 밈 근접 중앙성 .....	226
[그림 6-13] 2010년대의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 연결 네트워크의 중심부 .....	231
[그림 6-14] 2010년대 주요 밈 발신자 근접 중앙성 .....	232
[그림 6-15] 2010년대 주요 밈플렉스 및 세부 밈 근접 중앙성 .....	234
[그림 6-16] 시대별 주요 밈 발신자들의 근접 중앙성 순위 변화 .....	238
[그림 6-17] 시대별 주요 밈플렉스들의 근접 중앙성 순위 변화 .....	240
[그림 6-18] 시대별 주요 이론, 철학 밈플렉스들의 근접 중앙성 순위 변화 .....	242

[그림 6-19] 현상학과 후기 구조주의 밈플렉스의 재조정 이후 순위 변화	243
[그림 6-20] 60,70년대(왼쪽)와 80년대, 90년대 초중반(오른쪽)의 밈 발신자 직업군 분포 비교 .....	253
[그림 6-21] 90년대 중,후반과 2000년대의 밈 발신자 직업군 분포 .....	254
[그림 6-22] 2010년대 밈 발신자 직업군 분포 .....	256
[그림 6-23] ‘한국 현대 건축 평전’의 시대구분(左)과 본 연구의 시대구분 (右) 비교 .....	261
[그림 6-24] 한국 밈 발신자들의 밈 내용과 밈 수신자들을 연결한 네트워크 크 .....	263
[그림 6-25] 프랑스 밈 발신자들의 밈 내용과 밈 수신자들을 연결한 네트 워크 .....	264
[그림 6-26] 전 시대 밈 발신자, 밈 수신자들의 매개 중심성 .....	265
[그림 6-27] 밈 내용 비 연계시와 밈 내용 연계시의 순위 변동 비교 .....	267
[그림 6-28] 언급 횟수와 시대별 상대 지수 적용시의 순위 변화 .....	268
[그림 7-1] 본 연구의 밈 이론 기반 분석 방법 과정 .....	274
[그림 7-2] 기존 텍스트 분석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작성 방법(左)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네트워크 작성 방법(右) .....	276



# 제 1 장 서 론

-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3 관련 선행 연구
-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린다. 번식과 경쟁적 진화를 통해 이러한 현상은 지구상에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난 이래로 38억년동안 심해에서 극지대까지 전 지구에서 쉼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흥미롭게도 인간의 문화 또한 그와 같은 매우 유사한 현상을 보인다. 누군가가 만들거나 내뱉은 말이나 사고, 창작물들 중 어떠한 것들은 몇 백 년 혹은 몇 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인류에게 상속되며 지구상 전체 인류의 머리에 퍼진다. 또한 생명체의 유전자가 단순히 복사와 같은 번식만을 하는 것이 아닌 변이와 경쟁을 하는 것처럼 인간의 문화 또한 똑같은 현상들을 보인다. 누군가가 어떤 의견이나 사유를 제시하면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거치며 파생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며 새로운 사유를 낳는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종교들이 서로를 배척하고 자신이 옳다고 내세우며 전쟁으로 이어지거나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노래들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애쓰는 현상들을 봐도 유전자의 경쟁과 비슷한 현상들이 문화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생명체에서 복사, 변이, 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유전자인 것처럼, 동일한 현상을 보이는 인간의 문화적 산물들을 밈(Meme)이라 부르며 이는 1976년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sup>1)</sup>가 그의 명저인 이기적 유전자(Selfish Gene)<sup>2)</sup>에서 최초로 주장하였다.

한편, 건축 또한 인간이 만든 문화의 일부이기에, 복사, 경쟁,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밈 현상들이 당연하게 일어난다. 어떤 건축가의 작품 혹은 사고, 글 등 중 어떤 것들은 후세의 건축가들에게 계속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건축가들 사이에 토론과 또 다른 사고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게다가 현대는 미디어의 발달로 건축가들 간의 상호작용이 과거의 그것들보다 훨씬 더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건축의 세계화, 패션화, 상업화에 따라 건축가들이 자신들의 스타일, 이론 등을 내세우며 건축계의

1) 1941년 출생, 영국, 동물행동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대학원 졸업, UC버클리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았으며 영국 왕립학회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이기적 유전자”, “확장된 표현형”, “만들어진 신”과 같은 진화론과 무신론에 관한 베스트셀러들을 집필하였다.

2)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출판. 진화의 주체가 인간 개체나 종이 아니라 유전자이며 생물체는 유전자 보존과 번식을 위해 프로그램 된 기계와 같다고 주장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며 국내에서도 과학부문 도서 중 누적 판매량이 가장 많다.

유행을 이끌려는 움직임이 더 심화되고 있다. 국내 건축계 또한 당연히 그러한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인터넷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의 건축가, 이론가들로부터 실시간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듯 건축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문화 예술 분야에 밈들이 존재하지만 밈들을 정량적으로 계량해보거나 조사해보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리처드 도킨스가 40년 전에 밈 가설을 발표한 이후로 수전 블랙모어(Susan Blackmore), 리처드 데넷(Richard Denett), 장대익 등의 국내외 학자들이 밈에 관해 연구를 해왔지만 90년대 후반 발견된 거울뉴런을 제외하고는 아직 물리적 실체가 발견되지 않은 실정이라 밈의 측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밈 분야나 생물학, 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밈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밈의 정의, 역사, 현재 실체로써 밈 연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미술을 중심으로 한 예술 분야에서도 가끔씩 밈을 연관시켜 진행된 연구들이 있었으나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밈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몇몇 작품을 정성적으로 분석하는데 밈의 특성을 적용하여 설명하는데서 그친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밈 이론에 기반하여 밈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려는 시도를 국내 건축계의 담론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계량화 하는 시도는 건축계는 물론 밈학 분야에서도 거의 시도된 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매우 통섭적인 성격을 지니며 다소 낯선 연구가 될 것이다. 밈 이론의 관점에서 담론들을 분석해보면 담론계의 인물들과 내용들의 흐름과 관계 등 기준에 볼 수 없었던 사항들을 볼 수 있고, 담론들을 밈이라는 개체로 치환하면 정량화하기 용이해 보다 더 객관적인 담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결과적으로 담론과 인물간의 관계,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밈 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결과들을 보여준 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석 방법의 타당성과 효용성을 고찰해볼 것이다. 즉, 본 연구는 밈 이론에 기반한 담론의 조사 방법을 제안하고 결과를 분석한 뒤 검증하는 방법론 연구이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유전자가 단백질 기호를 이용해 암호화해서 자신을 복제하는 것처럼, 밈 또한 그렇게 복제될 때가 정확도와 영향력이 높다. 예를 들어 요리나 음악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될 때, 요리 자체를 보거나 음악 자체를 듣고 복제하는 것 보다 텍스트로 쓴 레시피를 보거나 음표와 같은 기호를 이용해 쓴 악보를 이용해 복사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며 많은 이들에게 오랫동안 전파될 수 있고, 종교의 경우 역시 기독교나 이슬람교, 불교와 같은 주요 종교들이 성경이나 코란, 불경과 같은 텍스트를 이용하여 다른 여타의 소수종교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교리를 전파하고 오랫동안 전달시킬 수 있었다. 즉, 텍스트가 밈이 전파되는데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으로, 르 코르뷔지에(Le Corbuiser)가 ‘에스프리 누보 (L’esprit Nouveau)’라는 건축 잡지를 30대에 창간하여 이 잡지를 통해 자신의 작품들과 생각들을 전파한 것이 세계적 명성의 시발점이 된 것, 렘 콜하스(Rem Koolhaas)가 건축가가 아닌 저널리스트로서 저술활동을 통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 한국 건축계 역시 김수근이 공간지를 발간한 것과 같은 현상들 역시 이러한 현상들의 증거가 된다.

따라서, 건축인들의 생각과 상호영향이 명시적이고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건축인들 각자의 밈들의 치열한 전시장이 되는 장(場)이 건축인들이 직접 쓴 텍스트들일 것이라 전제하는데 무리가 없었고, 가장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며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들과 작가들의 텍스트가 가장 많이 실려 있는 수단으로 건축 잡지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국내 건축 잡지들 중 역사와 독자층 등을 종합해 ‘공간’지(1966-)를 연구 대상 잡지로 선정하고, 잡지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리뷰 텍스트들을 분석하기로 한다.

‘공간’지를 창간호부터 모두 살펴보며 건축물 리뷰 및 건축가 인터뷰 텍스트에서 밈을 채집하여, 이 밈들을 정제하고 분류한 뒤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다. 결과적으로 인물이나 특정 사조, 시대별로 중앙성 및 흐름을 관찰하고자 하였고, 도출된 사항들을 이용해 다양한 결과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밈 이론에 기반한 담론 분석 방법의 타당성과 효용성을 고찰하기 위해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존 역사 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가며 검증한 뒤 본 연구만으로 도출될 수 있었던 결과들을 함께 보여주며 방법론을 정립하기로 한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 1.3. 관련 선행 연구

수적으로 볼 때, 밈과 건축을 주제로 행해진 연구는 많지 않다. 밈을 소재로 한 연구는 주로 신경과학 분야, 사회학 분야에서 행해져 왔으나 건축 분야에서는 2000년 이후 학문간 영역의 통섭적 분위기 속에서 건축과 밈 이론이 접목된 몇 개의 연구들만이 행해졌다.

[표 1-1] 밈과 건축을 소재로 한 선행 연구들

연구 제목	연구자	출처	시기
Darwinian Processes and Memes in Architecture : A Memetic Theory of Modernism	Salingros, N. A.	Journal of Memetics	2002
Architectural memes in a universe of information		Mondes Francophones	2006
재생 공간에 나타나는 밈(Meme)적 특성 연구 : 독일의 즐페라인 탄광 지구 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이현진	국민대 공간디자인 석사논문	2015
네트워크 이론을 통한 디지털 공간의 구조 도출 : 디지털 장(Field)을 구성하는 디지털 밈(Meme)의 요소를 중심으로	주명일	경기대 건축대학원 석사논문	2004
현대 모뉴먼트 공간에 나타나는 밈(Meme)적 표현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남선영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
밈의 현상이 문화에 수용되는 공간적 구조	윤일	한국 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2009

‘Darwinian Processes and Memes in Architecture: A Memetic Theory of Modernism’과 ‘Architectural memes in a universe of information’은 미국 텍사스대 교수인 Salingaros, N. A.가 모더니즘을 소재로 건축에서 나타나는 다윈 과정과 밈에 관해 연구한 학술논문이다. 건축에서의 밈의 존재를 확실히 전제 하고 밈의 역할을 과감히 제시했다는 점이 흥미로우

나 모더니즘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밈의 역할들에 대한 근거들이 설득력 있게 와 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점이다.

‘재생 공간에 나타나는 밈(Meme)적 특성 연구 : 독일의 줄페라인 탄광 지구 재생 사업을 중심으로’는 국민대 공간디자인 석사논문으로, 독일 줄페라인 탄광지구에서 행해지는 재생 사업들에서 나타나는 밈의 특성이 무엇인지 분석한 것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건축 속에서 밈의 특성을 찾으려는 시도는 흥미로우나 단지 몇 개의 사례에 그쳐 분석 결과들이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밈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밈을 찾아내는 것이 아닌, 밈의 특성에 맞추어 대상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점이 본 연구의 방향과 달라 아쉬운 연구였다.

‘네트워크 이론을 통한 디지털 공간의 구조 도출 : 디지털 장(Field)을 구성하는 디지털 밈(Meme)의 요소를 중심으로’는 경기대 건축대학원 석사논문으로, 시기적으로 국내에서 밈이라는 개념을 연구 소재로 매우 일찍 다룬 연구에 해당한다. 이 논문은 건축전문대학원에서 연구된 논문인데, 물리적 공간이 아닌 디지털 공간을 다루고 있으며, 밈을 디지털 공간 안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나 프로그램처럼 인식하고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서 밈과 디지털 공간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끼치는가를 간략히 알아보고 있다.

‘현대 모뉴먼트 공간에 나타나는 밈(Meme)적 표현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는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에 실린 학술논문으로, 앞서 소개한 ‘재생 공간에 나타나는 밈(Meme)적 특성 연구 : 독일의 줄페라인 탄광 지구 재생 사업을 중심으로’와 상당히 비슷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연구 역시 모뉴먼트 공간, 즉 기념 박물관 같은 시설을 두고 그 안의 공간들이나 형태가 어떤 밈적 특성을 갖는지를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밈의 현상이 문화에 수용되는 공간적 구조’ 역시 밈 현상이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문화와 공간적 구조에서 밈적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정성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론 부분에서 밈에 관해 자세히 들여다본 점은 흥미로우나 이 연구 역시 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 등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을 주었다.

밈과 건축이 아닌, 밈만을 소재로 한 연구는 상기 서술한 연구 외에도

국내외에 존재한다. 하지만 어떤 대상에 존재하는 밈을 측정하고 관찰하려는 연구가 아니라 대개 밈 이론 자체에 관한 연구이거나, 소개한 연구들에서 보듯 밈이 보이는 특성이나 현상을 가져다 정성적 분석의 틀로 연구자가 원하는 대상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그러므로 연구 방법적 측면에서는 본 연구와 다소 방향이 다르긴 하나 밈 이론의 프레임으로 건축계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했다는 시도들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 이전에 참고할 수 있는 선행연구들이 되었다. 이와 같은 밈과 건축의 통섭적 연구들의 등장들은 향후 유사한 연구들이 계속하여 행해질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2.1 밈과 문화 복제자

2.2 건축과 밈의 접목

---

## 2.1. 밈과 문화 복제자

### 2.1.1. 유전자, 복제자, 그리고 다윈

1976년, 영국의 동물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이기적 유전자’는 유전자의 역할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 전까지 유전자라는 것은 왓슨(J. D. Watson)과 크릭(F. H. Crick)이 유전자의 구성 물질인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힌 것 까지가 일반인에게 알려진 전부였을 뿐 그 이상의 역할이나 의미는 대중들에게 크지 않았고 인식이 미미했다.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유전자란 스스로 복제, 전파되려는 성질을 갖고 있으며 생명체는 이 유전자를 운반하는 기계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도 물론 그와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도 유전자가 퍼지려는 의도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논지의 주장을 다양한 증거와 자신의 생물학적 전공지식을 이용해 펼쳐냈다. 이러한 주장은 종전까지 인간을 자율적이며 의지적인 존재로 바라보던 시각과 다른 것이었으므로 기존의 종교적, 윤리적 세계관과 배치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큰 반향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한편으로 인간을 개체 중심이 아닌 유전자의 의도와 진화의 결과로써 바라보고 연구하는 진화심리학, 진화행동학과 같은 학문의 발달도 동시에 촉발시켰다.

도킨스는 열렬한 다윈 진화론자로서 ‘이기적 유전자’를 비롯한 후속작인 ‘확장된 표현형’, ‘눈먼 시계공’과 같은 저서에서 꾸준히 다윈의 진화론을 유전자적 관점에서 풀어내고 바라보았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행되었던 1859년만 하더라도 다윈의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었고 그럴듯한 아이디어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학자들에 의해 자연 선택설이 점점 지지되고 1953년 왓슨과 크릭에 의해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밝혀지고 그 후 실험 관측 기술의 발달로 유전자가 직접 세포핵에서 관찰이 되면서 다윈의 진화론은 현대과학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상당부분을 유전자와 진화

론에 관해 설명을 하는데 생명체의 진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크게 유전, 변이, 선택이라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음 분류와 설명들은 도킨스는 물론이고, 일찍이 찰스 다윈에 의해 ‘종의 기원’에서 설명되었던 것들이기도 하다. (물론 ‘종의 기원’에서 유전자나 DNA와 같은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았다.)

유전 : 부모나 선대개체의 형질이 후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DNA의 복제에 의해 유전 정보가 복사되며 DNA에 내재되어 있는 유전코드들은 사실상 개체의 모든 성질을 결정하게 하는 인자이다. ‘이기적 유전자’에서는 유전자가 스스로 복제-유전-되려는 성질이 강하며 그에 의해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이 결정되고 인간이 유전자 운반 기계 역할을 한다고 주장되어 있다.

변이 : 변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에서 기인한다. 첫 번째 원인은 생물체의 생식 메커니즘으로, 생물체가 생식을 할 때에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형성하는데, 이 때 생식세포에 담기는 부모세대의 유전자가 무작위하게 생식세포에 담기게 된다. 게다가 이 암수의 생식세포가 수정되어 조합될 때 다시 각자의 유전정보가 섞여 조합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로 동일한 부모 밑의 후손들임에도 전부 다른 형질들을 갖게 된다.

두 번째 원인은, 돌연변이이다. 유전자는 G(구아닌, Guanine), A(아데닌, Adenine), T(티민, Thymine), C(시토신, Cytosine) 라는 네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DNA코드를 이용해 자신을 복제한다. DNA에 담겨있는 엄청난 양의 정보는 이 네 종류의 아미노산을 이용해 상당한 정밀도로 거의 오류 없이 복제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거의 오류 없이 체세포 복제가 되고 있으며 아주 가끔 오류가 생겨서 잘못된 복제가 되도 이를 바로잡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체세포 분열뿐 아니라 당연히 생식세포의 분열 시에도 같은 복

제가 일어나기에 부모의 형질은 후손에게 유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개의 수정과 번식 과정에서는 부모의 형질이 올바른 방법으로 섞이고 유전돼서 문제가 없이 후손이 만들어 지지만, 간혹 복제상의 오류가 일어나게 된다. 이 오류의 결과로 태어나게 되는 개체가 흔히 우리가 “돌연변이”라 부르는 것으로, 신체의 일부가 없거나 변형되거나 추가되기도 하며, 겉으로 보이지 않는 신경계나 뇌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선택 : 상기된 변이를 통해 다양한 형질을 갖는 개체들과 돌연변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개체는 다른 개체들과 다른 형질들로 인해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상태 혹은 그렇지 못한 상태 중 하나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현대의 수많은 생물체의 유전‘병’이라 불리는 것들은 신체의 일부가 없거나 쓸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삶을 영위하는데 더 불리하며 자연히 다른 정상인 개체들보다 번식의 성공률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나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만약 눈이 없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개체들 사이에서 돌연변이에 의해 빛을 회피하게나 감지할 수 있는 세포를 가지게 된 개체가 생겨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개체는 그 회피한 감지 능력만으로도 다른 개체들보다 월등히 환경에서 잘 생존하게 될 것이다. 포식자를 잘 피할 수 있게 되기도 할 것이며 낮과 밤, 심해나 동굴 등 자신이 있는 위치도 더 잘 감지하게 되는 등 자신의 유전자를 다른 개체들보다 보다 성공적으로 퍼뜨리는데 유리하며 누적된 유전은 다른 개체들을 누르고 이 개체의 후손이 더 번식에 성공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sup>3)</sup>

이와 같은 변이와 선택, 유전에 이르는 간단한 원리가 결국 찰스 다윈

3) 이 예는 실제로 지구상 생명체의 진화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며 그 빛을 감지하는 회미한 세포가 계속 변이를 거듭해 발전하게 된 것이 인간의 정교한 눈과 같은 산물이다.

진화론의 핵심인 자연선택이었다. 39억년에 이르는 생물체의 번식과정에서는 당연히 천문학적 숫자의 생식, 유전자 재조합과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것이며 그중 일부라도 자연 환경에 보다 잘 적응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변이는 계속 살아남아 유전되었을 것이고 그 변이의 변이가 누적되어 결국 39억 년 전 하나의 원핵세포가, 날개를 가진 새, 아가미를 가진 어류, 고도의 사고과정을 할 수 있는 뇌를 가진 인류로 진화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 지구적 생명체의 번성에는 유전자 스스로가 자신을 복제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도킨스의 주장이자 ‘이기적 유전자’의 핵심 내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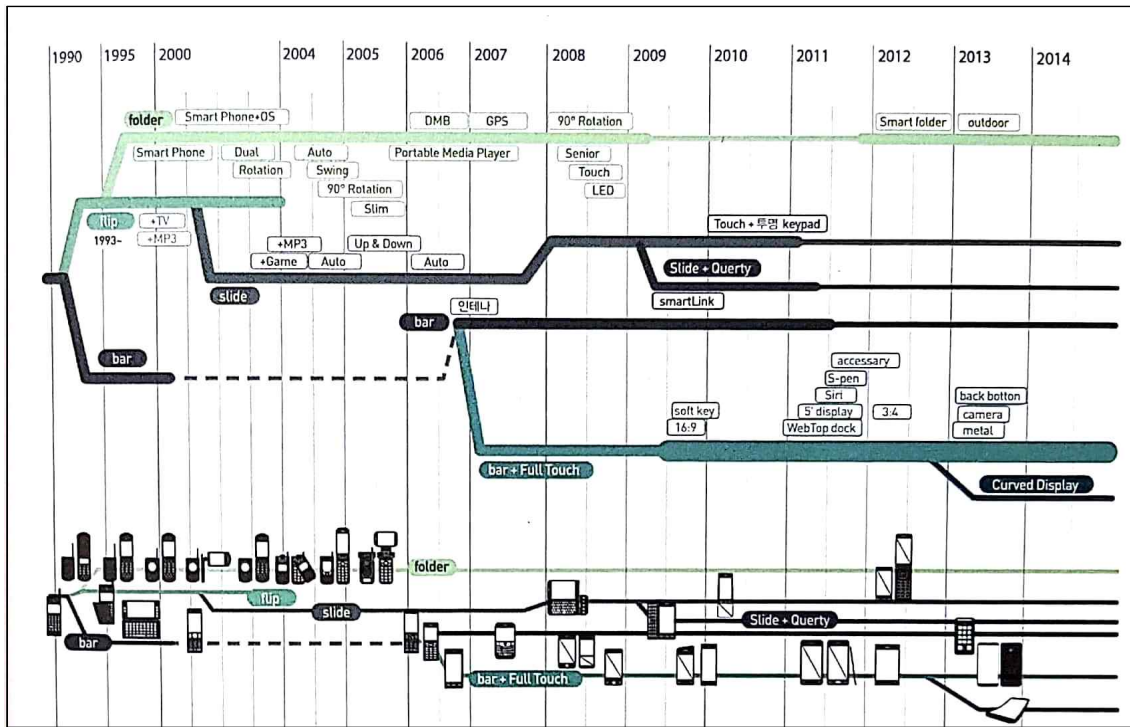
이렇듯 변이와 선택을 중심으로 하는 누적 진화 과정인 자연 선택 혹은 ‘다윈 과정’(Darwinian Process)은 꼭 생물학의 진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다윈 과정은 유행하는 인공물, 문화적 아이디어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 디자인의 경우에 사조마다, 건축가마다, 건물마다 다른 각각의 디자인들은 디자이너의 마음속에서, 혹은 물리적 환경속에서 다른 가능성이나 디자인들과 경쟁하고 가장 알맞은 것들이 다음 세대로 살아남는다. 더 자세한 디자인들은 더 발전된 대안들을 만들고, 그 대안들은 선택에 의해 다음 라운드에서 환경에 의해 선택되거나 도태된다. 그 사이클은 변종들의 창조로 시작되고, 그 변종들은 선택적 기준의 셋트를 함으로써 도태된다. 생존한 것들은 변종들의 새로운 세대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고, 또 도태되고, 이것이 계속된다. 이것은 전형적인 다윈 과정이다.<sup>4)</sup>

또 다른 예로, 스마트폰의 경우 2007년 애플 아이폰이 만들어진 이후 수많은 변종들이 출현하였고 환경(대중들)의 선택을 거치고 소수의 회사와 운영체제들만이 살아남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sup>5)</sup> 이 과정 역시 전형적인 다윈 과정이다. 이렇게 인공물들의 진화를 다윈 과정으로 분석한 연구는 수없이 많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진화’라는 단어가 반드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종이 생기고 환경의 선택을 받은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며 변화가

4) Salinger, N. A. and Mikiten, T. M. (2002). Darwinian Processes and Memes in Architecture: A Memetic Theory of Modernism. *Journal of Memetics - Evolutionary Models of Information Transmission*, 6,7,8.

5) 윤주현. (2017). DEPST의 트렌드 분석을 통해 본 모바일폰의 진화. 인공물들의 진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p.94-146.

누적, 유전되는 과정을 진화라고 하는 것이다.



[그림 2-1] 생명체의 진화와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 핸드폰의 진화  
(출처 : 윤주현. (2017). DEPST의 트렌드 분석을 통해 본 모바일폰의 진화. 인공물들의 진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137.)

생물학의 영역에서 다윈 과정을 끄집어내 다른 분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유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유전자가 갖고 있는 여러 성질 중 가장 중요한 본질은 리처드 도킨스가 말한 것처럼 ‘복제자’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맨 처음 복제를 하게 된 단분자 구조의 그 무엇이 지구를 뒤덮고 있는 수많은 생물체들의 뿌리가 된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화학자 케언스 스미스(Cairns Smith)는 DNA의 기원에 대해 ‘무기광물질 이론’을 주장했고, 최초의 복제자는 규산염 계열 무기질의 결정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결정들은 거의 대부분 흙이 있고 흙이 생기면 그 위 새로 생기는 층에도 그 형태가 그대로 복사된다. 그렇게 결정이 자라다가 몇 개의 조각으로 부러지면 그것들은 새로운 씨를 뿌리는 썸이 된다. 그 각각의 조각들은 그렇게 부모 결정이 갖고 있는 흙의 형태를 그대로 물려받는다.

케언스스미스는 이 점토 결정 복제자들이 초기에 사용한 것이 단백질이나 당류, RNA같은 핵산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RNA같은 분자들은 음의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점토 입자를 끌어 모아 결을 둘러싸게 만들 수 있다. 광물 결정, 즉 ‘유전자’가 RNA(또는 비슷한 물질)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RNA가 스스로 복제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RNA가 자기 복제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앞서 말한 다윈 과정-자연 선택-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sup>6)</sup>

그렇다면 유전자를 포함한 ‘복제자(replicator)’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리처드 도킨스는 복제자를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어떤 것’ 혹은 ‘외부 세계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기 자신의 복사본을 만드는 존재자’라고 규정한다. 또한 생물철학자 헐(David Hull)에 따르면 복제자는 ‘자신의 구조를 다음 세대에 대체로 그대로 전달하는 어떤 존재자’인데, 이러한 정의들에 따를 경우 유전자가 전형적인 복제자가 되는 것이다.<sup>7)</sup> 또한 이러한 복제자의 요건으로 도킨스는 ‘수명’, ‘산출력’, ‘복제 충실도’를 들었다. ‘수명’은 복제자가 복제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안정성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산출력’은 자신을 널리 퍼뜨리려는 힘이며, ‘복제 충실도’는 자신과 어느 정도 유사하게 복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sup>8)</sup>

도킨스와 헐 외에도 학자들마다 복제자들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르나 분명한 건 이 복제자의 요건들에 맞는 것이 유전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도킨스는 여기서 유전자처럼 복제자의 조건에 놀랍도록 부합되며 다윈 과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무엇이 있다는 통찰력을 보였다.

그것은 ‘인간의 문화’ 였다.

### 2.1.2. 문화 복제자, 밈(Meme)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의 후반부에서 또 하나의 도발적인 가설을 제시한다. 유전자가 생명체의 진화과정에서 유전, 변이, 선택 3가지를 받

6) 리처드 도킨스. (2004). 눈먼 시계공. 6장 생명탄생의 기적. 사이언스 북스.

7) 장대익. (2015). 인간 본성의 진화론적 이해, 과학적 사유와 인간 이해: 시대와 새로운 과학. 민음사.

8) 장대익. (2017). 인공물의 진화와 혁신:비유를 넘어서, 인공물의 진화. 서울대 출판부, pp.26-27.

현하는 실체이자 생명체의 행동을 결정짓는 인자인 것처럼, 인간의 문화 역시 생명체의 유전, 변이, 선택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며 이를 이끄는 인자가 바로 ‘밈(Meme)’이 라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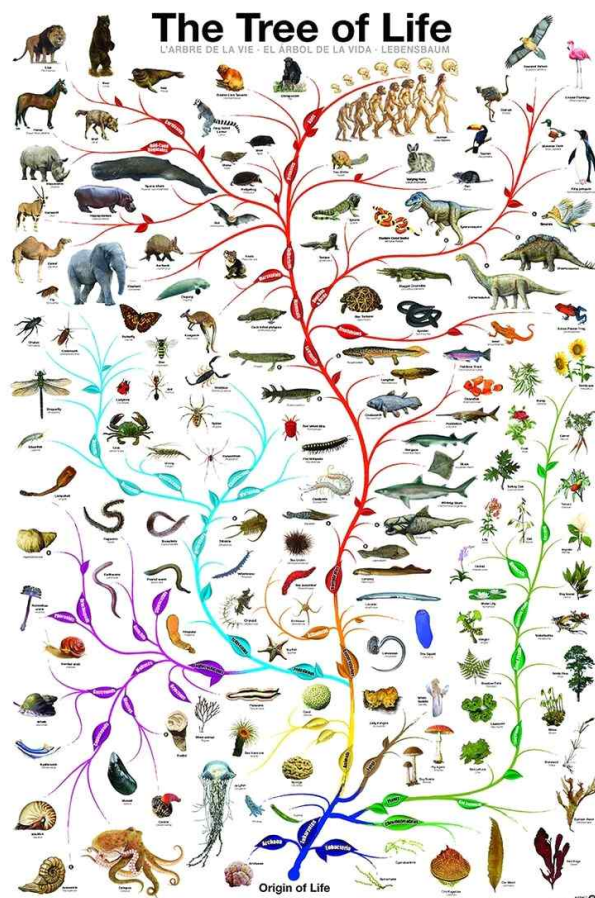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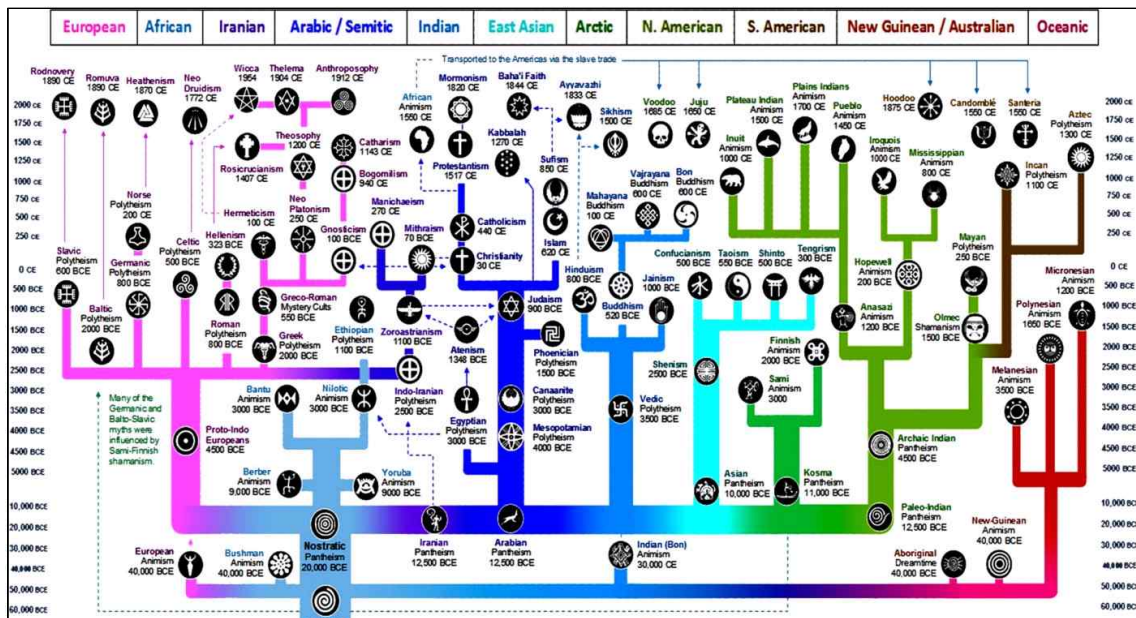
실제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적 산물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유전, 변이, 선택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가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이 유전자의 유전과 똑같고, 그것이 퍼지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과장이 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질이 되기도 한다. 그것이 생명체에서 볼 수 있는 변이이며, 그 변형된 여러 내용들 중 가장 자극적이거나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어떠한 것들 몇 개가 특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을 것이다. 그것이 생명체에서 볼 수 있는 선택과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의 다른 분야 곳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매일 쏟아지는 신곡들 중 어떤 것들은 더 기억이 잘되고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급격히 퍼진다. 그리고 그 곡들은 표절이든 오마주든 리메이크든 다른 창작물에 또 다른 영향을 끼치며 변이한다. 누군가가 남긴 격언 역시 특별히 더 잘 기억되며 그것은 사람들에게 급속히 퍼진다. 미술, 패션의 유행 또한 똑같은 현상을 보인다. 건축도 물론이며, 아마도 가장 강력한 유전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인간의 문화는 종교일 것이다.

종교는 그 어떤 문화적 무형적인 인간의 자산보다 강력한 유전적 속성을 지닌다. 성경과 코란에는 자신의 교리들을 모든 인류에게 가능한 많이 전파하라는 예수와 무하마드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다. 이러한 주요한 뿌리가 되는 종교들은 수많은 분파를 형성했다. 기독교만 하더라도 제칠일 안식교, 장로교, 루터교 등 국내외에 수많은 형태의 변형된 기독교가 존재하며 자신이 정파고 다른 모든 파들은 이단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생명체의 유전에서 볼 수 있는 변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분파들 중 시대와 장소에 맞는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등과 맞물리며 몇 가지 파들이 번성에 성공하게 되면 그것들이 정파로 받아들여진다. 그것이 생명체 진화에서 볼 수 있는 선택과 흡사한 것이다.

이렇듯 문화를 들여다보면 생명체의 유전에서 보이는 현상들과 비슷한 현상들이 매우 흡사하게 나타남을 단번에 알 수 있는데 도킨스는 그것을 유





[그림 2-2] 종교의 분화와 생물 진화의 유사성  
(출처 : <http://www.courseinreligion.org>)

발하는 요인이 ‘밈’이라는 과감한 주장을 편다. ‘밈(Meme)’이라는 단어는 ‘mimesis’라는 그리스어에서 차용한 것인데, 이는 ‘복제’라는 뜻을 갖고 있다. 즉, 유전자와 같은 또 하나의 복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뇌 속에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뇌로 유전자처럼 가능한 많이 퍼지려 하는 또 다른 복제자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복제자로서 밈과 유전자의 목적은 동일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유전자와 다음과 같은 차이들을 보인다.

1. (인간을 비롯한 대다수 동물들의) 유전자는

단백질을 합성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밈은 행동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인간의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세포핵에 있는 유전자는 이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인간의 신체가 각각 다르게 만들어지게 된다. 하지만 밈은 인간의 행동을 만든다. 즉, 유전자가 컴퓨터의 하드웨어 설계도라면, 밈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코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2. 유전자는 세포핵에 G(구아닌, Guanine), A(아데닌, Adenine), T(티민, Thymine), C(시토신, Cytosine) 네 가지 종류의 아미노산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 DNA사슬의 배열로 암호화 되어 저장되어 있다. 하지만 밈은 언어, 이미지, 사교의 형태로 뇌에 저장되어 있다.

3. 유전자는 생식을 통해 조합되고 다른 몸으로 전달되고 후손을 만들지만 밈은 모방을 통해 다른 뇌로 전달된다. 따라서 모방의 과정에서 의도적 혹은 실수로 변이가 만들어지기도 하며 이 모방은 다른 동물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특징이자 능력이다.

4. 결국, 유전자는 서로간의 경쟁으로 생물계의 진화를 이끌어낸다. 여기서 말하는 경쟁이란 다른 유전자들보다 더 환경에 잘 적응해서 자신의 유전자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퍼지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밈은 서로간의 경쟁으로 문화와 생각의 진화를 이끌어낸다. 이를 위해 밈들 역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인간들의 뇌 속에 침투하려 경쟁한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밈 이론과 밈학<sup>9)</sup>은 진화행동학이나 진화생물학이

9) 밈의 관점에서 인간의 문화 전달과 진화를 설명하려는 자연주의적 시도 - 장대익. (2012). 호모리플리쿠스 : 모방, 거울뉴런 그리고 밈. 인지과학 제23권 제 4호, p.542.

설명할 수 없는 인간들의 행동이나 사회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기도 한다. 진화행동학이나 진화생물학에선 인간의 모든 행동과 사회현상의 원인을 인간이 진화하는데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느냐의 원리로 설명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전자 번식의 유리함이라는 진화생물학적 관점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들이 인간 사회에는 많이 존재한다.

[표 2-1] 유전자와 밈의 비교 (내용 출처 : Susan Blackmore. (2010). 밈. 바다출판사.)

	유전자	밈
만들고자 하는 것	단백질	행동
저장되는 곳	세포	뇌
전달 수단	생식	모방
경쟁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	생물계의 진화	문화, 생각의 진화

예를 들어, 입양은 진화생물학적 측면에서 유전자의 번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은 인간만이 하며 다른 생물체는 입양을 하지 않는다. 뼈꾸기처럼 속아 넘어가거나 알이나 새끼가 의탁되는 몇몇 어류 등이 있으나 이걸 어디까지나 본능과 속임수에 의한 것이지 인간처럼 순수한 이타심이나 측은지심에서 발로되는 행동들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입양은 진화생물학으로 설명되기 힘든 부분이다. 하지만 밈 이론으로는 입양을 하는 인간의 행동이 설명 가능하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유전자만이 아닌 밈을 함께 퍼뜨리는 개체이기 때문에 생식과 친자식을 통해 유전자가 퍼뜨려지지 않더라도 입양을 통한 후손을 통해 자신의 밈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갖기 때문에 입양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장인(匠人)들이 자신의 기술을 죽기 전에 수제자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행위나 부자들이 자선재단 등을 만들어 사회에 족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행위와 유사하다. 유전자의 전달과 상관없이 밈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입양 외에 인간의 다른 이타적 행동들도 마찬가지로인데, 진화생물학에서는 인간의 이타적 행동들을 개체 단위가 아닌 집단 단위의 유전자 번성에 이득을 주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을 한다. 예를 들어, 다친 어떤 사람을 발견했을 때

도와주는 행위는 개체 단위인 나 하나의 입장에서는 시간, 금전, 에너지 소모와 같이 손해가 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유전자를 전달하는 것이 생명체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땐 남을 도와줄 이유가 없지만 남을 도와줌으로써 내가 해를 당했을 때 역시 남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호혜적 관계가 성립되고, 같은 가족이나 넓게는 같은 국적을 가진 국민의 경우 나의 유전자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타인을 돕는 것이 나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데 약간의 이득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밈 이론으로는, 인간의 이타적 행위가 밈을 다른 이들에게 퍼뜨리는데 유용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행해진다는 설명도 있다. 이타적 행위를 하는 개체는 다른 이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게 되며 따라서 자신의 밈을 퍼뜨리는데 더 유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번식의 목적 이외에 단순 유희 혹은 친교를 맺는 목적으로 성관계를 갖기 위해 인생의 엄청난 시간을 쏟는데 이 또한 진화생물학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유전자를 퍼뜨리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밈 모델을 이용하면, 성관계를 통해 맺어지는 관계의 높은 친밀도가 밈을 퍼뜨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이러한 행동들을 한다고 설명되어진다. 사람들이 포르노에 빠지는 것도 밈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원래 포르노는 남성의 섹스 본능의 부산물로 만들어졌을 것이며 우리의 두뇌 신경계는 이를 향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포르노가 지금은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엄청난 속도와 양으로 우리의 뉴런계를 자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두뇌가 포르노를 즐긴다기보다, 포르노 밈이 우리들 뇌의 뉴런계를 ‘갈취’한다고 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다. 즉 포르노의 확산을 통해 이득을 보는 수혜자는 포르노를 보는 소비자도 아니고 산업 종사자도 아닌 포르노 밈 자신일 수 있는 것이다.<sup>10)</sup>

이 밖에도 현대인들이 과거보다 높은 비율로 결혼을 통한 후손 번식보다는 자신의 일을 통한 커리어 성취에 더 관심을 쏟는 것도 유전자를 퍼뜨려야 한다는 생명체의 의무적 관점으로 볼 땐 설명이 힘들지만 밈을 퍼뜨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땐 설명이 가능해진다. 결혼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더 많은 명망과 커리어를 쌓는 것이 타인에게 밈을 퍼뜨리는데 유용하게 되

10) 장대익. (2017). 다윈의 정원. 7장 왜 포르노에 빠지는가?. 바다출판사.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사한 현상으로, 음악이나 미술을 뛰어나게 잘하거나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이 이성 편력들이 많은 이유도, 이러한 사람들이 mim을 남보다 더 잘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유전자의 번식을 하지 않더라도 mim을 많이 퍼뜨리는 개체인 이른바 ‘mim 분수’의 역할로써 행동의 동기를 대체한다는 것이다.<sup>11)</sup>

영화나 뉴스와 같은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명예나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예도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명예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는 유전자의 전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후손이 있는 사람의 경우엔 오히려 후손의 양육을 책임지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유전자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남아있게 되는 확률을 낮추게 된다. 이타적 행위는 후에 자신의 유전자 전달에 있어 타 개체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남겨준다지만, 명예를 위한 죽음은 바로 그 순간에 유전자 전달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유전자의 관점에서 볼 땐 하등 의미가 없는 행위인 것이다. 하지만 mim의 관점에서 볼 땐 180도 상황이 달라진다. mim의 전달이라는 입장에서 볼 땐, 개체가 죽음으로써 명예를 얻거나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해당 인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 죽음을 선택한 인물의 mim이 엄청나게 퍼질 기회를 얻게 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와 같은 격언은 유일하게 mim이라는 복제자를 갖고 있는 인간과 mim이 없는 동물간의 극명한 생존 목적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사고와 발달된 두뇌를 통해 mim이라는 복제자를 갖게 되고 이에 다른 동물들에게선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 행위들을 설명하는데 있어 mim 모델이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다.

이처럼 mim 모델은 인간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많은 현상들을 유용하게 설명해주지만 mim이란 것이 유전자처럼 관측된 물리적 실체가 아니므로 mim 이론에는 반론들이 뒤따라왔다. 하지만 19세기 멘델이 유전현상을 관찰하고 유전현상을 결정짓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 추정했지만 그 실체는 100년이 더 지난 후에야 유전자라는 물리적 실체로 관찰된 것처럼, mim 역시 그러한 상황이라고 mim 연구학자들은 주장한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들어 이

11) Susan Blackmore. (2010). mim. 바다출판사, pp.252-273.

러한 밈 이론을 뒷받침 해주는 뇌신경학 이론이나 발견들도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유전자가 생식을 통해 전달된다면, 밈은 인간의 모방을 통해 전달된다. 인간에게는 모방보다 창작이라는, 사고와 행위가 더 고도화 되어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방은 쉽고 별것 아니게 생각되곤 하지만 남을 따라하는 모방능력은 다른 어떤 동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과 영장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고도화된 능력이다.

모방은 세 가지 과정을 필요로 한다. 1. 무엇을 모방할지 결정해야 하고, 2. 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변환 사고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3. 이런 사고의 결과들을 적절한 육체적 행동을 통해 실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sup>12)</sup>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춤추는 것을 보고 이를 따라 한다고 해보자. 먼저 무엇을 모방할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로봇이 춤추는 사람을 따라하려 한다면 그 사람의 아주 사소한 제스처 하나하나까지 모방하려 할 것이다. 춤동작과는 상관이 없는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의 움직임, 찡그리는 눈과 흘쩍이는 코 등 춤과 의미 없는 동작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따라해야 하는 동작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구별하며 그 동작만을 모방해야 할 대상으로 순식간에 분류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분류된 모방해야 할 동작을 따라 하기 위해 이를 자신의 관점에서 실행해야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사고한다. 일단, 모방 대상이 나와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볼 때 왼쪽의 팔을 든다면, 나는 오른쪽 팔을 들어야 할 것인데 이 역시 순식간에 판단되어야 하며, 상대가 일련의 동작을 하면 나 역시 그 순서와 각각의 동작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구나 라는 사고를 거쳐야 한다. 그 후 마지막으로, 생각한 동작들을 똑같이 사지를 이용해 표현해내는 실행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이런 모방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까?

1996년, 이탈리아의 신경심리학자 자코모 리졸라티(Giacomo Rizzolatti)는 원숭이의 동작과 뇌의 활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 우연히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한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만 있는데도 원숭이 자신이 움직일 때 반응하는 뉴런

12) Ibid., p.159.

들이 마찬가지로 반응한 것이다. 이것이 ‘DNA이후 최고의 발견’이라 일컬어지는 거울 뉴런이었던 것이다.<sup>13)</sup> 이후 인간의 뇌에도 이 거울 뉴런회로가 존재함이 여러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다.<sup>14)</sup> 물체를 잡는 사람을 보거나 무의미한 팔 운동을 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관찰하기만 하는데도 손과 팔의 근육에서 운동유발전위가 측정된 것이다.

거울 뉴런의 이런 특성은 인간의 사회 인지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인간은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과정에 거울 뉴런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폐증이 거울 뉴런계의 손상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이런 주장은 이른바 ‘깨진 거울 가설’이라 불리는데, 이것이 뇌파, FMRI등의 기법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한다.<sup>15)</sup>

이런 거울뉴런의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 인간이 포르노를 보고 흥분하는 것은 그 대상을 보고 ‘섹스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그런 3자적 입장을 잊어버리고, 내가 ‘섹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흥분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실험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발기된 남성의 성기 이미지들을 보여준 후 거울 뉴런을 관찰했더니, 포르노를 볼 때 발기된 남성의 거울 뉴런이 그의 발기 강직도와 비례해 활성화 되었다. 상식적으로, 동성애자가 아닌 남성이 남성의 성기 이미지를 보면 흥분할 이유가 없어야 하는데, 거울뉴런에 의해 자신이 섹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반에 흥분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사람들이 가끔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과 비슷한데, 시간적, 물리적 환경 제약으로 인해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 열심히 그 행위를 하는 상상을 떠올림으로써 조금이라도 익숙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뇌의 활동 측면에서 보면, “보는 것”은 “하는 것”이다.<sup>16)</sup>

이밖에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mim을 정의하고 측정하려는 학자들의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맥나마라(A. McNamara)는 mim이 전달되는 과정을 네

13) 김정일. (2014. 4. 14). 공감과 거울 뉴런 그리고 인간의 진화. 동국대학원 신문, 182호.

14) 장대익. (2012). 호모 리플리쿠스 : 모방, 거울뉴런, 그리고 mim. 인지과학 제23권 제 4호, 한국인지과학회, pp. 517~551.

15) 장대익. (2017). 다윈의 정원. 바다출판사, pp.74-82.

16) Ibid., 7장 왜 포르노에 빠지는가?.

가지 과정으로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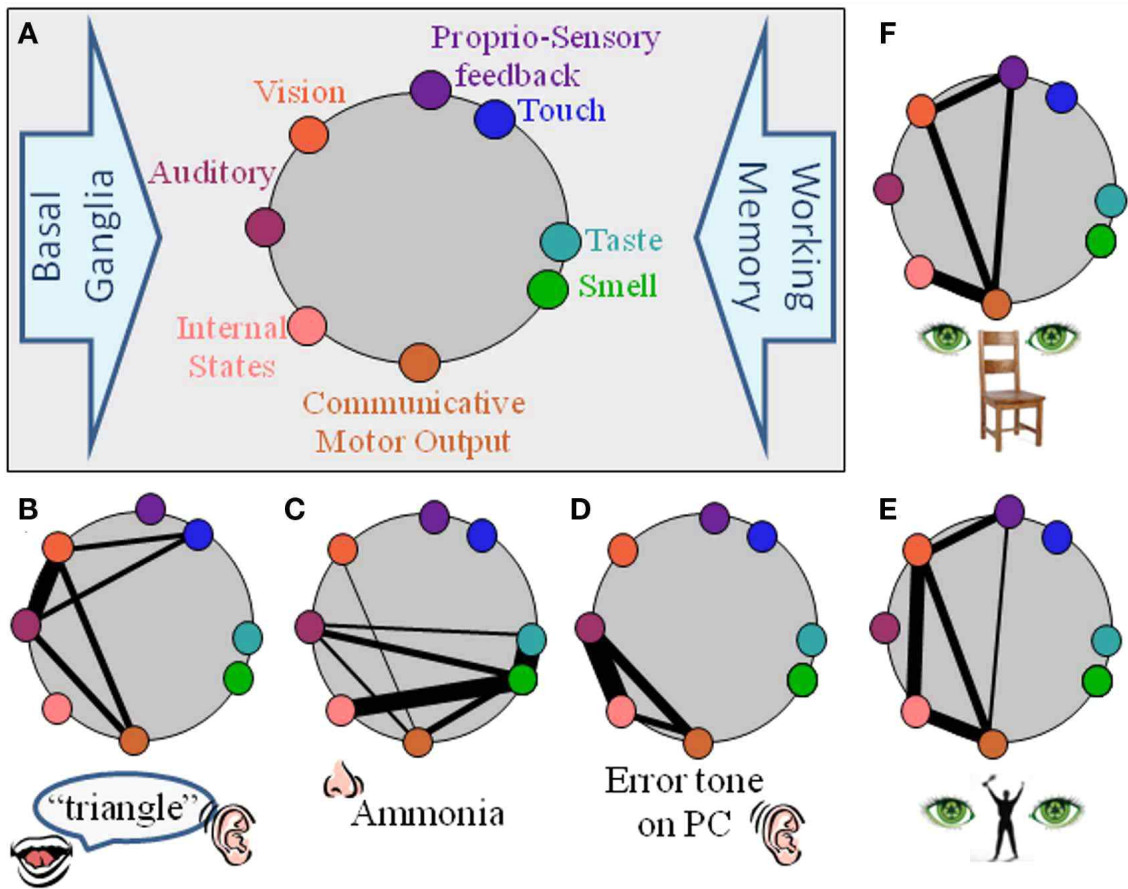
1. 동화(assimilation) : 한 개인으로부터 나온 다양한 감각을 인식
2. 보존(retention) : 정보의 기억
3. 표현(expression) :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말이나 몸짓, 운동 행위를 하는 것
4. 전달(transmission) : 3의 결과물이 다른 사람에게로 이동하는 과정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밈의 생성과 복제, 전달이 불가능하다. 특히 3번 표현과 4번 전달이 중요한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맥나마라는 밈을 내표밈(internal representation of a meme, 내적 표상으로서의 밈)과 외표밈(external representation of a meme)으로 구분한다. 이 구분 기준은 밈이 전달되고 저장되는 방식인데, 내표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뇌)에 존재하고, 외표밈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방식이다. 외표밈은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관찰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그 복제 충실도가 높아지고 있다.

내표밈은 외표밈을 인식하고 전달(운동 행위를 통해)할 수 있게 해주는 신경 연결들로 구성된다. 맥나마라에 따르면 이 신경 연결들은 다양한 감각 신경들, 소통적 운동 산출(Communicative Motor Output)을 담당하는 신경 영역 등으로 이뤄져 있다.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맥나마라는 소통적 운동 산출은 밈을 구성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한다. 이것은 밈의 전파에서 표현과 전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바로 그 소통적 운동 산출을 담당하는 신경 다발의 역할이 인간의 모방을 가능하게 하는 거울 뉴런계와 유사한 것이다. 이는 거울 뉴런계와 밈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sup>17)</sup>

이처럼 점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거울 뉴런과 인지신경학적 연구들은 향후 밈의 존재를 밝히고 상정하는 입장을 옹호하는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7) 장대익. (2012). 호모 리플리쿠스 : 모방, 거울뉴런, 그리고 밈. 인지과학 제23권 제 4호, 한국인지과학회, p.544.





[그림 2-3] 상단 그림 : 내표밈의 여러 가지 감각들(노드들 시계방향으로 : 자기수용감각 피드백, 촉각, 미각, 후각, 소통적 운동 산출, 내적 상태, 청각, 시각)로 구성되어 있다. B~F까지의 행동들(발음된 단어를 들을 때, 암모니아 냄새를 맡을 때, PC에서 나는 소리 듣기, 몸짓을 볼 때, 의자를 볼 때 등)을 할 때 모두 소통적 운동 산출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 McNamara, A. (2011), Can we measure memes?, *Frontiers in Evolutionary Neuroscience*.)

### 2.1.3. 다양한 문화 복제자 이론들

리처드 도킨스가 밈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기 이전에도, 인간의 문화가 생명이 변이, 복제, 진화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깨닫고 있었다. 다윈의 자연 선택론이 워낙 강력한 메커니즘을 지녔기 때문에 학자들은 많은 것들을 진화 가능성에 놓아 보기 시작했고, 다윈조차 ‘인간의 유래’에서 “특정한 단어가 생존경쟁을 통해 살아남거나 보존되는 것도 자연선택”이라고 하며, 언어도 진화하고 있음을 암시했다.<sup>18)</sup>

하지만 문화진화에 대한 과거의 생각은 선형적, 진보적 개념 위에 놓여 있었고, 다윈주의적인 현대의 문화진화론은 1970년대에 와서야 빛을 보게 됐다. 이 문화진화론은 두 가지 이론에 자극을 받아 표면 위로 부상했는데, ‘밈’ 이론과 수학적 모델링을 바탕으로 구축된 ‘문화 진화론’이었다.

문화 진화론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밈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문화가 서로 경쟁하는 변이체들로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러나 방법은 현대 진화이론에서 받아들인 이론적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문화진화론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인류학자 로버트 보이드(Robert Boyd)와 피터 리처슨(Peter J. Richerson)이었다. 이들은 계통발생학적 방법을 이용해 언어부터 짝짓기 방식에 이르기까지 문화의 전반적 변이를 해석했다. 문화 진화론자들도 문화 진화가 하나의 다윈주의적 과정으로써 사회적으로 전달된 변이체들 중 유리한 것을 골라 보유하는 선택적 과정을 거친다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문화는 생물과 같아서 문화진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쟁이 대뇌의 한정된 공간(주의력, 기억력, 표현력 등)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일종의 영역 다툼이라고 정의한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들은 유사한 단어들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쟁 단어들 간의 간섭현상을 밝혀낸 적도 있으며, 고고학자들은 특정 유물의 출토가 늘어날 때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유물의 출토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문화의 누적 진화, 언어의 진화, 다수의 행동 모방, 문화의 역함수 분포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학적 모델링을 바탕으로 연구되었다.<sup>19)</sup>

문화 진화론자들은 밈 학파들과 달리 문화 복제자의 존재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밈이 보이는 현상엔 동의하지만 복제자로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복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행동 결과물을 내놓았을 때, 상대방은 이 행동 결과물을 포착해 자신의 표상을 구축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주장에 눈여겨볼 점이 한 가지 있다. 인간의 뇌 속에는 정보의 재구축을 담당하는 인지 유도자(Cognitive Attractor)라는 진화된 구조가 존재하는데, 만약 이것이 없다면 다른이의 결과물이 나의 결과물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없게 된다.

18) Kevin N. Laland 외. (2014). *센스 앤 넌센스*. 서울: 동아시어, p.269.

19) Ibid., pp.269-307.

이 인지 유도자가 존재할 경우 사본과 원본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유도자가 마치 복제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mim의 물리적 존재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최근에는 복제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대립 유전자처럼 이산형질을 갖는 문화 복제자를 상정하고 문화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견해가 퍼지고 있고, 따라서 보이드 같은 경우 문화복제자가 문화진화에 필요한 전제조건이 아님을 밝혔다. 문화전달 과정이 어떻든, 정확하게 복제만 된다면 문화진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엔 문화 복제자의 존재여부와 무관하게 수학기법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문화진화론이 연구되고 있다.

한편 mim의 진영을 보면 mim과 관련해서도 여러 관련 연구와 이론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도킨스의 mim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향계 이론”이 있다. 지향계 이론은 세계적 과학 철학자이자 신경인지과학자이기도 한 대니얼 데닛<sup>20</sup>(Daniel Dennett)이 제안한 이론으로, 인간이 다른 인간이나 동물, 인공물의 행동을 해석하고,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들 (‘믿는다’, ‘기대한다’, ‘결정한다’, ‘지향한다’ 같은)의 의미 분석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컴퓨터의 바둑 프로그램, 내비게이션 같은 사물을 두고 마치 사람처럼 말을 할 때가 있다. “알과고가 이세돌을 이겼어”, “애(내비게이션)가 길을 잘못 알려줬어.” 이처럼 어떤 존재나 사물이 마치 믿음과 욕구를 고려해 행동하는 ‘합리적 행위자’인양 취급해 그것의 행동을 해석하는 전략을 두고 ‘지향적 태도’(Intentional stance)라 한다. ‘지향적 태도’와 다른 태도로는 ‘물리적 태도’와 ‘설계적 태도’가 있는데 ‘물리적 태도’는 어떤 존재의 행동을 해석할 때 모든 물리 법칙을 총동원하고, ‘설계적 태도’는 대상의 설계적 특성을 알아내어 설계대로 작동할 것이라 예측하는 태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면, 투수가 던진 공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 그 공이 마치 합리적 행위자처럼 이해하는게 옳을까? 이때는 오히려 그 공이 움직이는 물리적 법칙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물리적 태

20) 미국 출신. 하버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전공. 터프츠 대학의 인지연구센터 소장과 철학교수를 겸하고 있으며 생물철학, 인지과학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도). 또한 알람시계의 작동을 이해하기 위해 알람시계가 합리적 행위자인 것처럼 가정하고 시계의 마음을 읽으려 하는 것이 좋을까? 이 경우엔 그저 시계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알면 그만일 것이다. (설계적 태도). 하지만 강아지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법칙이나 설계원리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강아지를 합리적 행위자로 보고 대하는게 옳은 전략일 것이다. 이런 것이 ‘지향적 태도’라고 데닛은 주장한다.

여기서 유전자와 뭉은 이 세 가지 태도 중 지향적 태도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향계라 할 수 있다. 유전자의 조상격인 자기 복제를 하는 RNA과지의 경우, 복제를 하기 위해 정보 증식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하며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암호를 “보고” 다른 분자들은 “무시”하는 효소가 만들어진다. 마치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 시스템은 외부 변이에 적절하게 반응할 줄 안다. 물론 RNA과지가 정말로 의도를 가지고 복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향계 이론에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갖는가 아닌가와 상관없이 지향적 자세에서 RNA과지의 상태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더 유용하면 된 것이다.

지향계는 그 행동이 지향적 자세에 의해 예측되고 규명되는 모든 존재를 일컫는다. 자기 복제하는 거대 분자, 자동 온도 조절장치, 아메바, 식물, 쥐, 박쥐, 사람, 체스를 두는 컴퓨터는 하나같이 지향계다. 지향적 자세의 핵심은 어떤 존재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그 존재를 행위자로 예우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존재가 영리한 행위자라고 가정해야 한다. 행위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 덕분에 우리는 예측력을 얻고,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묘사하고 예측할 수 있다.<sup>21)</sup>

복제자는 유전자와 뭉 외에도 40억년동안 수많은 종류가 있었을 것이고 자연선택에 의한 복제자들은 모두 지향계였다. 그렇다면 이 복제자들은 합리적 행위자처럼 대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복제자들이 합리적 행위를 한다 가정하기 때문에 이 복제자들이 ‘왜’ 복제하는가?, ‘복제함으로써 누가 이득을 얻는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물음에 대한 복제자 이론의 대답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타적 행동

21) Daniel Dennett. (2006). 마음의 진화. (이희재 역). 사이언스북스, pp.51-71.

을 비롯한 인간의 많은 행동이 유전자들의 이해관계의 결과라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복제자들(특히 인공물들의 경우)이 그 창조자를 위해 봉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즉, 유전자와 밈도 자기 자신들을 위해 복제를 하는 것일 뿐 인간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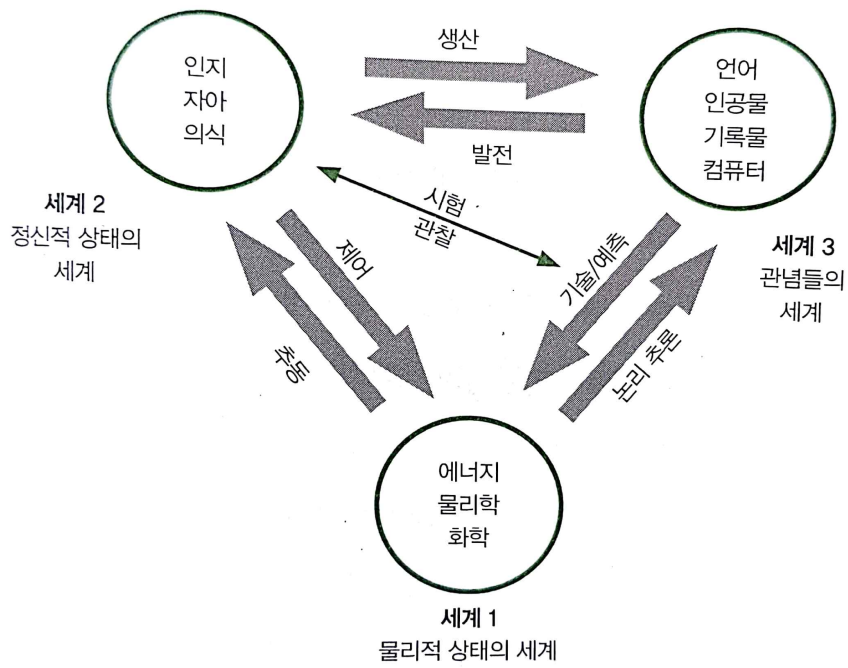
실제로 앞서 말한 수학적 모델링을 바탕으로 한 문화진화론에서도, 문화변동을 분석할 때, 이산형질 복제자의 역학모델을 이용하면 매우 근사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 즉 ‘문화진화의 밑바탕에 실제로 복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sup>22)</sup> 이런 면에서 대니얼 데닛의 지향계 이론은 문화의 진화를 다루는데 유용한 자세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유명한 과학철학자인 칼포퍼(Karl R. Popper)도 일찍이 이런 비슷한 발상을 했다. 칼포퍼는 세계를 ‘세계1 : 물리적 상태의 세계’, ‘세계2 : 정신적 상태의 세계’, ‘세계3 : 관념들의 세계’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특히 ‘관념들의 세계’에 대해, “일단 생겨난 후에는 마음으로부터 독립해 객관적 구조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인류가 만들어낸 언어, 이념, 예술, 과학 등이 전형적인 세계3의 존재자들인데, 이것들이 인간 마음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대상들이라고 했다.<sup>23)</sup> 칼포퍼가 이러한 내용을 주장한 것은 1972년으로, 도킨스의 밈 개념 제안 이전에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자세한 메커니즘의 차이는 있지만 문화도 생명체와 비슷하게 복제, 진화, 자연선택을 겪는다는 것에는 대체로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무수한 문화적 산물들 중 이제 이 연구의 주제와 관계된 건축으로 시야를 좁혀 건축물과 문화 복제, 밈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나 알아볼 것이다.

22) Kevin N. Laland 외. (2014). *센스 앤 넌센스*. 서울: 동아시아, p.306.

23) 장대익. (2017). *다윈의 정원*. 바다출판사, pp.108-114.



[그림 2-4] 칼포퍼의 세 가지 지식 세계  
(출처 : 장대익. (2017). 다원의 정원. p.115.)

## 2.2. 건축과 밈의 접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밈과 모방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적 산물에 작용하며, 따라서 예술의 한 분야인 건축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밈을 소개하며 아예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 밈의 예로는 노래, 사상, 선전문구, 옷의 패션, 도자기를 굽는 방식, 건물을 건축하는 양식 등등이 있다 ...”

실제로 건축은 그 어떤 예술 분야보다도 건축가들과 건축 작품들의 밈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더니즘 양식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이후 전반적인 모더니즘 양식의 기초 하에 포스트모더니즘, 하이테크, 해체주의, 환경 친화 건축 등 시대에 따라 각 양식들이 확연히 다르게 변화하며 유행을 주도하였고, 다른 예술분야와 마찬가지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존재하며 밈 분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현대와 같은 유행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의 건축물들은 다른 밈들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묘사된 스테인드 글라스로 가득 채워진 고딕 성당들, 불교 벽화가 그려진 동양의 불당들은 종교적 밈과 건축의 결합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렇듯 건축계에서 볼 수 있는 밈 현상들에 관해 행해진 주요한 세 개의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Nikos Salingaros의 연구 - 모더니즘 건축을 중심으로 한 건축계에서의 다윈 과정과 밈

건축계에 존재하는 밈 현상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볼 수 있겠으나 니코스 살링가로스(Nikos Salingaros)<sup>24)</sup>는 그의 논문 “Darwinian Processes and Memes in Architecture: A Memetic Theory of Modernism”<sup>25)</sup>에서 모더니즘 건축이 현시대 전 세계에 퍼지게 된 원인을

24) 1952년 호주 출생, 미국 텍사스대 수학과 교수, 건축 관련 연구 다수 저술.

25) Salingaros, N. A. and Mikiten, T. M. (2002). Darwinian Processes and Memes in Architecture: A Memetic Theory of Modernism. Journal of Memetics - Evolutionary Models of Information Transmission, 6.

밈과 연관시켜 구체적으로 흥미롭게 분석하였다. 20세기 초 르 코르뷔지에,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A. G. Gropius)로부터 유행이 시작된 모더니즘 건축에 밈이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신경심리학자이자 사이버네틱스 전문가인 프랜시스 헤이라이언(Francis Heylighen)의 ‘밈 전파에 필요한 7가지 요인’<sup>26)</sup>을 연구의 분석 틀로 활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7가지 요인이란 모더니즘의 밈이 다른 양식들을 제치고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작용한 요인을 말하는데 그 7가지 밈의 전파 요인과 모더니즘 건축으로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 1. Simplicity - 간단함

간단한 아이디어는 그렇지 않은 것들에 비해 재생산되기 쉽고 경쟁우위를 갖는다. 간단한 아이디어는 우리의 인식체계에 부담을 덜게 하기 때문이다.<sup>27)</sup> 따라서, 건축 양식에 있어서도 암호화되기 더 간단한 양식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성공적으로 전파될 것이다. 생명체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 어떤 세포보다 간단한 구조로 된 바이러스들이 복잡한 기관들을 갖춘 숙주인 생명체들보다 증식과 생존에 있어서 훨씬 이점을 갖게 된다. 인간의 눈에는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완벽히 바이러스와 세균들이다.<sup>28)</sup>

예를 들어, 아르누보 양식은 시각적 정보의 양이 매우 많았다. 주름, 곡선, 복잡한 색채를 가진 아르누보는 급속히 전파되기 힘들었다. 초기에 반짝 유행을 하긴 했지만 10년도 채 유행되지 못하였다. 아르누보의 뒤를 이었던 표현주의도 과도한 곡선들로 똑같이 단명했다. 그래서 아르누보와 표현주의에 풍부했던 곡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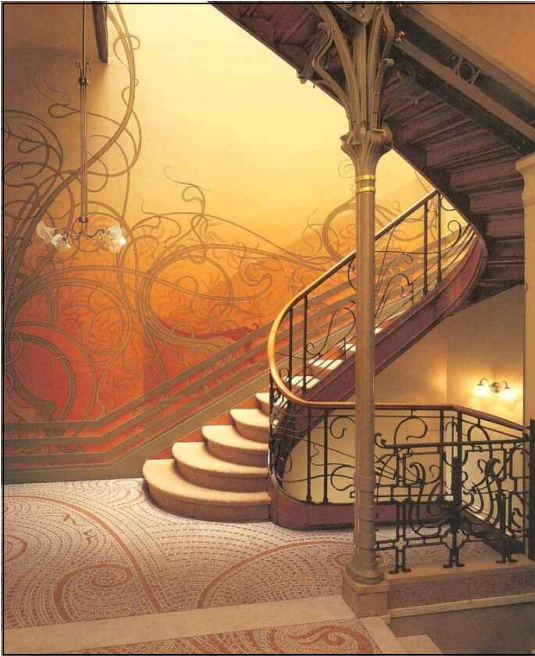
26) Heylighen, Francis. (1993). "Selection Criteria for the Evolution of Knowledge", in: Proceedings of the 13th International Congress on Cybernetics, Namur, Belgium, Association International de Cybernétique, 524-528.

27) Heylighen, Francis. (1997). "Objective, Subjective and Intersubjective Selectors of Knowledge", Evolution and Cognition 3:63-67.

28) Carl Zimmer. (2013). 바이러스 행성 : 바이러스는 어떻게 인간을 지배했는가. 위즈덤하우스.



금하고 사각형 기하학을 받아들인 아르데코는 상대적으로 길게 유행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 아르데코가 더 단순화된 모더니즘이 더 전파에 성공했고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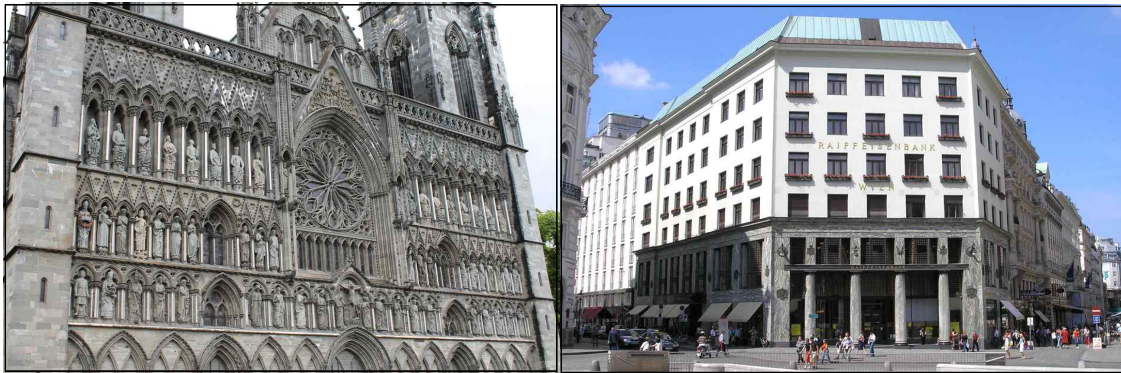
[그림 2-5] 아르누보 양식의 곡선들 - 벨기에 브뤼셀의 Hotel Tassel

아돌프 로스(Adolf Loos), 페터 베렌스(Peter Behrens)와 같은 초기 모더니스트들은 그 이전 양식들에 비교할 때 너무나 간단해 보이는 시각적 스타일을 갖는 건축물들을 소개했다. 그 이전 시대의 양식들에서 보여지는 콘트라스트, 복잡한 디테일, 조각과 장식들을 제거하고 흰색, 회색과 같은 단일 색채와 단일 재료, 단순한 형태로 건물의 외장을 둘러쌌다. 시각적 정보 차원에서 보자면, 복제가 쉽게

되기 위한 조건들이 갖춰진 것이었다. 기존의 건축가들과 시민들은 이러한 양식들을 미적 가치가 없다고 평했지만, mimicry가 전파되기엔 우위를 갖는 조건이었으므로 그들의 생각과 달리 이러한 양식들이 점점 사회를 지배해 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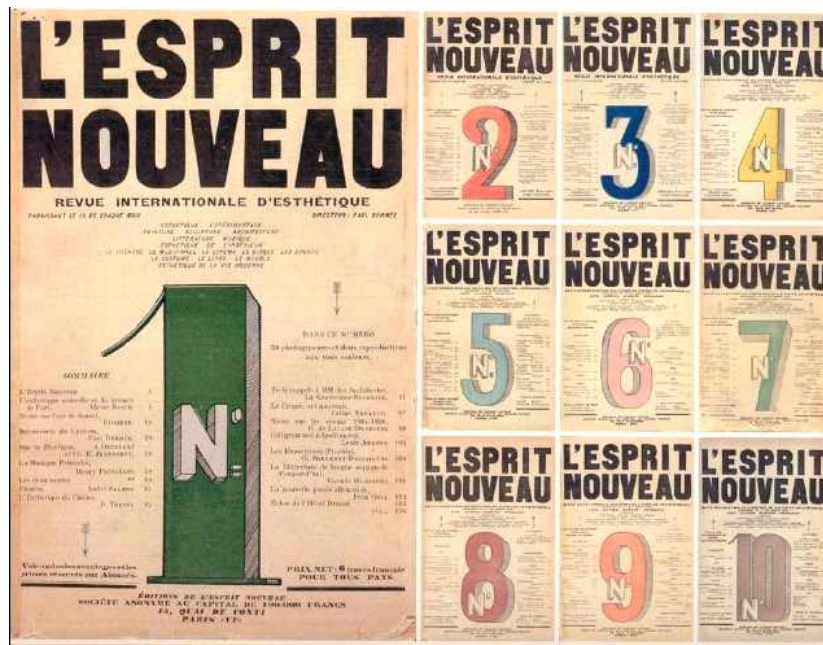
## 2. Novelty - 참신함

새롭고, 독특하고, 기대치 않았던 아이디어들은 사람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초기 모더니즘 건축가들의 프로토타입은 19세기 건축을 사용하고 만들던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였다. 초기 모더니즘 건축가들의 새로운 이미지들의 확산은 실제로 지어지기 전에 주로 미디어들을 통해 일어났다. 르 코르뷔지에에는 에스프리



[그림 2-6] 기존 건축양식과 대비되는 초기 모더니스트들의 건축 작품 - 아돌프 로스의 로스 하우스

누보(L'esprit Nouveau)라는 저널을 만들어, 그것을 통해 모더니즘 밈을 전파하는데 성공했다.<sup>29)</sup> 이 저널이 창간될 당시는 사진 기술, 인쇄, 배포의 발달에 힘입어 시각적 정보를 위한 대중적 매체가 사진잡지였던 시절이었다. 사람들은 미래틱한 그림들이 동반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읽고 싶어했다.



[그림 2-7] L' esprit Nouveau 창간호 및 후속호

29) Colomina, Beatriz. (1994). Privacy and Publicity: Modern Architecture as Mass Media.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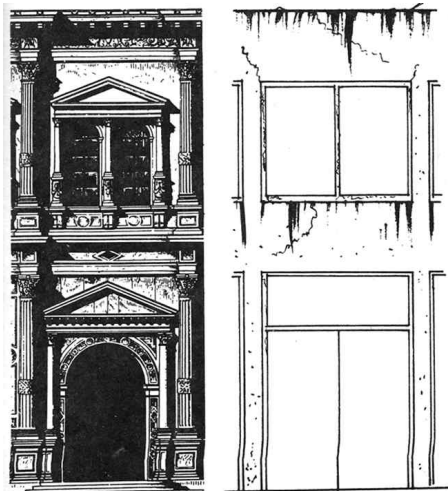
### 3. Utility - 유용성

상기 소개한 에스프리 누보를 비롯한 그 당시 매체들은 모더니즘 건축양식의 미니멀한 구조가 더 효율적이고 거주하기에 알맞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지에 대해선 생각해볼 문제들 또한 많았다. 모더니즘 양식의 건물들은 과거의 건축들보다 인간 활동에 맞지 않는 형태들과 재료들이 주가 되는 것이 사실이었다. 커튼월로 인해 효율적인 온도 조절이 불가능하며, 그에 따라 밀폐된 건물들의 에너지 낭비 또한 심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기밀성이 높아짐에 따라 건물의 내부 공기가 화학물질들로 인해 나빠져 아픈 건물(Sick Building) 증후군이 생기기도 하며 고층건물에 사는 어린이와 노인들이 겪는 사회적 접근성 저하라던가, 고층건물들에 의해 생기는 바람 공해, 평지붕으로 인해 생기는 누수현상, 미니멀한 입면에서 더 쉽게 눈에 띄는 녹과 균열, 단순화된 부재간 연결 접합부에 생기는 구조적 문제, 콘크리트 재료가 주는 심리적 이상<sup>30)</sup> 등은 정말 모더니즘 양식이 유용하기만 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보는 요인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재료와 형태의 단순함이나 시공의 간편함으로 인해 건설 산업계에는 큰 이점이 제공 되었으며 이러한 이점들은 앞선 단점들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간단한 건축양식은 거대한 상업적 이득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건물들이 싸고 많이 지어져야 하는 2차 대전 후의 파괴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매우 적합한 양식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급속한 공업화와 더불어 급속도로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던 시기는 없었다. 필립 존슨(Philip C. Johnson)은 “디벨로퍼들이 싼 건물들을 만들기 원했기 때문에 국제주의 양식이 세계를 휩쓸었다.”<sup>31)</sup>라고 말했다.

30) Blake, Peter. (1974). Form Follows Fiasco. Little, Brown and Co., Boston.

31) Kunstler, James Howard. (1993). The Geography of Nowhere. Touchstone. New York.



[그림 2-8] 기존 양식과 대비되는  
모더니즘 양식의 문제점  
들  
(출처 : 루이스 헬만.  
(1999). 건축이야기. 국제.)

#### 4. Formality - 형식성

아이디어는 형식적으로 표현될수록, 더 전파되기 쉽고 생존하기 쉽다.<sup>32)</sup> 모더니즘 디자인의 의도는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컨텍스트 독립적이 되려는 것이다. 적응은 건물이 지어지는 지역의 기후, 재료, 문화, 지역의 필요와 건물의 관계를 맺는 것에 기반한 선택을 요구한다. 그러나 모더니즘 양식은 태생부터 최소의 간단한 이미지들을 지향했기 때문에 범용적(Universal)이 되었다. 각기 다른 환경과 다른 사람들은 같은 방법으로 모더

32) Heylighen, Francis. (1993). "Selection Criteria for the Evolution of Knowledge", in: Proceedings of the 13th International Congress on Cybernetics, Namur, Belgium, Association International de Cybernétique, pp.524-528.

Heylighen, Francis. (1997). "Objective, Subjective and Intersubjective Selectors of Knowledge". Evolution and Cognition, 3:63-67.

니즘을 해석하고 받아들였다. 지역성이나 특정 환경에 독립적이었기 때문에 모더니즘 건물들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나 세워질 수 있었다. 건물을 이루는 재료들은 프리폼 패널, 유리, 철, 콘크리트였는데 이것들은 어떤 지역성과도 상관없는 공업적 재료들이었다. 모더니즘 양식은 “모든 국가와 기후를 위한 한 가지 건물”을 내놓기 위한 추상적인 큐비즘의 범용적 시각 언어를 도입했다.<sup>33)</sup>

이처럼 개개인과 지역의 필요를 중요시하지 않는 부적응성은 모더니즘 건축가들의 사상에 뿌리가 있다. 1920년대 독일에서 모더니즘의 철학적 기원이 전체주의와 맞닿아 있음이 드러났는데 독일 예술사학자 빌헬름 핀더(Wilhelm Pinder, 히틀러의 지지자)와 그의 제자 니콜라스 페브스너(Nikolaus Pevsner, 건축 역사가)는 위대한 “건축이란 이데올로기가 승리한 시기 동안의 민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건축은 시대정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상주의, 절대주의를 정당화 한다는 신념을 히틀러, 괴벨스, 그로피우스, 미스 반 데어 로에는 공유했다.<sup>34)</sup>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개인들마다 다른 사용자의 필요란 거의 중요하지 않게 된다. 필립 존슨은 그로피우스와 모더니즘의 미학을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 소용없음을 이렇게 불평했다. “사회적 규약과 혁명에 대해 기다언이 진부하게 말했던 것들을 그로피우스가 여전히 떠들고 있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다.”<sup>35)</sup>

## 5. Authority - 권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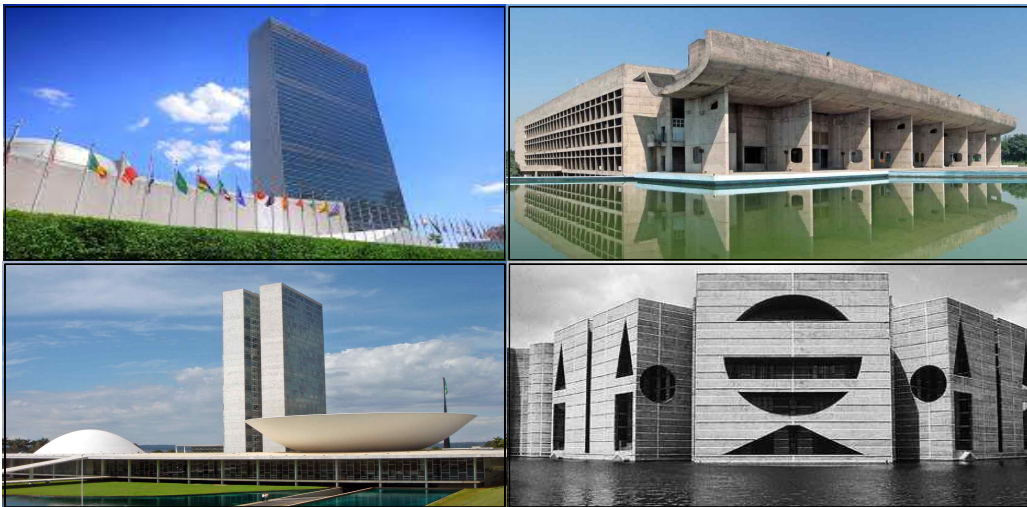
유명한 건축가들과 그들의 스폰서들로부터 나오는 권위는 사람

33) Blake, Peter. (1974). *Form Follows Fiasco*. Little, Brown and Co., Boston.

34) Watkin, David. (2001). *Morality and Architecture Revisit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35) Colomina, Beatriz. (1994). *Privacy and Publicity: Modern Architecture as Mass Media*.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들의 마음에 모더니즘 밈을 정당화했다. 기관이나 인정된 전문가들의 지원은 특정 아이디어의 채택을 가속화했다. 2차대전 후, UN은 뉴욕에 모더니즘 스타일로 본부를 지었으며 EU도 브뤼셀에 본부를 모더니즘 양식으로 건설하였다. 2차대전 후 지속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도 정부들은 모더니즘 스타일로 새 수도를 건설함으로써 이러한 예들을 강화시켰다.<sup>36)</sup> 선진국 정부와 기업들은 박람회 공간과 정부 청사, 본부 등을 경쟁적으로 모더니즘 스타일로 세웠고, 그렇지 않은 양식으로 건물이 지어지면 낡은 것, 진부한 것, 옛것을 생각없이 따라하는 것 등으로 치부했다.



[그림 2-9] 세계 각국에 세워진 모더니즘 양식의 정부 청사들(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뉴욕 UN본부, 인도 샨디가르, 방글라데시 다카, 브라질 브라질리아)

1932년 뉴욕 MoMA에서 열린 모더니즘 건축 전시회는 국제주의를 촉진하는, MoMA의 권위를 사용한 아주 영향력 있는 이벤트였다. 또한 독일 바우하우스의 두 교장 - 미스 반 데어 로에와 발터 그로피우스 - 는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후 미국에 건축 학교를 만들었다. 이 건축가들은 미디어와 교육 분야에서 서로를 칭찬하며 모더니즘 밈을 촉진시켰다. 점점 높아지는 명성으로 인해 더 많은 설계의뢰가 들어왔고 더 많은 모더니즘 건물들이 들

36) 샨디가르(인도), 브라질리아(브라질), 다카(방글라데시), 캔버라(호주) 등

어섰다. 많은 사람들이 모더니즘 건축가들의 딱딱하고 밋밋한 건물들이 기본적인 감성과 직관에 어긋나고 보기 안 좋아도 유명 건축가들의 권위가 있기에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지그프리드 기디언(Sigfried Giedion)과 니콜라스 페브스너와 같은 권위있는 대학의 교수들은 CIAM<sup>37)</sup>의 의장을 지내며 모더니즘을 필연적인 진보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모더니즘은 양식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양식들과 스타일적 경쟁을 하지 않았고 모더니즘과 대치된 스타일들 - 신고전주의, 표현주의 - 은 비난받고 무시되었다.



[그림 2-10] 1947년 영국 somerset의 bridgewater art centre에서 일주일간 열렸던 CIAM 6차 회의. 르 코르뷔지에, 발터그로피우스도 참석했다.

생물학적 진화의 필수 요소는 현 시스템의 확장이다.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에 새로운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인데 그 새로운 무언가는 기존의 것들을 급속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들 위에서 진화한다. 즉 자연 선택에 의해 디자인이 누적되는 것이다. 그래서 퇴화된 기관 등을 보면 진화적 혈통을 추적할 수 있기도 한다. 건축을 예로 들면, 모더니즘 이전의 클래식 스타일은 돌로 지어졌지만, 고대 나무로 만들던 때의 특징을 간직하기도 했

37) Congres International d'Architecture Moderne, 근대 건축 국제 회의. 1928년부터 1959년까지 있었던 건축가들의 조직. 10회에 걸쳐 성명을 발표하였고 근대건축과 도시계획의 개념을 전 세계에 보급시켰다.

다. 그러나 모더니즘 건축은 갑자기 과거의 것들을 구시대적이라 선언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들로 누적이 아닌 급속한 대체들을 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진화라고 할 수 없다.

## 6. Publicity - 미디어화, 홍보

건축적 밈은 사진 책, 건축 잡지, 영화, TV, 다큐멘터리, 보도 등에 의해 더 잘 퍼질 수 있다. 1932년 ‘International Style’ 전시회는 모더니즘 건축을 위한 홍보 캠페인으로 여겨지고 미국에서 모더니즘 양식을 퍼뜨리기 위한 선전 도구로써 활용되었고<sup>38)</sup> 1979년 시작된 프리츠커상은 건축 디자인계에서 최신의 트렌드를 가장 잘 구현한 건축가들에게 주어지는데 이처럼 권위와 같이 동반되는 홍보는 결국 유행 경향을 전파시키는 것을 돕는다. 다른 많은 건축상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건축 수상작들은 미디어에 의해 홍보되고, 새 건물들의 디자인에 영향을 준다.

## 7. Conformity - 순응

여기서 말하는 순응은 특정 밈을 사람들이 계속 믿도록 하고 만약 새로 들어오는 배치되는 경향의 밈이 있다면 그것을 배척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순응적 압력은 해당 밈을 믿는 그룹의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만들고 유지한다.<sup>39)</sup> 종교에서 이러한 기제들을 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뒤늦게 분파되어 신자가 많지 않아 사회구성원들에게 ‘이단’이라고 박해를 받는 종교의 경우, 그러한 박해는 오히려 자신들이 정말 ‘정파’이기에 받는

38) Colomina, Beatriz. (1994). *Privacy and Publicity: Modern Architecture as Mass Media*.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39) Heylighen, Francis. (1993). "Selection Criteria for the Evolution of Knowledge", in: *Proceedings of the 13th International Congress on Cybernetics*, Namur, Belgium,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 Cybernétique, pp.524-528.

Heylighen, Francis. (1997). "Objective, Subjective and Intersubjective Selectors of Knowledge", *Evolution and Cognition*, 3:63-67.



박해라고 내부 신도들에게 가르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가 받았던 박해의 예나 성경 속 구절들을 활용하여 진짜 정과인 경우 오히려 박해를 받는 예가 더 많았음을 주지시키고,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해 내부 신도들의 믿음은 외부 사람들이 박해를 가할수록 오히려 더 굳건해지게 된다. 모더니즘 건축에서 일어나는 순응적 기제의 경우 종교와 같은 외부의 박해는 없지만, 모더니즘 외의 건축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변절자와 같은 위협을 가하게 된다. 즉, 모더니즘 스타일에서 벗어난 건축가들에게는 조롱이 가해지는 것이다.

건축 잡지와 같은 미디어들은 현재 유행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건축 양식들을 출판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건축을 배우는 학교에서도 스승들과 강사들에 의해 새로 입학한 학생들은 모더니즘 밈에 감염된다. 신입생들이 모더니즘 양식에 배치되는 다른 양식의 디자인을 하면, 그것은 촌스러운 것이며 결국 모더니즘 양식의 디자인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가르침이 권위있는 모더니즘 건축가들의 작품과 언행이 동반되어 주입된다. 대부분의 현대 건축학교들은 바우하우스 컨셉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오늘날 디자인들은 거의 모두 모더니즘 이미지 지향적이 되었으며, Alexandrine 패턴들처럼 적응적 디자인을 논의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sup>40)</sup> 학자와 건축가들은 창조적 시도를 좌절시키는 ‘현대와 전통’과 같은 논쟁들을 여전히 촉발시킨다.

이상과 같이 살린가로스는 모더니즘 건축양식을 비판적인 견지에서 모더니즘 밈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이유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모더니즘 건축양식이란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하고, 모더니즘 양식을 지나치게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아직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밈의 전과

40) Alexander, C., Ishikawa, S., Silverstein, M., Jacobson, M., Fiksdahl-King, I. and Angel, S. (1977). *A Patter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Salingaros, Nikos A. (2000). "The Structure of Pattern Languages", *Architectural Research Quarterly* 4:149-161.

메커니즘을 ‘아이디어의 전과 요인’과 같은 신경심리학 분야의 이론적 틀을 빌려와 해석하려고 했던 점이며, 동시에 건축 밈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양상을 보여줬다는데 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밈과 건축을 접목시킨 연구도 있지만 밈을 직접적으로 차용하지 않은 채 유전자 개념을 건축에 접목시켜 생명체의 진화와 같은 건축의 현상을 연구한 연구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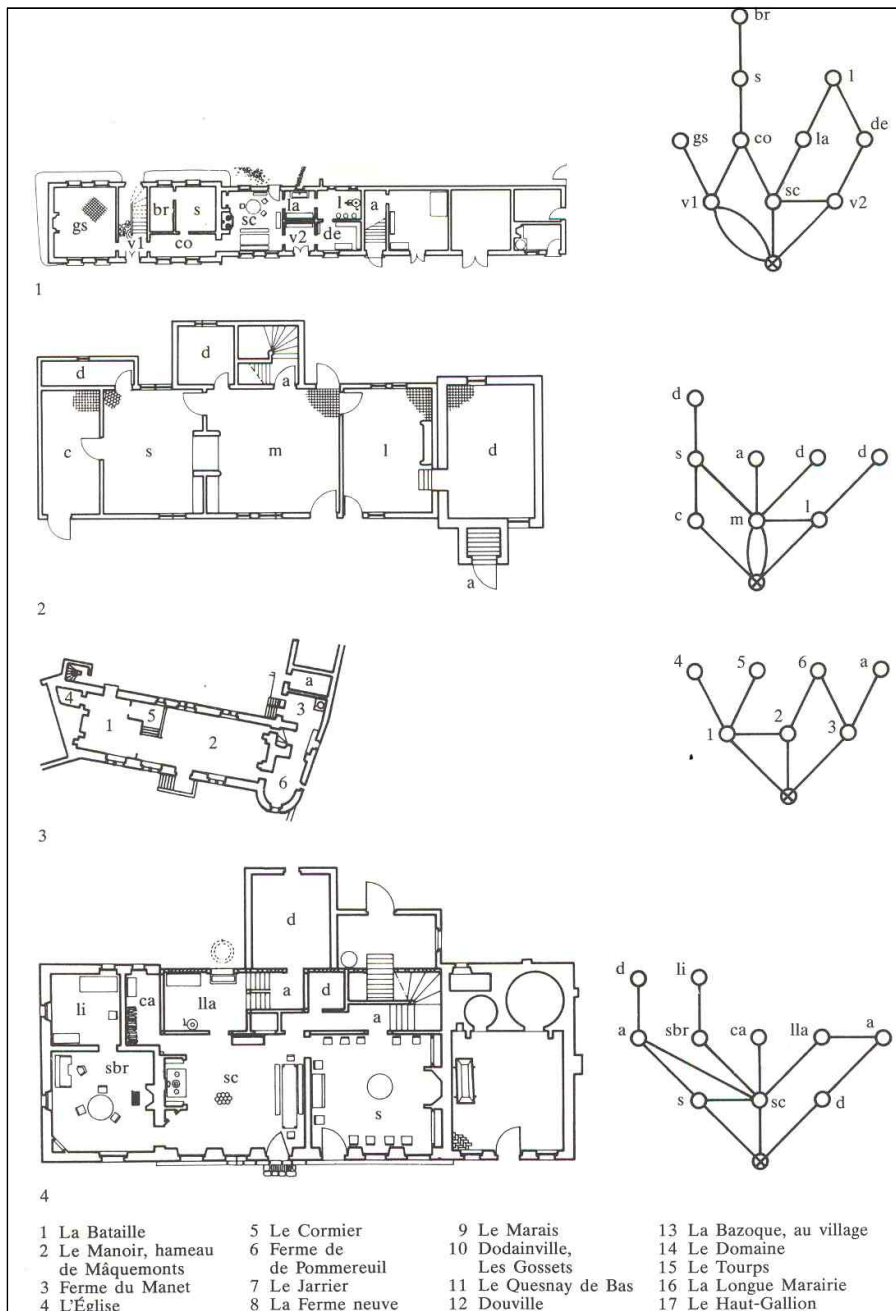
## 2) Hillier, B, Hanson의 연구 - 건축과 유전자형

힐리어(Hillier, B, H.)는 ‘Ideas are in things: an application of the space syntax method to discovering house genotypes’<sup>41)</sup>이라는 연구에서 공간구문론을 적용해 건축의 유전자형을 발굴하고자 했다. 그는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농가 평면 17개를 대상으로 정량적, 통계적 분석을 하여 서로 다른 평면들에 내재된 프랑스 농가 주택의 유전자형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상대적 공간심도(Real Relative Asymmetry)와 DF(Difference Factor)라는 지표를 활용해 주택 평면마다의 공간들을 분석, ‘샬레 코뮌’이라는 거실 공간과 현관이 프랑스 농가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각기 다른 형태와 느낌들의 다양한 건축공간들을 연결도로 분류, 유전자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생명체를 예로 들면 마치 불독, 푸들, 비숑 같은 다양한 종류의 개들이 결국 회색늑대종 하나에 속하고 각기 다른 종들 안에서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건축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평면들의 뼈대를 추출하여 마치 단백질을 합성하기 이전의 유전자와 같은 개념으로 제안을 한 것이다.

이후 국내외의 다른 학자들도 힐리어의 방법을 적용하여 유적지나 아파트 주택들의 평면을 분석, 유전자형을 추출하고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이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연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해당 평면들의 변이에 있어 다윈의 자연선택 같은 아이디어를 도입하지는 않았고, 각 유전형들이 스스로 복제되려는 성질을 갖는다는 가정 등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밈이나 문화진화론과는 가깝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물리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건축물들을 유전자로 은유하여 분석대상으로 삼고 정량적으로 계량하

41)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1987, vol.14, pp.363~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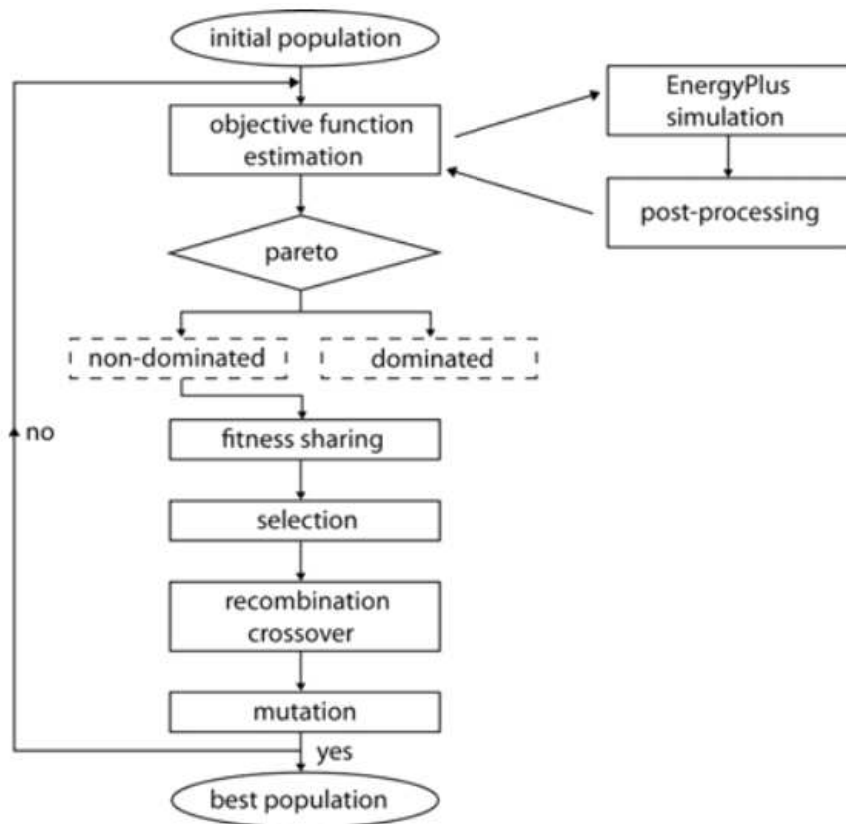
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2-11] 힐리어가 추출해낸 프랑스 농가의 유전자형들  
(출처 : Hillier B Hanson, an application of the space syntax method to discovering house genotypes.)

### 3) 오세민 외 3인의 연구 - 건축 디자인의 결정에 적용될 수 있는 다윈 과정

건축 시공이나 구조 설계에도 다윈의 자연선택 원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의 오세민 외 3인이 연구한 ‘BIM기반 시뮬레이션 모델의 상호운용성과 유전 알고리즘, 파레토 최적을 이용한 건축 디자인 최적화’<sup>42)</sup>라는 연구는 건물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성능평가를 위한 BIM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인데, 에너지 성능을 최적화하는 디자인을 찾기 위해 다윈의 자연선택 개념을 응용하고 있다.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먼저 초기집단을 생성하고 적합도 평가, 선택, 교배, 돌연변이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적의



[그림 2-12] 유전 알고리즘과 여러 평가방법의 통합. 순서도의 중반부 이후에 선택(selection), 재조합(recombination crossover), 변이(mutation)로 표시된 다윈의 자연선택 과정이 보인다.

(출처 : 오세민 외 3인. (2011). BIM기반 시뮬레이션 모델의 상호운용성과 유전 알고리즘, 파레토 최적을 이용한 건축디자인의 최적화.)

42)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 pp.139~142.

해를 구한다. 건축 디자인에서 에너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윈의 자연선택과 돌연변이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상 세 개의 연구들은 건축과 문화 복제, 자연 선택과 같은 이론들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연구는 본격적으로 건축과 밈을 다루었다. 신경 인지학쪽의 이론을 접목한 연구 방법과 과감히 밈 이론을 활용한 것은 매우 흥미로웠지만 연구자가 건축 전공이 아닌 관계로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 다소 이해가 부족해보이는 듯한,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결론이 나왔음은 아쉬운 연구였다. 두 번째 연구는 공간구문론이라는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방법을 통해 건축의 유전자형(genotype)을 추출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연구였다. 하지만 이 유전자형들이 다윈의 자연선택 과정과 접목되며 변천되는 과정 등을 보여주는 후속연구들이 있었으면 더 흥미롭고 본 연구에서도 참고할 부분이 많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는 앞 두 개의 연구와 달리 건축 공학에도 다윈의 자연선택이 접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록 복제자 개념과 같은 언급은 없었지만 특정 최적해를 찾는데 생물계의 진화를 만들어낸 다윈의 자연선택을 접목한 것이 매우 흥미로운 연구들이었다.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이들 연구들은 생물학의 다윈 과정이나 밈을 건축과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주었다. 1.3에서 소개했던 몇 개의 국내 연구들이 주로 정성적으로 밈적 특성을 건축과 연결시킨 반면, 이 절에서 소개했던 연구들은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건축과 다윈 과정, 밈을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며 보다 더 통섭적이고 유용한 시각의 연구 방법과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 제 3 장 밈 이론 기반 분석 방법 설정

---

3.1 밈을 조사하는 기존 방법들

3.2 조사 대상 설정

3.3 조사 방법 설정

---

### 3.1. $\text{\textcircled{M}}$ 을 조사하는 기존 방법들

#### 3.1.1. 텍스트와 $\text{\textcircled{M}}$ 이론

인간의 문화에서 언어는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인간은 거의 모든 사고를 언어로 하며 자기가 말하는 언어에 자기도 모르게 사고의 영향을 받는다. 인간 지능의 으뜸가는 원천은 우리 주변 환경에 인지과제를 부러놓는 습성이다. 즉 표식을 하고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이는 동물 뇌가 주는 제약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정보를 외부 세계에 저장함으로써 뇌의 한정된 자원을 다른 활동에 쓸 수 있도록 아낄 수 있다. ‘217 X 436’ 같은 계산을 할 때 보통의 사람이라면 연필과 종이가 없으면 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기술을 문화라는 경로를 통해 물려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은 단지 행위자 자신 기억의 부담만 덜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기술은 정보를 다른 틀로 재표상하여 또 다른 행위자 앞에 내놓을 수 있게 한다. 그럴려면 행위자들끼리 이 표상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는 곧 문자와 언어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표상들에 의해 우리는 형이상학적으로만 가능한 존재들을 명확히 설정하며 개념화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간의 마음의 도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언어가 되고, 이 언어에 의해 우리의 마음은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추상적이며 다층적인 관념들을 공유, 비판, 기록할 수 있고 이동, 기억을 용이하게 한다. 우리의 뇌는 일종의 반향실(反響室)이다. 그 반향실 안에 여러 정보들이 들어와 계속 반사되어 머물게 되고 그 중에 가장 오래 머티면서 영향력을 획득한 과정이 의식적 사고가 된다. 이 반향실 안에 들어가서 바로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기 위해 다른 마음의 내용물들과 경쟁을 벌여 승리해야 한다. 인간은 말을 하는 존재이며 우리의 활동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 중 하나가 언어 사용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언어 사용을 관장하는 위치로 올라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된다.<sup>43)</sup>

43) Daniel Dennett. (2006). 마음의 진화. (이희재 역). 사이언스북스, pp.215-250.

현대 건축의 이론과 담론들의 일부를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사고를 지배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크고 딱딱하고 물리적인 실체인 건축과 실체가 없는 언어이론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 간략히 보자면 60년대 발생한 미국의 포스트모더니즘은 1930년대에 개발된 기호학과 구조주의 언어학, 80년대에 발생한 해체주의 건축은 1960년대 말의 후기 구조주의 철학에서 주요 개념이 도출되었다.<sup>44)</sup> 후기 구조주의는 인간이 만든 모든 기호의 세계를 설명하려는 구조주의에 반대해서 나온 이론이다. 문학 작품에서 독자가 작가의 ‘지시 대상’에 개의치 않고 자유롭게 텍스트의 의미 형성 과정을 열고 닫을 수 있다고 본 것인데, 이는 현대 건축의 해체주의가 추구하는 임의성, 즉흥성과 맞닿아 있다. 해체주의는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로부터 시작됐는데, 그는 ‘불변의 이치’, ‘법과 도덕’과 같은 세상의 질서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품고, 세계가 너무나 가변적이고 일상적이며 부조리하다고 인식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이 수많은 제도와 기나긴 역사의 산물에 지나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워 하나의 텍스트로 간주했는데, 이 세계의 텍스트의 요소들이 절대적인게 아니라 단지 상호관계를 가질 뿐이라고 설파했다.

이렇게 불변의 진리, 이성의 법칙 등의 절대성을 타파하는 그의 논리는 건축에 접목되며 당연시 여겨져왔던 건축의 법칙들과 같은 것에 건축가들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였다. 이렇듯 언어 이론은 건축뿐 아니라 철학, 역사, 사회학 등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앞서 말했던 대로 주체, 대상, 개념 등은 결국 언표로부터 파생된 기능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sup>45)</sup>

이런 건축이론과 언어의 관계에서 보이는 텍스트와 건축의 관계 외에도 밈 이론의 입장에서 텍스트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인간이 하는 모방의 형태 중 하나로 ‘지침 복사’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요리를 보고 모방하고 싶을 때 그 요리 자체를 보고 모방하려는 것보다 요리법을 전수 받는게 훨씬 정확하고 모방에 용이할 것이다. 음악 또한 마찬가지이

44) 정인하. (1999). 1960년대 이후 등장한 건축적 담론들과 언어이론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8권 2호 통권 19호,

45) 질 들뢰즈. (2010). 들뢰즈의 푸코. 권영숙 외 옮김. 새길, p.24.



다. 어떤 곡을 들었을 때, 그 곡을 그대로 모방하기란 너무나 힘들고 정확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악보를 보고 모방하면 매우 높은 정확도로 모방이 가능하며 멜로디의 형태로 공기 중으로 사라질 뿐인 노래의 흔적이 물리적 형태로 남아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전수가 가능해진다. 즉, 밈의 입장에서 볼 때, 텍스트로써의 형태가 복제 정확도와 수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전파력을 띄게 되는 것이다.

앞서 2.2.에서 말했던 밈의 전파를 유용하게 하는 7가지 요인과 같은 인지심리학적 이유를 봐도 텍스트는 중요하다. 유명 건축가들은 7가지 요인 중 6번째인 Publicity(미디어화, 홍보)를 잘 활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높였다. 르 코르뷔지에에는 에스프리 누보를 창간하여 자신의 작품들을 텍스트와 사진으로 잡지에 소개하며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램 콜하스 또한 원래 직업이 건축가가 아닌 저널리스트로 ‘정신착란증의 뉴욕(Delirious New York)’이란 책으로써 건축 활동을 시작했고, 후에 건축가로써의 활동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들을 담은 <S,M,L,XL>등의 저술 등을 남겨왔다. 국내의 김수근 또한 르 코르뷔지에처럼 건축잡지인 ‘공간’을 창간하여 자신의 작품들을 소개하는데 활용하였고, 승효상 역시 자신의 생각들을 담은 많은 텍스트를 출판했고 ‘빈자의 미학’과 같은 그의 담론들은 그를 더 유명하게 만들었다. 이들이 밈의 중요성을 알고 그러진 않았을 것이나 자신의 생각을 출판물으로써 표현하는 것이 다른 건축가들 사이에서 확실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은 은연중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3-1] 르 코르뷔지에 <L'ESPRIT NOUVEAU> 창간호, 램콜하스 <정신착란증의 뉴욕>, 김수근 <공간> 창간호, 승효상 <빈자의 미학>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는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을 인간이 다룰 수 있게 해주고, 텍스트는 그 언어의 흔적이 된다. 건축이란 작품은 장르의 특성상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으로 인해 다른 예술처럼 직관적이지 못하다. 작가가 어떤 동기와 생각을 갖고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들이 바로 느껴지기 힘들므로 건축가들은 자신의 창작 동기와 생각 등을 따로 서술하려는 욕구가 더 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술이나 음악 등 다른 장르보다 유독 건축계는 담론과 텍스트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들로 건축가들이 서술하는 텍스트들은 건축이론이나 담론과 같은 밈들이 오고가는 좋은 통로와 장의 역할이 되며 동시에 다른 건축가들의 밈들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텍스트들의 흐름과 내용을 분석하면 건축가들 사이의 밈의 흐름과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3.1.2. 기존 분석 방법들과 한계

텍스트를 바탕으로 밈을 추출하는 방법은 IT기술 발달과 더불어 SNS나 뉴스기사들의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들을 바탕으로 주로 발달해왔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밈트래커(Meme-Tracker)’라는 기술로, 미국 코넬, 스탠포드 및 페이스북의 연구원들에 의해 개발된 기술이 있다. 이 시스템은 160만개의 SNS 및 블로그 등에 걸쳐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 및 개념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sup>46)</sup>

[그림 3-2]는 이 밈트래커를 이용해 2009년 2월부터 7월까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언론들이 경제에 관해 언급한 정도와 구절들을 추출한 것이다.

46) <http://www.journalism.org/2009/10/05/meme-tracker-analysis-what-ideas-reverberated-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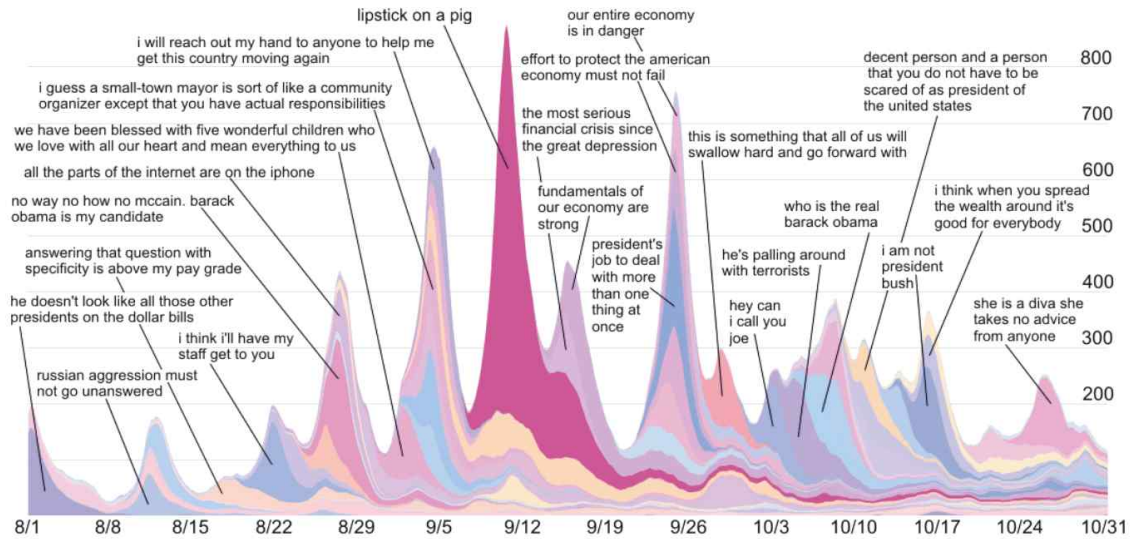
Most Cited Phrases about the Economy			
Feb. 1 - July 3, 2009			
Phrase	Original Speaker	Starting Date	Total Citations
we will rebuild, we will recover...	Barack Obama	24-Feb	4679
how do they justify this outrage to the taxpayers...	Barack Obama	16-Mar	4446
in ... our greatest economic crisis since the Great Depression...	Barack Obama	7-Feb	3914
they'll have to find someone else to write the next stimulus bill	NY Post	18-Feb	3312
...the weight of this crisis will not determine the destiny of this nation	Barack Obama	24-Feb	3113
...to be honest I'm a little bit worried	Chinese Premier	13-Mar	3017
buying stocks is a potentially good deal	Barack Obama	3-Mar	2690
...we would not be able to continue as a going concern...	General Motors	5-Mar	2672
we've seen some progress in the financial markets, absolutely	Ben Bernanke	15-Mar	2425

[그림 3-2] 경제에 관해 주로 언급된 밈 발신자들과 내용  
 (출처 : "Meme Tracker" Analysis:What Ideas Reverberated in the Media?  
<http://www.journalism.org/2009/10/05/meme-tracker-analysis-what-ideas-reverberated-media/>)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간을 정한 후 텍스트들을 추출한 뒤 텍스트들의 변형 정도, 클러스터 분류 등을 통해 구문들을 노드로 표현하고 이를 [그림 3-3]처럼 시각화 시키기도 하며 가짜 문구 등을 피하기 위해 단어 길이, 빈도 등도 추출한 뒤 정제된 텍스트들을 고유의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밈을 추출해낸다.<sup>4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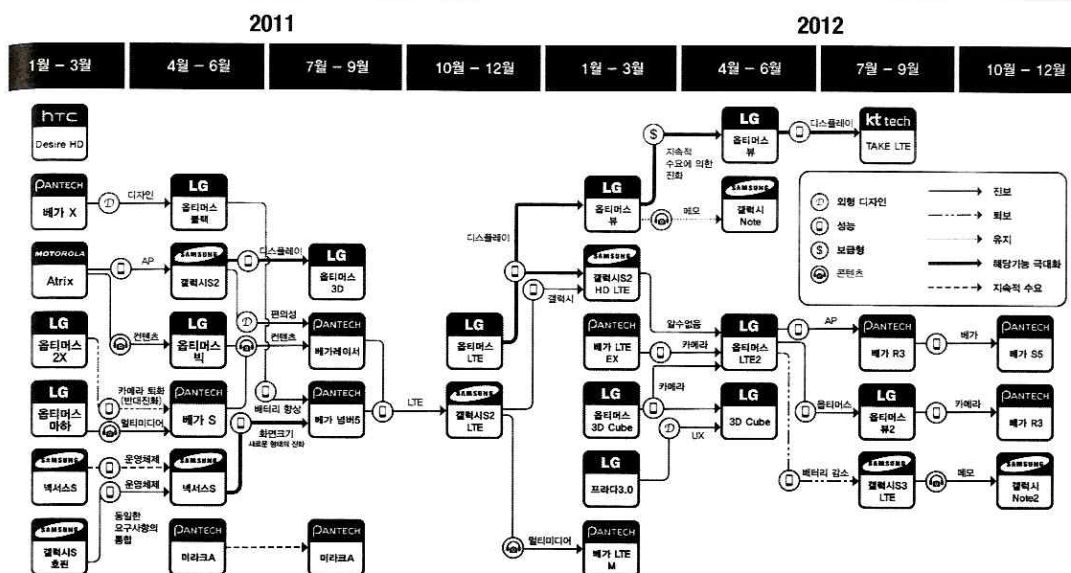
밈을 분석한 또 다른 예로, 밈과 같은 인공물의 진화를 분석한 국내의 연구가 있다. 휴대폰을 사용한 사용자 후기를 분석하여 휴대폰의 진화 계통도를 작성한 국내의 연구로, 이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topic modeling algorithm)'이라는 기법을 사용한다. 이 역시 기본적으로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바탕으로 수학적 알고리즘을 적용한 기법을 근간으로 한다.

47) Jure Leskovec 외 (2009). Meme-tracking and the Dynamics of the News Cy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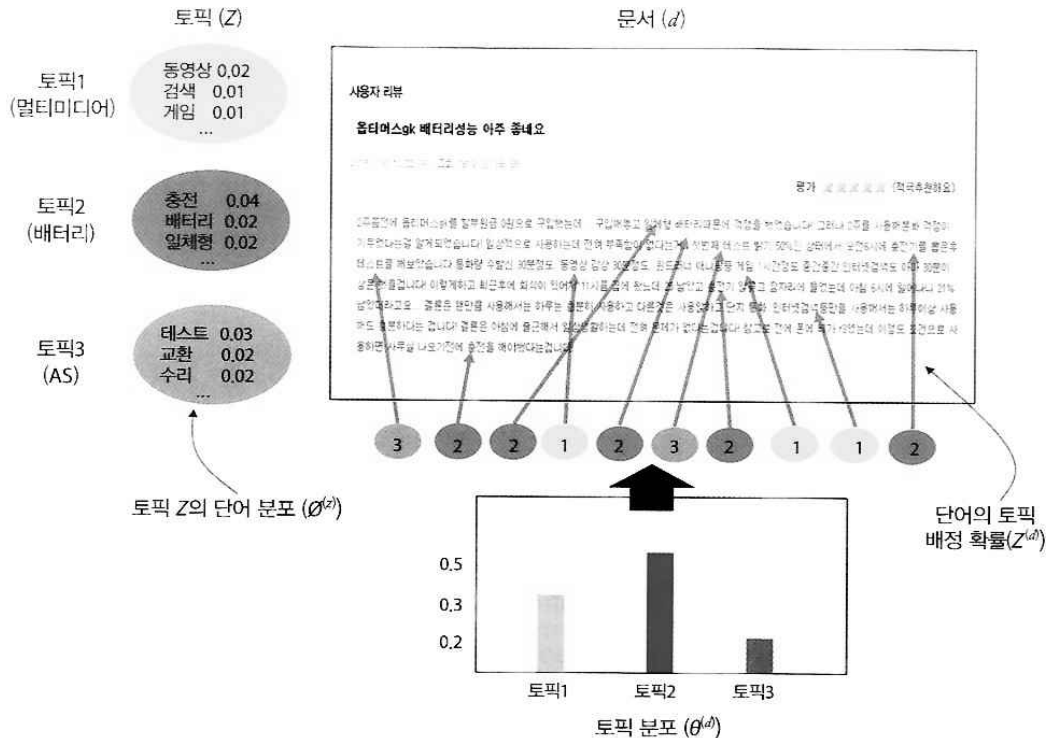
[그림 3-3] 가장 영향력 있는 밈들의 추출 및 시각화  
(출처 : Jure Leskovec 외 (2009). Meme-tracking and the Dynamics of the News Cycle.)

먼저 휴대폰들에 대한 사용자 후기가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후기들을 수집한 후, 이를 정제하여 단어들을 추출, 통계를 내어 순위 등을 매긴다. 그리고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 LDA)’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후기들의 토픽 집합과 확률 분포를 추정한다. 그러



[그림 3-4] 2011~2012년 휴대폰의 진화 패턴의 진화계통도  
(출처 : 온병원 외 (2017).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인공지능 진화 패턴 규명에 관한 연구. 인공지능의 진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313.)

면 [그림 3-4]와 같은 토픽 분포가 산정되고, 이 토픽들을 수작업으로 클러스터링 하여 [그림 3-5]와 같은 진화그래프를 시각화한다.



[그림 3-5] 토픽 분포 차트

(출처 : 은병원 외. (2017).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인공지능 진화 패턴 규명에 관한 연구. 인공지능의 진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295.)

밈을 분석하는 상기의 두 가지 방법은 텍스트를 통해 밈을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며, 기존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 각각 특유의 수학적 알고리즘을 결합함으로써 정확성을 향상시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밈은 일종의 유전자이며 바이러스처럼 행동한다. 밈은 변이되고 사람의 머리 사이로 유전되며 뇌의 내부에서 선택된다. 따라서 밈을 고려할 때엔 일종의 숙주 역할을 하는 뇌, 즉 인물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마치 전염병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병원성 균의 성질은 물론 그 균이 들어오게 된 경로, 즉 숙주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림 3-6]은 1920-30년대 국내 부업담론에 관한 연구로써 특정 시기

의 담론을 당시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성을 갖는다. 텍스트에서 기사를 골라 통계 및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사후처리 역시 유사하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담론을 발화한 인물에 대한 사항이 빠져있으며 사후처리 역시 단순 키워드 통계 집계를 했다는 점이 다르다. IT 기술의 발달로 키워드를 보다 쉽게 통계 내주고 네트워크 분석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술의 편의성 덕분에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Table 1. Keyword and Frequency

No.	Keyword	Frequency
1	hygiene	69
2	disinfection	45
3	daily life	34
4	home	33
5	family	32
6	improvement, woman	28
7	duty, women education	26
8	housework	22
9	efficiency, arrangement, health	16
10	economy	15
11	ondol	14
12	buttukak	13
13	hamsil agungi, agungi, fuel	12
14	maid, maru, floor, equipment	11
15	dirty, clean	10
16	rational	9
17	culture, house	8
18	meal, dining room, cleaning	7
19	germ, lamp, anbang, science, research	6
20	humidity, effort, ventilation, natural lightings, dish wash, pantry, madang, worm	5
21	dark, smoke, cabinet, disease	4
22	smell, Chosen, society, machine	3
23	service, history	2
Total article		115
Selected keyword		54
Total frequency of all keyword		681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동아일보의 부업관련기사에서 가장 빈도 높게 언급된 단어는 위생(hygiene)이었다.

연결망은 키워드간의 공동출현 관계를 보여주며, 행렬을 1원행렬(1mode matrix)로 변환한 준연결망(network)이다. 이 공동참여 연결망은 모든 연결수를 사용한 소시오그램과 중앙성 지수를 근거로 단어들의 관계를 해석한다.

먼저, 선정한 키워드의 공동참여 연결망을 소시오그램으로 나타내면 Figure 3과 같다. 모든 점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연결망의 밀도가 높다는 것, 즉 모든 키워드가 예외없이 서로 연결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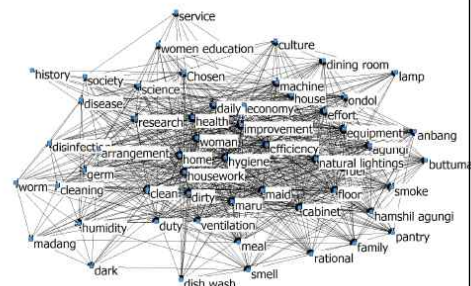


Figure 3. Sociogram of affiliation network of articles (total)

6) 기사와 키워드의 관계로 만들어진 행렬에서 실제로 키워드간의 인위적인 관계를 설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지 않고 연결을 가정해 주고 분석한 연결망을 구축한 것을 준 연결망(quasi network)라고 한다. Y. (2011). Ibid., 89-97  
7) NetDraw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그림 3-6] 유사한 담론 연구의 예

(출처 : 도연정, 전봉희. (2016).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1920-30년대 부업담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그림 3-7]에서 보이는 연구는 밈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점을 갖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SNS상에 존재하는 국내 프로야구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해 분류하고 통계를 냈다는 점에서 본 논문과 유사한 점을 갖지만 이 연구 역시 누가 어떤 밈을 발화했

느냐를 고려하지 않으며 사후처리 역시 단순 양적 통계에서 그치고 중심성 등을 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기존 텍스트 분석의 분류 작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 두 연구 모두 시간에 따라 담론들이 변화하는 양상 역시 담지 않는다. 앞의 담론 연구는 1920~30년대라는 특정 시간으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뒤의 밈 연구 같은 경우 밈의 중요한 성질 중 ‘변이’와 ‘선택’을 관찰하려면 특정 기간 동안 대상이 변화하는 양상 또한 고찰하고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밈 이론을 적용한 관찰 및 분석이라는 것은 밈이 발신되고 수신된 숙주(인물)에 관한 조사와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의 변화추이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앞서 서술한 방법들은 컴퓨터를 이용해 단어나 문장들의 통계를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문장이나 밈들을 분석하였다. 이는, 조사 대상이 되었던 미디어의 기사들이나 간단한 핸드폰 사용 후기 같은 글에는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텍스트들은 매우 다른 특성을 갖는다. 어떤 작품을 소개하거나 리뷰하는 텍스트들은 문학작품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직유나 은유들이 포함되어 있고, 본래 말이나 문장이 갖고 있는 뜻을 일차원적으로 사용하기보다 다른 목적이나 뜻을 표현하고자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예를 들어, 공간지 2017년 9월 호에 천의영 교수가 쓴 ‘다이어그램적 공간 구축’이라는 글에는 국내 수필가인 피천득의 글 한 구절이 실려있다.

*..."그리워하는데도 한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라고 하던 피천득의 수필 '인연'...*

만약 이 문장을 통계적 기법에 의한 기계적 기법들로 분석한다면 단순히 ‘만남’이라는 주제의 글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 글 전체의 문맥을 보면 텍스트 작성자가 건축가와 땅의 관계를 인연에 빗대고 이를 좀더 문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해당구절을 차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예도 있다. 공간지 2015년 9월호에 김일현 교수가

표 2 인물 밈 분석 결과

L1	L2	L3	L6. Meme		L1	L2	L3	L6. Meme	
인물 (571,105)	선수 (444,508)		기록	202,891	인물 (571,105)	유명인사팬 (5,806)		쇼맨십	969
			스케줄(일정)	126,617				사생활	635
			경력	60,913				커뮤니케이션	596
			커뮤니케이션	44,395				경력	568
			장비	27,685				광고	358
			사건사고(내적)	27,210				외모	351
			계약	26,913				계약	217
			사생활	18,697				사건사고(외적)	73
			쇼맨십	17,735				사회공헌활동	35
			광고	12,906				사건사고(내적)	31
			외모	11,333				쇼맨십	6,778
			사건사고(외적)	10,835				외모	1,058
			라이벌	3,352				경력	646
			사회공헌활동	2,601				사생활	577
	기록	1,277	커뮤니케이션	493					
	커뮤니케이션	569	광고	231					
	경력	490	사건사고(내적)	95					
	계약	340	사건사고(외적)	95					
	광고	160	사회공헌활동	7					
	사건사고(내적)	149	계약	1					
	사회공헌활동	97	외모	1,340					
	쇼맨십	84	커뮤니케이션	911					
	사건사고(외적)	66	경력	423					
	사생활	60	사건사고(외적)	260					
	라이벌	42	쇼맨십	256					
	외모	32	계약	227					
	기록	189	광고	150					
	경력	159	사생활	107					
	광고	107	사건사고(내적)	68					
	사생활	73	사회공헌활동	2					
	사건사고(내적)	50	커뮤니케이션	45					
	커뮤니케이션	49	사생활	5					
	계약	36	광고	4					
	사건사고(외적)	17	경력	4					
	외모	10	쇼맨십	3					
	사회공헌활동	5	사건사고(내적)	2					
	라이벌	5	외모	2					
	쇼맨십	5	커뮤니케이션	400					
	계약	3	경력	394					
	광고	2	사생활	209					
	사건사고(내적)	1	쇼맨십	177					
	경력	1	광고	114					
	경력	20	사건사고(내적)	86					
	커뮤니케이션	8	사회공헌활동	63					
	계약	7	사건사고(외적)	61					
	사생활	2	외모	60					
	커뮤니케이션	2	계약	35					
사생활	2	라이벌	13						
광고	1	광고	107						
사회공헌활동	1	외모	63						
기록	913	경력	39						
사생활	223	사건사고(내적)	19						
커뮤니케이션	220	사회공헌활동	13						
경력	217	라이벌	6						
사건사고(내적)	146	커뮤니케이션	5						
외모	140	경력	139						
쇼맨십	138	커뮤니케이션	74						
광고	119	사생활	21						
사건사고(외적)	99	쇼맨십	16						
사회공헌활동	37	사회공헌활동	13						
계약	25	계약	12						
라이벌	3	사건사고(내적)	12						
외모	640	광고	9						
경력	153	사건사고(외적)	6						
커뮤니케이션	74	외모	6						
사생활	74								
광고	61								
사건사고(외적)	28								
쇼맨십	15								
라이벌	14								
계약	6								
사건사고(내적)	5								
사회공헌활동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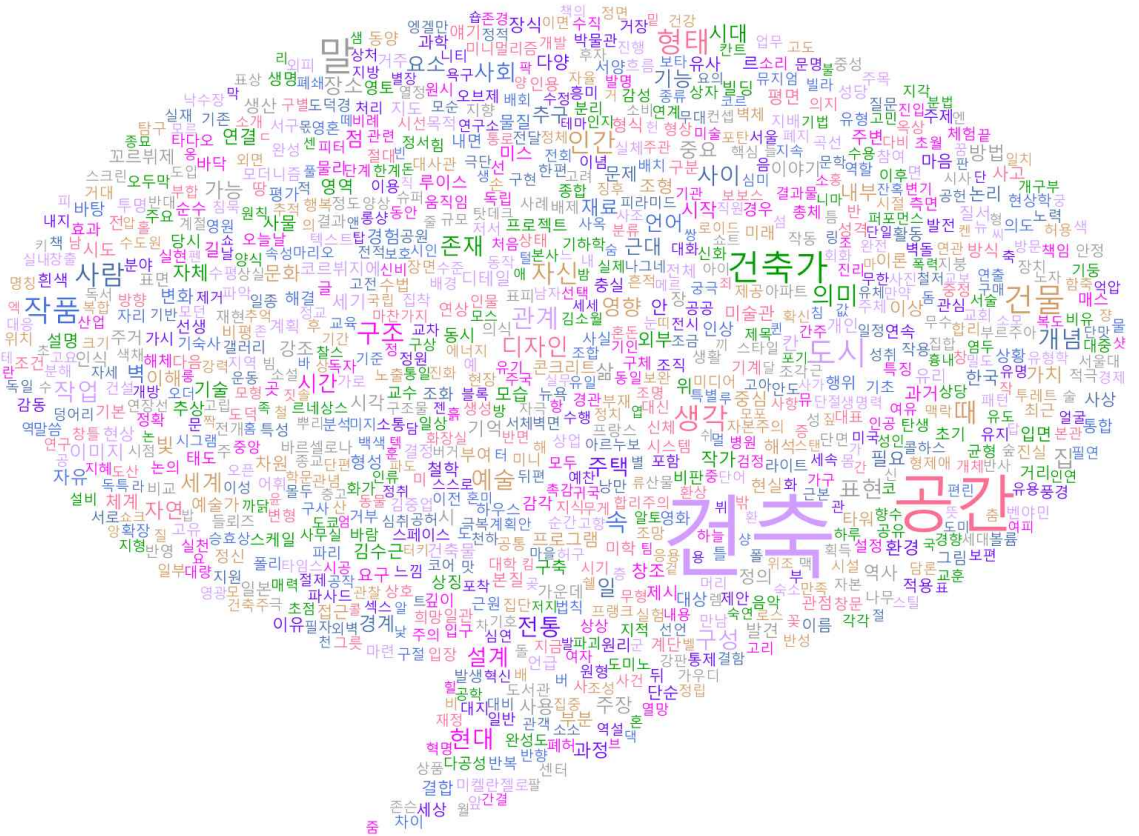
[그림 3-7] 유사한 밈 연구의 예  
 (출처 : 한진욱. (2015). 안정찬 외. 소셜 빅데이터를 통한 한국 프로야구 SNS 밈(meme) 분석.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쓴 ‘지붕 감각’이라는 글에는 마르크스의 말이 실려있다.



..."모든 단단한 것은 공중에서 분해된다"...

이 말 역시 통계적 기법으로는 전혀 뜻을 알 수가 없다. 설령 텍스트 전체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한다 하더라도 이 글의 제목인 ‘지붕 감각’과 연관된 지붕에 대한 내용만 분석될 소지가 크다. 하지만 이 문장 역시 앞뒤를 함께 분석하면 건축이라는 단단한 대상을 정의하는데 사용하는 말과 단어가 쉽게 부서진다는 의미로, 건축을 말하는 담론에 대해 말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8]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텍스트들의 말문치 분석

[그림 3-8]은 기존의 통계적 방법으로 본 연구에 사용되었던, 뒤에서 소개할 모든 텍스트들을 단어 통계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단어의 출현 수에 따라 크기를 비례하게 한 후 시각화한 결과이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건축’이었으며 ‘공간’, ‘건축가’, ‘말’, ‘작품’ 순으로 많이 단어들이 나오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는 담론들을 파악할 수도 없고 어떠한 경향도 파악하기 힘들다.

이처럼 통계적 기법에 의한 기계적 분석은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를 대량으로 빠르게 분석하고 수치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방대한 텍스트 속 특수한 문장이나 문학과 같은 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용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기존 텍스트 마이닝 기법들인 많은 방법들 - 형태소 분석, 벡터 공간 모델, 의미연결망 분석 등 - 도 같은 단점을 가진다. 이 방법들은 복잡한 텍스트라는 모래에서 대강의 특징만을 추출한 매우 거친 체와 같아 그 자체만으론 현실세계에서의 상식과 경험을 능가하는 통찰을 찾아내기 어렵다.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머신러닝이나 AI를 이용한 방법들은 아직 더 많은 데이터 테스트들의 축적과 인간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필요한 실정이다.<sup>48)</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밈 연구처럼 텍스트를 통계적이고 수량적으로 바라본다는 견지를 차용하지만, 밈 수신자와 발신자에 관한 조사를 추가하고 강화할 것이며, 밈 내용을 수작업으로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것이다.

48) 김도훈. (2017). 텍스트는 어떻게 분석되는가. 통계교육원, [http://sti.kostat.go.kr/window/html/2017\\_win\\_3.html](http://sti.kostat.go.kr/window/html/2017_win_3.html).

## 3.2. 조사 대상 설정

앞절에서 살펴본대로 본 연구에서 밈을 조사하는 대상은 텍스트로 한정했지만 사실 건축의 밈은 텍스트 외에도 잡지의 사진, 도면 등으로도 타인에게 옮겨질 수 있으며 최근에는 잡지가 아닌 웹이나 SNS상의 이미지와 텍스트도 밈의 전과 경로로써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진, 도면과 같은 이미지에 나타나는 속성들을 추출하여 정제하는 기술이 더 발달해야 하며, SNS상에 존재하는 대량의 텍스트 역시 자료 수집과 단순 텍스트 통계 등은 가능하나 타인에게 영향을 받은 밈들만을 추출하고, 이 밈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일은 현재의 자연어 처리 기술로는 실현이 어렵다. 따라서 시각적 자료와 대량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게 연구를 하는 방법은 추후 기술이 발달하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 3.2.1. 조사 대상 서적의 설정

앞서 서술된 바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축인들의 텍스트들을 분석할 것이다. 현대 한국 건축에서 건축인들이 서로 주고받은 밈들의 흐름과 내용을 분석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1. 해방 이후 가능한 많은 시간동안의 텍스트가 필요하다.
2. 가능한 많은 건축가들의 텍스트가 있어야 한다.
3. 특정 건축가나 특정 시기의 텍스트들만 지나치게 많이 분석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의도치않게 텍스트들을 분석했는데 특정 시기의 건축가 서술이나 텍스트가 많다면 그 현상 자체도 의미가 있긴 할 것이다.
4.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텍스트들이 더 의미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기 조건들을 고려할 때 적합한 텍스트의 형태로는 해방 후부

터 지금까지 발간되며 가급적 많은 출판부수와 많은 건축가들이 글을 동일한 주기로 실는 정기 연속간행물 형태의 텍스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 개의 후보군은 다음과 같았다.

### 1. 대한건축학회지 ‘건축’

‘건축’은 현재 발간되고 있는 국내 건축 텍스트들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1955년부터 꾸준히 격월간이나 월간으로 발간이 되었다. 하지만 발행부수가 적고, 건축가들의 작품 소개 같은 텍스트보다 학회 소식이나 행사 등 대상 독자가 대한건축학회 회원들로 한정되어 발간이 된다.

### 2. 월간지 ‘공간(SPACE)’

1966년 건축가 김수근이 창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월간 발간이고 잡지 한권 당 텍스트들이 풍부하며 작품 소개 목적의 건축가들의 글들과 그를 둘러싼 평론가, 학자들의 텍스트, 특집 기사, 연구들이 적절히 섞여있다. 또한 일반 서점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발행 부수도 많고 독자층도 많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2008년 1월부터 미국 학술정보 제공 기관인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의 예술, 인문학 인용색인에 정식 등재되었다. 이는 잡지 형태의 정기간행물로는 국내 최초이며 건축 전문지로는 전 세계에서 23개 저널만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sup>49)</sup>

### 3. 월간지 ‘건축과 환경(C3)’

건축과 환경은 1986년 창간되었다. 김수근의 공간지가 화보 성격의 비주얼 매거진(Visual magazine) 성격이 강했다면, 건축과 환경은 비평전문지를 지향했다. 197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꾸밈’, ‘건축문화’, ‘플러스’, ‘이상건축’ 등 많은 건축 잡지가 창간되었는데, 이들 중 건축 작품 소개에 있어 내용적, 형식적 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건축과 환경’이었다.<sup>50)</sup> 그리고 비평전문지를 지향한만큼 공간지보다 건축가나 작품

49) [www.vmspace.com](http://www.vmspace.com)

에 대한 텍스트가 조금 더 많이 실려 있는 편이다.



[그림 3-9] ‘건축’, ‘공간’, ‘건축과 환경’의 창간호들

이상 세 개의 후보 가운데 텍스트의 양이나 수준은 ‘건축과 환경’이 가장 좋은 편이었지만 1986년부터 창간이 된 관계로 그 이전 건축가들의 밈들을 관찰할 수 없어 종합적으로 볼 때 ‘공간(SPACE)’지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공간(SPACE)지의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3.2.2. 서적 내 조사 대상 텍스트들의 분류

앞서 설정한 대로 공간지를 펼쳐보면, 다양한 필자들과 목적이 다른 텍스트들이 혼재하고 있다. 공간지는 창간 당시 김수근의 바람대로 건축뿐 아니라, 미술, 음악에 이르기까지 예술 전반의 종합적인 기사들을 싣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상 당연히 건축 카테고리의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하며, 다시 그 텍스트들을 작성 목적과 필자들에 의해 분류하면 크게 [표 3-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텍스트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긴 어렵다. 일단, 모든

50) 최원준 (2010). 국내발간 건축잡지의 작품소개체계 변천에 대한 개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2호(통권256호).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텍스트의 양이 매우 방대해지는데, 전자 DB화 된 텍스트가 없어 수작업을 해야하는 관계로 조사에 어려움이 수반된다. 또한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통계학적으로 표본(공간지)이 모집단(한국 건축계 전반)을 대표하려면 임의추출이 중요하다. 즉, 편향성 없이 텍스트들이 조사되어야 하는데, 잡지라는 특성상 편집부나 출판사의 편향된 글이나 주제가 들어가게 된다.<sup>51)</sup>

[표 3-1] 건축 잡지에 실리는 건축 카테고리 기사들의 분류

작성 목적	작성 주체	작성 방식
작품 소개	작품을 설계한 건축가	서술
		인터뷰
작품, 건축가 소개/비평	작품을 설계하지 않은 건축가/비평가/학자	서술
특별 주제 비평/연구	건축가/비평가/학자	서술
특별 주제 토론/좌담		토론, 담화
칼럼		서술
건축가 인터뷰		인터뷰
시론 논평	잡지 편집부	서술
단신		

따라서, 편향성이 없고 수는 너무 많지 않으면서 건축계의 담론이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텍스트로, 작품을 리뷰한 텍스트들이나 작가와의 인터뷰만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물론 잡지에 실리는 작품도 어느 정도 출판사에서 선별 과정을 거치긴 하나 일반적으로 시대의 유행이나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이 선별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텍스트로 고르게 해당 시대의 밈들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텍스트라 생각하였다. 텍스트를 쓴 이는 작품을 직접 만든 건축가 및 작품을 비평한 사람들의 텍스트를 모두 다루기로 하였는데,

51) 예를 들어, 김수근이 세상을 떠난 86년도의 공간지들은 김수근 특집을 굉장히 많이 실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 한국 건축계의 담론의 흐름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예로, 공간지에서 수시로 기획하는 특집 기사들은 해당 기사의 주제의 밈들이 많이 조사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이 역시 밈의 분포를 왜곡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특정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밈들을 고르게 관찰하기 위함이다. 또한, 작품 리뷰 텍스트에서 발견하는 밈들은 특집 기사나 담론계 혹은 학계에서 글이나 이야기로만 회자되는 밈들보다 작품으로 현실화 되어 현실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물론 잡지 편집부가 쓴 단신이나 편집 에필로그 형식의 글들은 본 조사 주제인 밈과 관계가 없으므로 제외한다.

### 3.3. 조사 방법 설정

앞 절에서 결정한 조사 대상인 공간지의 텍스트에서 밈을 추출하는 본 연구의 방법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0] 본 연구의 밈 이론 적용 텍스트 분석 방법 과정

위 과정은 기존 다른 연구에 사용되던 방법이 아닌, 밈 이론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만 사용한 방법을 도식화한 과정이다. 각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3.1. 밈 포착 및 채집

밈의 흐름은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개체가 다른 두 뇌 사이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어 어떤 건축가가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작성한 텍스트에서, 특정 타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 사람의 사상/작품/말 등을 언급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사상/작품/말의 밈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 절에서 선정한 텍스트들에서 [그림 3-11]처럼 텍스트 작성인이 타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발화한 부분만을 골라 텍스트를 작성한 사람, 텍스트에서 언급한 대상인물, 언급한 글의 내용을 골라 기록한다.

그러나 단순히 언급을 했다고 반드시 밈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 ㄱ) 부정적 언급 : “A는 ... 라고 말을 하였다. 하지만 난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
- ㄴ) 단순 객관적 인용 : “A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A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참석자의 명단은 A,B,C,D...”



승효상 문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제안들도 많이 했었고, 하지만 그전에 도시는 도시계획가가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축가가 도시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도 덧붙이고 싶어요. 때문에 도시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든 것입니다. 도시와 건축의 교류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말이지요. 최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스터플랜이라고 전제되는 서구 도시계획은 한계가 있습니다. 소통방식, 가치관, 생활방식, 사회구조 등 많은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스터플랜이라고 표현되는 메트로폴리스의 시대는 이전 맞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 도시 학자인 프랑수와 아쉐르가 쓴 '메타폴리스<sup>metapolis</sup>'의 개념이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도시의 상에 이론적 뒷받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직선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가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고 불확정적이지만 인간의 의지와 의도에 의해서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농촌과 도시가 합쳐진 러반라이프<sup>rurban life</sup>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이죠.

**밈 발신자 : 프랑수와 아쉐르**  
**밈 수신자 : 승효상**  
**밈의 내용 : 인간의 의지와 의도에 의한 가변적 도시**

[그림 3-11] 텍스트에서 밈을 포착하고 채집하는 예시

위와 같은 이름의 언급은 밈을 받았다고 하기 힘들다. 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자리잡고 다른 생각들보다 우위의 자리를 점하며 뇌를 조종하고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인데 ㄱ)같은 경우는 오히려 해당 밈을 강하게 부정하고 경계하는 언급이고 ㄴ)같은 단순 인용은 인용 대상 인물에 크게 감화를 받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등을 제외하며 언급된 타인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텍스트를 쓴 사람이 밈을 받은 사람이 되므로 ‘밈 수신자’, 언급 대상이 된 사람은 ‘밈 발신자’로 기록을 하였다. 그리고 이들 인물에 대한 신상 - 성명, 직업, 국적, 성별, 출생년도 - 들도 동시에 조사, 기록하였다. 향후 시대별, 밈 수신자 별로 영향을 받은 밈 발신자들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표 3-2] 밈 발신자와 수신자 조사 항목들과 예시

발행 년월호	비평 대상자	밈 수신자	직업	밈 발신자				
				이름	성별	직업	국적	출생년도
2016년 9월	박제유	박준호	교수	니콜라스 페브스너	남	건축 이론가	영국	1902

밈의 내용은 언급 문장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문장만 봐서는 텍스트 작성자의 언급 의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맥 전체를 고려하기 위

해 텍스트 전체를 읽어보고 내용을 파악하기도 한다. 따라서 언급 문장이 포함된 텍스트의 문맥상 필요한 앞뒤 내용, 소제목과 큰제목을 함께 기록하고, 주요 단어 및 문장 자체의 내용을 키워드로 요약, 기록해 두었다. 또한, 언급된 작품이 있다면 함께 기록하여 주며, 글의 종류도 함께 기록하여 두는데, 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었다.

- ㄱ) 작가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글
- ㄴ) 타인의 작품을 비평하거나 소개하는 글
- ㄷ) 인터뷰/대담

이렇게 밈의 내용과, 인물에 대한 사항들을 동시에 조사, 기록하는 것이 밈의 채집 단계이며 최종적으로 다음 [표 3-3]과 같은 예시를 보여준다.

[표 3-3] 밈의 흐름과 내용을 함께 종합하여 조사한 항목들과 예시

발행 년월호	2017년 7월	
비평 대상자	MVRDV	
밈 수신자	이민아	
직업	건축가	
밈 발신자	이름	프랑시스 풍주
	성별	남
	직업	작가
	국적	프랑스
	출생년도	1899
글의 종류	타인 비평	
글 소제목	서울로7017 위에서	
글 대제목	무엇을 위해 고가를 건나:서울로 7017	
언급 서술 문장	"일요일 또는 예술가"에서 프랑시스 풍주는 나무를 이렇게 표현했다. "... 자신을 둘러싼 무기물의 세계만을 희생시켜 자신의 통	

	합을 이루는 덕목을 잃지 않고, 온전히 그들의 시간을 쓴다... 그들이 조금씩 차지해가는 공간으로 귀착한다..." 자연을 인공 속으로 밀어 넣었으나 나무는 동그라미를 초월해 자신의 환경 안에서 의연하고 늘 새로운 것임을 숙연하게 목도하는 현상이 될 것이다.
밈의 종류	일반적 언급
추출 키워드	#인공 #나무 #조경
언급된 작품	
밈의 요약 내용 및 분류	랜드스케이프 건축

### 3.3.2. 정제 및 분류

3.3.1의 방법으로 조사한 밈들은 거의 서로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담론의 경향, 중심성 등을 최종적으로 볼 것이므로 밈들을 분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비슷한 내용들의 밈들을 묶고 다른 내용들의 밈들과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수작업으로 분류를 하였는데, 3.1.2에 나온바와 같이, 아직은 자연어 처리 기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식은 죄악이다"-아돌프 로스*

(김호민, 외피의 회복, 잠재된 공간을 밝히다, 2015년 5월호)

와 같은 구절이 있을 경우, 이 구절은 아돌프 로스에게서 온 밈이 되며, 내용은 ‘미니멀리즘’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니멀리즘’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으며, 더 크게는 ‘모더니즘’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장식은 죄악이다”라는 밈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장식은 죄악이다” 그대로이지만, 이를 통계처리나 경향을 보기 위한 목적에 의해 ‘미니멀리즘’과 ‘모더니즘’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어서 살폈다

는 것이다. 즉, 내용이 ‘미니멀리즘’이나 ‘모더니즘’이라기보다 소속되는 분류 항목이 ‘미니멀리즘’이나 ‘모더니즘’이라는 뜻이다. 이는 앞 단계에서 채집한 밈들을 통계 처리가 아닌 담론 의미 분석 등 분석의 깊이와 방향성에 따라 정제와 분류가 다르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제 및 분류 과정은 기존 텍스트 마이닝의 ‘전처리(pre-processing) 과정’과 비슷한 과정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수치형 자료로 표현하기 위해 거치게 되는 과정이다. 많은 경우 본격적 데이터 마이닝 과정보다 전처리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sup>52)</sup>, 본 연구에서도 밈의 채집보다 정제 및 분류 과정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 3.3.3. 네트워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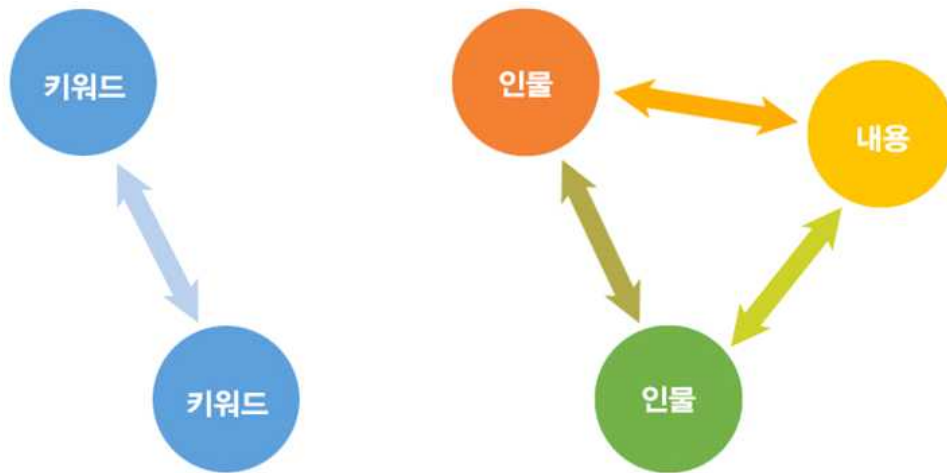
앞 절에서 설명한 대로 정제와 분류를 거치면 처음 텍스트에서 채집한 밈은 발신자, 수신자, 카테고리라는 속성을 얻게 된다. 그리고 밈들의 관계와 흐름, 중앙성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 속성을 노드화 한 뒤 네트워크를 작성한다.

[그림 3-12]는 기존 텍스트 분석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작성 방법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작성 방법의 차이를 보여준다. 기존 텍스트 분석에서는 대개 한 문장이나 구절 안에 등장하는 단어나 키워드 들을 추출한 뒤 이들을 노드화하여 링크로 연계시킨다. 그렇게 하여 키워드들간의 관계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밈 이론을 기반으로 하므로 네트워크 작성 방법이 다르게 된다. 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밈 이론에 의해 분석을 한다는 의미를 잠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밈 이론에 의해 분석을 한다는 것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별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는 밈이 바이러스처럼 숙주, 즉,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기 때문에 인물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밈의 관점에서 흐름을 본다는 것이다. 밈의 관점에서 흐름을 본다는 것은 가령, “건

52) 원중호, 이한별 외. (2017).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경제심리 관련 문서 분류. 한국은행.

축가 승효상이 르 코르뷔지에에게서 모더니즘에 속하는 어떤 밈을 받아서 언급하였다”처럼 인물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더니즘에 속하는 어떤 밈이 르 코르뷔지에라는 숙주에게서 나와 건축가 승효상에게 전염된 것이다.”로 바라보는 것이다. 즉, 주체가 인물이 아니라 철저히 밈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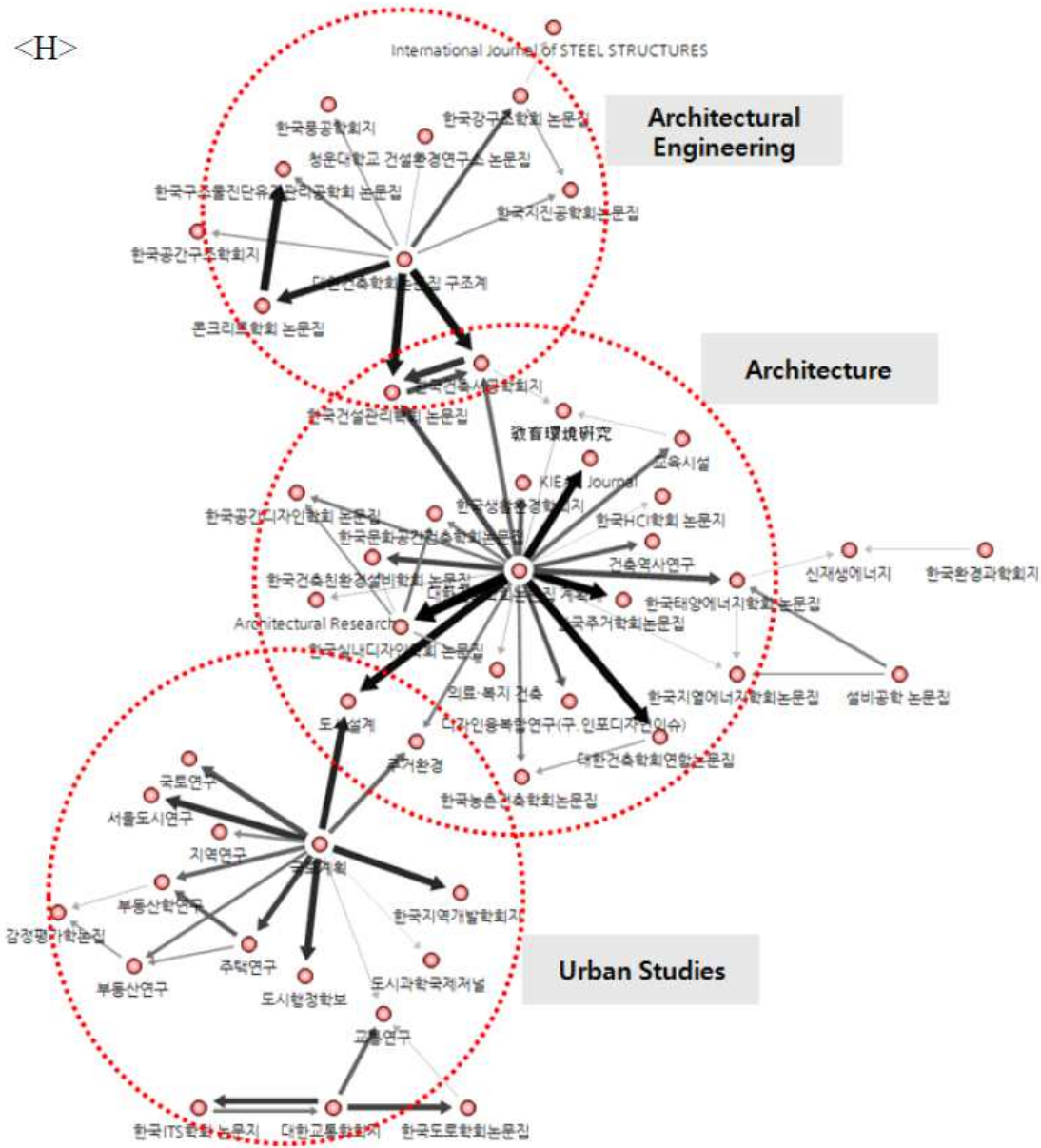


[그림 3-12] 기존 텍스트 분석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작성 방법(左)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네트워크 작성 방법(右)

따라서 [그림 3-12]의 오른쪽 네트워크처럼 ‘내용’에 해당하는 밈이 두 인물 사이에 위치하게 되며, 이는 밈이 두 인물 사이를 오고 갔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물들만의 관계를 봐야 할 경우엔 ‘내용’에 해당하는 밈을 빼고 인물만으로 네트워크를 작성하고 결과를 볼 수도 있다. 4장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인물과 내용이 함께 얽혀진 네트워크는 결과적으로 더 합리적이고 정확한 중앙성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밈의 흐름들을 더 보기 좋게 보여준다.

[그림 3-13]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요소들의 시각화의 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그림은 건축 연구 분야 학술지들 간의 인용, 피인용 관계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시각화한 연구에 수록된 시각화 그림들 중 하나이다. 인용, 피인용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조사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림을 보면 화살표의 방향, 굵기 등으로 인용, 피인용의 관계와 중요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학술지들의 분야와 영향력이 센 학술지 별로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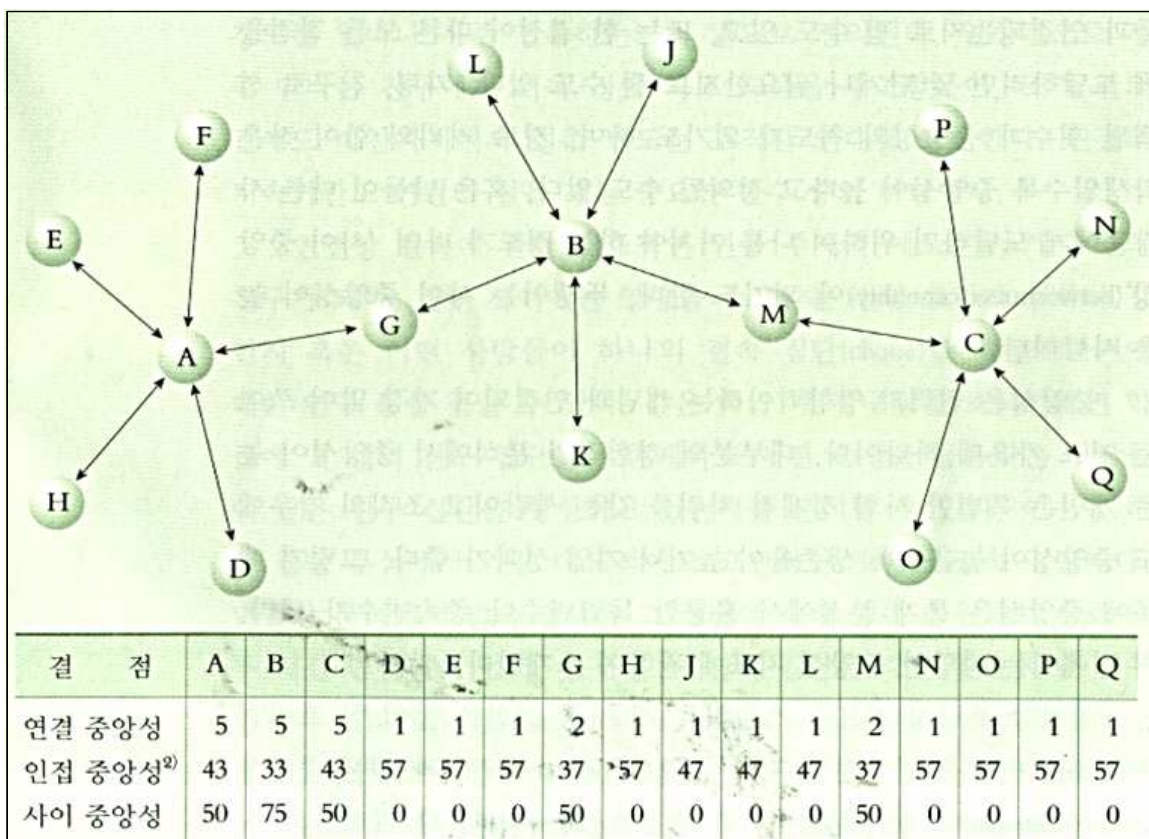
핑(Grouping)이 되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13] 학술지들 간의 인용, 피인용 관계를 시각화 한 연구의 네트워크 관계도 (출처 : 김승남. (2015).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건축도시 분야 핵심 학술지 탐색.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31권 제12호(통권326호) 12, p.104.)

## 3.3.4. 지표 산출 및 활용

앞 절처럼 시각화 단계를 거친 다음 단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계량화 단계를 시행한다. 네트워크 관계를 계량화 하는 지표는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활용하기로 한다.



[그림 3-14] 네트워크 관계 계량화 지표들과 그 계산의 예시  
(인접 중앙성=근접 중심성, 사이 중앙성=매개 중심성)

연결중심성은 직접 연결된 이웃 노드가 많을수록 중심성이 높아지는 지표로, 영향력의 크기를 의미한다. 근접중심성은 다른 노드들과의 평균 연결단계가 짧을수록 중심성이 높아지는 지표로, 영향의 확산력이나 즉효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근접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확률적으로 가장 빨리 다

른 노드에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개중심성은 다른 노드 간의 최단 경로에 많이 포함될수록 중심성이 높아지는 지표로, 노드 간의 연결을 매개하는 빈도를 나타낸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정보 흐름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며, 이 노드가 제거될 경우 네트워크 전체 연결과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53)</sup> 각 지표의 구체적 산식은 다음과 같다.<sup>54)</sup>

· 연결 중심성 =  $d(n_i)/(g-1)$   
 $g$ =전체 노드수,  $d(n_i)$ =노드  $n$ 의 degree

· 근접 중심성 =  $\frac{g-1}{\sum_{j=1}^g d(n_i, n_j)}$   
 $g$ =전체 노드수,  $d(n_i, n_j)$ =노드  $i$ 에서  $j$ 까지의 거리

· 매개 중심성 =  $\sum_{j=1}^{k-1} \frac{g_{jk}(n_i)/g_{jk}}{[(g-1)(g-2)/2]}$   
 $g_{jk}$ =노드  $j$ 에서  $k$ 로 가는 최단경로의 개수,  $g_{jk}(n_i)$ =노드  $j$ 에서  $k$ 로 가는 최단경로에서 노드  $i$ 를 지나가는 횟수, 분자 전체=모든 노드 쌍의 최단 경로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노드  $i$ 를 지나갈 확률, 분모 전체= $n_i$ 를 포함하지 않는 모든 노드 쌍의 수

즉, 근접 중심성이 네트워크 전체적인 중심성을 보여준다 할 수 있으며, 매개 중심성은 길목에 위치하는 특정 인물이나 밈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결 중심성은 단순히 해당 인물이나 밈의 연결 정도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체적인 중심성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근접 중심성을 주로 산출하여 중심성의 기준으로 살펴 볼 것이다.

53) 김승남. (2015).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건축도시 분야 핵심 학술지 탐색,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31권 제12호(통권326호) 12, p.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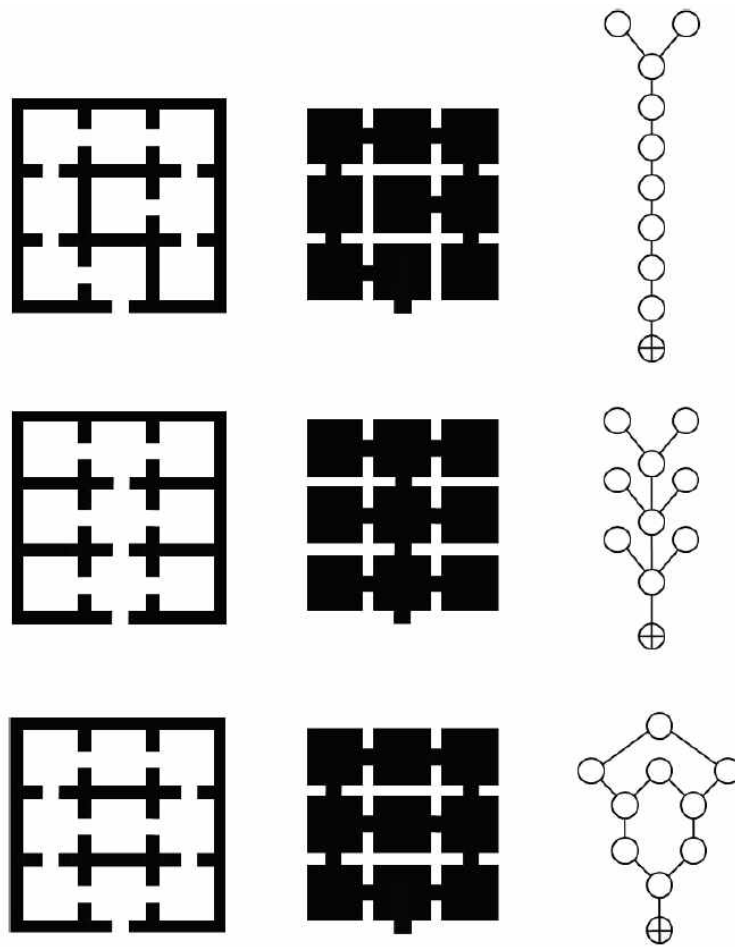
54) McCulloh, I., Armstrong, H., & Johnson, A. (2013). *Social Network Analysis with Applications*, Hoboken,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이처럼 네트워크 작성에서 지표 산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은 마치 건축 공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분야인 공간구문론(Space Syntax)과 유사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에서 공간이라는 것은 정성적이고 감각적인 대상이었으나 1984년 런던대 바틀렛 건축학부의 힐리어와 헨슨(J. Hanson)에 의해 공간구문론이 개발되었고, 공간구문론의 주된 목적은 공간 구조를 공간의 연결 관계를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림 3-15]에서 보는 것처럼 공간구문론에서는 단위 공간들을 노드화시키고 연결 상태를 단순화하여 공간의 구조를 선명하게 하여 분석을 한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방법에서 인물과 내용들을 노드화하여 분석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갖는다. 공간 구문론은 추후 여러 학자들과 연구들에 의해 ERAM, ISOVIST, VAE 등 다양한 모델들로 발전하였으며, 연결도, 통제도, 통합도와 같은 여러 지표들을 산출하여 공간의 중심성,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sup>55)</sup> 이는 본 연구의 네트워크 분석법의 여러 가지 중심성 지표들과 같다 할 수 있으며, 결국 본 연구의 밌 이론 기반 분석법이 공간구문론과 같이 건축 담론이라는 정성적 대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55) 조영진. (2009), 인간시지각에 기초한 공간분석모델 개발 연구. 서울대 박사, pp.9-20.



[그림 3-15]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공간 구조의 분석  
 (출처 : 변나향. (2014). 아파트단지와 단위세대 평면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 서울대 박논, p.26.)

## 제 4 장 조사 결과 개괄

---

4.1 기본적 사항

4.2 밈의 흐름

4.3 밈의 내용

4.4 소결

---

#### 4.1. 기본적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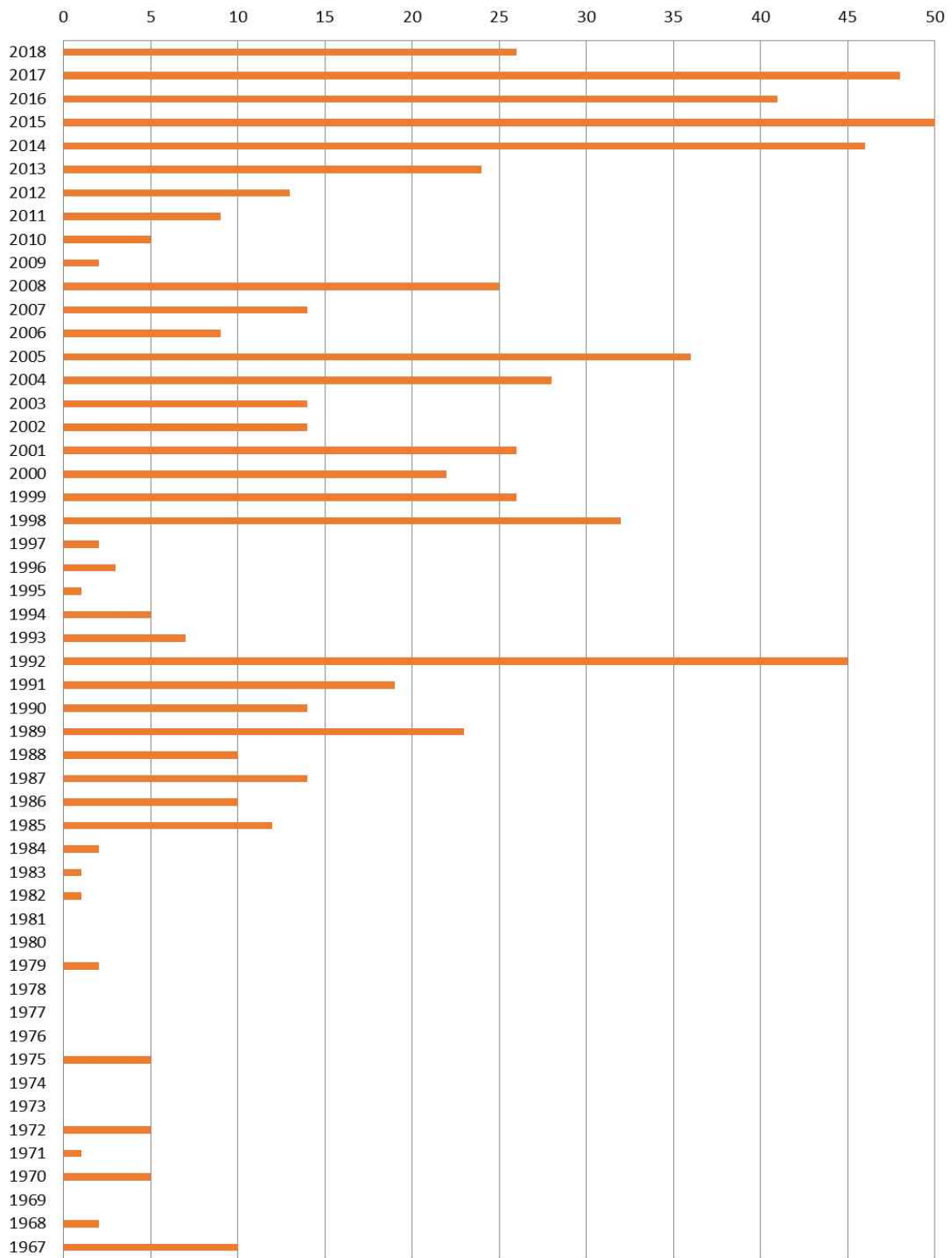
3장에서 서술한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에 발간된 공간지를 1967년 3월호부터 2018년 4월호까지 총 601권을 조사하였다. 추출한 밈의 수는 총 708개로, 601권 중 작품 소개 텍스트의 부재나 밈을 추출할 수 없었던 서적으로 인해 209권에서 밈을 추출하였으므로, 권당 평균 약 3.4건의 밈을 추출하였다.

[표 4-1] 밈 조사 서적들과 밈의 발행 기간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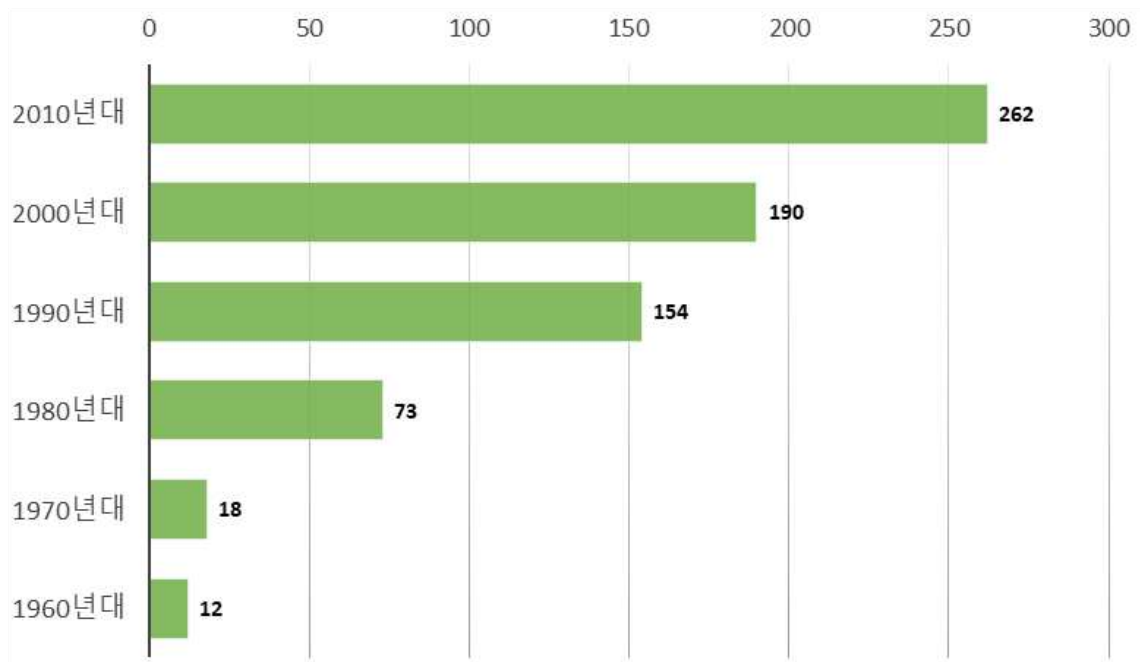
조사 서적 기간	1967년 3월호 ~ 2018년 4월호
총 조사 서적 수	601권
밈이 추출된 서적 수	209권
총 추출 밈 수	708개
조사 서적의 권당 추출 평균 밈 수	약 3.4개

연도별로 추출된 밈의 개수는 [그림 4-1] 과 같다. 그림을 보면 1980년대 중반 이전의 경우 추출된 밈의 개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는데, 이는 이 시기들의 공간지의 성격에서 기인한다. 현재 발행되는 공간지는 건축이 주요 주제가 되어 소개하는 작품 수나 기사의 양이 많지만, 80년대 중반 이전의 공간지들은 종합 예술지에 가까운 성격으로, 건축을 비롯해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의 주제를 비슷한 분량으로 배분해 다루었다. 따라서 건축에 관한 기사의 양과 소개되는 건축작품의 수도 매우 적었다.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추출되는 밈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최근 발행되는 공간지에 실리는 작품 소개와 텍스트의 양이 늘어남에서 기인한다. [그림 4-2]는 연도별 추출 밈 수를 10년 단위의 연도별로 분류한 것이며 이를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출되는 밈 수가 늘어남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 연도별 추출된 수



[그림 4-2] 연대별 추출 밈 수

## 4.2. 밈의 흐름

### 4.2.1. 기본 통계

본 절에서는 밈을 주고받은 인물들의 조사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밈이 발신된 사람들의 총 수는 349명으로, 남성이 323명으로 92.6%, 여성이 17명으로 4.9%, 인물이 아닌 건축사무소가 6개, 인물이지만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가 3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4-2] 밈 발신자들의 총 수와 성별 수

남성	323명	92.6%
여성	17명	4.9%
건축사무소	6개	1.7%
(성별을 알 수 없음)	3명	0.9%
총 계	349명	100%

### 4.2.2. 국적별 통계

349명의 밈 발신자들의 국적은 총 31개 나라로 조사되었으며 국적별 밈 발신자들의 분포는 [표 4-3], [그림 4-3]과 같다.

[표 4-3] 국적별 밈 발신자들의 수와 비율

국적	수	비율
미국	71	19.8%
한국	50	13.8%
프랑스	48	13.5%
영국	30	8.5%
독일	28	7.7%
이탈리아	28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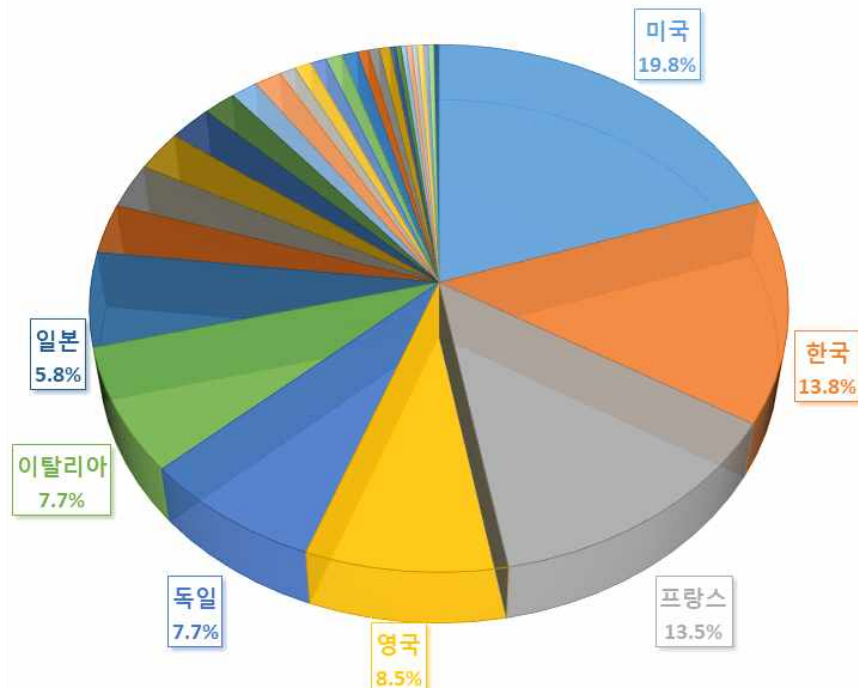
일본	21	5.8%
네덜란드	11	3.0%
스위스	10	2.8%
오스트리아	9	2.5%
스페인	8	2.2%
중국	6	1.7%
러시아	5	1.4%
캐나다	5	1.4%
고대 그리스	3	0.8%
고대 로마	3	0.8%
헝가리	3	0.8%
아르헨티나	3	0.8%
핀란드	3	0.8%
노르웨이	2	0.6%
벨기에	2	0.6%
호주	2	0.6%
뉴질랜드	1	0.3%
덴마크	1	0.3%
멕시코	1	0.3%
베트남	1	0.3%
스웨덴	1	0.3%
아일랜드	1	0.3%
캄보디아	1	0.3%
태국	1	0.3%
페루	1	0.3%

밈 발신자들의 국적은 미국이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50명, 프랑스가 49명으로 거의 비슷하게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수를 보였다. 그리고 그 뒤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이 차례로 이어 많은 밈 발신자들의 수를 보였다.<sup>56)</sup> 그러나 이는 밈 발신자들 단위로 통계를 낸 것이

56) 표에 나온 발신자들의 수를 모두 합칠 경우, 조사 대상 인원 수인 351명을 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중국적을 가진 발신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고, 발신자들 단위가 아닌 밈 수 단위로 국적을 내면 조금 순위가 달라진다. 이는 한명의 발신자에게서 다수 개의 밈들이 발산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림 4-3] 밈 발신자들의 주요 국적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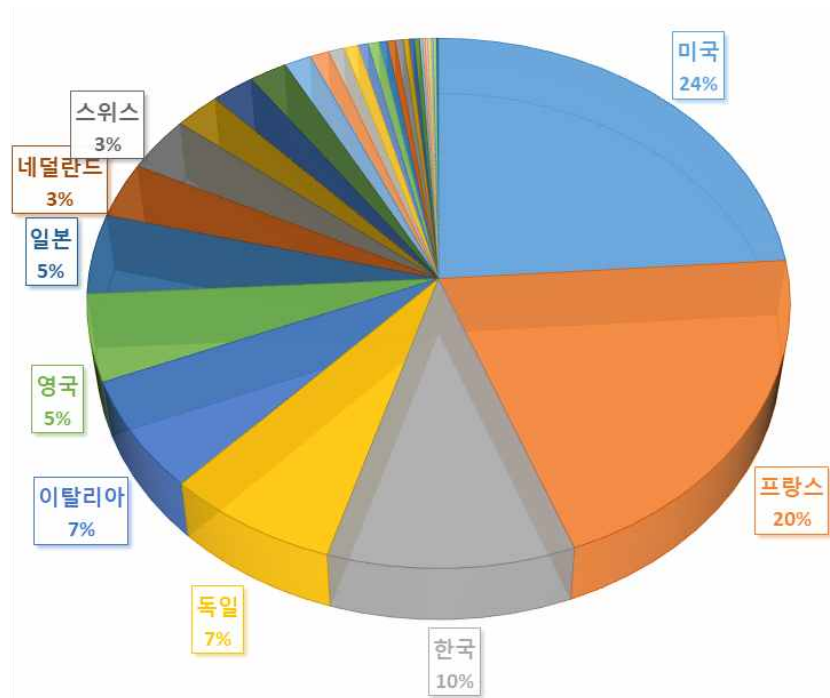
밈 발신자가 아닌 밈의 수로 낸 통계는 [표 4-4], [그림 4-4]와 같다. 밈 발신자들과 밈의 국적별 분포 순위를 보면 프랑스와 한국의 위치 바뀐다. 발신자 단위로 볼 땐 한국과 프랑스가 비슷한 수를 차지하며 미국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밈 단위로 볼 땐 프랑스가 한국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수를 보이며 미국과 거의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프랑스의 밈 발신자들에게서 한명 당 발신되는 밈의 수가 다른 나라보다 많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밈 발신자 단위보다 밈 단위에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들은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며 이는 밈 발신자당 발신 밈 수가 평균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반면 한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은 반대로 밈 단위의 점유율이 밈 발신자 단위보다 낮게 나오며 이는 밈 발신자당 발산 밈 수가 적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국가에 밈이 비교적 많이 발산되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표 4-4] 국적별 밈들의 수와 비율

국적	수	비율
미국	175	23.9%
프랑스	149	20.4%
한국	75	10.4%
독일	54	7.3%
이탈리아	50	6.8%
영국	39	5.3%
일본	36	4.9%
네덜란드	25	3.4%
스위스	25	3.4%
스페인	17	2.3%
중국	16	2.2%
오스트리아	14	1.9%
캐나다	10	1.4%
러시아	7	0.9%
핀란드	6	0.8%
페루	5	0.7%
고대 그리스	4	0.5%
헝가리	4	0.5%
고대 로마	3	0.4%
아르헨티나	3	0.4%
벨기에	3	0.4%
노르웨이	2	0.3%
호주	2	0.3%
멕시코	2	0.3%
베트남	2	0.3%
뉴질랜드	1	0.1%
덴마크	1	0.1%
스웨덴	1	0.1%

아일랜드	1	0.1%
캄보디아	1	0.1%
태국	1	0.1%



[그림 4-4] mim들의 주요 국적별 분포

#### 4.2.3. 직업별 통계

349명 mim 발신자들의 직업 수는 총 52개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능한 세부적으로 작은 단위까지 직업들을 나눈 것이며 이 세부직업들을 유사 직업끼리 묶으면 9개의 직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mim 발신자들의 직업 목록과 수, 직업군 분류를 [표 4-5]에 나타내었다.

[표 4-5] 밈 발신자들의 세부 직업과 직업군 분류

세부 직업	수	직업군	수	비율
건축 <sup>57)</sup>	136	건축	154	44.2%
건축학자	10			
건축 사무소	6			
건축 비평가	2			
철학자	39	철학	43	12.5%
사상가	3			
미학자	1			
화가	21	미술	34	9.7%
미술학자	7			
미술가	4			
조각가	2			
문학인 <sup>58)</sup>	10	문학	32	9.1%
시인	10			
소설가	9			
문학비평가	1			
동양신화학자	1			
극작가	1			
예술가 <sup>59)</sup>	12	기타 예술	26	7.4%
영화감독	5			
예술학자	3			
예술비평가	2			
영상감독	1			
미디어 아티스트	1			
코미디언	1			
패션 디자이너	1			
사회학자	4	사회과학	26	7.4%
인류학자	4			
지리학자	4			
경제학자	3			
신학자	2			
역사학자	2			
경영학자	1			
미래학자	1			

실학자	1			
심리학자	1			
언어학자	1			
종교학자	1			
정신분석학자	1			
음악가	5	음악	6	1.7%
작곡가	1			
과학철학자	1	자연과학	6	1.7%
동물학자	1			
물리학자	1			
의료인	1			
정보사회학자	1			
진화심리학자	1			
교수 <sup>60)</sup>	4	기타	17	4.8%
작가 <sup>61)</sup>	4			
정치인	4			
종교인	3			
운동가 <sup>62)</sup>	1			
저널리스트	1			
(알 수 없음)	5			
계	349		349	100%

밈 발신자들의 직업 군은 기타를 제외하고 크게 8가지로 나눌 수 있었으며, 역시 건축 군의 인물들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철학 군, 미술 군의 인물들이 뒤를 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위 표와 원형차트에서 볼 수 있듯, 공간지가 기본적으로 건축 잡지이고, 건축 작품들을 대상으로 다룬 텍스트 들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인들이 밈을 받은 사람들의 반 이상이 건축 외의 직업군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특히 철학 군의 인물들이 많이 인용

57) 건축가와 교수를 직업으로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

58) 시, 소설, 수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문학을 모두 다루는 사람들을 통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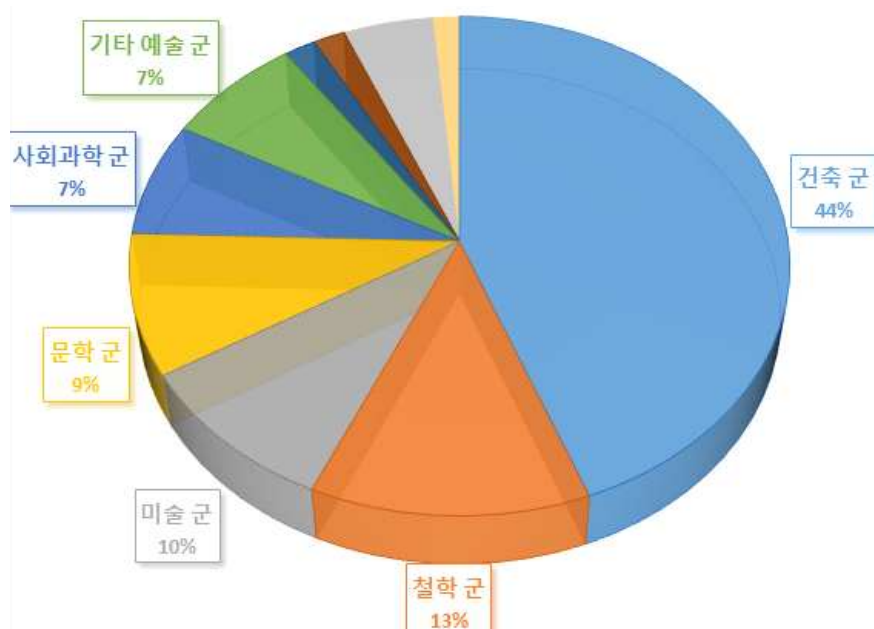
59) 여러 형태의 예술 분야를 모두 하는 사람들을 통칭.

60) 건축,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외의 학문분야를 다루거나 다양한 학문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

61) 다양한 주제로 책을 내는 사람. 문학 분야에서 말하는 작가가 아님.

62) 독립 운동가. 도산 안창호.

된 것은 건축이론이 철학 분야에 많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미술 군 역시 건축과 같은 시각예술의 한 분야로서 많은 특성을 건축이 미술과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학 군의 경우, 작가의 사상이나 생각을 인용하는 것보다 대체로 작품이나 공간의 분위기의 느낌을 설명할 때, 문학 작품의 일부 구절을 인용하는 형태로 언급이 되었다. 이러한 밈 발신자들의 직업군 분포는 건축이라는 분야가 다른 분야의 학문이나 이론들과 통섭되어 있는 종합적 성격의 영역임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그림 4-5] 밈 발신자들의 직업군 분포

#### 4.2.4. 주요 밈 분수

본 연구의 조사에서 조사된 총 349명의 명단과 기본적 인적사항은 [표 4-6]과 같다. [표 4-6]의 밈 발신자들 각자가 가진 밈 영향력 측정을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였다. 텍스트 작성자를 밈 수신자인 타겟(Target) 노드로, 언급한 대상을 밈 발신자인 소스(Source) 노드로 짝을 지은 뒤 이들을 네트워크 분석하면 [그림 4-6]과 같은 그래프가 시각화된다.

네트워크 그래프의 시각화 기법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프링(Spring) 알고리즘이라는 기법으로 시각화했으며, 전체 노드는 558

[표 4-6] 조사된 밌 발신자들의 명단 (한글 명칭 가나다 순)

이름	성별	직업	국적	출생년도
Arquitectonica Group		건축 사무소	미국	1977
FOA		건축 사무소	영국	1993
MVRDV		건축 사무소	네덜란드	1991
OMA		건축 사무소	네덜란드	1975
가다머	남	철학자	독일	1900
가에 아울렌티	여	건축	이탈리아	1927
가우디	남	건축	스페인	1852
강명구	남	건축	한국	1917
고유섭	남	미술학자	한국	1905
고트프리트 쟈퍼	남	건축	독일	1803
공자	남	철학자	중국	-551
괴테	남	문학	독일	1749
끌쿤	남	건축	영국	1921
권터 베흐니쉬	남	건축	독일	1922
그레삼	남	경제학자	영국	1519
글렌 머킷	남	건축	호주	1936
기드보르	남	사상가	프랑스	1931
기타노 다케시	남	영화감독	일본	1947
김광현	남	건축	한국	1953
김남조	여	시인	한국	1927
김성홍	남	건축	한국	1961
김소월	남	시인	한국	1902
김수근	남	건축	한국	1931
김수영	남	시인	한국	1921
김승회	남	건축	한국	1963
김시습	남	학자	한국	1435
김용옥	남	철학자	한국	1948
김정호	남	지리학자	한국	1804
김중업	남	건축	한국	1922
김진석	남	철학자	한국	1958
김창렬	남	화가	한국	1929
김환기	남	화가	한국	1913
나카무라 요시후미	남	건축	일본	1948
나탈리니	남	건축	이탈리아	1941
나흐레	?	건축	아르헨티나	?
네르비	남	건축	이탈리아	1891
노만 포스터	남	건축	영국	1935
노발리스	남	시인	독일	1772
노자	남	철학자	중국	?
니체	남	철학자	독일	1844
니콜라스 그림쇼	남	건축	영국	1939
니콜라스 페브스너	남	예술학자	영국	1902

다니엘 로진	남	미디어 아티스트	미국	1961
다니엘 리베스킨트	남	건축	미국	1946
다자이 오사무	남	소설가	일본	1909
달라이 라마	남	종교인	중국	1935
데이빗 다링	남	음악가	미국	1941
데이비드 브룩스	남	작가	미국	1961
도나 해러웨이	여	교수	미국	1944
도연명	남	시인	중국	365
뒤상	남	예술가	프랑스	1887
딜러&스코피오		건축사무소	미국	1979
라베송	남	철학자	프랑스	1813
라스 르럽	남	건축	스웨덴	1940
라이너마리아릴케	남	문학	오스트리아	1875
라이프니츠	남	철학자	독일	1646
라인홀트 니버	남	신학자	미국	1892
라캉	남	정신분석학자	프랑스	1901
레비 스트로스	남	인류학자	프랑스	1908
레오나르도 다빈치	남	예술가	이탈리아	1452
렌조 피아노	남	건축	이탈리아	1937
렘 콜하스	남	건축	네덜란드	1944
로버트 모리스	남	예술가	미국	1931
로버트 모세스	남	정치인	미국	1888
로버트 벤츄리	남	건축	미국	1925
로베르토 사비아노	남	저널리스트	이탈리아	1979
롤랑 바르트	남	철학자	프랑스	1915
루소	남	철학자	프랑스	1712
루이기 스노치	남	건축	스위스	1932
루이스 면포드	남	건축 비평가	미국	1895
루이스 바라간	남	건축	멕시코	1902
루이스 설리반	남	건축	미국	1856
루이스 칸	남	건축	미국	1901
루치오 폰타나	남	화가	이탈리아	1899
루크레티우스	남	철학자	고대 로마	-99
르네 마그리뜨	남	화가	벨기에	1898
르 코르뷔지에	남	건축	프랑스	1887
리비오 바키니	남	건축	스위스	1933
리처드 로저스	남	건축	영국	1933
리처드 마이어	남	건축	미국	1934
리처드 세넵	남	교수	미국	1902
리처드 세라	남	조각가	미국	1938
마누엘 카스텔스	남	정보사회학자	스페인	1942
마르셀 브로이어	남	건축	헝가리	1902
마르셀 프루스트	남	문학	프랑스	1871
마르코 프라스카리	남	건축	이탈리아	1945



마르크스	남	사상가	독일	1818
마르크 오제	남	인류학자	프랑스	1935
마리오 보타	남	건축	스위스	1943
마셀	남	철학자	프랑스	1889
마야 린	여	건축	미국	1959
마에카와	남	건축	일본	1905
마일즈 데이비스	남	음악가	미국	1926
마크 스트랜드	남	시인	캐나다 미국	1934
마크앙트완 로지에	남	건축	프랑스	1713
마크 위글리	남	건축	뉴질랜드	1956
마크 퀸	남	예술가	영국	1964
막스 베버	남	사회학자	독일	1864
말레비치	남	화가	러시아	1935
맨 레이	남	예술가	미국	1890
메를로 폰티	남	철학자	프랑스	1908
모짜르트	남	음악가	오스트리아	1756
모홀리 나기	남	화가	미국 헝가리	1895
몬드리앙	남	화가	네덜란드	1872
무어	남	철학자	영국	1873
미르체아 엘리아데	남	종교학자	미국	1907
미스 반 데어 로에	남	건축	미국	1886
미셸 공드리	남	영상감독	프랑스	1963
미셸 라공	남	작가	프랑스	1924
미셸 마프졸리	남	사회학자	프랑스	1944
미셸 푸코	남	철학자	프랑스	1926
미켈란젤로	남	예술가	이탈리아	1475
밀란 쿤데라	남	소설가	체코	1929
바니스터 플래처	남	건축	영국	1866
바슐라르	남	철학자	프랑스	1884
바통 마이어스	남	건축	미국	1934
바흐	남	음악가	독일	1653
바흐친	남	사상가	러시아	1895
박영욱	남	철학자	한국	?
박지원	남	실학자	한국	1737
반 몰리반	남	건축	캄보디아	1926
발터 그로피우스	남	건축	독일	1883
발터 벤야민	남	철학자	독일	1892
백남준	남	예술가	미국	1932
베르그송	남	철학자	프랑스	1859
베르나르 추미	남	건축	프랑스 미국 스위스	1944

베를라헤	남	건축	네덜란드	1856
베아트리즈 콜로미나	여	건축학자	스페인	1952
			미국	
보르헤스	남	소설가	아르헨티나	1899
볼레	남	건축	프랑스	1728
브루넬리ски	남	건축	이탈리아	1377
브루노 제비	남	건축	이탈리아	1918
브루노 타우트	남	건축	독일	1880
비올레 르 퓌	남	건축	프랑스	1814
비트겐슈타인	남	철학자	영국	1889
비트루비우스	남	건축	고대 로마	-50
빈센트 스칼리	남	예술 비평가	미국	1920
빙켈만	남	미술학자	독일	1717
살바도르 달리	남	화가	스페인	1904
서정주	남	시인	한국	1915
세네카	남	정치인	고대 로마	-4
세더릭 프라이스	남	건축	영국	1934
세바스티아노 세를리오	남	건축	이탈리아	1475
세지마 카즈요	여	건축	일본	1956
소쉬르	남	언어학자	스위스	1857
솔 르위트	남	예술가	미국	1928
송중석	남	건축	한국	1930
슐츠	남	경제학자	미국	1902
스베레 펜	남	건축	노르웨이	1924
스카르파	남	건축	이탈리아	1906
스콧 보캇맨	남	교수	미국	1957
스탠리 하이만	남	문학 비평가	미국	1919
스탠리 큐브릭	남	영화감독	미국	1928
스탠포드 앤더슨	남	교수	미국	1934
스티븐 핑커	남	진화심리학자	캐나다	1954
스피노자	남	철학자	네덜란드	1632
승효상	남	건축	한국	1952
시라이 세이치	남	건축	일본	1905
시즈미 히로시	남	영화감독	일본	1903
신경준	남	지리학자	한국	1712
싱켈	남	건축	독일	1781
아나톨 콥	남	건축	러시아	1915
아돌포 나탈리니	남	건축	이탈리아	1941
아돌프 로스	남	건축	오스트리아	1870
아라타 이소자키	남	건축	일본	1931
아르네 야콥슨	남	건축	덴마크	1902
아르놀트 하우스저	남	미술학자	헝가리	1892
아리스토텔레스	남	철학자	고대 그리스	-384
아브라함 몰르	남	철학자	독일	1920

아핏차퐁 위라세타쿤	남	영화감독	태국	1970
안규철	남	미술가	한국	1955
안도 타다오	남	건축	일본	1941
안영배	남	건축	한국	1932
안창호	남	운동가	한국	1878
안토니 기든스	남	사회학자	영국	1938
안톤 프레독	남	건축	미국	1936
알도 로씨	남	건축	이탈리아	1931
알도 반 아이크	남	건축	네덜란드	1918
알바 알토	남	건축	핀란드	1898
알베르티	남	건축	이탈리아	1404
알랭 드 보통	남	철학자	영국 스위스	1969
알레산드로 안셀미	남	건축	이탈리아	1934
알베르토 캄포 배자	남	건축	스페인	1946
앙리 르페브르	남	철학자	프랑스	1901
앙리 마티스	남	화가	프랑스	1869
앙리 반 데 벨데	남	건축	벨기에	1863
앙리 시리아니	남	건축	프랑스 페루	1936
앙리 포시옹	남	미술학자	프랑스	1881
앤소니 비들러	남	건축학자	미국 영국	1941
앨빈토플러	남	미래학자	미국	1928
야마모토 리켄	남	건축	일본	1945
엄덕문	남	건축	한국	1919
에드워드 렐프	남	지리학자	영국	1944
에로 싸리넨	남	건축	핀란드 미국	1910
에리히 멘델손	남	건축	독일	1887
에리히 프롬	남	철학자	미국	1900
에릭 오웬 모스	남	건축	미국	1943
에릭 홉스봄	남	역사학자	영국	1917
에밀리오 암바스	남	건축	아르헨티나	1943
엔리코 카스텔라니	남	화가	이탈리아	1930
엘린 소칼	남	물리학자	미국	1955
예수	남	종교인	?	0
오귀스트 페레	남	건축	프랑스	1874
오스월드 내글러	남	건축	미국	?
오스카 니마이어	남	건축	브라질	1907
오즈 야스지로	남	영화감독	일본	1903
오토 바그너	남	건축	오스트리아	1841
와츠키 테츠로	남	철학자	일본	1889
왕슈	남	건축	중국	1963

요시노부 아시하라	남	건축	일본	1918
요제프 마리아 올브리히	남	건축	오스트리아	1868
요코이 고이치	?	?	일본	?
우치이 쇼쨩	남	건축	일본	1933
웅거스	남	건축	독일	1926
원정수	남	건축	한국	1934
유걸	남	건축	한국	1940
유치환	남	시인	한국	1908
유하니팔라스마	남	건축	핀란드	1936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남	작곡가	미국	1882
이민아	여	건축	한국	1966
이상	남	문학	한국	1910
이세이 미야케	남	패션 디자이너	일본	1938
이소영	여	미술가	한국	?
이시야마 오사무	남	건축	일본	1944
이어령	남	문학	한국	1934
이우환	남	미술가	한국	1936
이제하	남	소설가	한국	1938
이탈로 칼비노	남	작가	이탈리아	1923
이토 토요	남	건축	일본	1941
이희태	남	건축	한국	1925
자크 데리다	남	철학자	프랑스	1930
자크 아탈리	남	경제학자	프랑스	1943
자하 하디드	여	건축	영국	1950
장 누벨	남	건축	프랑스	1945
장 니콜라스 뒤랑	남	건축	프랑스	1760
장 아누이	남	극작가	프랑스	1910
장 타르디유	남	예술가	프랑스	1903
장 프루베	남	건축	프랑스	1901
잭슨폴록	남	화가	미국	1912
전봉희	남	건축학자	한국	1963
정인국	남	건축	한국	1914
정재서	남	동양신화학자	한국	1952
정현종	남	시인	한국	1939
제라드 반 데 리우	남	신학자	네덜란드	1890
제레미 벤담	남	철학자	영국	1748
제리코	남	화가	프랑스	1791
제인 제이콥스	여	건축 비평가	미국 캐나다	1916
제임스 스위니	남	예술 비평가	미국	1900
제임스 스텔링	남	건축	영국	1926
조르주 앙리 뵙귀송	남	건축	프랑스	1894
조르주 퀴비에	남	동물학자	프랑스	1769
조르주 퐁피두	남	정치인	프랑스	1911

조지 바사리	남	화가	이탈리아	1511
조지아 오키프	여	화가	미국	1887
조지 오웰	남	작가	영국	1903
조지훈	남	문학	한국	1920
존 듀이	남	철학자	미국	1859
존 러스킨	남	건축학자	영국	1819
존 버거	남	소설가	영국	1926
존 케이지	남	음악가	미국	1912
존 헤이덕	남	건축	미국	1929
줄리오 카를로 아르간	남	미술학자	이탈리아	1909
주세페 테라니	남	건축	이탈리아	1904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	남	예술학자	독일 미국	1889
지오 폰티	남	건축	이탈리아	1891
진이정	여	문학	한국	1959
진중권	남	미학자	한국	1963
질 들뢰즈	남	철학자	프랑스	1925
질베르 뒤랑	남	인류학자	프랑스	1921
차이 구어 치앙	남	미술가	중국	1957
찰리 채플린	남	코미디언	영국	1889
찰스 레니 매킨토시	남	건축	영국	1868
찰스 무어	남	건축	미국	1925
천양희	여	문학	한국	1942
최육경	여	화가	한국	1940
최창조	남	지리학자	한국	1950
칠리다	남	조각가	스페인	1924
카라바지오	남	화가	이탈리아	1610
카를로 스카르파	남	건축	이탈리아	1906
콜린 로우	남	건축학자	미국	1920
칸딘스키	남	화가	러시아	1944
칸트	남	철학자	독일	1724
칼 슈뢰겔	남	역사학자	독일	1772
칼 앙드레	남	예술가	미국	1935
칼 포퍼	남	철학자	영국 오스트리아	1902
캐롤 윌리스	여	건축학자	미국	1949
커티스	남	건축학자	영국	1948
케네스 프램프톤	남	건축	영국	1930
케빈 로체	남	건축	미국	1922
케페스	남	화가	미국	1906
켈리	남	화가	미국	1923
쿠마 켄고	남	건축	일본	1954
쿵 힘멜블라우		건축 사무소	오스트리아	1968
크라이스트 재너	남	건축	미국	1915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남	건축학자	미국	1936
크리스티안 노베르그 슐츠	남	건축	노르웨이	1926
클로드 니콜라스 르두	남	건축	프랑스	1736
클로드 빠렁	남	건축	프랑스	1923
테오도어 아도르노	남	철학자	독일	1903
테오 반 도제부르크	남	화가	네덜란드	1890
토마스 아퀴나스	남	철학자	이탈리아	1225
토마스 쿤	남	과학 철학자	미국	1922
톨스토이	남	소설가	러시아	1828
텍낫한	남	종교인	베트남	1926
팀 스펙터	남	의료인	영국	1958
파노프스키	남	미술학자	미국 독일	1892
파스칼 이 미라	남	정치인	스페인	1941
파올로 솔레리	남	건축	미국 이탈리아	1919
팔라디오	남	건축	이탈리아	1508
패트릭 슈마허	남	건축	독일	1961
페리	남	건축	미국	1872
페터 촘토르	남	건축	스위스	1943
포참팍	남	건축	프랑스	1944
폴 루돌프	남	건축	미국	1918
폴 앙드뢰	남	건축	프랑스	1938
프랑소아즈 쇼에	여	건축학자	프랑스	1925
프랑시스 풍주	남	시인	프랑스	1899
프랭크 게리	남	건축	미국 캐나다	1929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남	건축	미국	1867
플라톤	남	철학자	고대 그리스	-424
플로베르	남	소설가	프랑스	1821
피아제	남	심리학자	스위스	1896
피에르 쌍소	남	인류학자	프랑스	1928
피천득	남	문학	한국	1910
피카소	남	화가	스페인	1973
피터 라이스	남	건축	아일랜드	1935
피터 로즈	남	건축	캐나다	1943
피터 블레이크	남	예술가	영국	1932
피터 아이젠만	남	건축	미국	1932
피터 콜린스	남	학자	호주	1947
필립 존슨	남	건축	미국	1906
하라 히로시	남	건축	일본	1936
하버마스	남	사회학자	독일	1929
하성란	여	소설가	한국	1967
하이데거	남	철학자	독일	1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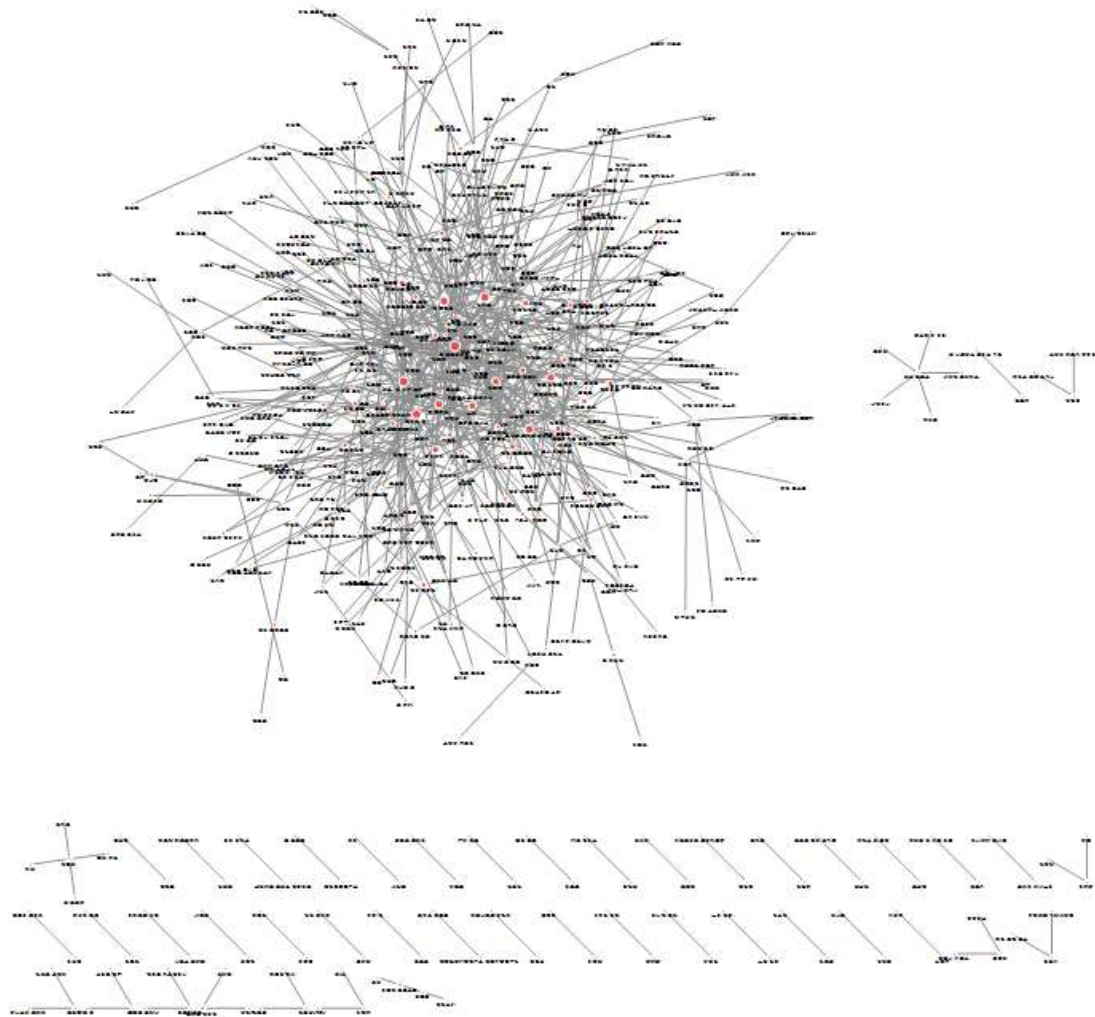
한스제들마이어	남	예술학자	오스트리아	1896
한스 홀라인	남	건축	오스트리아	1934
할 포스터	남	미술학자	미국	1955
헤겔	남	철학자	독일	1770
헤라클레이토스	남	철학자	고대 그리스	-540
헤르만 무테시우스	남	예술가	독일	1861
헤르만 죄겔	?	건축학자	?	?
헤르만 헤르츠버거	남	건축	네덜란드	1932
헤르만 헤세	남	문학	스위스	1877
헤르조그&드 뫼롱	남	건축 사무소	스위스	1950
헤리트 리트펠트	남	건축	네덜란드	1888
홍성태	남	경영학자	한국	1955
황석영	남	소설가	한국	1943
후미히코 마키	남	건축	일본	1928

개, 전체 링크(화살표) 개수는 673개로 산출되었다. [그림 4-6]의 하단과 우측의 고립된 형태의 네트워크는 중앙의 노드들과 연결되지 못한 네트워크로, 그림 중앙 부분에 뭉쳐져 있는 노드들은 전체 노드들 중 약 80.1%를 차지하고 있다.<sup>63)</sup> 이 무리의 중앙 부분을 확대하면 [그림 4-7]과 같다. 링크의 방향은 밌이 발신되는 사람으로부터 수신되는 사람으로 향하며, 노드의 크기와 링크의 굵기는 밌이 발신된 횟수에 비례한다. 이제 이 네트워크 그래프의 중앙성을 3.3.4에 소개된 세 가지 중앙성 지표로 수치화 한다.

먼저, 첫 번째 지표인 연결 중심성은 특정 노드에 연결된 이웃 노드의 수를 전체 노드 수로 나눈 것으로, 높을수록 더 많은 노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발신 노드 입장에서는 더 많이 언급 당한 것이고, 수신 노드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인물들을 언급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지표인 근접 중앙성은 그래프 전체의 중앙성을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첫 번째 지표인 연결 중앙성이 단순히 특정 노드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링크의 수만 볼 수 있는 반면, 근접 중앙성은 특정 노드에서 각 노드들까지의 거리의 총합을 비교해 얼마나 작은지(즉, 모든 노드들로부터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를 보는 지표이다. 즉, 이 지표가 높을수록, 답론의 장의 중앙부에서 많은 밌이 발신되거나 수신되고 있는 인물이라는 뜻이다. 연결 중심성이 특정 노드의 연결 정도만 파악하는 반면, 근접 중앙성은

63) 이는 응집구조 분석으로 가능한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요소(component) 분석을 사용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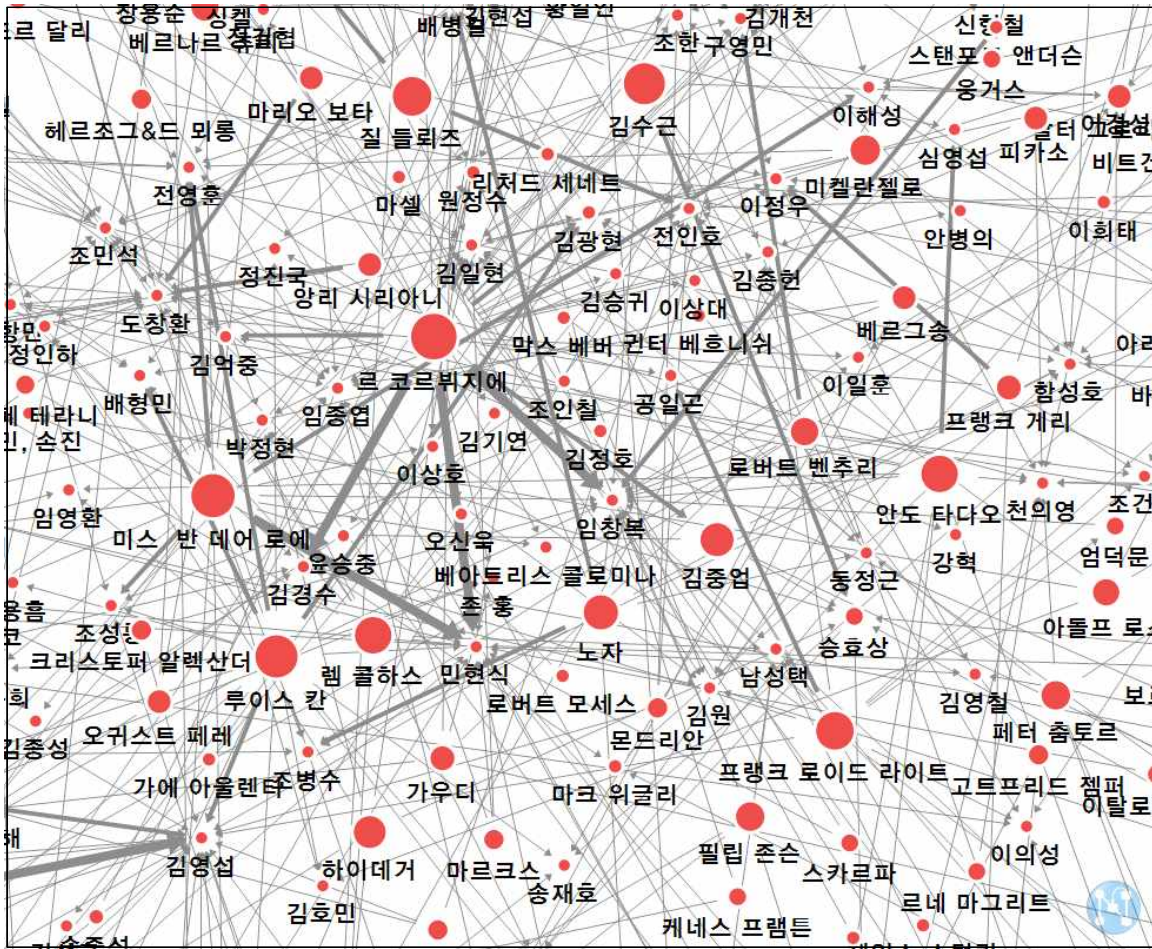
[그림 4-6] 밈 발신자와 수신자들을 연결한 네트워크 그래프

네트워크 전체의 중심성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표 4-7]과 [표 4-8]을 보면 명단의 순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네트워크가 전체적으로 구분되어지거나 갈라지지 않고, 비교적 균질하게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즉, 언급되는 횟수가 그대로 비례해서 전체적인 담론의 장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의미가 된다.

발신 노드는 밈이 발산된(남에게 언급된) 사람이고, 수신 노드는 밈이 수신된(남을 언급한) 사람이다. 발신 노드로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온, 즉 밈이 가장 많이 발신된 사람, 밈 분수는 현대 건축의 대표적 대가인 르 코





[그림 4-7] [그림 4-6]의 중앙부 확대도

르뷔지에로 약 0.076(근접 중심성 기준)이었으며, 뒤를 이어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 루이스 칸(Louis Kahn), 김수근, 질 들뢰즈(Gilles Deleuze) 순으로 높은 근접 중심성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건축인들이 평소 많이 영향받고 언급하는 인물들과 매우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수신 노드로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온, 즉 밌이 가장 많이 수신된, 어떤 특정인을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은 임창복, 김영섭, 민현식 순으로 오랜 기간 동안 텍스트를 활발히 작성했던 사람들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수신 노드의 경우, 텍스트들을 작성한 사람이 대부분 국내 건축인이므로 국내 건축인들이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발신 노드에 김수근

과 김종업을 제외한 국내 건축인들이 없는 점은 조사 전 예상과 다른 결과였다. 이는 텍스트들에서 밈의 흐름이 국내 건축인들 사이에 서로 주고 받는 형태가 아닌, 일방적으로 외국의 인물들에게서 밈들을 받는 결과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표 4-7] 연결 중심성이 높은 상위 10 밈 발신자 및 수신자

발신 노드	연결 중심성	수신 노드	연결 중심성
르 코르뷔지에	0.093	임창복	0.048
미스 반 데어 로에	0.057	김영섭	0.047
루이스 칸	0.054	민현식	0.041
김수근	0.028	도창환	0.034
질 들뢰즈	0.028	김일현	0.032
안도 타다오	0.023	배병길	0.027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0.023	임종업	0.023
렘 콜하스	0.022	구영민	0.022
노자	0.020	전영훈	0.022
김중업	0.014	조민석	0.020

따라서 남을 언급하기도 하고 동시에 자신도 언급되기도 한 인물의 경우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매개 중심성은 말 그대로 특정 노드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개자 혹은 다리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느냐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이 위치에 있는 노드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sup>64)</sup> 이 조사의 네트워크에서는 밈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에게 밈을 받는 정도와 밈을 주는 정도를 같이 갖추고 있는 인물들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표 4-9]에서 볼 수 있듯, 김수근이 가장 높은 매개 중심성을 보였고, 승효상, 김종업, 원정수, 김광현이 그 뒤를 이어 높은 매개 중심성을 보였다. 이들은 남에 의해 언급되기도 하고, 남을 언급하기도 한 인물들로, 그

64) 이수상. (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논형, p.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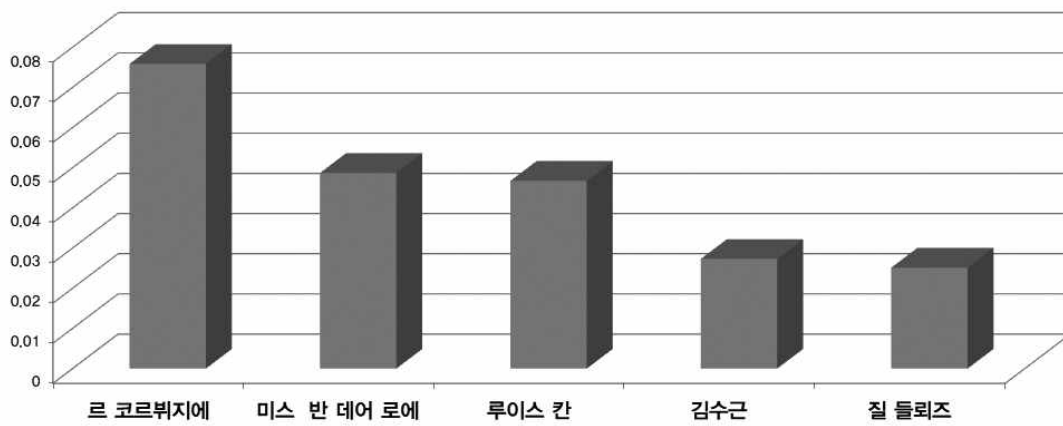
만큼 작품 활동과 동시에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한 인물들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매개 중심성 수치는 매우 낮은 값을 보인다. 이것은 국내 건축 담론계에서 국내 건축인들끼리 활발하게 입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거의 일방적으로 해외 건축인들의 입을 한 방향으로 받아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표 4-8] 근접 중심성이 높은 상위 10 명 발신자 및 수신자

발신 노드	근접 중심성	수신 노드	근접 중심성
르 코르뷔지에	0.076	임창복	0.043
미스 반 데어 로에	0.049	김영섭	0.039
루이스 칸	0.047	민현식	0.034
김수근	0.027	도창환	0.031
질 들뢰즈	0.025	김일현	0.031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0.024	배병길	0.026
렘 콜하스	0.022	임종엽	0.023
안도 타다오	0.022	구영민	0.020
노자	0.016	조민석	0.020
김중엽	0.015	함성호	0.019

[표 4-9] 매개 중심성이 높은 상위 5인

노드	매개 중심성
김수근	0.000115
승효상	0.000064
김중엽	0.000035
원정수	0.000024
김광현	0.000016



[그림 4-8] 근접 중심성이 가장 높은 밈 분수 상위 5인 - 르 코르뷔지에, 미스 반 데어 로에, 루이스 칸, 김수근, 질 들뢰즈 (좌측부터)

### 4.3. 밈의 내용

#### 4.3.1. 기본 사항

이 장에서는 조사된 밈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공간지에서 추출된 708개의 밈들을 비슷한 내용끼리 세분화하여 나눌 경우 총 291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이 291가지 종류의 밈들은 유형에 따라 A. 건축적 사고와 담론 B. 타 분야 사고와 담론 C. 디자인 및 실무 D. 작가적 자세 E. 단순 영향<sup>65)</sup>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이 291가지 종류의 밈들이 속하는 큰 범위의 내용에 따라 묶을 경우 더 큰 그룹들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총 24개의 군(기타 제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 군들은 각각이 밈플렉스(Memeplex)라 볼 수 있는데, 밈플렉스란 많은 밈들이 뒤섞여 있는 집합체를 말하는 것으로, 밈학에서 쓰이는 용어이다. 이는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말한 유전자들의 공진화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인데 예를 들면, 육식 동물의 유전자풀을 볼 경우, 육식 동물이라는 개체를 위해 적합한 이빨, 발톱, 장, 감각기관의 유전자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sup>66)</sup> 결국, 그 유전자들은 동일한 개체의 진화를 위해 함께 진화 - 이를 생물학에선 공진화라 부른다 - 하는 집단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령 ‘미니멀리즘’, ‘퓨리즘’, ‘건축의 5원칙’과 같은 세부 밈들은 ‘모더니즘’이라는 더 큰 단위의 밈의 전파를 위해 서로 돕는 역할을 맡는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291가지 종류의 밈들의 세부 밈 이름과 유형, 언급 횟수를 함께 밈플렉스의 명칭을 기준으로(가나다 순) 나열하면 [표 4-10]과 같다.

(유형 코드 : A=건축적 사고와 담론, B=타 분야 사고와 담론, C=디자인 및 실무, D=작가적 자세, E=단순 영향)

65) 특별한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채 영향을 받았다며 언급이 된 경우를 뜻한다.

66) Richard Dawkins. (2016). 리처드 도킨스 자서전 2:나의 과학 인생. 김영사.

[표 4-10] 전체 밈들의 세부 명칭, 유형, 언급 횟수, 밈플렉스 분류

밈플렉스	세부 밈 명칭	유형	밈 단위 개수	텍스트 단위 개수	합
개인적 관계	멘토	D	1	1	10
	성실성		2	1	
	스승		11	9	
건축과 사회	건축과 대중문화	A	3	2	27
	과정으로서의 도시		2	2	
	사회와의 소통		11	10	
	시대성		4	4	
	현실의 반영		7	4	
	환경 결정론	3	2		
	보보스	B	1	1	
	통제 담론		4	2	
건축과 자본주의	건축과 자본	A	2	2	14
	건축의 브랜드화		4	3	
	건축의 산업화		3	3	
	건축의 유행		1	1	
	프로슈머	B	1	1	
	현대 자본주의		3	2	
	경쟁	D	2	1	
건축의 본질	건축의 예술성	A	11	9	18
	건축의 원형		4	3	
	오더와 건축		1	1	
	원시 오두막		5	4	
공간	가변적 공간	C	1	1	26
	건축적 산책로		3	3	
	공간		1	1	
	공간 구성		2	2	
	공간 시퀀스		1	1	
	구조와 공간		2	1	
	긴장과 균형		1	1	
	다기능 결합		1	1	
	다시점		2	1	
	레이어링		1	1	

	매스와 공간		2	1	
	미세 공간		1	1	
	옥상		1	1	
	외피와 공간		1	1	
	유니버설 스페이스		1	1	
	주차 공간		1	1	
	중정		2	2	
	초월적 중심 공간		2	2	
	커뮤니티 공간		3	2	
	크기와 느낌		1	1	
	구조		구조와 공간	C	
구조 외피 일체화		2	1		
목조 구조		1	1		
철골 구조		3	1		
구조주의	반 탈중심	A	1	1	14
	소통적 구조		1	1	
	유형		4	2	
	텍스트로서의 건축		3	3	
	합리주의	B	3	2	
	무의식		1	1	
	문화인류학		1	1	
	신화화		1	1	
언어 이론	1	1			
도가 사상	비움	A	3	3	12
	전원생활		2	2	
	도가도비상도	B	1	1	
	무형적인 것의 중요성		1	1	
	상호 영향	C	3	3	
	자연스러움		2	2	
도시	근린주구이론	A	1	1	8
	도시녹지공간		1	1	
	도시의 과밀화		2	1	
	도시의 모뉴먼트		1	1	
	도시적 시각		2	2	
	문화적 풍경		1	1	
	재개발		1	1	

모더니즘	건축의 6원칙	A	1	1	36	
	규격화		6	1		
	기계 주의		3	3		
	도미노 시스템		2	2		
	러시아 아방가르드		1	1		
	모더니즘		7	7		
	미니멀리즘		21	13		
	퓨리즘		5	4		
	현대건축의 외래성		2	1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2	2		
	근대성	B	1	1		
생성의 철학	유형학적 과대평가	A	1	1	19	
	리즘	B	1	1		
	매끄러운 공간		3	2		
	바로크적 사유		1	1		
	발생과 생성		1	1		
	보이지 않는 힘		1	1		
	생철학		2	2		
	순환		2	1		
	인간이 동물되기		1	1		
	주름		1	1		
	차이와 반복		2	2		
	천개의 고원		1	1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2	2		
	랜드스케이프 건축		C	1		1
	파라메트릭			2		2
일상	사용자가 만들어가는 건축	A	2	2	17	
	삶을 담아내는 건축		18	14		
	일상성	B	1	1		
입면	스크린적 파사드	C	3	2	5	
	설비의 입면화		1	1		
	입면		2	2		
작업 프로세스	PCM	C	1	1	11	
	개념의 구체화		2	1		
	객관적 접근		1	1		
	직접 시공		1	1		



	공간 주제 설정		1	1	
	모형		2	1	
	상향식 방법		1	1	
	유연한 대응		1	1	
	인과과정이 드러나는		1	1	
	전문화된 팀 작업		1	1	
	해외 작업		1	1	
장소성	거주	A	1	1	40
	건물이 무엇이 되길 원하는가		4	4	
	건축과 기억		11	9	
	대지 환경		2	1	
	복원과 재생		4	3	
	비장소		1	1	
	장소성		14	14	
	지역성		3	2	
	컨텍스트		4	4	
	풍경	C	1	1	
재료	벽돌	C	2	2	6
	재료		2	2	
	콘크리트		1	1	
	환기용 블록		1	1	
전통	네가티비즘	A	2	2	16
	전통의 현대화		25	14	
평면	복도 없음	C	2	1	3
	축		1	1	
	평면		2	1	
포스트모더니즘	과거 지향	A	1	1	9
	기호로서의 건축		8	6	
	전체성		1	1	
	포스트모더니즘		1	1	
프로그램	사무소건축	C	1	1	8
	다중적 프로그램		2	2	
	상업 공간		1	1	
	전시 공간		4	2	
	종교 건축		1	1	
	프로그램 설정		1	1	

해체주의	몽따쥬 사고	A	2	1	12
	사이		2	2	
	폴리		2	2	
	해체		4	2	
	해체주의		2	2	
	형태적 유희		2	1	
	낮설게 하기	B	1	1	
	탈중력	C	1	1	
현상학	감성	A	1	1	33
	경험적 공간		2	1	
	공간의 감각과 지각		11	11	
	기능은 형태를 따른다		1	1	
	다공성		2	2	
	몸		2	2	
	봉사받는 공간과 봉사하는 공간		3	3	
	아름다움		2	2	
	경험을 통한 지식	B	1	1	
	실존주의	B	4	4	
	물성	C	4	4	
	텍토닉	C	1	1	
형태	감각적 형태	B	1	1	26
	개구부 디자인		2	1	
	게이트		1	1	
	곡선		2	2	
	골계미		1	1	
	공간으로부터 구축되는 형태		1	1	
	루프형 타워		1	1	
	매스		3	3	
	벽		1	1	
	수평적 언어		3	2	
	유기체적 형태		3	1	
	조형성		7	5	
	지붕		1	1	
	형태		5	5	
후기 구조주의	다원성	A	2	2	16
	정의를 새롭게 하기		4	3	

	탈중심		2	1		
	파편		1	1		
	가변성	B	1	1		
	경계 해체		5	3		
	관계와 비관계		4	1		
	관계장		2	2		
	소수자		1	1		
	이질적		1	1		
기타	가벼운 건축		A	2	1	
	건축계의 현실			1	1	
	건축과 시간	2		2		
	공공 공간	1		1		
	공간과 사용자	2		2		
	공학과 예술의 조화	5		3		
	구축과 비구축	3		1		
	기술과 예술	1		1		
	낭만성	2		1		
	내부와 외부의 관계	7		4		
	다양성	5		5		
	담론	2		1		
	미적 질서	1		1		
	변화	2		2		
	보존	4		2		
	생명력을 가진 건축	1		1		
	새로움	8		7		
	신 고전주의	2		2		
	신 구성주의	1		1		
	영감을 주는 건축	1		1		
	올바른 비평	2		1		
	의도와 표현	3		3		
	자연과의 조화	5		5		
	작품으로 말하는 건축	5		4		
	전체와 부분	3		3		
	조립 미학	1		1		
	주택 설계의 중요성	6		4		

	추상성		1	1	
	침묵		3	2	
	표현주의		1	1	
	합리성		3	3	
	현실적 제약		1	1	
	획일성		2	2	
	감동		1	1	
	공동체		2	1	
	디자이너		1	1	
	로고스		1	1	
	미디어적 전회		1	1	
	비인간화		1	1	
	상대성		1	1	
	선비 정신		1	1	
	아메리칸 반달리즘	B	1	1	
	이름 붙이기		1	1	
	인식의 전환		1	1	
	자유		1	1	
	중산층		1	1	
	창조성 발휘		1	1	
	학문의 유한성		1	1	
	현실과 이상		2	2	
	휴식		1	1	
	가구		3	2	
	가로의 내부화		1	1	
	건축 어휘		2	2	
	구성주의		1	1	
	기계 설비		1	1	
	기하학적 디자인		4	4	
	단면의 중요성	C	3	1	
	디자인도구		2	1	
	디자인요소		1	1	
	디테일		4	4	
	램프		1	1	
	문		1	1	
	물		1	1	

	바닥		3	1	
	벽의 역할		2	2	
	부재		1	1	
	빛		3	3	
	색채		2	2	
	선		1	1	
	소박함		1	1	
	수평띠		1	1	
	오더		1	1	
	운동감		1	1	
	은유적 디자인		2	2	
	조경		1	1	
	조망		4	2	
	창호		1	1	
	총체적 디자인		7	2	
	캐노피		1	1	
	텍스처		3	3	
	투명성		3	2	
	확장과 변형		1	1	
	개성		7	4	
	건축가가 되는 험난함		1	1	
	도덕성		1	1	
	사유		8	8	
	선구자		1	1	
	성실함	D	1	1	
	역할		5	5	
	연구하는 자세		4	2	
	열정		4	3	
	주체성		5	5	
	태도		1	1	
	단순 감명		8	5	
	단순 영향		9	6	
	단순 직유	E	1	1	
	단순 참고		2	1	
계	287		708	575	

여기서 추출된 밈들의 밈 단위 개수는 708개, 텍스트 단위 개수는 575 개인데, 이는 한 텍스트 안에서 중복되게 추출된 밈들 때문에 차이가 난다. 가령, 어떤 텍스트에서 텍스트 작성자가 계속해서 ‘전시 공간’에 관련된 밈을 언급한다면, 단순히 볼 경우 전시 공간과 관련된 밈의 개수와 비율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체적 담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비합리적으로 편중될 수 있으므로, 한 개의 텍스트 안에서 아무리 동일 밈이 많이 나오더라도 텍스트 개수 기준으로 한 개로 산정한 것이다. 따라서, 내용 분류한 밈플렉스별 개수를 합산할 때도 텍스트 단위 개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 4.3.2. 세부 밈 및 밈플렉스들의 통계

[표 4-10]에 기재된 밈들 중 세부 밈을 텍스트 단위 개수 기준으로 통계를 내어 가장 많이 언급된 상위 10개의 세부 밈을 살펴보면 [표 4-11]과 같은 순위를 얻게 된다.

[표 4-11] 가장 많이 언급된 상위 10개 세부 밈과 언급 횟수

세부 밈 명칭	유형	언급 횟수	시대별 상대 지수 (텍스트 단위 기준)
전통의 현대화	A	14	0.189
장소성			0.064
삶을 담아내는 건축			0.076
미니멀리즘			0.112
공간의 감각과 지각			0.053
사회와의 소통	D	10	0.040
스승			0.090
건축의 예술성	A	9	0.037
건축과 기억			0.034
새로움			0.045
사유	D	7	0.053

‘전통의 현대화’, ‘장소성’, ‘삶을 담아내는 건축’의 세부 밈들이 14회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미니멀리즘’ 세부 밈이 13회, ‘공간의 감각과 지각’ 세부 밈이 11회 등으로 차례로 뒤를 이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단순히 언급 횟수를 해당 밈의 영향력으로 볼 순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4.1의 [그림 4-1]에서 보듯 시대에 따라 추출된 텍스트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가령, 텍스트가 10개 추출되던 때에 5번 언급된 A라는 밈과 텍스트가 50개 추출되던 때에 10번 언급된 B라는 밈은 해당 시대의 영향력을 다르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절대적 횟수만 놓고 보면 A는 5번, B는 10번 언급되었으므로 B의 영향력이 커야 할 것 같지만 상대적 비율을 놓고 보면 A는 50%(5번/10개), B는 20%(10번/50개)이므로 특정 시대의 A의 영향력이 더 컸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밈이 검출된 년도의 전과 후로 5년씩 총 11년간의 총 밈 검출수를 구하여 ‘해당 밈/총 밈 검출수’를 이용해 밈 하나하나마다 상대지수를 구한 뒤 합산을 하였고 이 지수를 추가적으로 감안하여 보기로 하였다.

그 결과, 단순 언급 횟수로 할 경우 ‘전통의 현대화’, ‘장소성’, ‘삶을 담아내는 건축’이 나란히 14회로 같은 순위를 갖지만 시대별 상대 지수를 고려하면 ‘전통의 현대화’가 0.18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며, ‘미니멀리즘’이 0.112로 2위, ‘스승’이 0.090으로 3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텍스트 수가 적던 60~80년대부터 상대적으로 ‘전통의 현대화’가 많이 검출됐기 때문이며, 시대에 따라 꾸준히 건축인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밈들은 가능한 세부적으로 내용을 해석한 밈으로써 큰 단위의 담론과 흐름을 보기엔 부정확한 면이 있다. 따라서 [표4-10]에서 내용 분류에 따라 24가지로 구분된 밈플렉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밈플렉스 기준으로 많이 언급된 순으로 나열되어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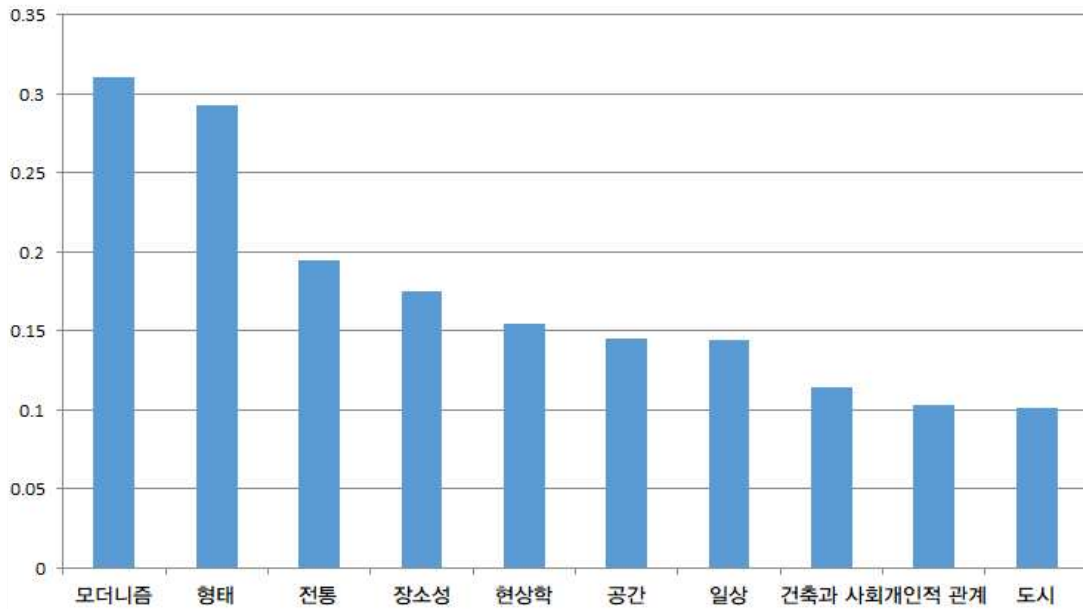
[표 4-12] 밈플렉스들의 명칭, 유형, 언급 횟수, 시대별 상대 지수

밈플렉스 명칭	주 밈 유형	언급 횟수	시대별 상대 지수
장소성	건축적 사고와 담론	40	0.170
모더니즘	건축적 사고와 담론	36	0.301
현상학	건축적 사고와 담론	33	0.151
건축과 사회	건축적 사고와 담론	27	0.114
형태	디자인 및 실무	26	0.293
공간	디자인 및 실무	26	0.145
생성의 철학	타 분야 사고와 담론	19	0.083
건축의 본질	건축적 사고와 담론	17	0.087
일상	건축적 사고와 담론	17	0.144
후기 구조주의	타 분야 사고와 담론	16	0.076
전통	건축적 사고와 담론	16	0.195
건축과 자본주의	건축적 사고와 담론	14	0.063
구조주의	건축적 사고와 담론	13	0.052
도가 사상	타 분야 사고와 담론	12	0.074
해체주의	건축적 사고와 담론	12	0.052
작업 프로세스	디자인 및 실무	11	0.052
개인적 관계	작가적 자세	11	0.103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적 사고와 담론	9	0.065
프로그램	디자인 및 실무	8	0.093
도시	건축적 사고와 담론	8	0.101
재료	디자인 및 실무	6	0.041
입면	디자인 및 실무	5	0.054
구조	디자인 및 실무	4	0.026
평면	디자인 및 실무	3	0.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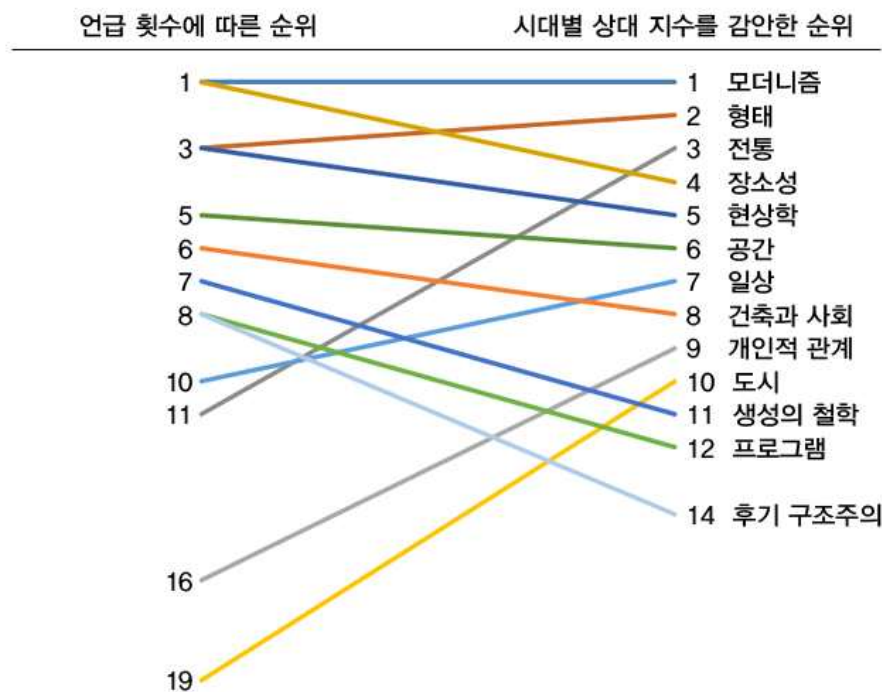
위 표에서 보듯 공간지가 창간된 이래로 건축인들이 텍스트에서 누군가를 언급하며 가장 많이 수신한 밈은 ‘장소성’과 ‘모더니즘’에 관한 밈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현상학’, ‘건축과 사회’, ‘형태’, ‘공간’, ‘생성의 철학’ 등의 순으로 건축인들이 밈을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시대별 상대 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시대별 상대 지수에 의한 순위는 [그림 4-9], [그림 4-10]처럼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4-9] 밍플렉스들의 시대별 상대 지수에 따른 순위



[그림 4-10] 연급 횟수와 시대별 상대 지수 적용시의 순위 변화

위 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더니즘’ 밈플렉스는 언급 횟수로 보나 시대별 상대 지수를 감안하나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시대에 상관없이 건축인들에게 꾸준히 ‘모더니즘’ 밈이 많이 수신됨을 보여주며 각종 담론들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가장 화두에 있음을 보여준다.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특징은 ‘전통’ 밈플렉스의 순위 변화이다. ‘전통’ 밈플렉스는 최근에는 출현이 줄어든 편이나 이전에는 많이 언급되었던 밈으로 전 시간을 놓고 볼 때 많은 영향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 관계’ 밈플렉스 역시 예전 시대 텍스트들에서 특정인과의 스승 제자 관계나 개인적 친분 등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밈들이 많아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대조적으로 ‘현상학’, ‘생성의 철학’, ‘후기 구조주의’ 같은 철학 관련 담론들의 순위가 약간 하락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들 밈플렉스들이 텍스트가 많은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텍스트가 많지 않던 예전에는 그다지 출현이 많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조사된 전체 세부 밈들의 유형별 통계를 살펴보면 [표 4-13]과 같다.

[표 4-13] 조사된 밈들의 유형별 통계

유형	세부 밈 기준			밈플렉스 기준
	종류 수	밈 개수 (개별 단위)	밈 개수 (텍스트 단위)	종류 수
건축적 사고와 담론	109	380	302	14
타 분야 사고와 담론	49	74	64	2
디자인 및 실무	109	186	152	8
작가적 자세	16	54	44	1
단순 영향	4	20	13	0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건축인들은 건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고와 담론에 속하는 밈들을 가장 많이 수신하였으며, 그 다음 디자인 및 실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밈들을 수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타 분야의 사고와 담론들은 주로 철학, 경제학, 인문학 분야 등의 인물들을 통해 언급되었으며, 건

축가나 비평가가 자신의 건축적 사고와 견해를 피력하는데 차용되어 쓰인 경우이다.

#### 4.3.3. 작품과 밈 내용의 통계

한편, 공간지의 조사 대상 텍스트에는 언급된 인물들의 수에 비하면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인물 뿐 아니라 해당 인물의 작품을 함께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작품들의 언급 횟수는 123회였고 종류로는 총 96가지였다. 언급된 작품들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상위 6개의 작품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4-14] 많이 언급된 작품들과 언급 횟수

작품	작가	언급 횟수
빌라 사보아	르 코르뷔지에	6
라 투레트 수도원	르 코르뷔지에	5
롱상 성당	르 코르뷔지에	4
카펜터 센터	르 코르뷔지에	3
베를린 신국립미술관	미스 반 데어 로에	3
스미요시 주택	안도 타다오	3

밈 분수들 중 가장 높은 중심성을 가졌던 르 코르뷔지에의 작품들이 단연 가장 많음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표 4-14]의 작품들 이외에 전체 123번 언급된 작품들의 작가 통계도 [표 4-15]에서 보는바와 같이 담론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밈 분수들의 작품들이 많이 언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5] 작가별 작품 언급 횟수

작가	작품 언급 횟수
르 코르뷔지에	26
미스 반 데어 로에	11
루이스 칸	9
안도 타다오	6
헤르조그 드 뮈론	5
세지마 카즈요 가즈요	4
필립 존슨	4
기타	58

전체 123번의 작품 언급 횟수 중 위 표에 나오지 않은 작가들의 작품인 기타 항목이 58번으로, 비교적 고르게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4-14]의 주로 언급된 작품과 함께 언급된 세부 밈들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16] 많이 언급된 작품들과 함께 언급된 세부 밈들

작품	언급된 밈들
빌라 사보아	건축적 산책로, 퓨리즘, 현실의 반영, 주택 설계의 중요성, 도미노 시스템, 근대건축 5원칙, 기계 주의
라 투레트 수도원	건축적 산책로, 빛, 단순 감명, 입면, 단면의 중요성, 다중적 프로그램
롱상 성당	빛, 매스와 공간, 단순 감명
카펜터 센터	사회와의 소통, 단면의 중요성
베를린 신국립미술관	유니버설 스페이스, 유기체적 형태, 수평적 언어
스미요시 주택	중정, 개성, 전통의 현대화

빌라 사보아(Villa Savoye) 같은 경우, 내부의 램프로 된 메인 동선을 언급한 건축적 산책로, 사보아 주택의 색채인 흰색으로 대표되는 퓨리즘(Purism), 당시 자동차가 보급되며 1층에 설치됐던 주차장을 언급하며 현실을 반영하는 사례로, 주택을 통해 도시적 시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택 설계의 중요성, 필로티와 자유로운 벽으로 대변되는 도미노 시스템, 이에 옥상정원, 수평창을 덧붙여 설명한 르 코르뷔지에의 대표적 주장인 근대건축 5원칙, 당시 기계화되던 산업사회와 맞물려 주장하던 살기위한 기계로서의 주택인 기계 주의의 밭들이 함께 언급되었다. 또한 라투레트 수도원은 내부 중정을 끼고 도는 메인 동선으로 대변되는 건축적 산책로, 중정에 침투하는 빛들을 세심하게 조절한 사례, 르 코르뷔지에의 모듈러가 나온 기반이 된 단면의 중요성, 교육, 학습, 거주라는 여러 기능을 한번에 담은 수도원이라는 다중적 프로그램에 관한 밭들이 함께 언급되었다. 룡상 성당은 르 코르뷔지에의 앞 두 작품과 다소 다르게 작품 내부에서 느껴지는 빛과 감명을 크게 받았다는 내용으로 느낌과 감성적인 언급이 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축가나 비평가들은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밭의 적절한 사례로 작품들을 함께 언급하였으며, 작품과 함께 언급된 작가들의 순위는 4.2.4에서 보였던 밭 분수들의 순위와 다소 다른 순위를 보이기도 했다. 안도 타다오(安藤忠雄), 헤르조그 드 뮈론(Herzog & de Meuron), 세지마 카즈요(妹島和世) 등 이론이나 담론보다는 작품들로 더 유명한 작가들이 순위를 바꾸어 상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 4.4. 소결

### [기본적 사항]

1. 조사한 공간지의 수는 601권이고, 분석된 문장의 총 개수는 708개였다. 최근으로 올수록 조사 대상 텍스트들이 현저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과거로 갈수록 더 줄어들었다. 이는 공간지라는 잡지의 성격의 변화, 작성되는 텍스트들의 질적 차이와 관련이 있다.

### [밈의 흐름]

1. 조사된 밈 발신자들의 수는 총 349명이었다.
2. 밈 발신자들의 국적은 미국(약 20%), 한국(약 14%), 프랑스(약 14%) 순이었다.
3. 발신자 기준이 아닌, 추출된 밈의 개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약 24%), 프랑스(약 20%), 한국(약 10%) 순이었다. 2번 항목과 비교할 때 미국, 프랑스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프랑스와 한국의 순위가 바뀌어 보이는데 이는 미국,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의 밈 발신자들에게서 한 명당 더 많은 밈이 발산되었음을 나타낸다.
4. 밈 발신자들의 직업들을 비슷한 군끼리 묶었을 경우, 건축 군(44%), 철학 군(13%), 미술 군(10%) 순이었다. 건축 군 직업의 점유율이 반을 넘지 않고, 다양한 직업 군들의 밈 발신자들이 포진된 것은 건축이라는 분야가 상당히 통섭적인 분야임을 보여준다.
5. 조사된 전체 텍스트에서 가장 높은 네트워크 중심성을 보인 주요 밈 분수 5명은 르 코르뷔지에, 미스 반 데어 로에, 루이스 칸, 김수근, 질 들뢰즈 순이었다. 대체로 건축인들이 현대건축의 거장이라 부르는 인물들이 상위권에 들었으며, 질 들뢰즈가 특이하게 철학자로서 주요 밈 분수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최근의 텍스트들이 많이 언급된 것과 관련이 있다.

### [밈의 내용]

1. 조사된 총 밈들의 개수는 708개였다.

2. 이 밈들은 유형에 따라 건축적 사고와 담론, 타분야 사고와 담론, 디자인 및 실무, 작가적 자세, 단순 영향의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건축적 사고와 담론에 해당하는 밈들이 302개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 및 실무와 관련된 밈들이 152개, 타분야 사고와 담론에 해당하는 밈들이 64개, 작가적 자세에 해당하는 밈들이 44개, 단순 영향에 해당하는 밈들이 13개를 차지했다.
3. 조사된 밈들을 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287가지의 내용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을 다시 비슷한 내용들의 밈끼리 밈플렉스 별로 묶으면 24가지(기타 제외)로 분류할 수 있었다.
4. 이 군 들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주요 밈플렉스는 장소성이었으며, 모더니즘, 현상학, 건축과 사회, 형태 순으로 밈들이 많이 언급되었다.
5. 그러나 시대별 텍스트 수를 감안하여 상대적 지수를 낸 순위에서는 모더니즘, 형태, 전통, 장소성, 현상학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이는 예전 텍스트가 적던 시절에 많이 언급되었던 밈들의 영향력이 보정된 결과이다.
6. 한편 96가지의 작품들이 총 123번 언급되었다.
7. 가장 많이 언급된 작품은 빌라 사보아였고, 라 투레트 수도원, 룡상 성당이 뒤를 이었다.
8. 7번 항목에서 볼 수 있듯 가장 많이 언급된 작품의 작가는 르 코르뷔지에(26번) 였으며, 뒤를 이어 미스 반 데어 로에(11번), 루이스 칸(9번)의 작품들이 많이 언급되었다. 이로써 이 세 명은 밈 내용에 이어 작품에서까지 건축인들에게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제 5 장 인물과 사조별 결과 분석

---

5.1 주요 인물별 밈들의 분석

5.2 주요 사조별 밈들의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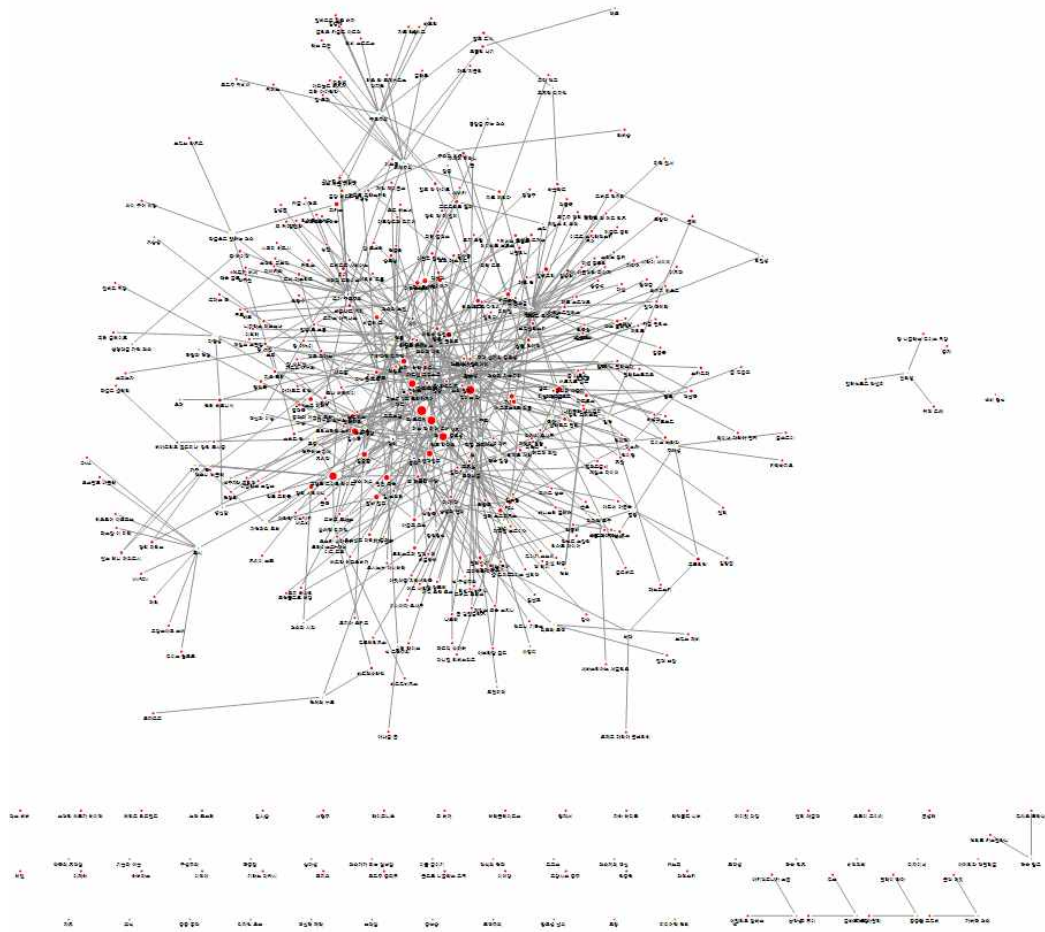


조사 결과를 가지고 4장에서는 기본적인 통계만을 내었는데, 이 장에서는 공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들을 인물과 내용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여 줄 것이다. 밈플렉스들의 통계, 세부 밈들, 출현 시기를 보여주었던 타임라인, 실제 공간지에 나왔던 텍스트들을 함께 보여주면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 5.1. 주요 인물별 밈들의 분석

이 절에서는 조사 결과들을 인물들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볼 것이다. 4장에서 단순히 언급된 횟수만 가지고 밈 분수들의 순위를 내었다면 이 절에서는 인물과 함께 언급된 밈의 내용을 함께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링크의 소스(Source) 항목엔 밈 발신자, 타겟(Target) 항목엔 밈 내용을 대입해 분석을 하였는데, 예를 들어 어떤 텍스트 작성자가 르 코르뷔지에를 언급하며 모더니즘에 관해 말 할 경우 발신자 항목에 르 코르뷔지에, 수신자 항목에 모더니즘을 대입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는 식이다. 단, 이 경우 발신자가 인물, 수신자가 밈의 내용이므로, 인물이든 밈의 내용이든 각각의 입장에서 발신과 수신을 둘 다 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매개 중앙성은 계산되지 않는다. 또한 타겟 항목에 들어가는 밈 내용이 세부 밈일 경우 지나치게 링크가 분산되어 경향을 보기 힘들므로, 밈 내용을 정리하여 분류한 밈플렉스를 대입하였고, 밈플렉스에 들어가지 않는 세부 밈들만 세부 밈들의 형태로 타겟 항목에 대입하였다.

연결 중앙성과 근접 중앙성 두 항목 중 네트워크 전역성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근접 중앙성이므로 최종적으로 근접 중앙성을 기준으로 네트워크 중심성을 판단할 것이다. 위 사항에 따라 전 시대를 대상으로 밈 발신자와 밈의 내용을 네트워크 분석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네트워크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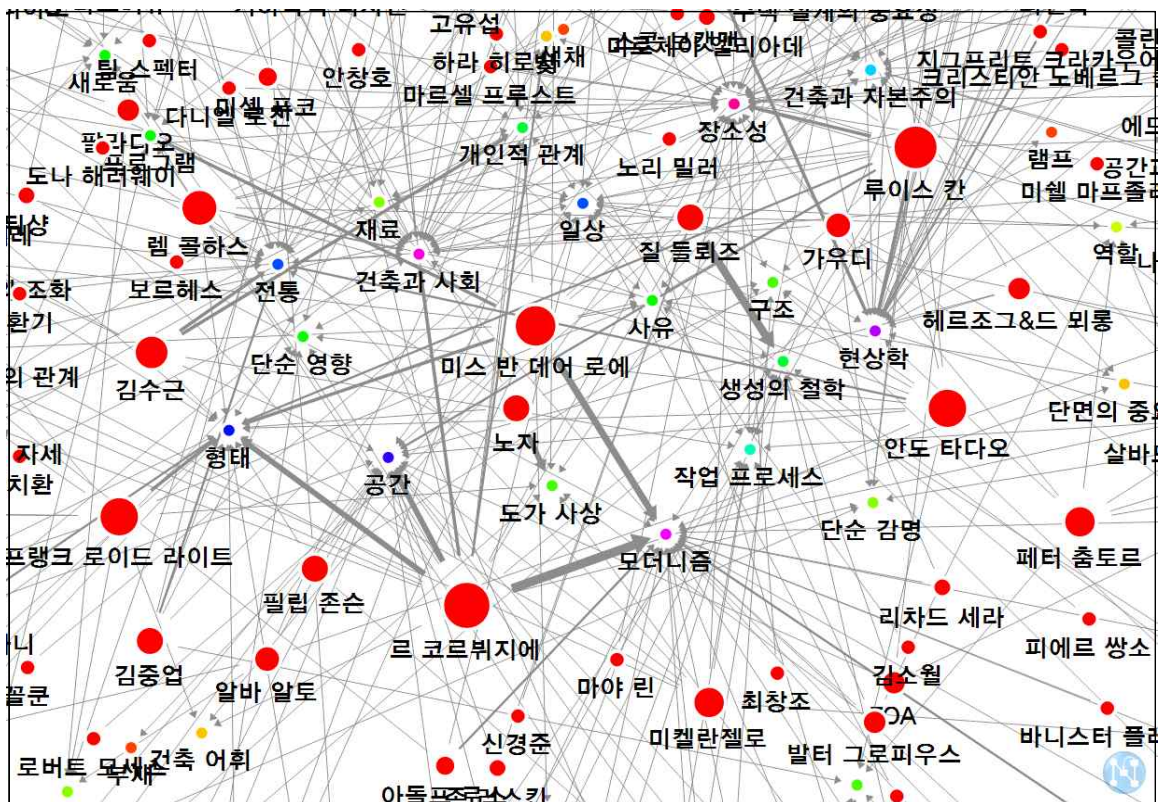


[그림 5-1] 밈 발신자와 밈 내용을 짝으로 실시한 네트워크 그래프

전체 노드 수는 475개, 링크 수는 596개였으며 그래프 하단이나 우측의 네트워크는 고립된 밈 발신자들과 밈의 내용들로, 전체 담론과 인물들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미약한 밈들이다. 노드의 사이즈는 근접 중심성에 비례하며, 링크의 굵기는 동일 노드들 사이를 연결한 횟수에 비례한다. 그림 중앙부를 확대하면 [그림 5-2]와 같다.

중앙부의 노드와 링크들을 살펴보면 노드들과 링크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는데, 붉은색의 크기가 다른 노드들은 밈 내용을 발산한 인물들이며 작은 크기의 서로 다른 색깔의 노드들은 인물들로부터 발산된 밈 내용들이다. 인물들의 노드들은 근접 중앙성에 비례해 노드 사이즈를 다르게 했다. 즉, 노드의 사이즈가 클수록 더 높은 근접 중앙성을 가지므로 담론계에 많은 영

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밈 내용의 노드들은 보라색에 가까울수록 근접 중앙성이 높아 담론계에서 많이 다뤄진 밈 내용들이라 할 수 있으며 파란색 녹색 노랑의 색 스펙트럼 순으로 근접 중앙성 값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링크의 굵기는 특정 인물이 특정 밈 내용을 발산한 횟수에 비례한 것으로 그림에서 르 코르뷔지에가 모더니즘을 발산한 링크나 미스 반 데어 로에가 모더니즘을 발산한 링크, 질 들뢰즈가 생성의 철학을 발산한 링크 등이 굵은 것이 눈에 들어온다. 한편 근접 중앙성의 경우 르 코르뷔지에, 미스 반 데어로에, 루이스 칸과 같은 인물들과 장소성, 모더니즘, 공간과 같은 밈 내용들이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이제 이 그래프의 바탕이 된 근접 중앙성 들을 상위 9위까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표 5-1]과 같다.



[그림 5-2] 밈 발신자와 밈 내용 연결 그래프 중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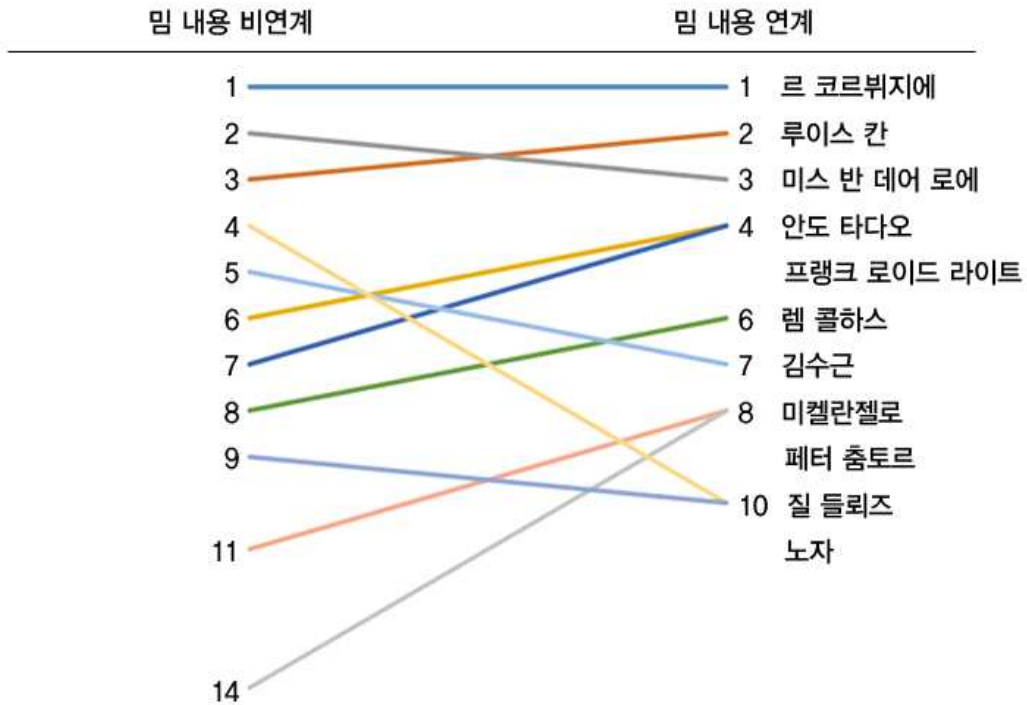
밈 발신자와 밈 내용을 연계해서 봤을 경우 역시 가장 높은 중앙성을 보이는 인물은 르 코르뷔지에였으며, 루이스 칸, 미스 반 데어 로에, 안도 타

다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가 뒤를 이어 높은 중앙성을 보였다. 또한 밈 내용은 장소성이 가장 높은 중앙성을 보였으며, 건축과 사회, 모더니즘, 현상학, 후기 구조주의의 순으로 높은 중앙성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순위들은 4장에서 봤던 인물들의 순위와 밈 내용의 출현 빈도 순위와 다소 다른 수치를 보여준다. 인물들의 경우 4장의 단순 빈도 기준 순위와 네트워크 근접 중앙성의 순위를 비교하면 [그림 5-3]과 같다.

[표 5-1] 밈 발신자와 밈 내용의 근접 중앙성 상위 9개

밈 발신자	근접 중앙성	밈 내용	근접 중앙성
르 코르뷔지에	0.044	장소성	0.078
루이스 칸	0.040	건축과 사회	0.061
미스 반 데어 로에	0.038	모더니즘	0.057
안도 타다오	0.023	현상학	0.055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후기 구조주의	0.049
렘 콜하스	0.021	공간	0.047
김수근	0.017	형태	0.042
미켈란젤로	0.015	일상	0.040
페터 춌토르		전통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순위 변동이 거의 없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순위 변동이 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인물에게서 발산된 밈이 얼마나 많은 인물과 연관 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 가령, 어떤 인물이 아무리 밈을 많이 발산했어도 그 밈이 다른 인물들과 연결되어 있는 수가 적다면 근접 중앙성 공식에 의해 높은 값을 가질 수가 없다. 하지만 반대로 발산한 밈의 수가 많지 않더라도 많은 인물들과 연결된 밈을 발산했다면 근접 중앙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림에서 가장 순위변동이 심했던 질 들뢰즈의 예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3] 밈 내용 비연계시와 밈 내용 연계시의 순위 변동 비교

### 5.1.1. 질 들뢰즈

질 들뢰즈의 경우, 밈 발산 수로 따질 경우 4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밈 내용을 함께 고려할 경우 10위로 떨어지게 된다. 질 들뢰즈에게서 발산된 밈들을 살펴보면[표 5-2]와 같다.

질 들뢰즈에게서는 총 16개의 비교적 많은 밈이 발산됐으나 반 이상이 ‘생성의 철학’ 밈플렉스에 편중됐다. 그리고 이 생성의 철학은 전체 밈들 중 연결 중앙성이 15위에 해당해 순위가 높지 않다. 또한 밈들의 유형도 건축적 사고와 담론이 아닌 타 분야 사고와 담론의 유형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즉, 질 들뢰즈에게서는 일반적으로 건축인들에게서 많이 발산되는 밈들이 아닌 특수한 내용의 밈들을 주로 발산된 것이다. 5.2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생성의 철학’은 질 들뢰즈가 쓴 저작인 ‘차이와 반복(Difference and Repetition)’과 ‘천개의 고원(Milles plateux)’을 기본으

로 전개되는 철학인데다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철학이라기 보다 조형, 건축, 예술, 미학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며 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물들보다 질 들뢰즈에게서만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밈이다. 또한 [그림 5-4]에 표현된 대로 질 들뢰즈에 의한 밈들이 언급된 시기를 보아도, 1995년 질 들뢰즈 사망 이후 세기말 분위기와 후기 구조주의의 흐름을 타던 90년대 후반부터 공간지에 질 들뢰즈의 밈이 유입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5-2] 질 들뢰즈에게서 발산된 밈들의 내용, 유형, 밈 연결 중앙성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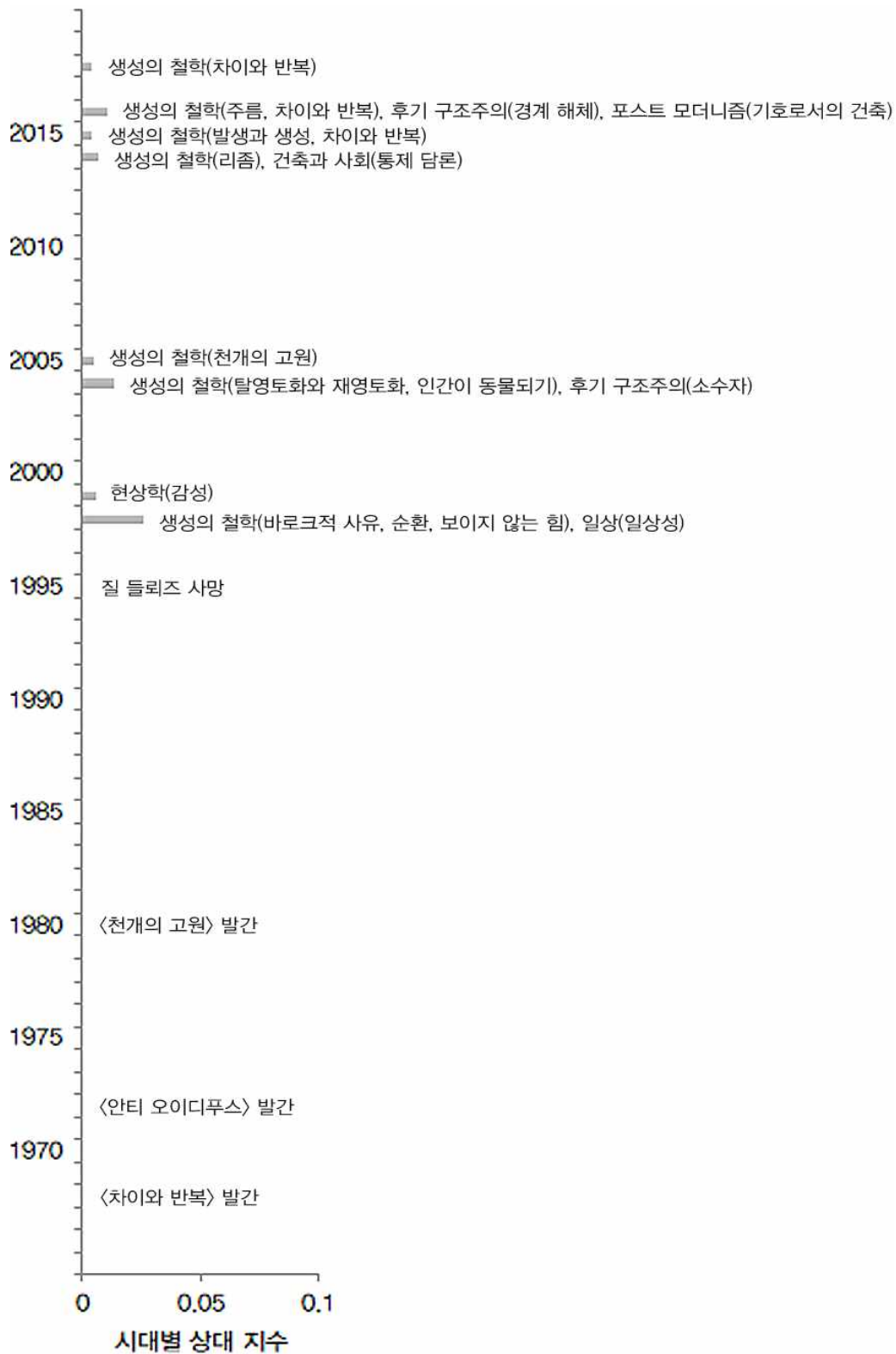
밈의 내용	주 유형	언급 횟수	밈 연결 중앙성 순위	시대별 상대 지수 합
생성의 철학(군)	타 분야 사고와 담론	10	15	0.0450
후기 구조주의(군)	타 분야 사고와 담론	2	5	0.0082
건축과 사회(군)	건축적 사고와 담론	1	2	0.0036
현상학(군)	건축적 사고와 담론	1	4	0.0058
일상(군)	건축적 사고와 담론	1	8	0.0066
포스트모더니즘(군)	건축적 사고와 담론	1	26	0.0036
합계		16		0.0728

질 들뢰즈의 밈은 1998년, 당시 교수였던 김미상이 건축가 김현의 작품에 관해 작성한 리뷰에서 공간지에 처음 등장하였다.

“...질 들뢰즈에 따르면 바로크적 특성은 본질적인 것보다 운곽적인 것, 수행적 기능을 참조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성은 다시 또 무한대로 굴절되고 접혀져 미로와 같은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무한한 가능성과 비규정성을 상징한다...”

(김미상, 스푸마토와 바로크적 사유, 1998년 4월호)

바로크 공간은 공간과 장식이 유기적으로 일체화 되어있다. 마치 정신과 물질이 하나 된 듯한 경험을 느끼게 해주는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의 사고체계를 바로크적 철학이라고 이야기한다.<sup>67)</sup>



[그림 5-4] 질 들뢰즈 밌들의 출현 시기와 내용들

67) 임기택. (2014). 이성의 명암과 건축이론. Spacetime, p.72.

라이프니츠가 모나드를 통해 주름과 펼쳐짐의 사유를 언급할 때 예를 든 것이 바로크였고 이 예를 질 들뢰즈가 자신의 저서에서 다시 다루며 무엇으로든 될 수 있는 잠재태로써 김미상은 이를 언급하였다. 건축가 김현의 작품의 형태들 상당수가 해체주의로 분류되며<sup>68)</sup> 내부 공간도 이러한 경향을 따르는 것을 고려할 때 들뢰즈가 말했던 바로크적 사유는 적절한 인용이었다.

또한 바로 그 다음달 공간지에서 40살 이하의 젊은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under40’라는 인터뷰에서 세 명의 젊은 건축가들이 질 들뢰즈를 언급함으로써 신진 건축가들 사이에서 질 들뢰즈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음을 엿볼수 있다.

*“변화는 영원히 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그 변화는 차이를 동반한 원환이다” - 질 들뢰즈*

(배병길, under 40, 1998년 5월호)

*...들뢰즈는 보이지 않는 힘을 그리는 속성을 가진 이로서의 화가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건축가에게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땅과 프로그램에 대한 건축가의 시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오섬훈, under 40, 1998년 5월호)

*“현대의 일상성이 무의미해지는 이유는 개념의 부재 때문이다. 개념은 현 생활과 연계되어 있다. 개념창조의 순수성의 소멸. 이것은 현대성의 대량 생산에서 오는, 물건의 운치에는 마음을 쓸 겨를이 없는 부재에 의한 향수만을 요할 뿐이다” - 질 들뢰즈*

(전인호, under 40, 1998년 5월호)

질 들뢰즈의 밈이 처음 유입되던 시기엔 ‘바로크적 사유’, ‘순환’ 과 같이

68) 이종건. (1999). 해체주의 건축의 해체. 발언.



후기 구조주의의 일부로도 볼 수 있는 밈들이 언급되나 시대가 지날수록 ‘리즘’, ‘기관없는 신체’, ‘주름’ 등 질 들뢰즈가 창안한 개념들과 생성의 철학의 모태가 된 라이프니츠(G. W. Leibniz)의 모나드(Monad)론까지 언급되는 등 보다 더 들뢰즈만의 심도있는 밈들이 유입된다.

*지도는 온몸을 던져 실재에 관한 실험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지도는 자기 폐쇄적인 무의식을 복제하지 않는다. 지도는 무의식을 구성해낸다. 지도는 장(場)들의 연결 접속에 공헌하고, 기관 없는 몸체들의 봉쇄-해체에 공헌하며, 그것들을 고른 판 위로 최대한 열어놓는 데 공헌한다. 지도는 그 자체로 리즘에 속한다. 지도는 열려있다. 지도는 모든 차원들 안에서 연결 접속될 수 있다. 지도는 분해될 수 있고, 뒤집을 수 있으며, 끝없이 변형될 수 있다. 지도는 찢을 수 있고, 뒤집을 수 있고, 온갖 몽타주를 허용하며, 개인이나 집단이나 사회구성체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지도는 벽에 그릴 수도 있고, 예술 작품처럼 착해낼 수도 있으며, 정치 행위나 명상처럼 구성해낼 수도 있다. 언제나 많은 입구를 가지고 있다. - 질 들뢰즈, [천개의 고원] (장윤규, 다양체의 지도, 2014년 7월호)*

또한 질 들뢰즈의 주요 저작들은 이미 80년 이전에 출판된 반면 공간지에 나오는 그의 밈들은 그의 사망 이후인 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밈들이 퍼지게 됐는데, 뒤에 보겠지만 몇몇 밈 분수들의 밈들도 생전보다 사망 이후에 널리 유입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 5.1.2. 르 코르뷔지에

르 코르뷔지에는 모더니즘 건축을 대표하는 인물로, 단순 언급 횟수로 보나 밈 내용과 연계된 순위로 보나 가장 높은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게서 발산된 밈들의 내용을 보면 [표 5-3]과 같다.

[표 5-3] 르 코르뷔지에에게서 발산된 밈들의 내용, 유형, 밈 연결 중앙성 순위

밈의 내용	주 유형	언급 횟수	밈 연결 중앙성 순위	시대별 상대 지수 합
모더니즘(군)	건축적 사고와 담론	13	3	0.0503
형태(군)	디자인 및 실무	8	7	0.1069
공간(군)	디자인 및 실무	5	6	0.0234
건축과 사회(군)	건축적 사고와 담론	5	2	0.0197
빛	디자인 및 실무	2	44	0.0077
조망	디자인 및 실무	2	44	0.0036
개인적 관계(군)	작가적 자세	2	15	0.0357
연구하는 자세	작가적 자세	2	44	0.0971
단순 영향	단순 영향	2	18	0.0209
장소성(군)	건축적 사고와 담론	1	1	0.0036
건축의 본질(군)	건축적 사고와 담론	1	10	0.0113
내부와 외부의 관계	건축적 사고와 담론	1	22	0.0058
주택 설계의 중요성	건축적 사고와 담론	1	26	0.0051
프로그램	디자인 및 실무	1	18	0.0036
기하학적 디자인	디자인 및 실무	1	39	0.0062
단면의 중요성	디자인 및 실무	1	44	0.0036
가로의 내부화	디자인 및 실무	1	74	0.0115
램프	디자인 및 실무	1	74	0.0047
창호	디자인 및 실무	1	74	0.0036
단순 감명	단순 영향	1	26	0.0140
합계		52		0.4252

표에서 볼 수 있듯 역시 ‘모더니즘’ 밈플렉스가 가장 많이 발산 되었으며 ‘형태’, ‘공간’ 밈플렉스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여기서 ‘모더니즘’ 밈은 건축적 사고와 담론에 관련된 밈이지만 ‘형태’와 ‘공간’은 직접적으로 디자

인 및 실무와 관련된 밈들로써, 주로 그의 작품에서 형태와 공간의 영향을 받았다는 밈들이 많았다. 다른 밈플렉스들의 유형들을 보아도 건축적 사고와 담론과 관련된 밈들과 더불어 디자인 및 실무와 관련된 밈들도 비슷한 수로 많아 그의 사유뿐 아니라 실제 작품이 많은 영향을 주었음이 잘 드러나있다. 또한 ‘형태’의 밈들이 많았음은 그의 작품들이 모더니즘 원칙에 의거한 동시에 조형적으로도 뛰어난 면모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그에게서 발산된 형태 밈들의 언급을 자세히 보면, 빌라 사보아의 개구부 디자인, 그의 작품들 속에 부분적으로 숨어있던 곡선들, 롱상 성당의 지붕 매스 등 다양한 형태적 요소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 작품 밑바닥에 깔린 생각은, 그 당시 내가 심취했던 [르폴뷰체]의 건축관 그대로다...외부공간의 相通, 쉘의 곡선과 직선, 콘크리트 루바의 리듬, [콘트라스트]를 취하므로써 다이나믹한 성격을 자아내는 조형들 하나같이 모두 [르폴뷰체]의 수법이다...

(안병의, 남산야외음악당, 1972년 6월호)

...르 꼬르뷔제와의 만남으로부터 얻어낸 조형 정신과 구체적 모티프들이 두드러지는 초기의 경향...초기 김중업의 작품은 부산대와 서강대에서 명확히 보여주듯 르 꼬르뷔제를 가리키고 있다...

(김경수, 양식과 수법-김중업론, 1986년 3월호)

...불란서 대사관에서 꼬르뷔제의 도미노 이론이나 5원칙(필로티, 옥상정원,...)의 적용을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며, 콘크리트의 가소성이 조형적으로 발취되었음을 발견하는 일 역시 쉬운 일이다...

(강혁, 주한 프랑스 대사관, 1987년 11월호)

...이같은 서측 블록의 상단 처리는 르 꼬르뷔제의 빌라 가르

쉐(villa Garche) 정원쪽 입구와 같이 하나의 면 뒤에 또 다른 볼륨이 연속되어 있으면서, 가로에서 올려다보는 건물의 높이가 조금이라도 낮게 보이도록 한 것이었다...

(김광현, 유성 스포츠 프라자, 1989년 3월호)

...구조와 공간의 치밀한 결합을 이루면서도 부분적 곡선 처리를 통해 여유를 보여주던 르 코르뷔제의 작품이 만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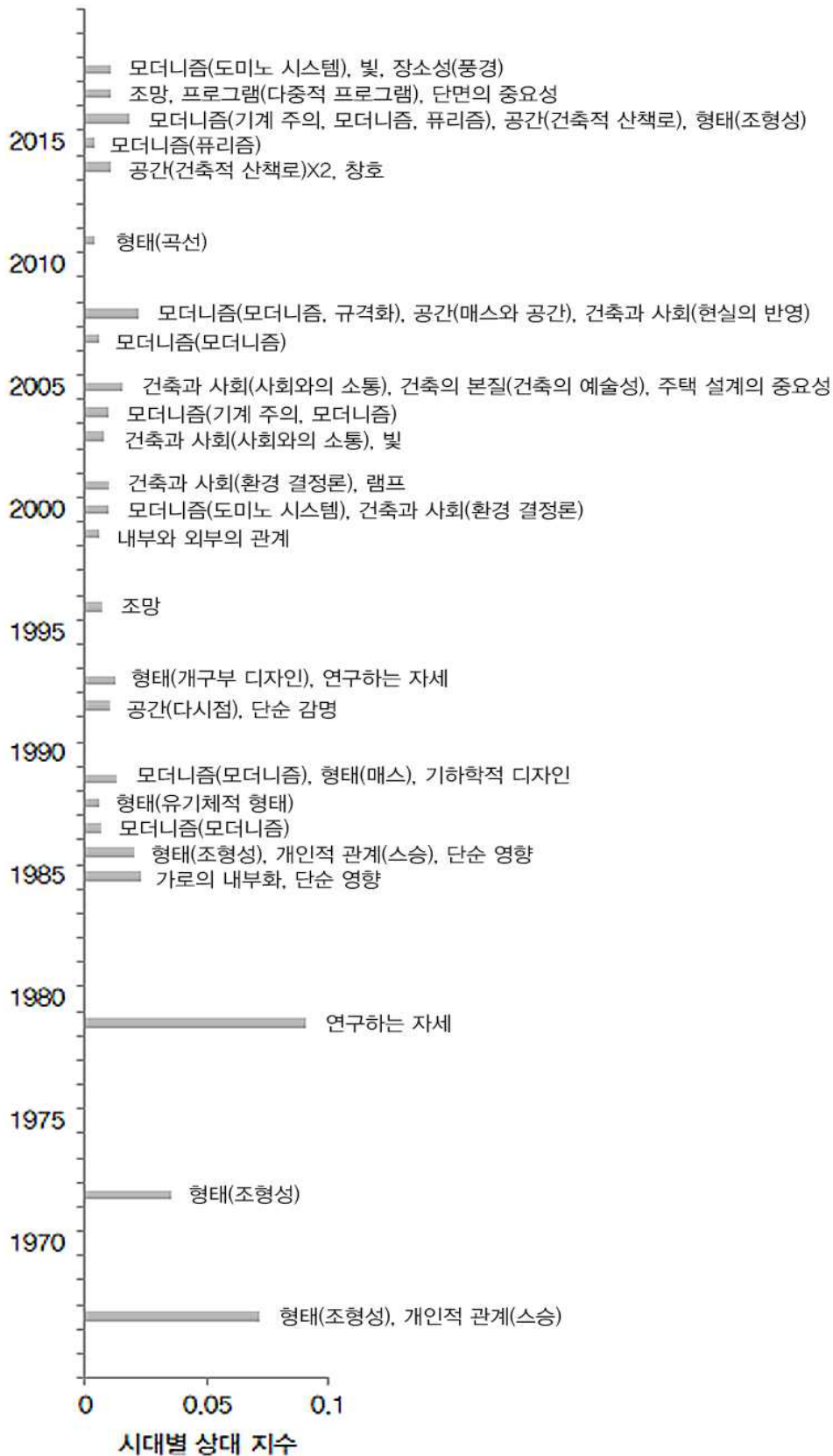
(김종현, 시간과 장소의 흐름을 연결하는 커넥터로서의 건축, 2011년 9월호)

또한 특이한 것은 ‘장소성’ 밈플렉스의 발산인데, ‘장소성’ 밈플렉스는 [표 4-12]와 [표 5-1]에서 보는대로 전체 밈들 중 1, 2위로 많이 발산되는 밈들이다. 그런데 르 코르뷔지에에게서 발산된 밈들 중에서는 전체 52개의 밈들 중 단 한 개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작품들과 사유가 모더니즘과 국제주의적 특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들은 대부분 건물과 외부의 관계를 논하기보단 평면이나 공간 등 내적 완결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9)</sup>

한편, 언급 횟수로는 ‘모더니즘’ 밈플렉스가 가장 많지만 시대별 상대 지수를 고려하면 ‘형태’ 밈플렉스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과거에 ‘형태’ 밈플렉스의 영향력이 더 컸음을 의미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그림 5-5]와 같다. 타임라인을 보면 르 코르뷔지에의 밈들은 공간 창간호부터 최근까지 전 시대에 걸쳐 꾸준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 80년대 이전에 분포가 다소 적어 보이는데 이것은 조사 대상 텍스트 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며, 이를 감안한 시대별 상대 지수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최근의 시대별 상대 지수가 낮은 수치를 보여주는 데, 이는 전체 텍스트 수에 비해 그의 텍스트 수가 적다는 의미로 오히려 과거가 더 그의 영향력이 컸음을 보여준다.

시대별로 언급된 밈의 특징들을 보면, 80년대 중반 이전엔 주로 그의 작

69) “모더니즘 건축은...‘기능주의’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공간의 기능주의적 원칙이 장소의 상실을 만들어 내었다” - 박영욱. (2010). 현대 건축에서 ‘장소’의 구축과 테크놀로지의 활용.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한국학술정보.



[그림 5-5] 르 코르뷔지에 밈들의 출현 시기와 내용들

품의 형태나 개인적 관계 등에 관한 언급이 주를 이룬다.

...르 코르뷔지에에 사사하고 영향을 받은 김중업은 주한불란서대사관에 이르러 절정을 이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 같다...

(박춘상, 불란서 대사관, 1967년 11월호)

... 그 다음에 영향을 받은 것이 르 코르뷔제와의 만남인데, 52년부터 56년 사이의 그 사건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4년간 그분의 작업을 지켜보면서 그분의.. 강한 의지와 그 집착력은, 내가 받은 그분의 건축언어와는 별도로 받아들여야만 했었죠...

(김중업, *Le Corbuiser*와 김중업, 1986년 3월호)

공교롭게도 두 아티클에서 전부 김중업이 같이 언급되고 있다. 이밖에도 형태 밈에 관해 언급된 김경수와 강혁의 작성 글에서도 역시 모두 김중업과 르 코르뷔지에가 함께 언급되고 있다. 그만큼 ‘김중업=르 코르뷔지에의 수제자’라는 인식은 한국의 건축인들에게 강하게 남았다. 김중업 자신도 스승으로서의 르 코르뷔지에를 자주 언급했다.

...건축가는 자기자신만을 위해 때때로 시간과 정열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르코르비제도 그랬어요. 그 양반만 해도 모를을 다듬고 있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지요. 그러나그가 쉬고 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김중업, 자신에게 충실했던 7년간의 해외생활, 1979년 3월호)

...나의 초기 작품이랄 수 있는 "부산대, 서강대 본관" 등에서는 르코르비제에게서 한 발자국도 도망할 수 없었던, 그의 언어를 직설적으로 옮긴 것이었다고 자인합니다...

(김중업, Le Corbuiser와 김중업, 1986년 3월호)

그러다 80년대 중반 이후로 이론적 측면인 모더니즘에 관한 언급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모더니즘 밈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80년대 이후로 이론적 사조가 풍부해지는 한국 건축 담론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르 코르뷔지에가 모더니즘 작가와 이론가의 대표로서 자리매김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간’ 밈플렉스와 ‘형태’ 밈플렉스의 대비도 눈에 띈다. 90년대 이전까진 주로 그의 작품들에서 형태가 언급되다가 90년 이후로는 공간들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이는 예전에 오브제와 겉모습으로 건축물을 인식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최근 건축들의 현상학적인 흐름인 내부 공간과 종합적 느낌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계단과 복도의 연계를 통해서 마련한 구성체계는 마치 입체파의 원리를 응용해서 공간과 시간개념의 통합을 시도한 꼬르뷔제의 공간개념과도 그 맥이 연결되는 듯해서 흥미롭다...*  
(임창복, 철골구조에 의한 중성적 공간의 추구, 1992년 7월호)

*...라 투레트 수도원. 바깥의 강인한 사각형과 달리 가운데 오픈스페이스를 끼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공간의 변화와 빛의 처리는 고요에 가득 차 있다...*

(민현식, 땅의 조건에서 도출되는 건축, 2001년 8월호)

*...내부공간에서의 다양한 변화와 시각적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방법은 이야기성 공간의 전개 형식으로 르 코르뷔지에가 자주 사용하던 방법이기도 하다...*

(우경국, 매송헌 읽기, 2014년 8월호)

*...단순한 박스형 매스 속 연속적 공간의 흐름은 마치 빌라 사보아를 거니는 것과 같은 산책 미학이 있다...*

(홍재승, 위상학으로의 극복과 도전, 2016년 12월호)

이런 경향을 뒷받침 하는 것이 2000년 이후 나타나는 ‘밈’ 밈의 출현인데, 여기서 ‘밈’ 밈은 작품 속 내부 공간에서 느껴지는 빛에 관한 언급과 감명 받음을 언급한 것으로써 이 또한 최근의 현상학적 유행을 보여주고 있다. ‘밈’ 밈들은 룱상 성당과 함께 언급됨으로써, 룱상 성당이 얼마나 강렬한 빛의 연출 효과를 주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 룱상의 벽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빛을 보여주려  
는 것이 아니다. 그는 빛의 벽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빛으로 이룩한 건축이다.... 그의 '빛의 벽'은 이미 벽이 아니다.  
빛으로 이룩한 세계이다...

(김개천, 건축가 없는 건축을 위한 시도, 2003년 11월호)

... 내가 하는 건축이 그런 기억을 담아내는 좋은 그릇이길 바  
란다. 많은 기억과 풍요로운 빛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거기에 바  
람이 스치는 촉감을 담아낼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거칠게 벽면  
을 쓸고 내려오는 장엄한 빛을 나에게 경험시켜준 룱상성당처  
럼...

(이상대, 건축과 풍경사이, 2018년 3월호)

더불어 2000년 이후로 건축과 사회와의 소통과 관계를 내용으로 한 ‘건축과 사회’ 밈플렉스들이 등장하는데 건축인들이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데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기 시작한 90년대부터의 흐름을 보여준다.<sup>70)</sup>

... 이 집은 르 코르뷔지에의 구세군 [피난처 섬](Cit du  
Refuge, l' Arm e du Salut)과 유사한 태도의 사회공학적 프로  
그램을 갖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을 바꿈직한

70) 90년 결성된 4.3그룹, 93년 결성된 ‘건미준(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93건축가 선언’들의 한결같은 목표는 사회와 건축계 전반에 걸친 폐단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축의 사회참여라는 전선戰線을 형성했다. - 박길룡. 제 차세대의 선언과 자기 성찰. 한국 현대건축 평전.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다는 사상으로, 궁극적으로는...환경결정론에까지 이르는 주장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민현식, 웰컴시티, 2000년 6월호)

..."서울대 미술관은 캠퍼스와 지역 사회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러한 연계는 건물의 형태 이면에 깔려 있는 결정적인 논리이다." 이 건물은 미술관이라 불리지만 프로그램이나 건립 취지에 있어서 르 코르뷔지에가 설계한 하버드대의 카펜터센터와 같이 교육시설, 또는 커뮤니티 시설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배형민, 콜하스의 서울을 찾아서, 2005년 12월호)

### 5.1.3. 루이스 칸

루이스 칸은 르 코르뷔지에에 이어 두 번째로 근접 중앙성이 높게 나타난 인물이다. 일반적으로 작품과 이론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게서 발산된 밈들을 보면 [표 5-4]와 같다.

루이스 칸에게서는 총 18가지 종류 30개의 밈이 발산되었는데, 이는 52개의 밈이 발산된 르 코르뷔지에보다 두 종류 적은 것으로, 개수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밈들이 고르게 발산됐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질 들뢰즈가 ‘생성의 철학’에, 르 코르뷔지에가 ‘모더니즘’ 밈에 상당히 편중되어 나타난 것과 달리 루이스 칸은 ‘현상학’, ‘장소성’을 필두로 밈들을 비교적 고르게 발산 하였다. ‘현상학’, ‘장소성’, ‘건축과 사회’처럼 그가 비교적 많이 발산했던 밈들은 전체 밈들을 놓고 본 근접 중앙성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한, 즉 건축인들이 많이 관심있어하고 다룬 밈들이었기 때문에 루이스 칸 역시 높은 근접 중앙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루이스 칸에게서 발산된 밈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건축적 사고와 담론’

에서 16개, ‘디자인 및 실무’에서 11개로 루이스 칸도 르 코르뷔지에처럼 작품과 이론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밈들을 발산해 이론과 사조 뿐 아니라 작품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4] 루이스 칸에게서 발산된 밈들의 내용, 유형, 밈 연결 중앙성 순위

밈의 내용	주 유형	언급 횟수	밈 연결 중앙성 순위	시대별 상대 지수 합
현상학(군)	건축적 사고와 담론	5	4	0.0231
장소성(군)	건축적 사고와 담론	4	1	0.0223
공간(군)	디자인 및 실무	2	6	0.0134
형태(군)	디자인 및 실무	2	7	0.0168
건축과 사회(군)	건축적 사고와 담론	2	2	0.0072
건축의 본질(군)	건축적 사고와 담론	2	10	0.0128
사유	작가적 자세	2	18	0.0132
단순 감명	단순 영향	2	26	0.0102
일상(군)	건축적 사고와 담론	1	8	0.0066
주택 설계의 중요성	건축적 사고와 담론	1	26	0.0036
공간과 사용자	건축적 사고와 담론	1	57	0.0055
작업 프로세스(군)	디자인 및 실무	1	13	0.0115
구조(군)	디자인 및 실무	1	22	0.0113
디테일	디자인 및 실무	1	26	0.0098
재료	디자인 및 실무	1	26	0.0128
평면(군)	디자인 및 실무	1	33	0.0051
빛	디자인 및 실무	1	44	0.0058
단면의 중요성	디자인 및 실무	1	44	0.0036
합계		30		0.1416

르 코르뷔지에와 반대로 루이스 칸은 ‘현상학’, ‘장소성’ 등의 밈이 1, 2 위로 발산됨으로써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이

어주는 건축가, 브루털리즘(Brutalism)의 건축가 혹은 현상학 계열에 속하는 건축가이기도 하다<sup>71)</sup>는 점이 수치상으로 밝혀졌다. 즉, 르 코르뷔지에와 달리 루이스 칸의 건축은 작품의 내적 완결성과 동시에 외부 환경과의 관계, 더 나아가 사회와의 관계까지 폭넓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루이스 칸에게서 발산된 현상학 믿음은 주로 ‘봉사받는 공간과 봉사하는 공간(Served space and Servant space)’의 세부 믿음에 집중되었다.

봉사하는 공간은 인간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인간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비와 같은, 건축에서 꼭 필요한 기능적 요소들로 이뤄진 공간이다. 루이스 칸은 인간이 생활하는 ‘봉사받는 공간’을 ‘봉사하는 공간’과 나누어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 이 두 공간은 하나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설비공간과 같은 봉사공간을 독립시켜 계획해 줌으로써 봉사받는 공간을 더욱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현상학에서 말하는 ‘괄호치기’(서로 다른 것이 같은 지향성을 갖고 묶이는 것-봉사받는 공간과 봉사하는 공간이 인간의 더 나은 거주를 위한 공통된 지향성을 갖고 통합됨)의 개념이 건축적으로 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72)</sup>

*...건물을 지원하는 공간과 지원받는 공간으로 조직하는 것은 그의 아이디어였다. 에어컨 설비, 엘리베이터 등 근대건축물에서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기계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견고한 단한 공간, 곧 지원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조남호, 스위스 나이프, 2015년 6월호)

루이스 칸에게서 발산된 ‘장소성’ 믿음플렉스는 ‘건물이 무엇이 되길 원하는가’ 세부 믿음에 집중되어 있다.

*...대지를 바라보고 그 곳에 어떠한 정서를 붙여넣을 수 있을*

71) 임기택. (2014). 현상학과 건축이론, p.75.

72) Ibid., pp.74-75.

까 생각하며...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둔 일관성 있는 "집 만들기" 작업이 자리잡을 수 있을까 되물곤 했다... 루이스 칸이 묻던 "What the Building wants to be"에 이르자 많은 날을 원점에서 맴돌게 했다...

(조용식, 서초동 주택, 1992년 6월호)

"루이스 칸의 '장소가 그러고 싶다고 바라는 것'이라는 말의 이면에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의미, 즉 장소를 그렇게 있게 하고 싶다는 건축가의 바람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의 균형과 긴장 사이에 건축적 결정행위의 많은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 로버트 벤츄리

(박성진, 사월 교회, 2005년 8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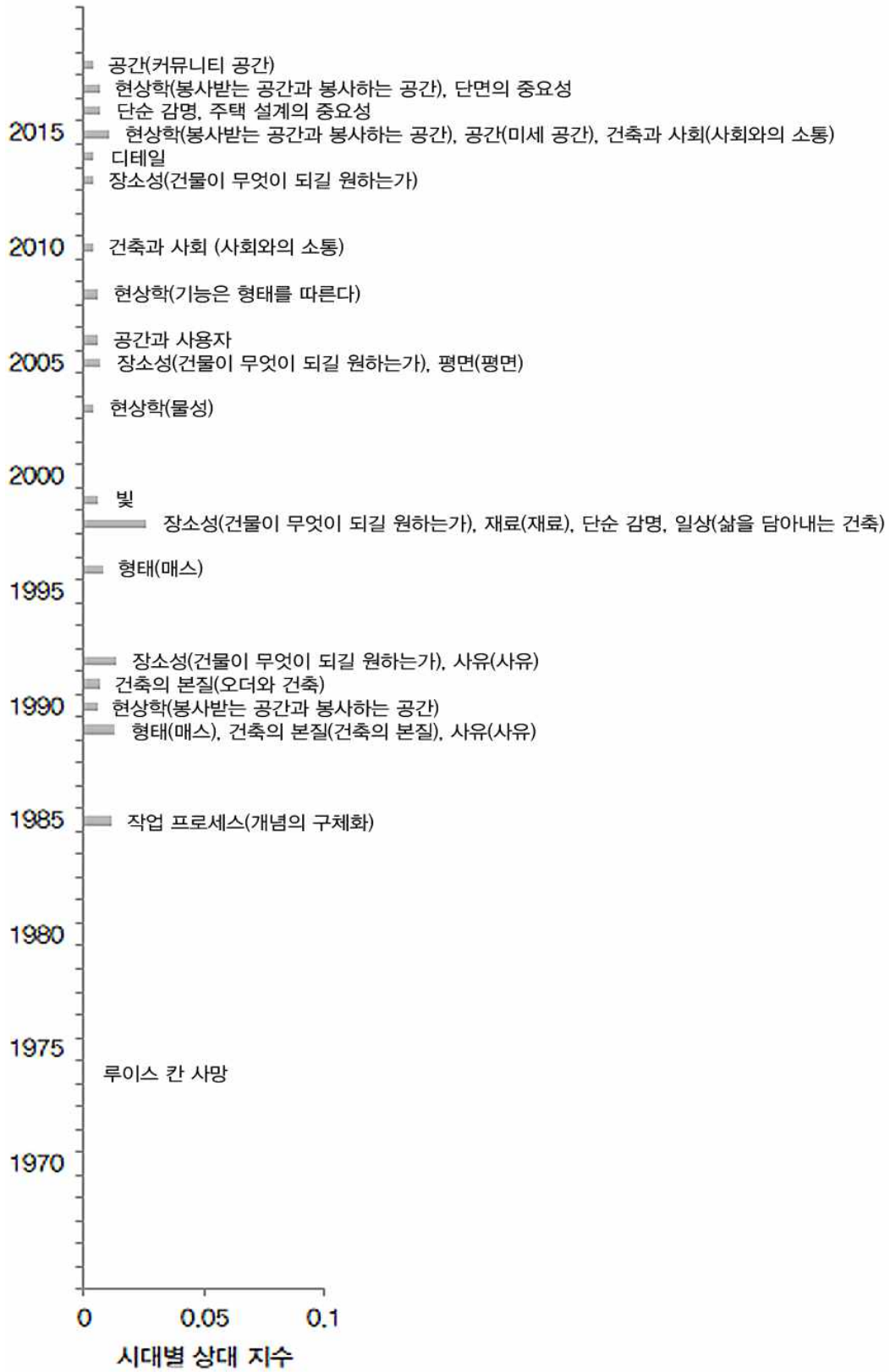
루이스 칸이 말한 '건물이 무엇이 되길 원하는가'는 원래 몇 가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들이지만, 공간지에 이를 언급한 건축가들은 건물이 놓이는 컨텍스트와 장소성에 맞춰 건물이 만들어 지는 것을 얘기하고자 할 때 저 격언을 언급하였다.

한편, 루이스 칸의 타임라인은 [그림 5-6]과 같다. 지금은 루이스 칸의 사상과 담론들이 많이 퍼져있지만 그의 밈이 처음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985년이였다. 당시 공간 건축편집위원이던 임창복이 건축가 황일인과의 대답에서

"... 많은 건축가들이 유추작용(Analogy)을 건축의 성격부여나 구체화 단계에서 종종 원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칸은 김벨미술관 계획에서 [빛이 곧 주제]라 했고... 개념이 혼돈된 상태에서 성격을 구체화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1985년 1월호, '질서감각으로서의 대칭성')

라 말하며 건축가가 자신의 개념을 구체화 시키는 사례로 김벨미술관을 함께 예를 들며 루이스 칸을 언급했다.



[그림 5-6] 루이스 칸 밈들의 출현시기와 내용들

루이스 칸 역시 앞의 질 들뢰즈처럼 루이스 칸 담론의 기본서로 꼽히는, 논문 ‘오더와 디자인’(Order & Design)이 1955년에 발표되고, 김벨 미술관, 소크 연구소 같은 그의 유명 작품들이 이미 1960~70년대에 만들어진 것을 고려하면 그의 밈이 상당히 늦게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역시나 루이스 칸이 사망한지 10여년이 지나서야 그의 밈이 퍼지기 시작한 것 또한 질 들뢰즈와 유사한 점이다. 루이스 칸의 밈들은 모든 군의 밈들, 건축적 담론 및 디자인과 실무에 관한 밈들이 시대를 딱히 가리지 않고 골고루 균일하게 등장하였다.

#### 5.1.4. 미스 반 데어 로에

전체 인물 중 세 번째로 높은 근접 중앙성을 보인 미스 반 데어 로에는 르 코르뷔지에와 더불어 모더니즘 건축의 거장으로 불리는 인물로써 흔히 미니멀리즘, 유니버설 스페이스 등으로 대표되는 균질한 공간을 꾸준한 건축 어휘로 창조한 건축가이다. 그에게서 발산된 밈들은 [표 5-5]와 같다.

역시 르 코르뷔지에처럼 ‘모더니즘’ 밈플렉스가 아홉번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발산 되었으며 뒤를 이어 ‘프로그램’ 밈플렉스와 ‘형태’ 밈플렉스가 많이 발산되었다. 건축적 사고와 담론에 해당하는 밈은 17개, 디자인 및 실무에 해당하는 밈은 14개로 미스 반 데어 로에 역시 담론적 부분과 작품의 영향이 거의 비슷한 비율이다.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밈 역시 르 코르뷔지에처럼 공간지 창간호부터 밈이 언급되었다. 그의 밈들이 등장한 타임라인은 [그림 5-7]과 같다. 르 코르뷔지에처럼 60년대의 시대별 상대 지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시대 언급되던 인물들이 적은 가운데 두 인물의 영향력이 다른 어떤 인물들보다 상대적으로 컸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8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밈들이 많이 언급되는데 ‘미니멀리즘’에 관한 세부 밈들이 한결같이 많이 발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더니즘’의 9개 세부 밈들 중 8개가 ‘미니멀리즘’이었다. 그만큼 ‘미스=미니멀리즘’이라는 공식은 굳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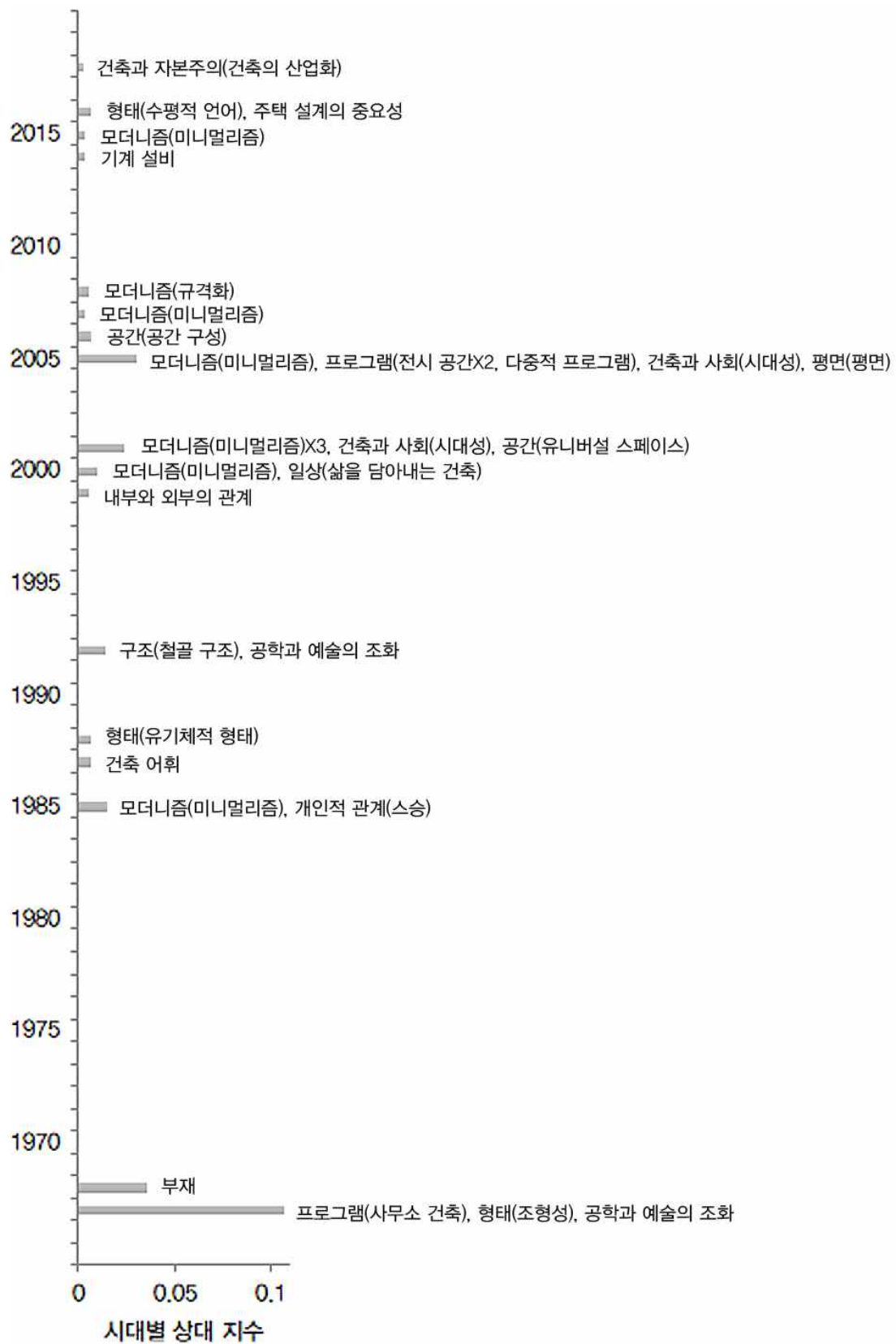
[표 5-5] 미스 반 데어 로에에게서 발산된 밈들의 내용, 유형, 밈 연결 중앙성 순위

밈의 내용	주 유형	언급 횟수	밈 연결 중앙성 순위	시대별 상대 지수 합
모더니즘(군)	건축적 사고와 담론	9	3	0.0600
프로그램(군)	디자인 및 실무	4	18	0.0566
형태(군)	디자인 및 실무	3	7	0.0512
건축과 사회(군)	건축적 사고와 담론	2	2	0.0098
공학과 예술의 조화	건축적 사고와 담론	2	39	0.0427
공간(군)	디자인 및 실무	2	6	0.0102
일상(군)	건축적 사고와 담론	1	8	0.0049
건축과 자본주의(군)	건축적 사고와 담론	1	11	0.0036
내부와 외부의 관계	건축적 사고와 담론	1	22	0.0058
주택 설계의 중요성	건축적 사고와 담론	1	26	0.0036
구조(군)	디자인 및 실무	1	22	0.0070
평면(군)	디자인 및 실무	1	33	0.0051
건축 어휘	디자인 및 실무	1	44	0.0066
부재	디자인 및 실무	1	74	0.0357
기계 설비	디자인 및 실무	1	74	0.0036
개인적 관계(군)	작가적 자세	1	15	0.0115
합계		32		0.2752

...이 작품에.. 특징이라면 내, 외부에 군더더기가 없는 것이  
라 하겠죠. 이러한 순수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는 미스... 의  
영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식, 한국현대건축가론 - 김정철, 김정식과 조직건축의 시  
대적 부응, 1985년 9월호)

미니멀리즘에 관한 세부 밈은 주로 2000년대 이후에 포착되었다.



[그림 5-7] 미스 반 데어 로에 밈들의 출현 시기와 내용들



...의미상으로 그가 추구한 유니버설 스페이스보다는 미니멀리즘적 공간에 가깝다는 사실은 전체 벽을 백색으로 마감한 의도에서 읽을 수 있다...

(황일인, 영은 미술관, 2000년 12월호)

...건축의 형식뿐 아니라 본질적 의미에서 그의 "Less is more"는 아직도 유효하다. 물질이 넘쳐나고 그 가치는 감소되는 소비사회에서 어느 때보다 이 경구는 적절하다...

...단순하면서도 깊은 맛...김중성 선생을 통해 미스의 영향을 받았다...

(조성룡, 조성용, 2001년 11월호)

...이미 반세기 전 그는 유리와 철을 통해 미니멀 공간을 창출했다. 코리아디자인센터는 신기술의 유리와 철로 하이테크적 오브젝트를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건물 등 각각의 디자인 요소에 'Less is more'가 명쾌하게 적용된다...

(홍석중, 코리아 디자인 센터, 2001년 12월호)

...계획 때 유리상자를 떠올리면 미스가 자동적으로 스쳐간다...

(박헬렌주현, architecture&landscape, 2005년 9월호)

...미스 같은 사람들의 형태나 장식에 대한 거부감 또는 도덕적인 입장을 상당 부분 공유한다...

(이민, 손진, 민현식, 2007년 9월호)

..."Less is more"는 디테일과 재료를 강조한 미니멀 건축의 서막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을 외피로부터 분리하는 결과를 낳았다...

(김호민, 외피의 회복, 잠재된 공간을 밝히다, 2015년 5월호)

‘모더니즘’ 밈플렉스의 세부 밈중 나머지 하나는 ‘규격화’에 관한 것이었다. 이 ‘규격화’ 밈과 더불어 ‘철골 구조’, ‘건축의 산업화’, ‘사무소 건축’, ‘기계 설비’, ‘시대성’과 같은 세부 밈들은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미니멀한 건축 형태와 더불어 현대의 건설 시스템에 있어서도 미스 반 데어 로에가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그의 시그넬빌딩은 plaza의 확보와 그 오픈된 플라자위에 매시브한 슈퍼-블록을 모뉴멘탈하게 올려세움으로서 또하나의 가능성이 제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새로운 조형언어는 기후 미국 사무소건축에서 부지런히 쓰여졌으며...커튼월에 프리캐스트된 알루미늄판을 붙여주는 형식.. 또 RC 뼈대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요소를 취하는 방법 등은 오늘날 사무소건축의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해성, 조흥은행 본점, 1967년 12월호)

...주택에서 철골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꽤 오래된 수법임을 알 수 있다. 미스의 판스워스 하우스...

(임창복, 철골구조에 의한 중성적 공간의 추구, 1992년 7월호)

...규격화된 사물은 생산 과정의 합리성, 부품을 통한 전체 구성 논리 그리고 문명의 표상으로서의 기계적 심미성을 표상한다...미스의 초기작이 그 예다...

(김일현, Toilet House, 2008년 1월호)

...미스 반 데어 로에는 장인정신과 대량생산의 경계에 섰던 인물이다. 명품 주택과 마천루를 동시에 만들었던 그... 그는 기하학과 고전의 비급을 동원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지만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건축을 구현했다. 쿡들을 위한 표준 레시피를 제공하는 셰프...

(전영훈, 합리와 창의의 조율 : 디앰피, 2018년 1월호)

시기적으로는 2010년 이전까지 밈들이 많이 언급되었으며, 앞선 두 인물과 달리 2010년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밈들이 적게 언급되고 있다. 이는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기능적이며 차가운 스타일보다, 다양한 물성으로 장소성과 내부 공간 조직 등에 집중하는 현상학적 사조와 균질하고 거대한 형태보다 분절되고 다양한 형태로 대표되는 후기 구조주의적 사조의 유행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 5.1.5. 김수근

김수근은 밈 발신자와 수신자 근접 중앙성으로 4위, 밈 내용 연계로는 7위에 해당하는 근접 중앙성을 보여준다. 그에게서 발산된 밈들은 [표 5-6]과 같다. 김수근에게서는 ‘개인적 관계’에 관한 밈이 가장 많이 발산되었으며 ‘전통’과 ‘공간’의 밈플렉스들이 뒤를 이었다. 앞서 살펴본 인물들과 다르게 ‘작가적 자세’에 관한 유형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국내 인물인 동시에 그 문하에 있던 건축가들과 동료들이 많았던 사실에서 기인한다. 김수근을 ‘개인적 관계’(스승)로 언급한 밈 수신자들은 윤승중(87년 4월호), 원정수(87년 8월호), 동정근(90년 4월호), 승효상(90년 7월호), 최삼영(2000년 9월호)으로 모두 김수근 문하에 있다 독립하여 작품 활동을 한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김수근에 대해 이렇게 기억을 했다.

*...김수근 선생을 만났다는 것이 제게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그분을 통해서 당시 지방적인 우리의 건축수준을 세계적으로 도약시키는 한 가능성을 보고...*

(윤승중, 윤승중과 원도시건축연구소, 1987년 4월호)

*...김수근 선생의 창의력에 대한 패기넘친 추구가 제게 큰 영*

향을 줬어요 ... 그분이 세계 준 영향은 굉장한 것이었고 크게  
고무 받았어요...

(원정수, 원정수, 1987년 8월호)

[표 5-6] 김수근에게서 발산된 밈들의 내용, 유형, 밈 연결 중앙성 순위

밈의 내용	주 유형	언급 횟수	밈 연결 중앙성 순위	시대별 상대 지수 합
개인적 관계(군)	작가적 자세	5	15	0.0306
전통(군)	건축적 사고와 담론	4	8	0.0213
공간(군)	디자인 및 실무	2	6	0.0098
공학과 예술의 조화	건축적 사고와 담론	1	39	0.0357
형태(군)	디자인 및 실무	1	7	0.0064
작업 프로세스(군)	디자인 및 실무	1	13	0.0036
확장과 변형	디자인 및 실무	1	74	0.0070
선구자	작가적 자세	1	74	0.0102
합계		16		0.1215

...김수근 선생의 초창기 스케치를 접했고 여의도 마스터플랜, KIST 본관, 삼주빌딩 등의 설계과정을 보며 건축적 사고의 다양성에 놀라...

(동정근, 건축가 동정근, 1990년 4월호)

...언젠가 고 김수근 선생님께서 쓸데없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불필요하고 장식적으로 생각되는 부분들도..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유용하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이 확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배병길, 쇠암리 주택, 1992년 2월호)

...어려운 불모의 시대에 선구자로서 열정과 용기와 낭만으로 새 길을 걸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여기부터 더 나아갈 수

있다...

(류재은, 부상하는 한국의 아티스트, 1992년 9월호)

김수근을 가장 많이 언급한 인물은 건축가 승효상이었다.

...김수근 선생은... 한국적인 것이란 우리가 선불리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면서 그것을 결부시켜 제 1,2,3 공간론의 이론을 펴기도 하였고 네가티비즘을 주장하셨죠. 그만큼 한국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컸...

(승효상, 국립 청주박물관, 1987년 9월호)

...그분께 가장 배우고 싶었던 것은.. 건축가의 자존심, 건축가의 모랄, 건축가가 해야 하는 일, 건축가가 가져야 할 비전 등 건축가로서의 작가정신이었습니다...

(승효상, 건축가 승효상, 1990년 7월호)

...승효상의 건축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발견되는 공간의 시퀀스, 즉 건축과 공간의 문제로 이는 김수근의 문하에서 체질화된 승효상 건축의 결정체론에 가깝다...

(전진삼, 학동 수졸당을 통해서 본 뿌리 깊은 건축의 메시지, 1993년 8월호)

김수근과의 개인적 관계로써의 밭이 마지막 포착된 것은 2000년이였다.

처음 건축설계 수업을 공간에서 시작할 때 김수근 선생은 50대 중반이셨는데 선생께서는 "이제서야 건축이 어렵듯 언덕 너머 보일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최삼영, 성동구 노인종합복지관. 2000년 9월호)

건축가 류재은은 개인적 관계로써가 아니라 이 시대의 선구자로 김수근

을 높이 치켜세운다.

*...어려운 불모의 시대에 선구자로서 열정과 용기와 낭만으로 새 길을 걸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여기부터 더 나아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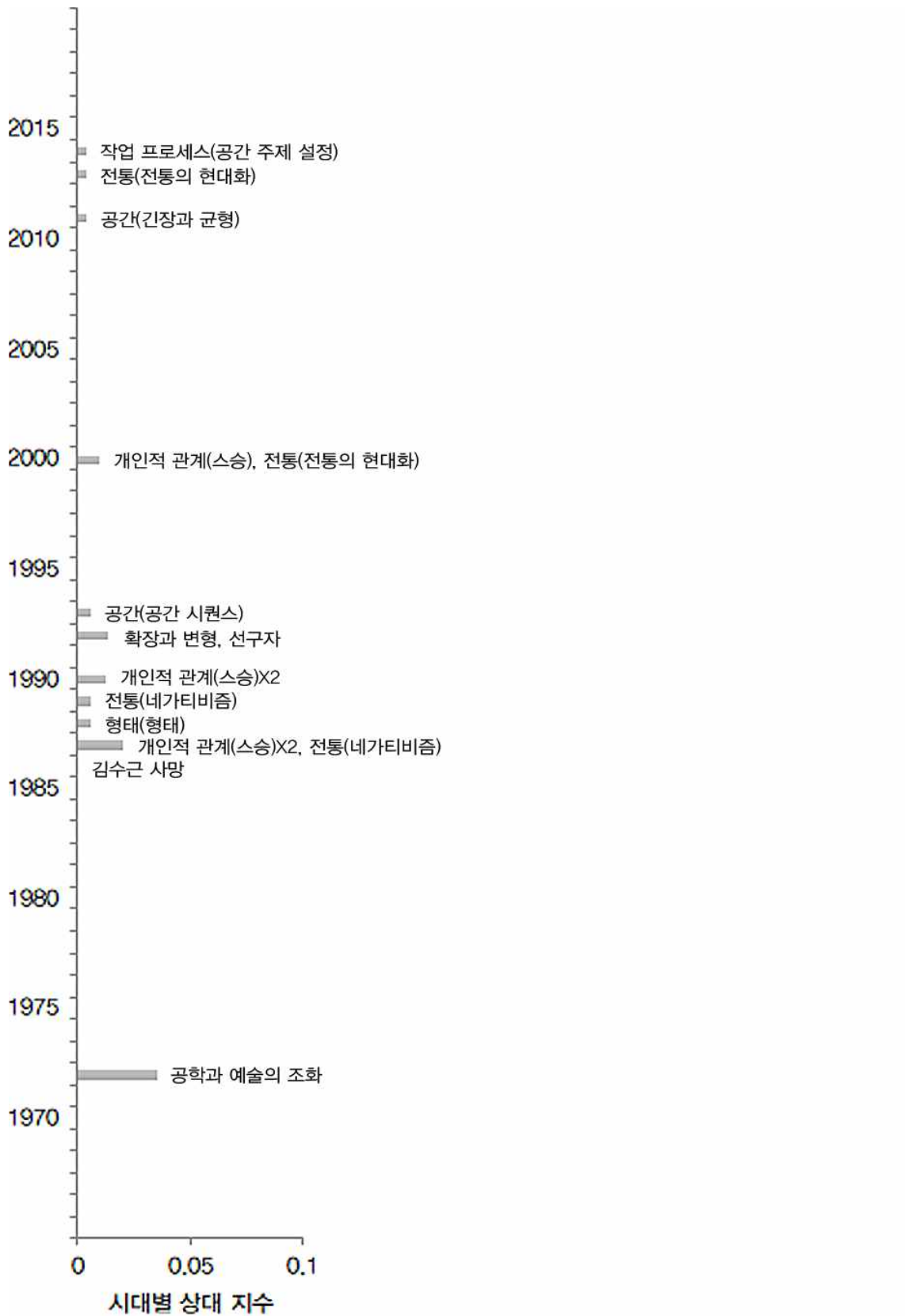
(류재은, 부상하는 한국의 아티스트, 1992년 9월호)

이렇듯 김수근을 추억하고 그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밈들은 [그림 5-8]의 타임라인에서 보는데로 김수근 사후 몇 년간, 주로 90년대 중반까지 집중돼서 발산된 후 점차 모습을 감춘다. ‘공간’지가 김수근에 의해 창간된 만큼 공간지에 실린 김수근에 관련된 기사와 그의 사후 추모 형식의 텍스트는 훨씬 더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한대로 작품 리뷰만을 통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였다.

김수근은 국내 인물로써 유일하게 스스로 ‘네가티비즘’(negativism)이라는 사조를 창안해 1980년 세계건축가연맹의 도쿄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주장하는 선구자적인 면모도 보였는데, 건축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그 작품으로 인해 부정적인 현상들이나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상은 유가, 불가, 도가 사상을 근거로 성립한다고 하여 한국의 전통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sup>73)</sup>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네가티비즘’ 세부 밈은 이후 다른 건축인들에게 전파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김수근을 언급할때만 아주 가끔 발산되는 밈이 되었다.

---

73) 승효상, 네가티비즘, 그린벨트 그리고 비무장지대, 중앙일보, 2018. 9. 22



[그림 5-8] 김수근 밑들의 출현시기와 내용들

## 5.2. 주요 사조별 밈들의 분석

이 절에서는 인물이 아닌, 밈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주요 사유들과 철학적 담론 등을 살펴볼 것이다. 앞서 밈들을 군별로 나눈 [표 4-12]를 보면 24가지의 밈플렉스들이 있는데 이들 중 많이 언급된 몇 개의 밈플렉스들과 주요 철학적 담론에 해당하는 밈플렉스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살펴볼 주요 철학적 담론들은 모더니즘, 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현상학, 후기 구조주의, 생성의 철학들이며 이는 임기택의 건축이론 시리즈<sup>74)</sup>에 의한 구분을 참조하여 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사조들 중 비슷한 성격을 갖는 사조들끼리 묶어 한 절에서 같이 제시하였다.

### 5.2.1. 모더니즘+구조주의

19세기 후반 산업화의 진전은 건축의 유용적인 기능화의 필요성을 촉진했다. 미국의 루이스 설리반(Louis H. Sullivan), 독일의 발터 그로피우스로부터 시작된 기능 위주의 건축은 20세기 양차 세계 대전을 겪으며 전후 복구의 필요성에 따라, 산업화와 자본 논리에 따라 르 코르뷔지에나 미스 반데어 로에 같은 건축가들에 의해 전 세계로 급속히 퍼지게 되었다. 한국도 한국 전쟁을 겪은 후의 급격한 경제발전<sup>75)</sup>에 따라 당시 세계적 흐름이던 모더니즘 양식을 받아들였으나 준비되고 성숙되지 않은 기술 수준, 부족한 자본이나 건축인들의 의식과 실력 때문에 선진국의 흐름을 분별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더니즘에 관한 담론과 밈은 자연스럽게 한국 건축인들 사이에 가장 오랫동안 최대의 화두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었고, [표 4-12]에서 보듯 가장 검출 횟수가 많은 밈플렉스로 ‘모더니즘’ 밈플렉스가 조사된 것은

74) 임기택(부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에 의해 Spacetime 출판사에서 2012년부터 발간된 8권으로 이루어진 단행본 시리즈이며 1. 이성의 명암과 건축이론(모더니즘), 2. 현상학과 건축이론, 3. 구조주의와 건축이론, 4. 포스트모더니즘과 건축이론, 5. 해체주의와 건축이론 6. 통제담론과 건축이론, 7. 생성의 철학과 건축이론, 8. 후기 구조주의와 건축이론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통제담론은 밈들이 거의 검출되지 않은 단계로 생략하기로 한다.

75) 박길룡. (2015). 한국 현대건축 평전. 공간, pp.16~26.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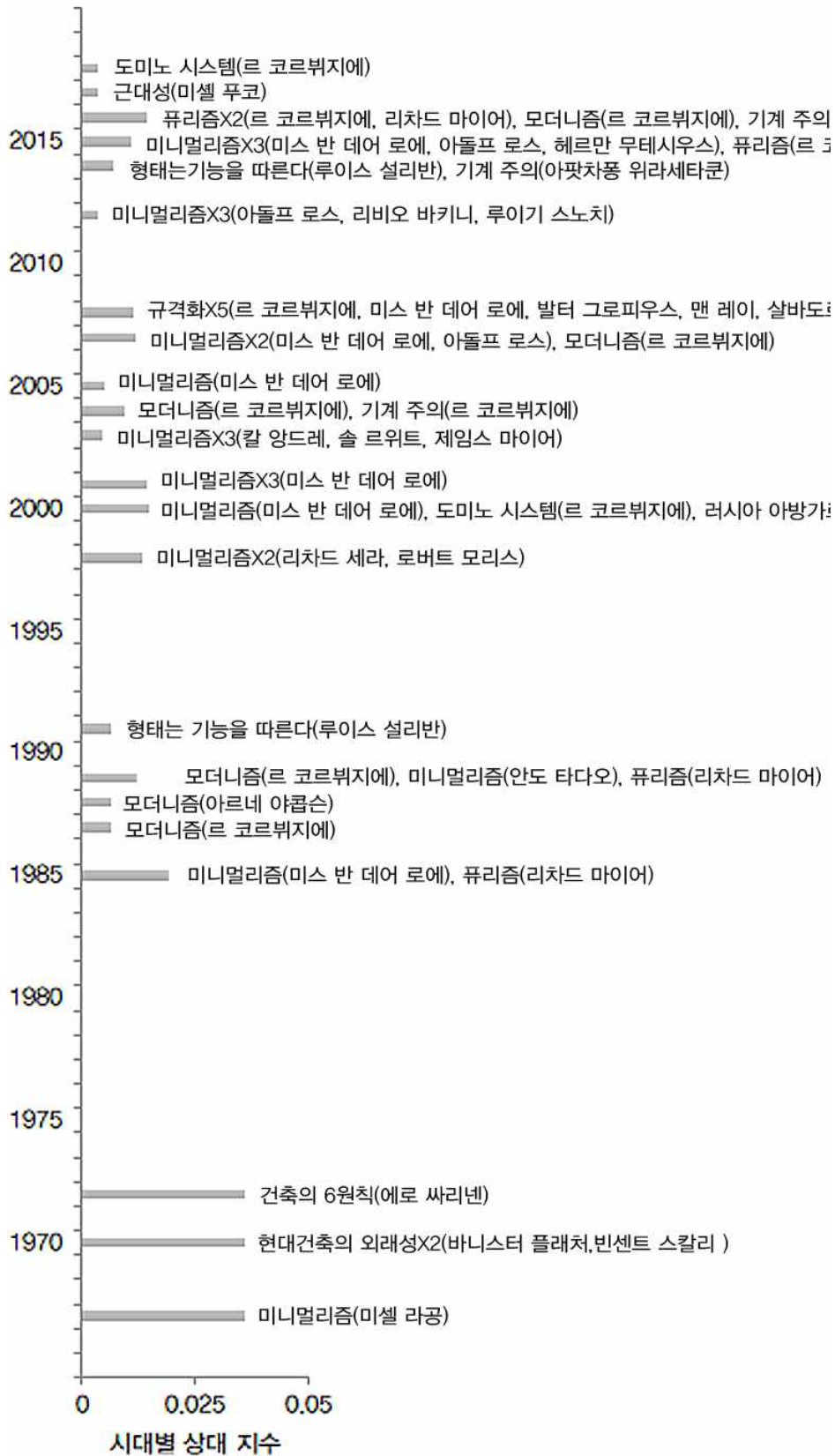
먼저 모더니즘 밈플렉스 속 세부 밈들과 해당 밈들을 발산한 인물, 시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그림 5-9]와 같다. 모더니즘 밈은 70년대와 8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 전시대에 걸쳐 고르게 발산 되었으며 60~70년대 중반까지도 상대적으로 많이 검출된 모습을 보인다. 70년대는 공간지의 성격상<sup>76)</sup> 다른 밈들도 많이 검출되지 않던 시기였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근까지 고르게 계속 발산되는 중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니멀리즘’ 세부 밈들이 시대를 가리지 않고 많이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5-10]은 모더니즘 밈 발신자들과 밈 내용들을 연결시킨 네트워크이다. 인물들의 노드 사이즈는 크기와 근접 연결성이 비례하며, 밈 내용들의 색깔은 보라색의 근접 연결성이 가장 크고 노란색으로 갈수록 색 스펙트럼을 따라 줄어든다. 화살표의 굵기는 인물과 밈 내용이 연결된 횟수에 비례한다. 중앙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못하는 그래프들은 표시하지 않았다.

네트워크 가운데에 르 코르뷔지에와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노드가 가장 크게 자리잡고 있는게 보이며, 미스 반 데어 로에에게서는 미니멀리즘 밈이 집중적으로 발산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 미니멀리즘 밈은 미스 반 데어 로에 뿐 아니라 다양한 인물들에게서도 함께 발산되고 있는 것이 보인다. 미스 반 데어 로에에게서는 거의 미니멀리즘 밈만이 강하게 발산되는 것과 달리 르 코르뷔지에에게서는 모더니즘, 도미노 시스템, 퓨리즘, 기계 주의 등 다양한 세부 밈들이 고루 발산되고 있다. 수치로 확인해 보면 르 코르뷔지에가 15개, 미스 반 데어 로에가 10개의 밈을 발산했으나 미스 반 데어 로에는 10개 중 9개의 밈들이 ‘미니멀리즘’ 밈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발산한 밈 종류들이 더 많은 르 코르뷔지에가 약 0.158의 근접 중앙성을 보인 반면, 미스 반 데어 로에는 약 0.053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여 르 코르뷔지에가 미스 반 데어 로에보다 약 세 배 가량 높은 중앙 근접성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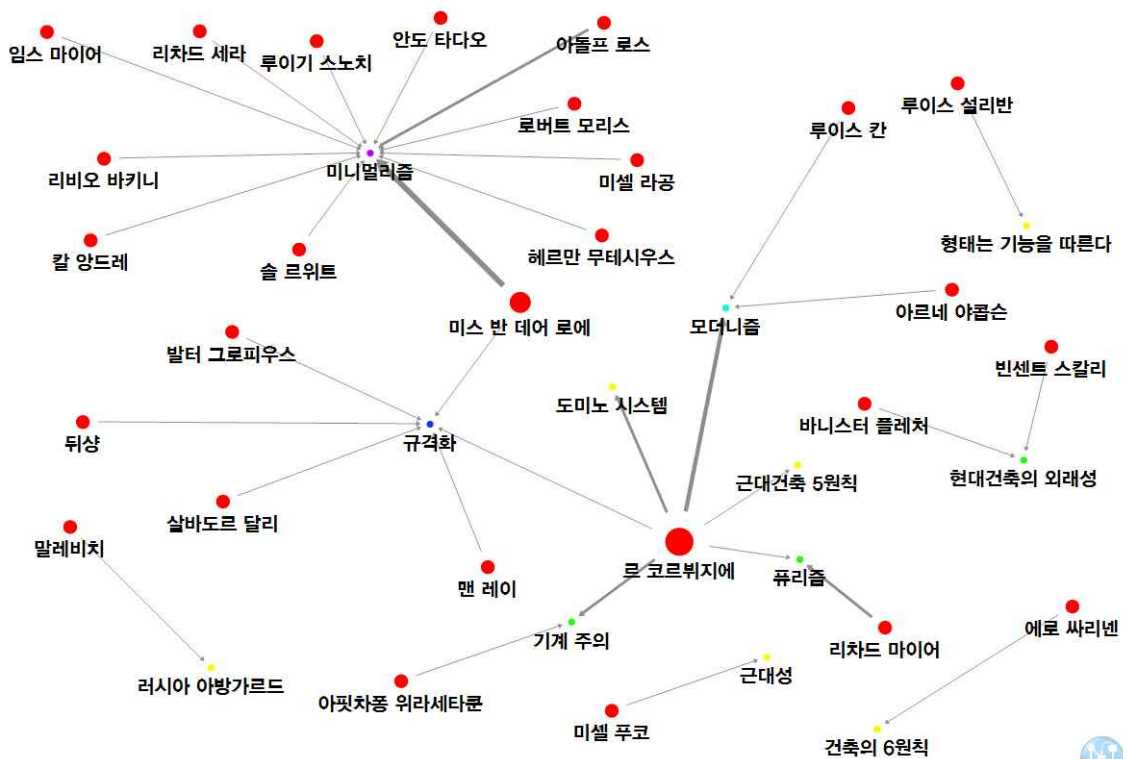
한편, 세부 밈들의 경우 ‘미니멀리즘’ 밈이 가장 높은 근접 중앙성을 보였다. ([표 5-7]) 타임라인과 네트워크 그래프를 함께 보아도 ‘미니멀리즘’

76) 80년대 이전의 공간지를 관찰해보면 건축 전문 잡지라기보다 종합 예술지로서의 성격을 가져 건축 이외에 미술, 조각, 무용, 연극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술 분야가 고르게 다뤄졌다. 따라서 건축 리뷰나 대담 글들이 많지 않았고, 리뷰가 있더라도 다른 인물이 많이 언급되지 않는 가벼운 성격의 소개 글들이 많았다.



[그림 5-9] '모더니즘' 밈플렉스의 세부 밈들과 발산 시기, 인물

밈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은 인물들에 의해 발산된 밈이었다. [표 4-11]에서도 나타나있듯 ‘미니멀리즘’ 밈은 세부 단일 밈 기준으로 가장 많은 발산 횟수를 가졌다. 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도 설명했듯 밈이 퍼지는데 있어서 ‘간단함’은 중요한 장점이 되는데, 이것이 ‘미니멀리즘’ 밈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유로 사료된다. 5.1.4에서 보여준 미스 반 데어 로에 외에도 수많은 인물들에게서 ‘미니멀리즘’ 밈은 발산되었다.



[그림 5-10] ‘모더니즘’ 밈 발신자들과 밈 내용들의 연결 네트워크

...미셸 라공이 근대건축과 근대주의적 건축을 구별하고 장식적 근대주의적 건축의 기만성과 타락을 말하고 있다...

(이해성, K씨 댁, 1967년 12월호)

...김옥길 기념관은 콘크리트와 유리만으로 된 질요의 절제된 이중주...큐브의 구조주의, 일체의 현상학적 변주의 삭제, 격렬함이나 흥분 따위의 정서적 코드와 무관한 안티-표현주의적

태도로부터 기인하는 총체적 인상이다...

(심상용, 단지 구조일 뿐인 건축, 김옥길 기념관, 19985년 5월호)

[표 5-7] 모더니즘 세부 밈들의 근접 중앙성

밈 내용	근접 중앙성
미니멀리즘	0.316
규격화	0.158
모더니즘	0.079
기계 주의	0.053
퓨리즘	
현대건축의 외래성	

“미니멀한 작품은 자신의 엄밀한 존재, 즉 물질적 세계 내의 자신의 존재 이상의 어떤 것도 암시하지 않는다.” - 제임스 마이어  
 ...건축에서의 미니멀리즘은 미니멀한 형태가 아니고 미니멀한 논리의 체계이다...

(임재용, 임재용의 논리적 미니멀리즘 : 일산주택, 2003년 5월호)

루이기 스노치와 리비오 바키니의 작업은 모더니즘의 정수로 볼 수 있다...배열과 정렬을 통해 의미를 만들고자 장식을 없앤 공간. 형식주의에 기반하며 덩어리, 면, 선의 구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19세기...아르누보와 비슷한 성격의 분리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아돌프 로스는 이 같은 디자이너들에 대적하며.. 화려하고도 과도한 장식을 비판했었다. ...장식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비판했다... 미니멀리즘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피터 최, 사라진 건축의 총체성을 찾아서, 2012년 11월호)

"장식은 죄악이다"-아돌프 로스

(김호민, 외피의 회복, 잠재된 공간을 밝히다, 2015년 5월호)

구조외벽 철근콘크리트를 그대로 외벽 마감으로 드러내고  
내외부 어디도 피상적 장식이나 불필요한 재료 없이 만든 점은  
20세기 초 독일공작연맹을 창시한 헤르만 무테시우스가 정의한  
자흐리엔쿤스트(Sachlichen Kunst, 현실적인 건축)와 기술의  
순수한 객관성이 표현된 단순하고 명쾌한 형태, 자흐리히카이  
트(Sachlichkeit)에 부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이윤희, 하우스 P, 2015년 6월호)

이와 같이 모더니즘은 주로 르 코르뷔지에와 미스 반 데어 로에라는 두  
거장들을 중심으로 mim들이 발산되었으며 모더니즘과 관련된 세부 mim들 중  
미니멀리즘에 속하는 mim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 모더니즘 mim플렉스  
는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인 현상학과 후기 구조주의로 대표되는 2010년대  
이후에도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여전히 건축인들에게 중요  
한 화두임을 보여주었다.

구조주의는 모더니즘에 내재되어 있는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적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감성보다는 이성을 이용해 합리적, 분  
석적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점은 동일하였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처럼  
모더니즘의 반대편에 있는 철학이라고 보긴 힘들다.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언어 이론과 레비 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의 인류학  
연구가 구조주의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인간의 모든 사회 구조나 문화 등은  
사실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는 이들의 주장은 자크 라캉(Jacques M.  
Lacan)의 집단 무의식과 롤랑 바르트(Roland G. Barthes)의 도시와 언어  
구조 등에 영향을 주었다. 구조주의는 건축 분야에서 유형학, 건축과 도시  
를 텍스트로써 해석하는 시각에 영향을 주었으며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Christopher Alexander), 케빈 린치(Kevin Lynch) 등이 대표적인 학자로  
거론되었다. 시기로 보면 구조주의는 20세기 초반 언어학에서 발전되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으로 학계에 등장한 것은 20세기 중반 무렵 레비 스  
트로스가 그의 저서인 <야생의 사고>(La Pensée Sauvage)를 출간하면서

였다.<sup>77)</sup> 구조주의가 한국 건축계에서 언급된 시기와 밈 발신자를 살펴보면 [그림 5-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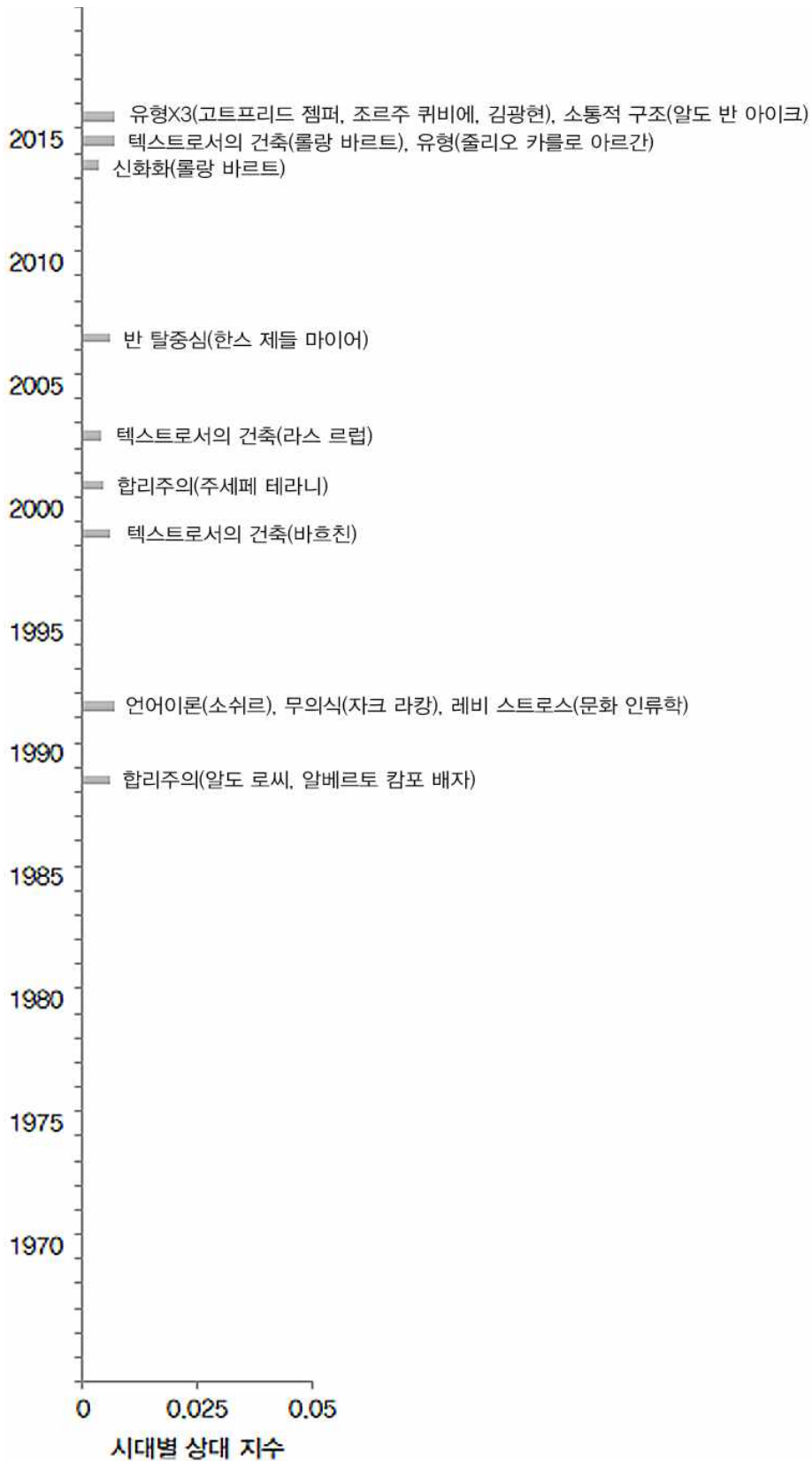
한국 건축 담론계에서 구조주의와 관련된 밈은 1989년 2월에서야 처음으로 등장하여 서구에서 구조주의가 발생한 시기를 고려하면 늦게 모습을 드러낸 감이 있다. 처음 모습을 보였던 세부 밈은 ‘합리주의’로써, 건축가 도창환이 알베르토 캄포 배자(Alberto Campo Baeza)의 마드리드 합리주의와 알도 로씨(Aldo Rossi)의 신험리주의를 별다른 설명없이 짤막하게 언급한 것이었다. 알도 로씨는 과학적 접근방식으로 도시를 분석했는데, 평면상의 구성원리 등에 집중하지 않고,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가 도시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집중했다. 또한 해당 지역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공통된 요소들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사유는 결국 건축 유형학으로 이어져 그는 구조주의 건축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하지만 후기의 알도 로씨는 포스트모던 건축가로 평가받기도 한다.)<sup>78)</sup>

그러다 1992년 6월호에서 건축가 김영섭이 자신의 주택을 설명하며 소쉬르의 언어이론, 자크 라캉의 무의식, 레비 스트로스의 문화인류학을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구조주의를 언급하기 시작한다.

*...디자인 컨셉이 없다는 생각은...(생략)...구조주의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것 같다. 즉 소쉬르의 언어일반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라는 말을 디자인 컨셉이라는 말로 대치시킨다면, 디자인 컨셉이란 객관적인 현실이고 주어진 것이며, 독자적 내면법칙을 갖는 것이 된다. 따라서 디자인 컨셉이라는 것은 "언어가 말하는 주체와 달리 말하는 사람에게서 독립해 존재하는 구조이며 체계인 것처럼 나의 주관에서 이미 일탈되어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나는 주어진 상황에서 전개되는 수많은 구조나 체계의 가능성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에서 나의 주관이 개입될 뿐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77)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현대사회 사상. 범한.

78) 임기택. (2014). 구조주의와 건축이론. Spacetime, pp.6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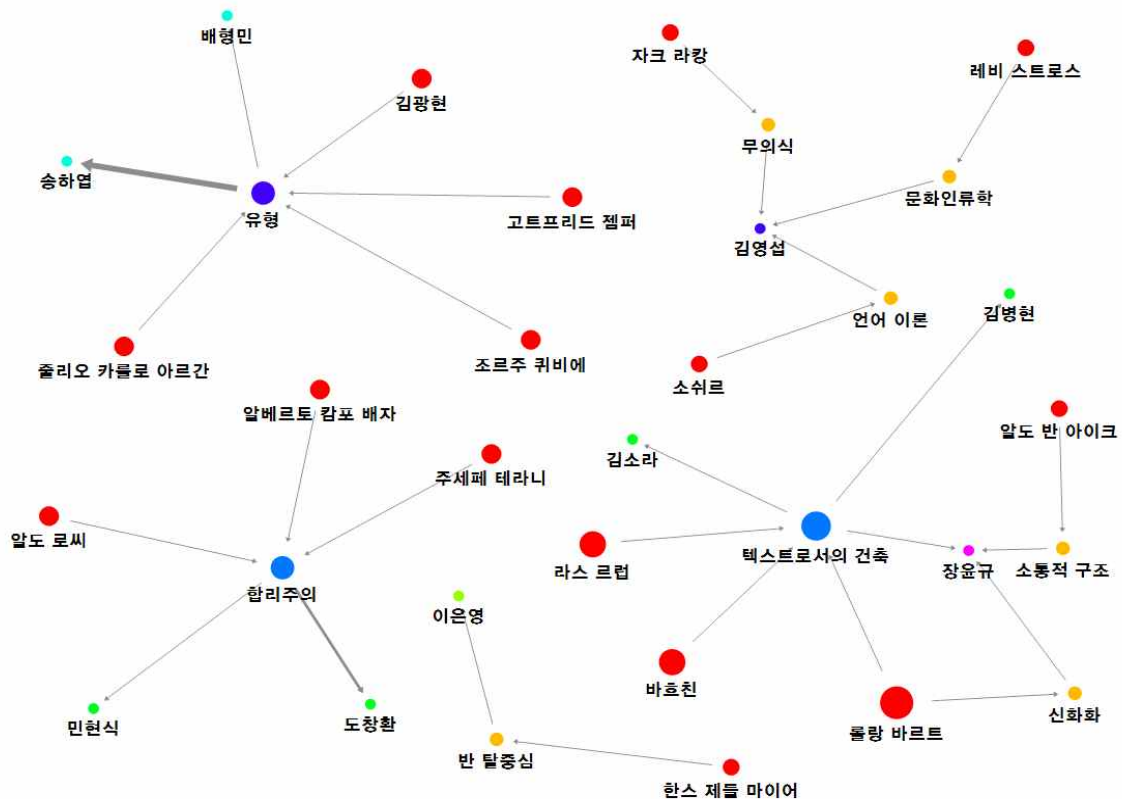


[그림 5-11] ‘구조주의’ 멤플렉스의 세부 멤들과 발산 시기, 인물

즉 내가 디자인 한다가 아니고 디자인이 있다. 디자인 자체가 디자인한다라고 주장하고 싶을 정도이다....

(김영섭, 연남동 주택 및 아프리에, 1992년 6월호)

1989년과 1991년은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이 정점을 찍은 해라 평가받을 정도로<sup>79)</sup> 90년대 초반은 모더니즘과 같은 이성적 사조에 반발심을 갖는 흐름이 크던 시기였는데, 김영섭 역시 언어이론으로 디자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불편함을 표하고 있다. 이후 구조주의 밈들은 아주 가끔씩 모습을 드러내다 2010년대 중반쯤 텍스트들이 많아지면서 함께 많이 검출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5-12] ‘구조주의’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 연결 네트워크

[그림 5-12]는 구조주의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들을 연결시킨 네트워크이다. 노드 사이즈는 크기와 근접 연결성이 비례하며, 색깔은 보

79) 문혜진. (2015). 90년대 한국 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 현실문화.



라색의 근접 연결성이 가장 크고 노란색으로 갈수록 색 스펙트럼을 따라 줄어들어 든다. 화살표의 굵기는 인물과 밈 내용이 연결된 횟수에 비례한다.

밈 발신자로는 롤랑 바르트가, 밈 내용으로는 ‘텍스트로서의 건축’이, 밈 수신자로는 건축가 장윤규가 가장 높은 근접 중앙성을 보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압도적 수치를 보이는 중심 인물이나 밈이 없고 밈들이 서로 얽혀 있는게 아닌 다소 분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 전반적으로 ‘구조주의’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진 못하는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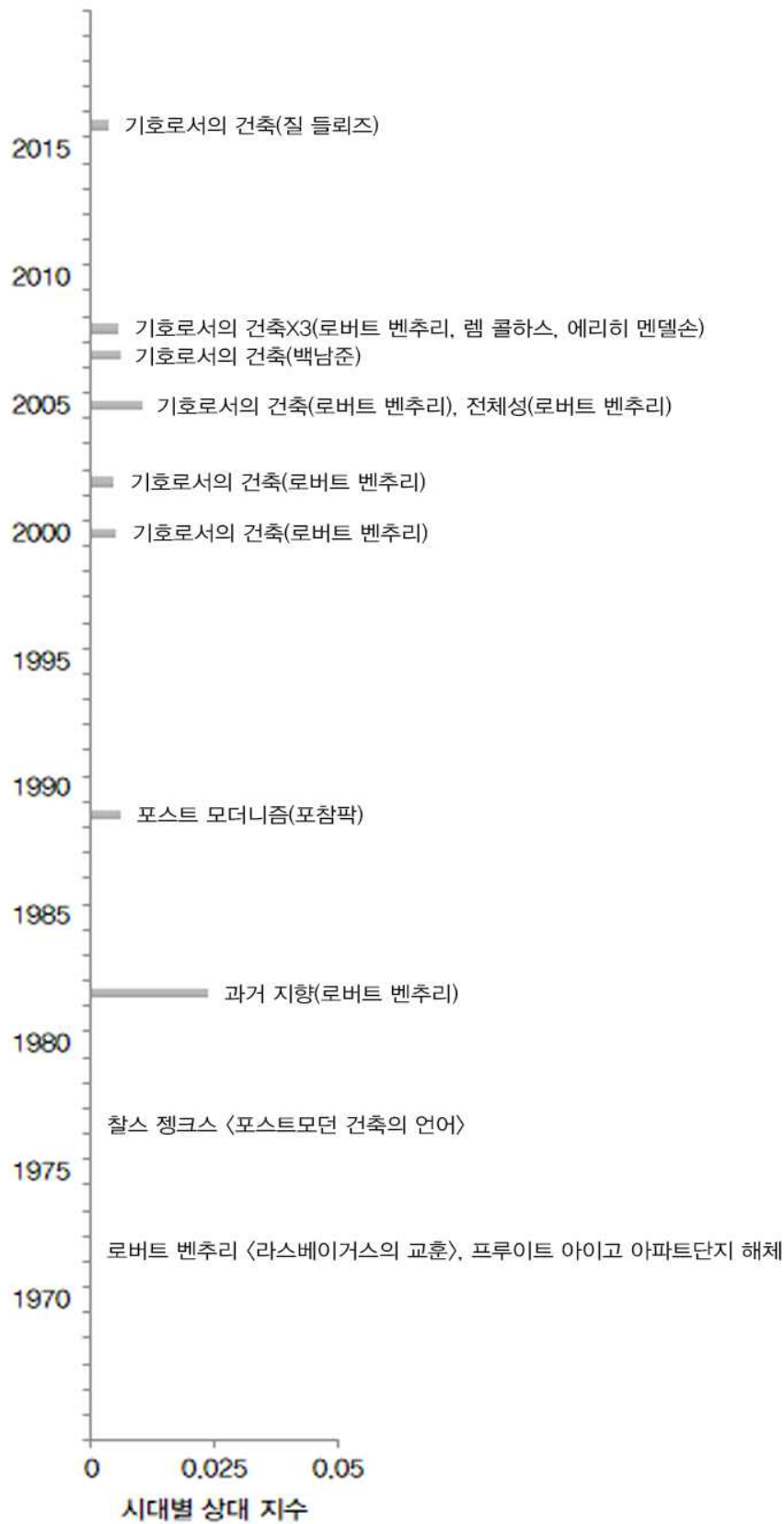
### 5.2.2. 포스트모더니즘+해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대척점에 선 사조들을 일컫는 동시에 구조주의를 비판하며 태동하였으므로 차이는 존재하지만 넓게 보면 해체주의, 후기 구조주의도 포스트모더니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sup>80)</sup> 이것은 기본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포스트(post)’를 반대 테제로 볼 것인지, 후기 테제를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는 것<sup>81)</sup>만큼이나 포스트모더니즘의 범위에 대한 논쟁 역시 계속 되기 때문에 경계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절에서 다루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위 사조들이 본격적으로 퍼지고 다양하게 변이되기 이전의 포스트모더니즘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포스트모더니즘 밈들이 공간지에서 언급된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그림 5-13]과 같다.

찰스 쟁크스(Charles Jencks)가 1977년 저서 <포스트모던 건축의 언어(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1977)>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했지만 사실, 용어만 없었을 뿐 모더니즘에 반기를 든 움직임은 그 전부터 미약하게나마 시작되었고, 그 선봉에는 로버트 벤추리(Robert Venturi)가 있었다. 1972년은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의 관점에서 볼 때 의미있는 해였는데, 모더니즘 건축의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던 ‘프루이트 아이고(Pruitt-Igoe)’ 아파트 단지가 철거되며 그 순간을 찰스 쟁

80) 포스트모더니즘은 거시적으로 해체주의와 후기 구조주의를 포함하는 ‘차이의 철학’의 특성을 보인다. - 임기택. (2016). 후기 구조주의와 건축이론. Spacetime, p.78.

81) 임기택. (2014). 포스트모더니즘과 건축이론. Spacetime, p.13.



[그림 5-13] ‘포스트모더니즘’ 밈플렉스의 세부 밈들과 발산 시기, 인물

크스가 모더니즘이 끝난 순간이라고 명명했기 때문이었다.<sup>82)</sup> 동시에 그 해에 로버트 벤추리의 저서 <라스베이거스의 교훈(Learning from Las Vegas, 1972)>이 출간되었는데, 이 저서에서 그는 전통적 모더니즘 건축 미학을 비판하며, 기호와 상업적 이미지로 가득 찬 건축과 도시 풍경도 현대사회의 한 풍경이며 단순히 저급한 것으로 치부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포스트모더니즘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속성과 인물들이 있지만 [그림 5-13]에서 보듯 한국 건축 담론계에선 주로 로버트 벤추리와 ‘기호로서의 건축’적 측면들이 언급되었다. 주로 밈들이 발산되던 시기는 2000년대로 2008년 이후로는 거의 밈들이 발산이 되지 않아 유행과 시대성을 강하게 탕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공간지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련된 밈을 처음 언급한 사람은 건축가 김기웅이었다. 1982년 5월호에 자신의 작품인 목포 시청사 현상설계작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언급이다.

...로버트 벤추리의 이론대로 *modern skeleton*에 그대로 *historic element*를 액세서리로 사용해 버려도 그만이다. *Context* 자체를 옛것으로 한다거나 *skeleton*을 옛것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는 무의미한 것이다....

(김기웅, 목포시청사, 1982년 5월호)

80년대까지도 관공서를 설계할 때는 건축가들이 스스로 강박적으로 혹은, 관(官)에 의해 강제적으로 한국적 전통과의 조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김기웅 역시 목포시청사 현상설계작을 설계하며 전통적 요소를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얘기하는 ‘이중 코드’의 관점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공간지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매우 비슷한 사례로 1982년 독립기념관 설계로 인해 촉발된 포스트모더니즘 논쟁도 있었다.<sup>83)</sup> 하지만 이 이후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세부 밈은 거의 ‘기호로서의 건축’적 내용에 집중된다.

82) Ibid., p.15.

83) 김봉렬. (2001.06.07). [‘포스트모더니즘’ 국내 건축계에서는...]. 중앙일보.

...‘해우재’는 외형은 변기지만 내용은 주거라는 면에서, 건축가는 형태의 즉각적 메시지를 상실하지 않으면서 주거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실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의 사례를 멘델존의 '아인슈타인 타워'와 콜하스의 '체브뤼헤(Zeebrugge) 해양터미널' 계획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일현, Toilet House, 2008년 1월호)

경기도 수원에 완공된 ‘해우재’라는 건물은 화장실에 관한 전시시설이었는데, 건물의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라 건물의 형태는 변기를 모사했고, 건축주인 수원시는 세계 최초로 변기 모양의 건물을 만들었다며 홍보를 했다. 그리고 김일현은 이를 ‘형태의 즉각적 메시지’로 해석하며 기호로써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림 5-14] ‘해우재’의 외관  
(출처 : 수원시청)

이러한 해석은 교수 구영민이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가 설계한 현대산업개발 사옥에 대해 쓴 비평에서도 언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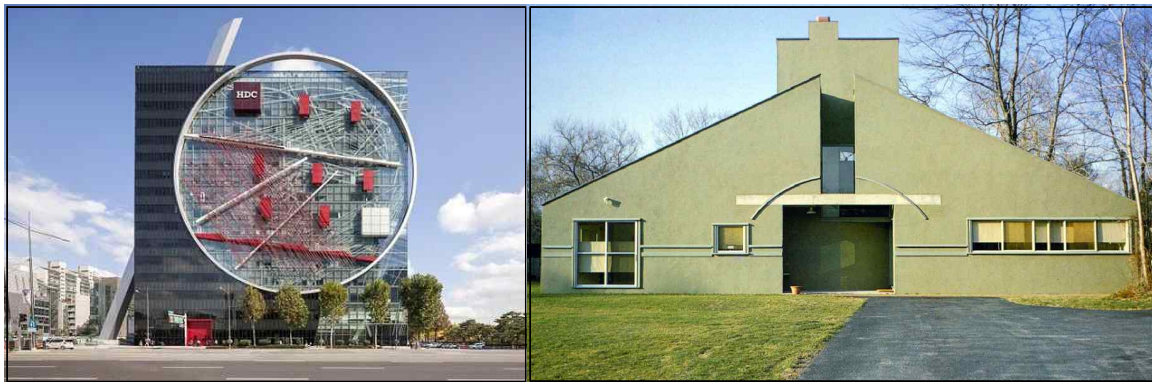
...이 건물은 시작부터 표피와 내부가 괴리된 상태에서 설계...계획된 일반적 사무공간에 입면을 가미한 작업으로, 건물

의 이미지 자체가 디자인의 핵심...마치 로버트 벤추리의 빌딩 하우스처럼, 벽 자체의 논리를 이중화하여 애매모호함을 동기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영민, 회화와 건축의 전위 그 도시적 기생, 2005년 2월호)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해체주의의 대표적 작가로 꼽히지만, 현대산업개발 사옥 입면은 로버트 벤추리의 빌딩 하우스 입면처럼 내부의 기능과 상관 없는 장식적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에 구영민의 언급은 기호로써 입면디자인을 해석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 건축의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자유로움이 용인되며 비로소 기호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진 건축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붐을 따라 포스트모더니즘 밈이 발산되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형태의 유희에서 벗어나 재료와 물성 등의 흐름이 중시되는 2010년 이후로 오며 이러한 경향은 약화되었고, 포스트모더니즘에 속하는 밈들도 함께 검출이 약화되었다.



[그림 5-15]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현대산업개발 사옥과 로버트 벤추리의 빌딩 하우스

포스트모더니즘에 속하는 밈 역시 앞서본 구조주의와 마찬가지로 주 사상들의 원천이 되었던 저작물이 나온 후 시간이 다소 흘러서야 밈들이 많이 발산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서구에서는 60년대부터 반 모더니즘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고, 국내 역시 70년대 후반에 유입돼 80년대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쟁이 뜨거웠다고 알려져 있다.<sup>84)</sup>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2000년이 넘어서야 포스트모더니즘 세부 밈들이 검출되는데 이는 국내 건축 담론계가 세계적 건축담론의 흐름을 뒤늦게 따라간 측면도 있지만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작품의 리뷰’인 만큼 대담, 특집기사와 같은 담론계와 별도로 실제로 작품들에 나타나야 밈이 포착될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로 사료된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앞서 소개한 해우재나 현대산업개발 사옥처럼 기호로 읽힐만한 특이하고 개성있는 형태를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이 2000년 이후에나 들어서야 조성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교수 박길룡도 한국의 허실했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원천적인 이유가 한국 문화의 원형질에 있다며 상당히 보수적인 사회 습속, 선형의 관성이 강한 체질, 잡다한 의사를 가치로 수용할 사회적 노력이 얇고 대중문화의 기반도 너무 여렸다고 평했다.<sup>8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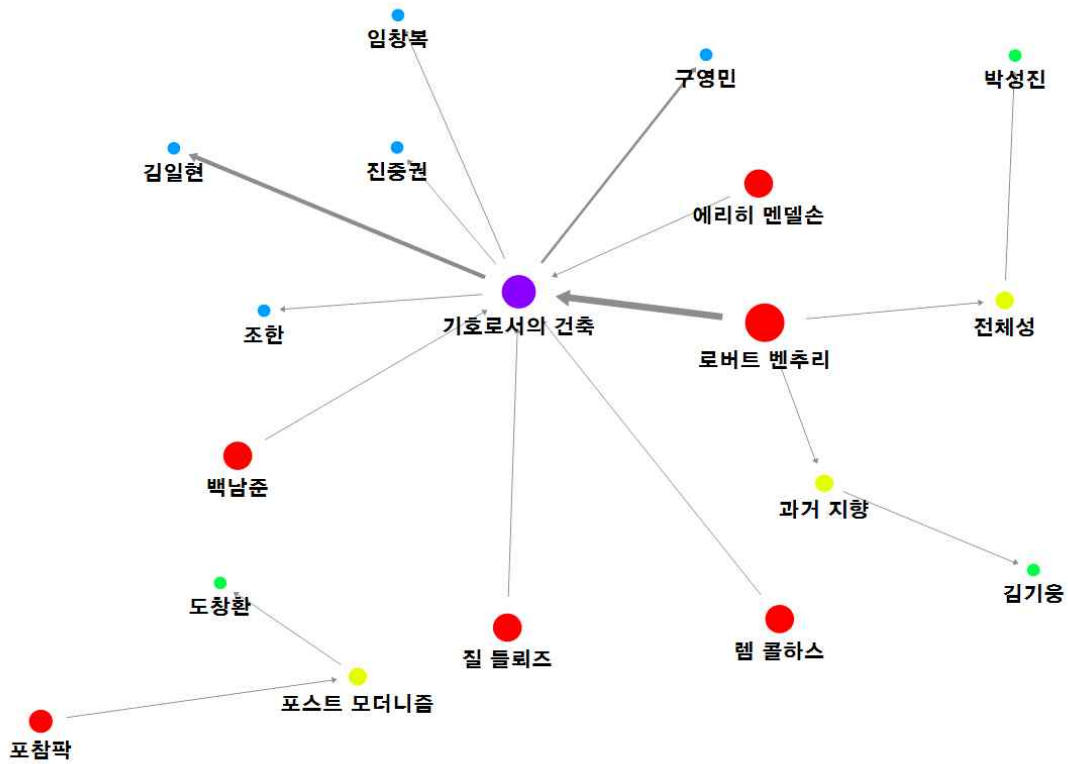
[그림 5-16]은 포스트모더니즘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들을 연결시킨 네트워크이다. 노드 사이즈는 크기와 근접 연결성이 비례하며, 색깔은 보라색의 근접 연결성이 가장 크고 노란색으로 갈수록 색 스펙트럼을 따라 줄어든다. 화살표의 굵기는 인물과 밈 내용이 연결된 횟수에 비례한다. 로버트 벤추리의 근접 연결성이 가장 크게 나오며, 역시 ‘기호로서의 건축’의 근접 연결성이 밈 내용으로서는 가장 크게 도출되었다. 또한, 도창환, 김기웅을 제외한 밈 수신자들의 직업이 모두 교수로써 타인의 작품을 비평할 때 포스트모더니즘 밈을 언급한 점도 특징적이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사이’의 사유에서 시작된 해체주의는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 1966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열렸던 국제 심포지움에서 자크 데리다가 [Structure, Sign, Play on the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심포지움에서 그는 구조주의자 레비 스트로스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체주의를 등장시켰다.<sup>86)</sup> 해체주의의 시작은 텍스트 이론에서 시작된 것으로, 건축에 이식된 것은 1988년 뉴욕 MoMA에서 개최된 ‘해체주의 건축

84) 박길룡. (2015). 한국 현대건축 평전, 공간, pp.236~239.

85) Ibid. p.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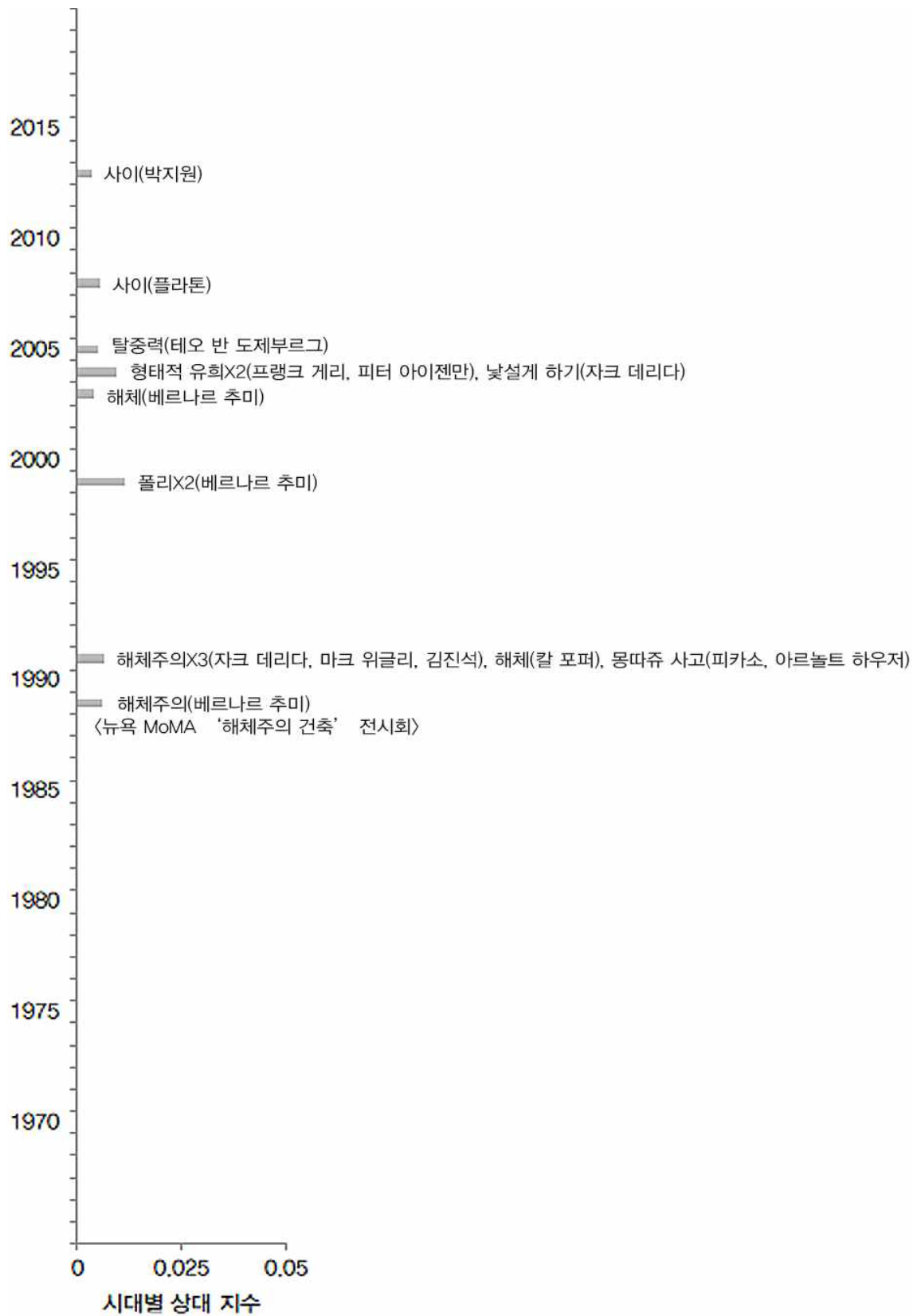
86) 임기택. (2014). 해체주의와 건축이론. Spacetime, p.15.



[그림 5-16] ‘포스트모더니즘’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 연결 네트워크

(Deconstructivist Architecture)’ 전시회를 통해서였으며 그때 처음으로 해체주의란 용어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전시회의 게스트 큐레이터는 필립 존슨이었는데 프랭크 게리(Frank O. Gehry), 다니엘 리베스킨트, 램 콜하스,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 자하 하디드(Zaha Hadid), 쿵 힘멜블라우(Coop Himmelblau), 베르나르 추미(Bernard Tschumi)의 7명의 건축가들을 초빙해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80년대는 한국도 세계적 조류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추기 시작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해체주의 밈은 비교적 빠른 시기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해체주의 밈플렉스 출현 시기의 타임라인은 [그림 5-17]과 같다.

뉴욕에서 처음으로 해체주의 건축이 등장한지 얼마 안되어 비교적 빠른 1989년에 국내에도 해체주의 밈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작품과 직접된 형태가 드러난 것이 아닌, 단순하고 짤막한 언급에 불과하다가 1991년에 기존의 관습을 전복하는 사유로써, 그리고 몽파쥬 사고로써 해체주의 밈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그 후 1997년 프랑스의 라 빌레트(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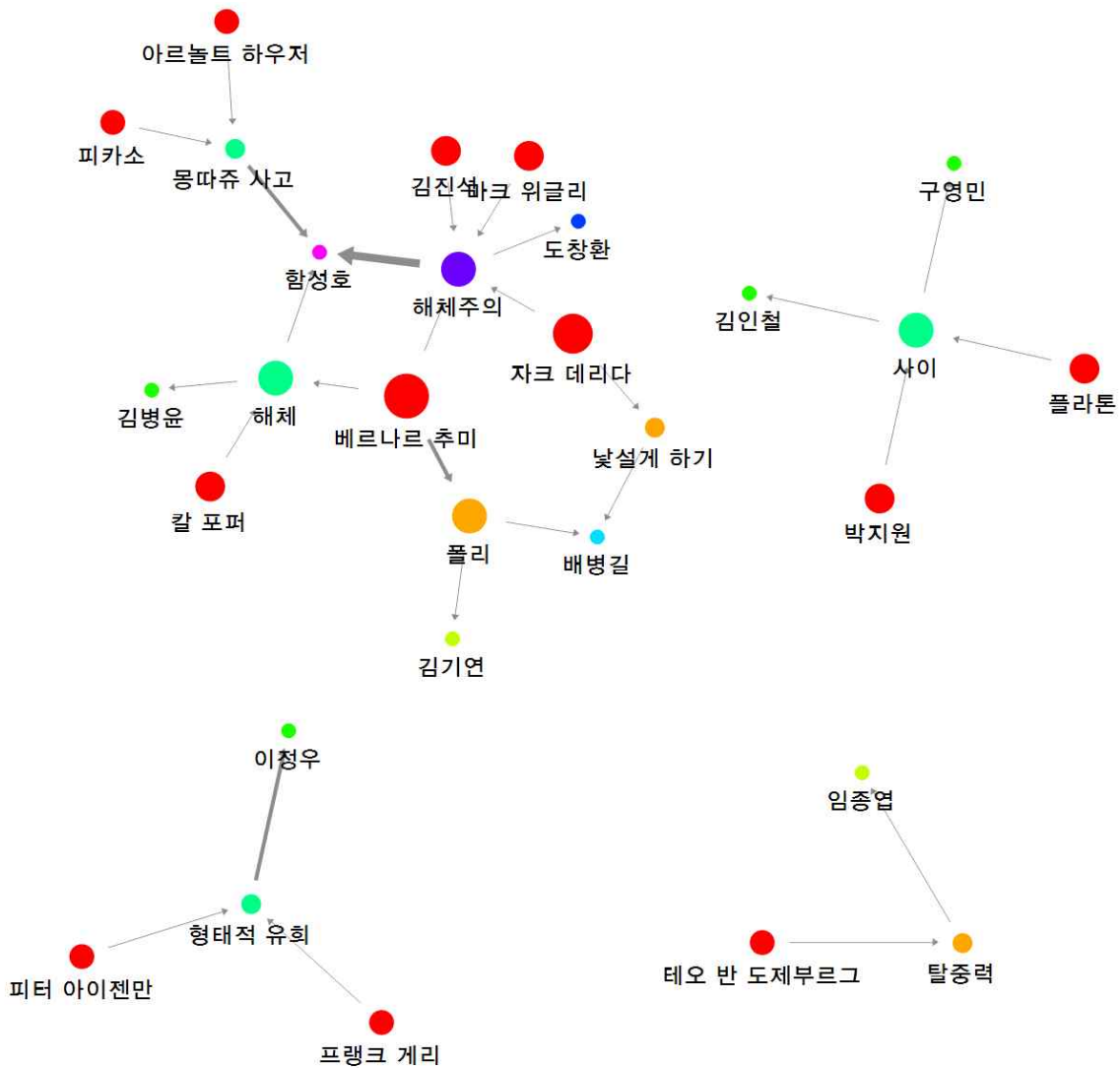
[그림 5-17] ‘해체주의’ 밈플렉스의 세부 밈들과 발산 시기, 인물



Villete) 공원이 베르나르 추미에 의해 설계된 후 1999년 다시 해체주의 밈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라 빌레트 공원의 ‘폴리(Follies)’가 그 예로 사용되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 해체주의 밈들이 나오다 2005년 이후로는 두 건에 그치는데, 각각 플라톤이 말하는 ‘코라(Chora)’의 개념에서 도출된 ‘사이’와 조선시대 실학자인 박지원이 말하는 ‘경계와 사이’에 관한 언급과 관련된 것이다. ‘사이’ 밈은 자크 데리다가 처음 고민했던 새로운 텍스트 작성방법과 관련된 해체주의의 사유이긴 하나, 2005년 이전에 나온 해체주의 밈들이 건축 작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조형적 특성이나, 새로움, 기존 관념의 전복을 논했던 점과 비교해보면, 2005년 이후의 두 밈은 작품과 직접적인 관련이라기보다 건축적 사유 중 하나로 사이의 모호함을 논하며 등장한 밈들이다. 또한 어느 곳에 속해서 굳어져 버리는 이른바 ‘층화’와 ‘탈층화’에 관한 논의는 질 들뢰즈의 후기 구조주의와 관련된 논의이기도 하여 해체주의만에 속하는 밈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실제로 2008년 등장한 플라톤의 밈은 구영민 교수가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의 이화여대 ECC 캠퍼스 센터를 언급하며 등장했는데, ECC 캠퍼스 센터는 해체주의 건물에 속하지 않았으며 2013년 박지원의 밈 역시 건축가 김인철이 자신의 작품을 언급하며 등장했던 것인데 김인철은 콘크리트의 기하학적 조형성으로 유명한 건축가로, 해체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볼 때 실질적인 해체주의 밈은 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등장했으며, 그 후엔 모습을 감추어서 해체주의 역시 앞서 본 포스트모더니즘처럼 유행을 강하게 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8]은 해체주의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들을 연결시킨 네트워크이다. 노드 사이즈는 크기와 근접 연결성이 비례하며, 색깔은 보라색의 근접 연결성이 가장 크고 노란색으로 갈수록 색 스펙트럼을 따라 줄어든다. 화살표의 굵기는 인물과 밈 내용이 연결된 횟수에 비례한다. 베르나르 추미가 밈 발신인물로써 근접 중앙성이 가장 커 해체주의 밈플렉스의 중심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해체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자크 데리다가 그 다음으로 높은 근접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다. 밈 내용으론 해체주의에 관한 일반적 언급인 ‘해체주의’ 세부 밈이 가장 근접 중앙성이 가장



[그림 5-18] ‘해체주의’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 연결 네트워크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베르나르 추미가 말한 ‘폴리’에 속하는 세부 밈들이 높은 근접 중앙성을 보였다.

### 5.2.3. 후기 구조주의+생성의 철학

후기 구조주의(Post-structuralism)는 구조주의의 연장선에 있지만 구조주의의 필연성, 합리성을 비판하는 위치에 있다. 구조주의가 인류의 공통된 견고한 구조위에 세계가 있음을 사유했다면, 후기 구조주의는 그러한 구조

이면에 역동적인 특성과 우연성들이 있음을 사유하는 것이다. 구조주의는 1950년대부터 프랑스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후기 구조주의는 그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그로부터 다소 늦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프랑스 68혁명이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87)</sup> 일반적으로 후기 구조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들로는 자크 데리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질 들뢰즈, 자크 라캉 등이 꼽힌다. 건축계에서는 후기 구조주의의 결과물로 프랙탈 디자인, 카오스 이론, 복잡계 사상, 매트빌딩, 다핵도시 이론 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 작가들로는 데이터 스케이프를 활용해 디자인을 하는 MVRDV, 세지마 카즈요 등이 꼽히는데 이들은 사회의 역동성과 가변성을 반영하여 탈중심적인 디자인을 하는 작가들로 알려져 있다.<sup>8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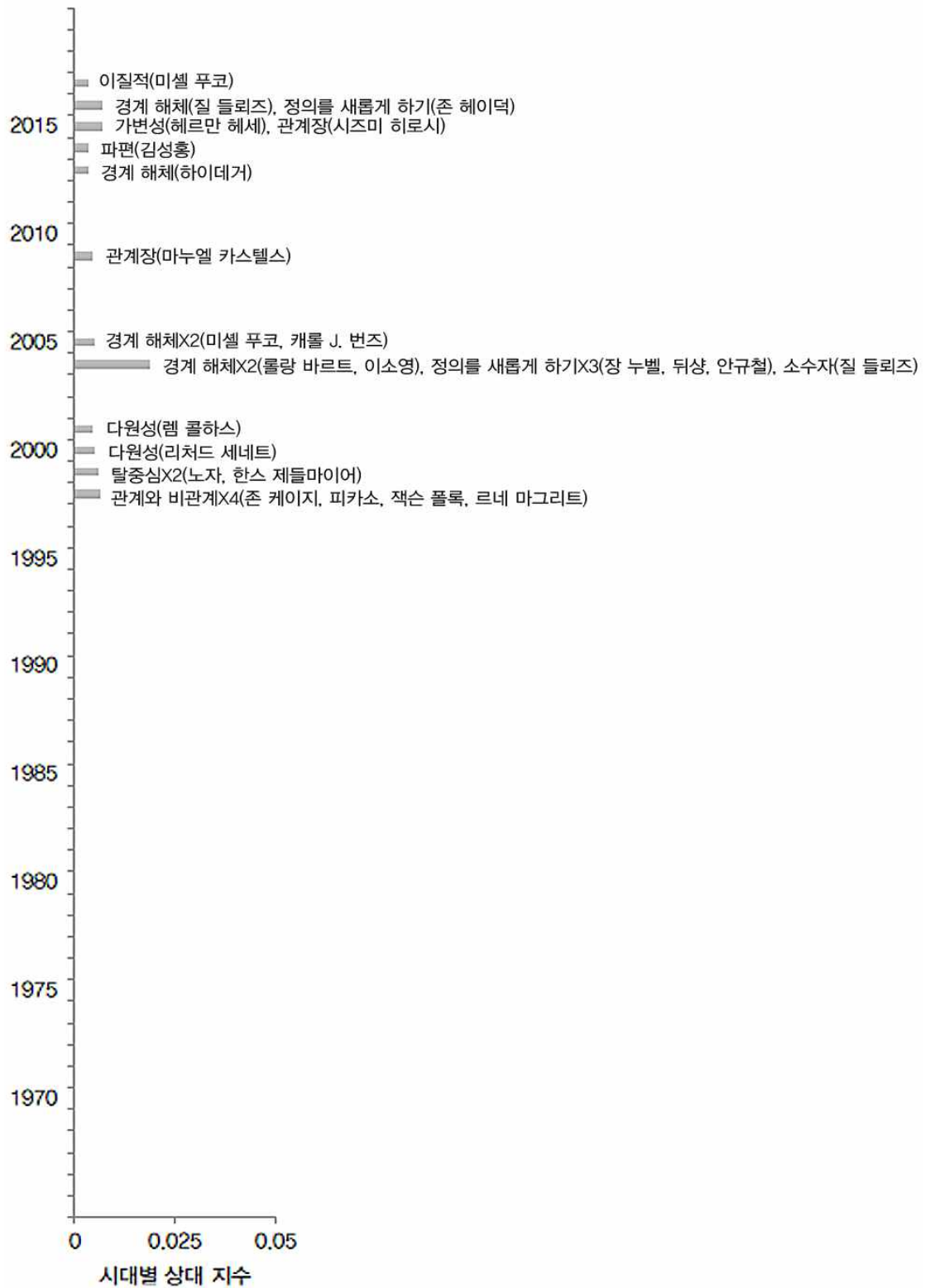
먼저 공간지에 나타난 후기 구조주의와 관련된 세부 밈들의 출현시기를 보면 [그림 5-19]와 같다. 공간지에서 후기 구조주의와 관련된 밈이 처음으로 관찰된 것은 1998년이였다.

*[관계와 비관계] 문제를 골똘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미셸 푸코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책의.. 르네 마그리뜨의 [그림과 그 제목붙이기에 관한 것]이였다... 파이프를 그리고 이것이 파이프가 아니다라면... 가장 멀리 있는 비관계의 제목일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관계성을 가장 중시하며 신봉해 온 사항들이 하루아침에 비관계의 성격으로 전이되거나 확장될 수도 있다.....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시기에 곤충의 소리나 소음을 주목하여 작업하면서 불협화음이나 임의의 소리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잭슨 폴록의 뿌려지는 물감이나 피카소의 어린애 그림같은 회화를 루벤스나 미켈란젤로가 보게된다면 그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회화의 비관계 요소일 것임이 틀림없다고 생각될 것이다...*

(천의영, Under 40, 1998년 5월호)

87) 임기택. (2016). 후기 구조주의와 건축이론. Spacetime, pp.18-21, 135.

88) Ibid., pp.156-166.



[그림 5-19] ‘후기 구조주의’ 밈플렉스의 세부 밈들과 발산 시기

교수 천의영은 미셸 푸코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책에 나온 파이프 그림을 예로 들며 사물과 사물을 지칭하는 언어의 비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불협화음, 임의의 소리, 잭슨 폴록(P. Jackson Pollock)의 뿌러지는 물감을 예로 들며, 고정 관념과 그것을 타파하는 새로운 인식, 그리고 관계와 비관계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천의영이 언급한 인물들은 흔히 후기 구조주의에서 언급되는 철학자나 학자는 아니었지만 우연성, 창조성 등의 후기 구조주의적 행위를 보이는 미술가와 음악가들을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그 후로 후기 구조주의와 관련된 밈들은 가장 최근까지도 꾸준히 모습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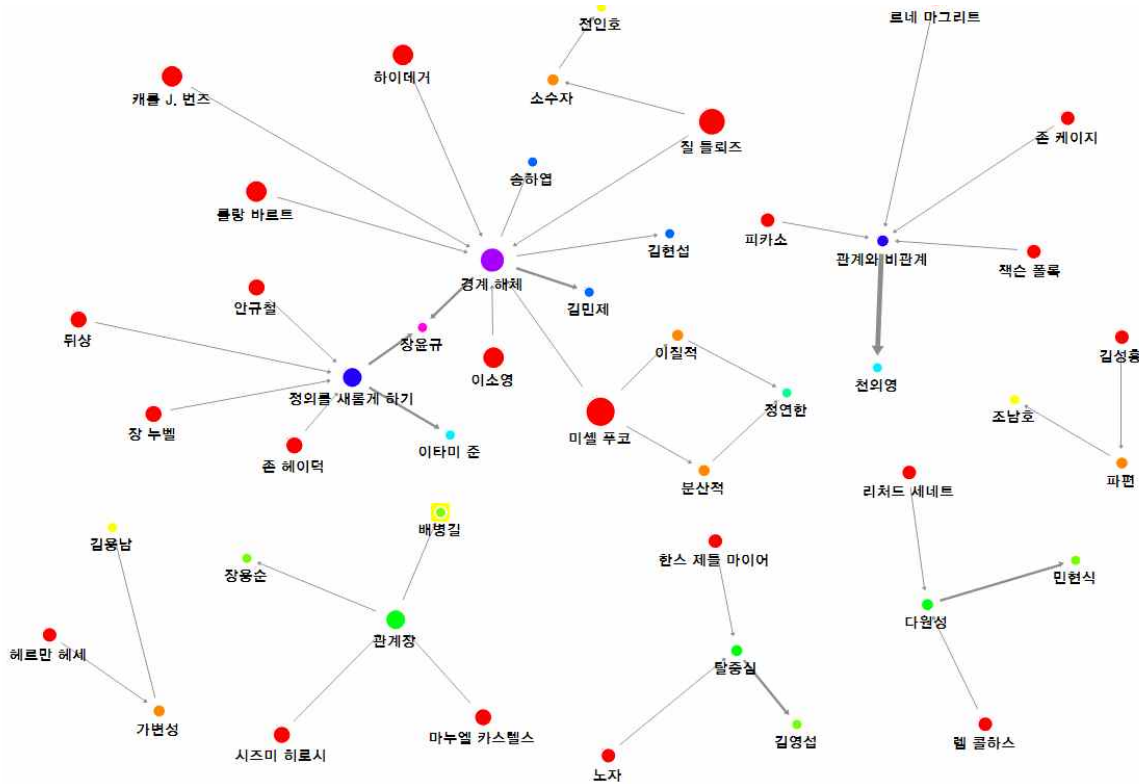
[그림 5-20]은 후기 구조주의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들을 연결시킨 네트워크이다. 노드 사이즈는 크기와 근접 연결성이 비례하며, 색깔은 보라색의 근접 연결성이 가장 크고 노란색으로 갈수록 색 스펙트럼을 따라 줄어든다. 화살표의 굵기는 인물과 밈 내용이 연결된 횟수에 비례한다. 밈 발신자로서 가장 근접 중앙성이 큰 인물은 미셸 푸코였고 그 뒤로 근소한 차이로 질 들뢰즈가 높은 근접 중앙성을 보였다. 미셸 푸코는 통제 담론을 이야기한 철학자 답게 경계 해체, 분산적, 이질적에 관해 언급했으며 질 들뢰즈는 소수자와 경계 해체에 관해 이야기를 하였다. 밈 내용으로써 가장 높은 근접 중앙성을 보인 것은 ‘경계 해체’와 ‘정의를 새롭게 하기’였다. 후기 구조주의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건축가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기존의 관념으로 구획된 것을 해체하여 새롭게 바라보는 사유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의 후기 구조주의 밈들이 세기말을 벗어나 ‘다원성’과 ‘탈중심’에 집중했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끊임없이 경계를 해체해 버리거나 기존의 고정적 정의를 새롭게 하려 한다.

미셸 푸코도 경계 해체를 이야기하며,

*"정상과 비정상, 동일자와 타자, 내부와 외부 사이에 만들어진  
경계를 허무는 것"-미셸 푸코*

(김민제, 2005년 4월호)

주로 현상학 분야에서 언급되는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M. Heidegger)도 경계의 이야기를 통해 후기 구조주의를 설명하는데 언급된다.



[그림 5-20] '후기 구조주의'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 연결 네트워크

... 하이데거에 따르면 '경계'란 뭔가가 종결되는 지점이 아니라 그것의 현존이 시작되는 곳이다...

(김현섭, 2013년 5월호)

후기 구조주의의 사유를 건물의 디자인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용한 예도 있다.

... 다원적 민주주의는 중앙집중화된 권력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의 차별성이 발전의 주체라고 본다. 그것은 현대

도시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그것은 또한 특별한 물리적 형상을 갖고 있다...거대하고 집중적인 건물보다는 공동체의 뒤범벅되어 보이고 여러 가지 언어가 적용된 건축을 선호한다...궁극적으로 다원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형상은 전체로서의 도시를 표현하는 이미지를 철저히 부스러뜨리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민현식, 웰컴시티, 2000년 6월호)

건축가 승효상은 2000년 웰컴시티를 설계하였는데, 이 건물은 매스가 분절된 형태의 건축물이었다. 형태가 그렇게 결정된 이유를 건축가 민현식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형상으로 전체로서의 도시적인 이미지를 부스러뜨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모더니즘의 르코르뷔지에가 도시를 정돈하여 스케일이 커지고 보기 좋게 만들려 애썼던 것을 생각한다면, 정반대로 다원성을 인정하고 정돈보다 흠뜨러트림을 생각하기 시작한 흐름은 분명 기존에는 없던 후기 구조주의의 흐름이었던 것이었다.



[그림 5-21] 매스가 분절된 형태의 웰컴 시티 사옥

한편, 밈 수신자인 국내 건축인 중 가장 높은 근접 연결성을 보인 인물은 건축가 장윤규였으며 후기 구조주의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만델브로(B. B. Mandelbrot), 알랭 바디우(Alain Badiou), 세지마 카즈요 등의 인물들과 프랙탈, 카오스, 복잡계에 관한 밈들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일반 담론이나 연구 텍스트가

아닌 국내 건축 작품을 다룬 리뷰인만큼 건축 작품에 위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생성의 철학’은 학계에서 특정 사조를 명명하는 정식 명칭은 아니다. 이 명칭은 주로 질 들뢰즈를 중심으로 그가 사유했던,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사유와 관련이 되어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17세기 라이프니츠가 처음으로 말했던 주름 접힌 모나드로부터 사유가 시작된다.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라는 단자(單子) 안의 주름이 퍼지면서 단자가 다른 것으로 변화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유는 니체(F. W. Nietzsche)의 생철학에 이어 질 들뢰즈의 잠재태와 현실태, 리좀, 기관없는 신체 등의 사유들로 이어지고, 그의 저작에 나오는 개념들 중 노마디즘(Nomadism), 재영토화와 탈영토화, 고평파인 공간/매끄러운 공간 등은 그 공간적 이미지와 사유로 인해 많은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sup>8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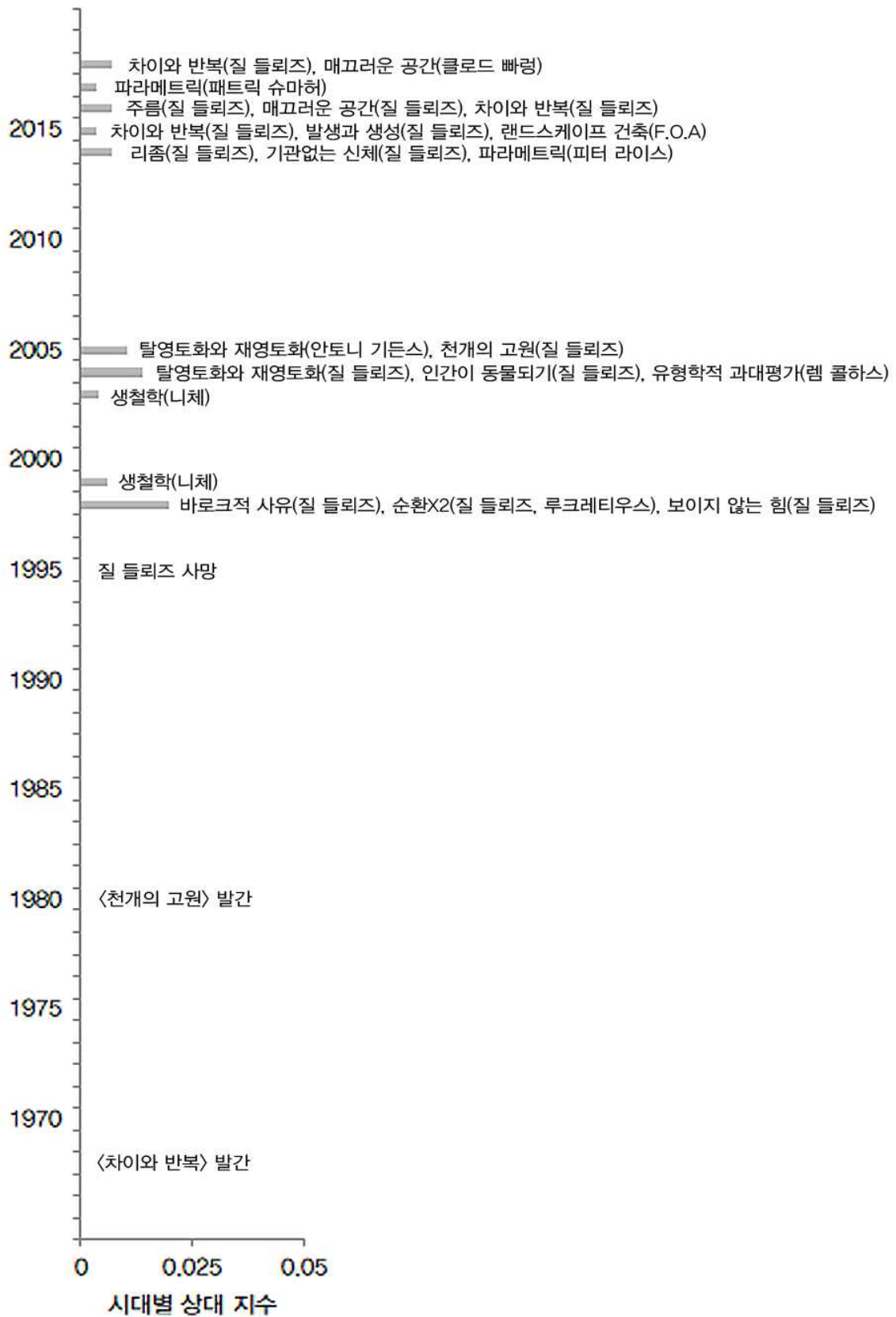
생성은 경계 사이, 다원성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후기 구조주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되지만, 앞서 말했던 대로 본 연구의 사조의 기준이 되는 단행본 연작을 참고하여 생성의 철학을 따로 구분하여 밈들을 수집하였다. 먼저 생성의 철학의 밈들의 타임라인을 보면 [그림 5-22]와 같다.

생성의 철학 밈플렉스의 시작은 1998년 질 들뢰즈의 밈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과 같이한다. 5.1.1에서 나왔던 대로 김미상 교수가 건축가 김현의 작품을 비평하면서 쓴 글에 나왔던 ‘바로크적 사유’가 그것이었다. 그 후 2000년대 중반까지 ‘생성의 철학’ 밈들은 모습을 드러내다 2006년 이후로 잠시 모습을 감춘 뒤 2014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모습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경향은 대체로 ‘후기 구조주의’ 밈들의 출현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림 5-23]은 ‘생성의 철학’에 속하는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들을 연결시킨 네트워크이다. 노드 사이즈는 크기와 근접 연결성이 비례하며, 색깔은 보라색의 근접 연결성이 가장 크고 노란색으로 갈수록 색 스펙트럼을 따라 줄어든다. 화살표의 굵기는 인물과 밈 내용이 연결된 횟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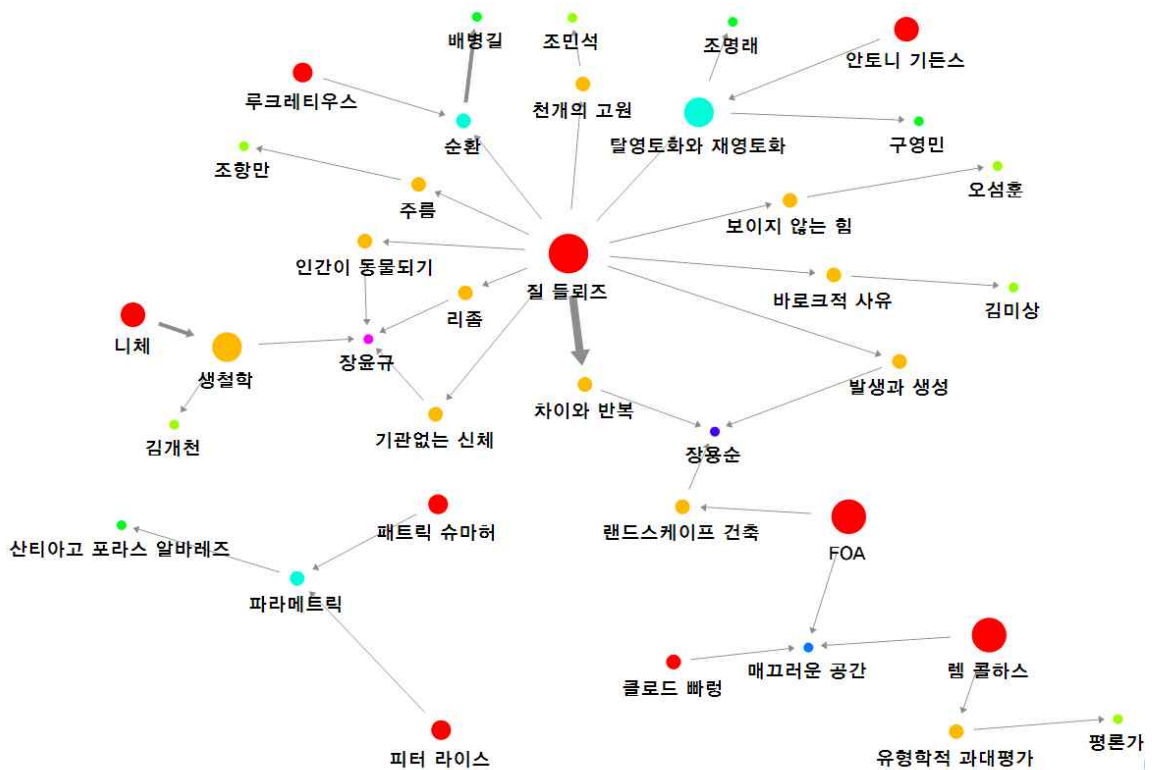
89) 임기택. (2016). 생성의 철학과 건축이론. Spacetime.





[그림 5-22] '생성의 철학' 밎플렉스의 세부 밎들과 발산 시기

비례한다. ‘생성의 철학’에서 가장 근접 중앙성이 높은 인물은 역시 질 들뢰즈였다. 그가 말한 여러 개념들 중 그의 1968년 저작인 <차이와 반복>과 관련된 밈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그림 5-23] ‘생성의 철학’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 연결 네트워크

...건축가들 사이의 차이나 개성보다는 구사하는 언어의 유사성, 동질감이 좀 더 강하게 인지됐다. 질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을 빌리자면 반복되는 가운데 조금씩의 차이가 느껴지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전영훈, 거주의 감각을 일깨우는 인큐베이터 건축, 2018년 1월 호)

<차이와 반복>과 관련된 밈들 중 2015년 이후 모습을 보이는 ‘파라메트릭’(Parametric) 밈의 출현도 눈에 띈다. 언뜻 생각하기에 파라메트릭은 단순히 시공 기술이나 설계 프로세스 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지만 <차이

와 반복>에 나오는 탈주와 잠재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자유로운 곡선의 끊임없는 변곡점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생성의 철학 사유 중 하나로 분류되기도 한다.<sup>90)</sup> 하지만 ‘파라메트릭’은 사실 기술적인 측면이 강해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이 밈과 관련된 노드들은 분리된 모습을 보이며 다른 노드들과 관계를 갖지 못하는 약한 연결성을 보인다.

질 들뢰즈의 <천개의 고원>에서 나왔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개념을 직접적으로 작품의 특성과 관련하여 언급한 경우도 있다.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라는 개념은 물리적인 특정 영토를 벗어나고 들어가는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관습화되고 고정관념화 되는 것을 벗어나 다른 가능성을 찾아 접속하고 사유를 넓혀간다는 유목적 자세를 일컫는 말로 질 들뢰즈가 창안한 용어이다.<sup>91)</sup> 그러나 공간 2004년 1월호에서 교수 구영민은 이를 물리적으로 적용한 언급을 한다.

*...건축적으로 대사관 건물은... 도시 속에서 '존재하지만 부재하고, 부재하지만 존재하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유목적 보이드다. 마치 '서양란의 말벌 되기' (천개의 고원) 처럼 스스로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사이를 왕복하는 불안정한 도시 프로그램이다. 즉 대사관 건물은 파견국(이란)의 기호로서 거주국(한국)의 컨텍스트에 참여하고 있지만 거주국 입장에서 보면 단지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로 스스로를 탈영토화하며, 문화 정치적 관문으로서 거주국의 대지를 재영토화한다...*

(구영민, 불분명한 것을 모호하게 설명하기, 2004년 1월호)

구영민이 리뷰한 건물은 서울 용산에 위치한 이란 대사관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이 이란을 기호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탈영토화된 것이고, 따라서 대사관이 재영토화 되었다고 언급한다. 또한 공간 2005년 7월호에서도 교수 조명래가 건축가 유결의 작품을 리뷰하며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90) Ibid., p.106.

91) Ibid., p.115.

...근대화는 전통적 사회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영토를 해체 내지 탈영토화하는 동시에 근대적 사회질서가 구축되는 영토를 조직 내지 재영토화하는 공간적 과정을 통해 전개된다...

(조명래, 삶의 미시적 영역을 확장하다, 2005년 7월호)

여기서 언급된 ‘영토’ 또한 물리적 의미의 실질 영토로써, 특정 지역(영토)이 근대화되는 과정을 질 들뢰즈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개념을 이용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예들은 왜 질 들뢰즈의 사유가 건축가들에게 많이 이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를 비롯해 ‘주름’, ‘기관없는 신체’, ‘리좀(Rhizome)’, ‘흙과인/매끄러운 공간’ 등은 차이와 생성을 언급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형상이 연상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건축가들의 입장에서는 공간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되고, 디자인에 즉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sup>92)</sup>

...사건에 존재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질 들뢰즈의 주름처럼 선정릉 근생 재료들의 텍스처는 이 건물의 존재-삶을 묻혀내는 장치-와 그 작동의 바탕이다...

(조항만, 선정릉 근생빌딩, 2016년 2월호)

교수 조항만은 서울 강남 선정릉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을 리뷰하며 ‘주름’을 언급하는데, 사건에 존재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의미의 원래 의미와 함께 건물의 재료들의 텍스처를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모나드에 접혀있는 주름들이 펼쳐지며 어떤 것이 되거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를 반대로 말하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름이 접힌다는 것인데, 이를 삶이란 사건이 건물에 묻어나기 때문에 주름이 접힐 것이라 말하며 건물의 텍스처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다.

‘생성의 철학’은 디자인적 영감을 제공하는 것 외에 근본적으로 무언가와 연결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생성할 수 있음이 핵심이다. 애초에 질 들뢰

92) Ibid.

즈가 가장 관심을 집중했던 부분은 잠재성이 욕망의 새로운 움직임을 통해 현실화되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언급된 ‘~되기’와 ‘기계’의 개념들이 있다.<sup>93)</sup> 대표적으로 건축가 장윤규는 이러한 특성들을 언급하며 후기 구조주의에 이어 생성의 철학에 속하는 밈도 가장 많이 언급한 인물이 되었다.



[그림 5-24] ‘주름’의 개념으로 설명되고 언급된 ‘선정릉 근린빌딩’의 실제 주름진 듯한 형태의 텍스처

...질 들뢰즈를 이야기한다면 '동물되기' 개념에 관심이 많다. 설계수업도 이 개념으로 몇 번 진행했었다. 문화적 변형이 어디까지 갈 수 있으며, 변형을 통해 재생산됐을 때 사회는 얼마만큼 변할 수 있고, 어떤 캐리어를 이끌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었다...  
(장윤규, 전인호와 장윤규가 말하는 건축 그리고 그 무엇, 2004년

93) Ibid., p.80.

5월호)

여기서 장윤규가 말한 ‘동물되기’란 질 들뢰즈의 저작 <천개의 고원>에 나오는 개념으로 ‘~되기’에 관련된 개념이다. 잠재성을 갖고 있는 어떠한 것이 다양한 욕망이나 외적변수를 받아들이면서 풍부한 형태로 물질화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건축적으로 연결하면 무엇이 될지 모르는 상태의 잠재성을 갖고 있는 대지에 수많은 종류와 형태의 건물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장윤규는 문화적 변형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변형을 동물되기에 빗대어서 생각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비슷한 사유로 ‘기관없는 신체’도 언급된다.

...지도는 장(場)들의 연결 접속에 공헌하고, 기관 없는 몸체들의 봉쇄-해제에 공헌하며, 그것들을 고른 판 위로 최대한 열어 놓는 데 공헌한다. 지도는 그 자체로 리즘에 속한다. 지도는 열려 있다. 지도는 모든 차원들 안에서 연결 접속될 수 있다. 지도는 분해될 수 있고, 뒤집을 수 있으며, 끝없이 변형될 수 있다. 지도는 찢을 수 있고, 뒤집을 수 있고, 온갖 몽타주를 허용하며, 개인이나 집단이나 사회구성체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지도는 벽에 그릴 수도 있고, 예술 작품처럼 착상해낼 수도 있으며, 정치 행위나 명상처럼 구성해낼 수도 있다. 언제나 많은 입구를 가지고 있다.

(장윤규, 다양체의 지도, 2014년 7월호)

‘기관없는 신체’는 기관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분화될 수 있는, 즉 가능성을 가진 신체, 상태를 의미한다. 장윤규는 ‘기관없는 몸체’를 언급하며 <천개의 고원>에 함께 나오는 ‘지도’에 관해 언급하는데 이 지도는 모든 차원들에서 연결되고 접속될 수 있고 끝없이 변형될 수 있고, 언제나 많은 입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즉, 무엇이든 허용되고 무엇으로도 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과 동시에 앞서 말한대로 지도라는 개념을 통해 물리적, 공간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생성의 철학’은 질 들뢰즈의 물리적, 형태적, 공간적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개념 정의 용어들을 이용해 끝없는 변형과 가능성을 통한 생성을 말함으로써 새로움과 차이가 중시되는 최근의 건축적 흐름에서 점점 더 밈의 흐름이 커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5.2.4. 현상학+장소성+일상(삶을 담아내는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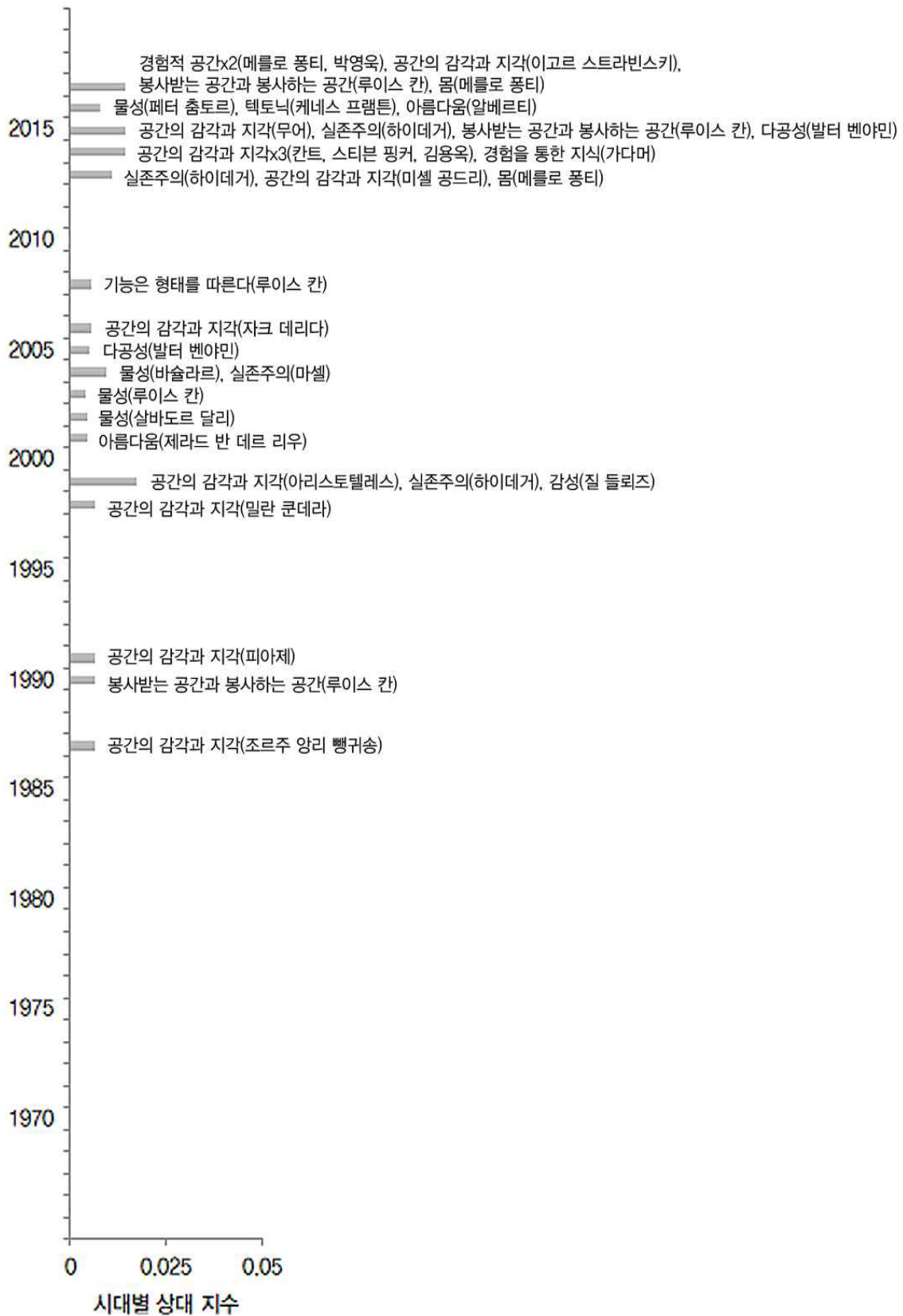
현상학은 시기로 볼 경우 모더니즘을 제외한 앞서 본 모든 사조들보다 먼저 출현하였다.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이 1901년 펴낸 <논리연구>를 출간하면서 현상학의 개념이 정립됐는데, 그는 당시 이성을 중심으로 커져 가고 있던 과학 기술 중심의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근대철학이 갖고 있던 주체와 객체를 분리시키는 사유를 철학적 오류라 비판했다. 그 후 하이데거와 사르트르(Jean-Paul C. A. Sartre)의 실존철학을 거쳐 메를로 폰티(M. Merleau Ponty)의 몸철학에 이르기까지 건축에서는 ‘의식의 종합’이라는 형태로 흐르게 되었다.

먼저 현상학으로 분류된 밈들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그림 5-25]와 같다. 공간지에 현상학과 관련된 밈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87년이였다. 건축가 강석원이 프랑스에서 일했던 자신의 커리어를 설명하는 글에서였다.

*프랑스에서의 일이라는 것은 대체로... "뱅귀송"씨의 일이었습니다...인간환경으로 감성적 접촉을 어느만큼 부여할 수 있는가가 주요 관심이었습니다...그의 건축은 기능적 해석에 매우 충실하며 외형에서 보다는 내부공간에서 획득되는 지각적 체험을 풍부하게 합니다.*

(강석원, 인터뷰 강석원, 1987년 10월호)

그의 글에 나타난 ‘뱅귀송’이라는 인물은 ‘조르주 앙리 뱅귀송’이라는 프랑스의 건축가였고, 글 속에서 ‘지각적 체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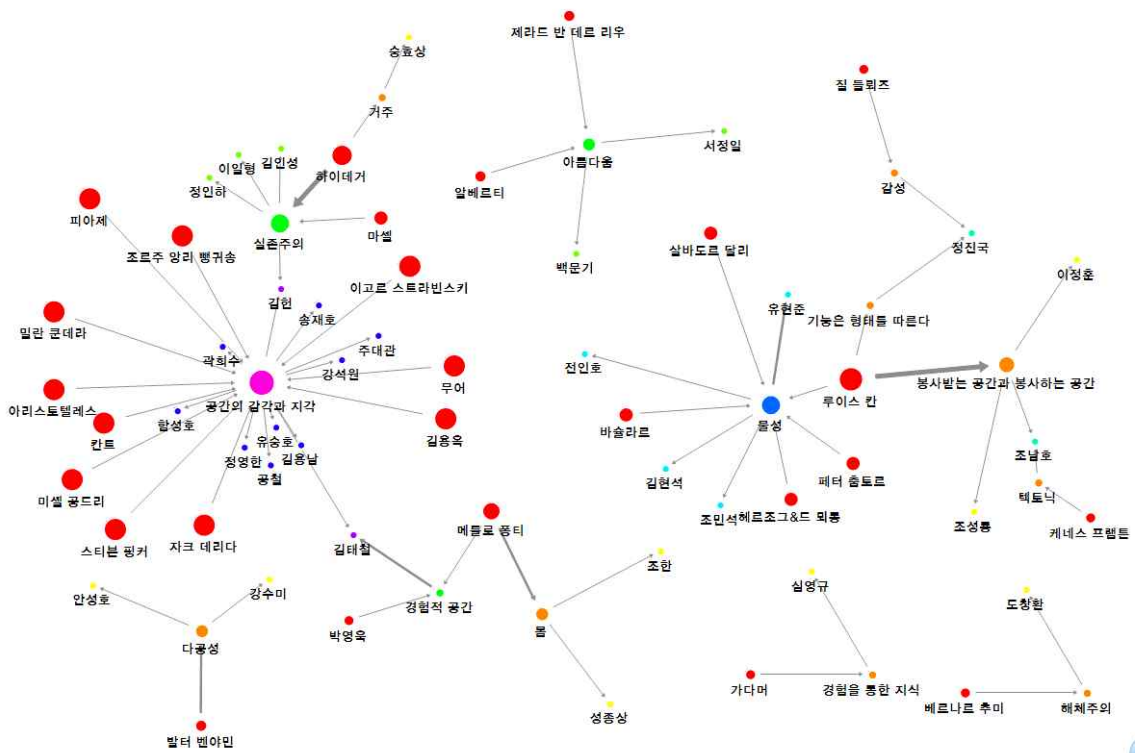


[그림 5-25] '현상학' 밈플렉스의 세부 밈들과 발산 시기



리한 표현은 이전에는 공간지에 없던 표현이었다. ‘지각적 체험’은 현상학에서 ‘의식의 종합’과 관련있는 것으로 공간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체험하며 감각하고 이어 지각한다는 내용이였다. 하지만 그 후 현상학 관련 밈들의 출현은 활발하지 않다가 90년대 말부터 꾸준히 출현해 가장 최근까지 활발하게 밈이 출현하고 있다. ‘공간의 감각과 지각’에 관련된 밈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산되었으며 2000년 이후로 건축 재료의 ‘물성’에 관한 밈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타임라인과 함께 ‘현상학’ 밈플렉스의 세부 밈들과 인물들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그림 5-26]과 같다. [그림 5-26]은 ‘현상학’에 속하는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들을 연결시킨 네트워크이다. 노드 사이즈는 크기와 근접 연결성이 비례하며, 색깔은 보라색의 근접 연결성이 가장 크고 노란색으로 갈수록 색 스펙트럼을 따라 줄어든다. 화살표의 굵기는 인물과 밈 내용이 연결된 횟수에 비례한다.



[그림 5-26] ‘현상학’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 연결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왼쪽의 ‘공간의 감각과 지각’ 세부 밈과 오른쪽의 ‘물성’ 밈

을 중심으로 나누어지는데, ‘공간의 감각과 지각’ 네트워크에는 ‘하이데거’, ‘실존주의’, ‘메를로 폰티’, ‘몸’ 등의 세부 밈들이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의 ‘물성’ 네트워크에는 ‘루이스 칸’, ‘봉사받는 공간과 봉사하는 공간’ 등의 세부 밈들이 연결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근접 중앙성이 높은 인물은 루이스 칸이었으며, 가장 근접 중앙성이 높은 세부 밈은 역시 ‘공간의 감각과 지각’이었다. 루이스 칸에게서는 ‘봉사받는 공간과 봉사하는 공간’에 속하는 밈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하이데거에게서는 ‘실존주의’ 밈이 주로 발산되었다. 메를로 폰티의 몸철학도 언급되는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현상학 계열의 작가와 학자들이 거의 언급되었으나 현상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에드문트 후설은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공간의 감각과 지각’은 특정한 인물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에 의해 밈을 언급하였는데, 심리학자 피아제(J. Piaget), 작가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등까지 언급되었다.

*건축을 느낀다는 것은...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표면 이상의 것을 함축하고, ... 체험에 의한 내구성, 부드러움, 열기, 신선함들을 다시 느끼고 다시 안다는 것이다.*

(송재호, 서울 불란서학교, 1999년 12월호)

건축가 송재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어 건축 공간이란 것을 단순히 시각의 대상이 아닌, 체험, 온도 등을 통한 종합적 지각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다. 영화와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미셸 공드리(Michel Gondry)’도 언급되었다.

*..미셸 공드리의 'Let Forever Be-The Chemical Brothers' 뮤직비디오에는 2차원 장면에서 튀어나온 주인공이 3차원의 현실로 나오거나 반대로 뛰어드는 장면들이 있다. 이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혹은 반대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색함을 보여준다...*

(김태철, 월내 반쪽집, 2013년 1월호)

교수 김태철은 건축가 오신욱이 설계한 ‘월내 반쪽집’의 액자 형태의 프레임 구조물과 그로 인해 느껴지는 공간감을 ‘액자-들떡우기’ 효과를 설명하며 이질적인 감각의 교차현상으로 미셸 공드리의 뮤직비디오를 언급했다. [그림 5-27]과 같이 그의 뮤직비디오에는 인물들이 평면적인 2차원의 화면에서 3차원의 공간으로 끊임없이 위치를 움직이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스럽고 이질적인 효과를 제공한다.



[그림 5-27] 미셸 공드리의 Let Forever Be-The Chemical Brothers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2차원과 3차원의 전환 장면  
(출처 : amass.jp)

캐나다의 진화 심리학자인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의 언급도 등장한다.

“치즈케익이 단맛에 대한 우리의 쾌락회로를 자극해 느끼도록 만들어진 인공물이듯 예술이나 좋은 공간은 다른 목적으로 진화된 신경회로를 자극하는 인공물이다.” - 스티븐 핑커

(공철, 광희수 ‘건축하다’를 생각한다, 2014년 2월호)

건축가 공철은 곽희수의 작품을 리뷰하며 건축 공간의 지각을 맛을 느끼는 지각에 비유해 설명함으로 역시 공감각적인 공간의 감각과 지각을 역설하고 있다. 맛과 공간 감각을 비유한 예는 또 있다.

“맛은.. 매우 주관적 차별성이 있는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생물학적 몸의 공통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생리적 욕구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화적 감각이며 심미적 감성의 압축태이다. 심미적 감성은 이성을 매개한다.” - 도올 김용옥 [중용, 인간의 맛]  
(김용남, 맛과 멋, 2014년 7월호)

이 비유 역시 건축인이 아닌 다른 분야의 인물인 철학자 김용옥의 뭍을 빌어왔는데, 맛이 심미적 감성인 동시에 이성을 매개하는 수단이라 함으로써 정확히 ‘감각’과 ‘지각’을 강조하고 있다. 감각과 지각의 구별과 중요성을 언급한 예는 또 있다. 이번엔 미국의 유명 음악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Igor F. Stravinsky)’의 뭍을 빌어서이다.

“음악은 우리에게 '그냥 듣는 것'과 '주의 깊게 듣는 것'을 구분하도록 한다” -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곽희수, 상황 건축, 2017년 6월호)

의미없는 소리들이나 중요하지 않은 음악들은 카페의 배경음악처럼 그냥 듣지만 어떤 음악을 우리가 제대로 느껴려면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건축 공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생각 없이 어느 공간을 지나갈 수도 있고 주의깊게 공간을 읽을 수도 있다. 즉 감각과 지각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공간의 감각과 지각’은 의식의 종합과 감각과 지각의 차이를 주로 말하는 동시에 유난히 타 분야의 뭍 분수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 자체가 현상학이라는 분야의 넓은 범위와 다원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로는 텍토닉과 관련된 중요한 사유인 ‘물성’에 관련된 뭍들도 많이 언급되었다.

“건축은 부드럽고 털이 나야 한다.” - 살바도르 달리

(조민석, 마틴 싯봉 매장, 2002년 7월호)

"나는 모든 감각 중 첫번째는 촉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갖게 되는 감각은 모두 촉감과 관계가 있다... 촉감은 단순히 만지는 것이 아니라, 만지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되며, 이것은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발전된다" - 루이스 칸

(김현석, 알파빌 A4 사옥, 2003년 4월호)

흙은 생명이며 삶의 근원이며 물질로서 고향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이다... 흙이나 바람 빛 같은 '물질의 기억'에서 고향의 실체를 느낄 수 있다고 바슐라르는 말한다.

(전인호, maison de terre, 2004년 5월호)

다양한 재료와 공감각에 관한 밈들은 2000년 이전엔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로 확실히 2000년대 이후 뚜렷해진 건축 재료의 중요성과 현상학의 대두를 보여주고 있다. 하이데거의 '존재론' 또한 현상학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실존적 입장에서 건축에서의 벽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해 왔었다...

(이일형, 건축적 실존으로서의 벽, 1999년 11월호)

...하이데거는 거주한다는 것은 개인과 세상의 평화로운 조화라고 했다. 그는 또 거주함을 통해 우리는 존재하며, 그 거주는 건축함으로써 장소에 새기는 일이라고도 했다...

(승효상, 시적으로, 인간은 거주한다, 2010년 12월호)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린다면 건축의 바탕에 깔려 있는 본원적 가치는 건축 자체의 고유한 방법으로 건축다움을 들춰냄으

로써 하나의 세계를 열어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세계가 열리면서 사물들은 그 고유한 틀 가운데로 조직되고 정돈되어 새로운 공간성을 획득하게 된다...

(정인하, 건축의 존재와 타당함 : 영역, 경계, 사이, 2013년 9월호)

"...공간들은 그들의 존재를 장소들로부터 부여받는 것이지 공간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다"-하이데거

(김인성, 사랑과 죽음 혹은 낭만건축, 2015년 4월호)

하이데거 식으로 말하면 인간은 물음을 던지는 존재자(Dasein)인 동시에 '세계-내-존재'이면서 동시에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인간이 땅 위에 건축하고, 그곳에 정주함으로써 존재한다고 말해왔다.<sup>94)</sup> 이러한 사유는 토폴로기(topologie)로 이어지며 장소성을 현상학의 범주에 들어오게 하기도 한다.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과 '존재와 시간'을 비롯한 주요 저작들이 이미 1920년대부터 나왔던 것을 생각하면 1999년 들어서야 하이데거가 처음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그 시기 국내 건축 담론계의 지적 사유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메를로 폰티 또한 현상학의 대가로 여겨지는 인물이다. 그는 우리가 몸을 매개로 하여 어떻게 세계와 관계를 맺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므로써 근대 이후 이성이 절대적 도구처럼 쓰였던 특성을 비판하였다.

...메를로 폰티는 신체가 공간과 시간 속에 거한다고 함으로써 시공간 속에서 신체를 통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성종상, 순치된 자연속 평면으로 펼친 순수 지향의 몸짓, 2013년 9월호)

...메를로 폰티는 현상학적 깊이는 우리 몸과 대상의 긴밀한 시각적 지향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깊이는 대상 자체에서 나

94) 임기택. (2014). 현상학과 건축이론. Spacetime, pp.26-28.

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분명하게 (보는 주체의) 시야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깊이는 다른 공간적 차원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사물과 나 사이에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함축한다"고 했다. ...

(조한, 실존적 차원의 현상적 깊이, 2017년 4월호)

... 메를로 폰티는 기하학적 공간을 유일한 실재 공간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공간론에 대해서 보다 근원적인 공간의 차원이 존재함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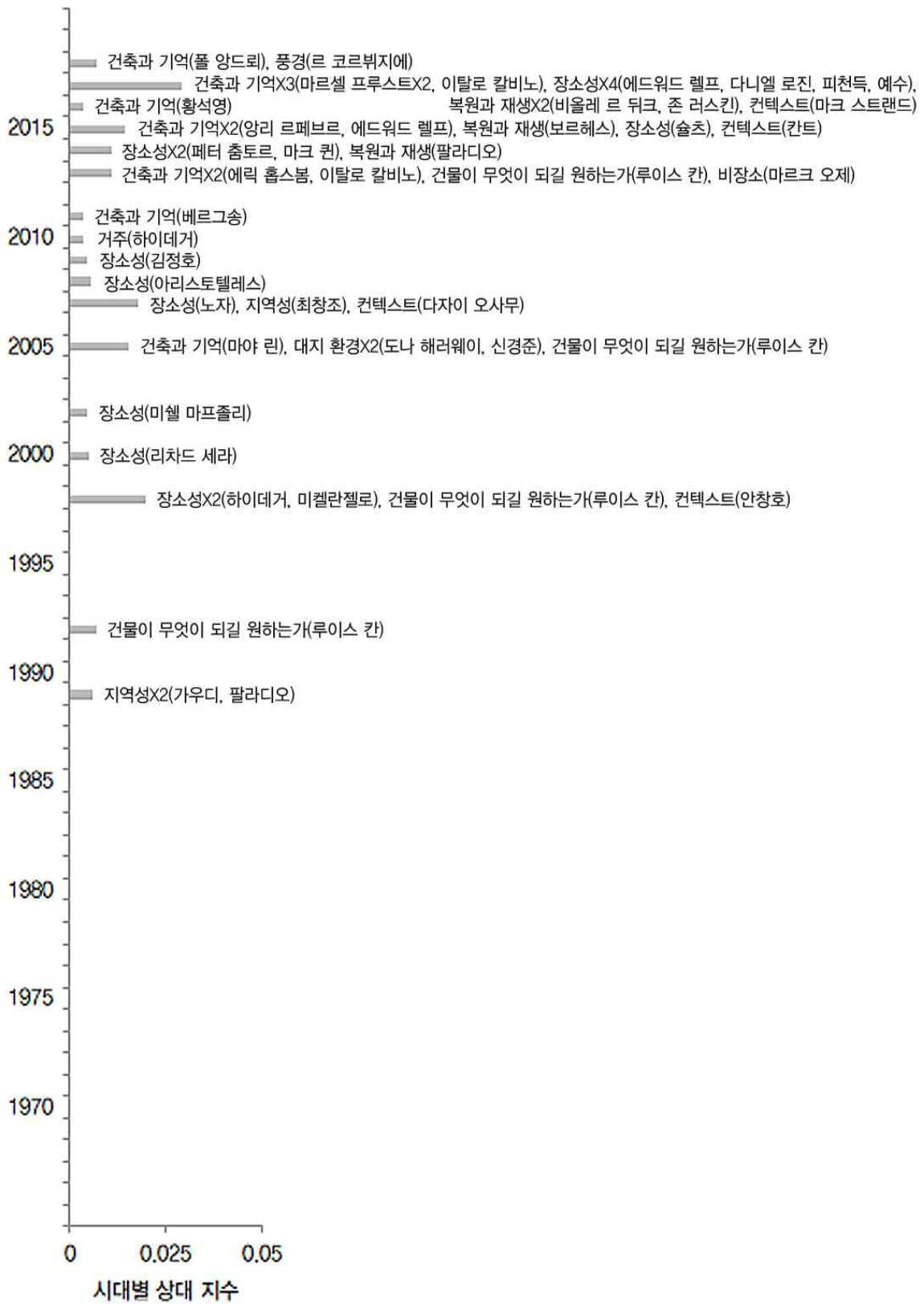
(김태철, 근대의 기하학적 공간과 현상학적 공간, 2017년 5월호)

메를로 폰티의 밈들은 한결같이 몸으로 느껴지는 공간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으며, 2013년에서야 처음 등장하고, 하이데거의 밈들보다 개수가 적지만 하이데거의 밈들보다 더 최근인 2017년까지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현상학과 관련된 밈들은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출현 빈도가 잦아지는 양상이지만 1960년대부터의 종합적인 통계를 보면 [표 4-12]에서 보듯 시대별 상대 지수의 합이 모더니즘의 약 0.3의 절반인 0.15에 불과하다. 현상학과 모더니즘이 반대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면 모더니즘 밈의 뿌리와 영향력이 여전히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현상학이 현대 철학의 주류 중 하나인만큼 그 범위와 경계가 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장소성’에 관한 밈들이다.

장소는 시간이 개입된 공간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며 관계를 맺는 곳이다. 장소는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들의 안식처이며, 안전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고요한 중심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근본 특징을 거주함에 있다고 보았다. 인간을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 현존하는 존재라고 파악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 개인의 취향과 역사가 배어 있는 곳이 장소이다. 그 결과 공간은 내 몸이 존재하고 체험하는 존재론적, 현상학적 장소가 된다.<sup>95)</sup>

95) 박능생. (2016.5.30.). 예술가는 왜 장소성에 집착하는가?. 경남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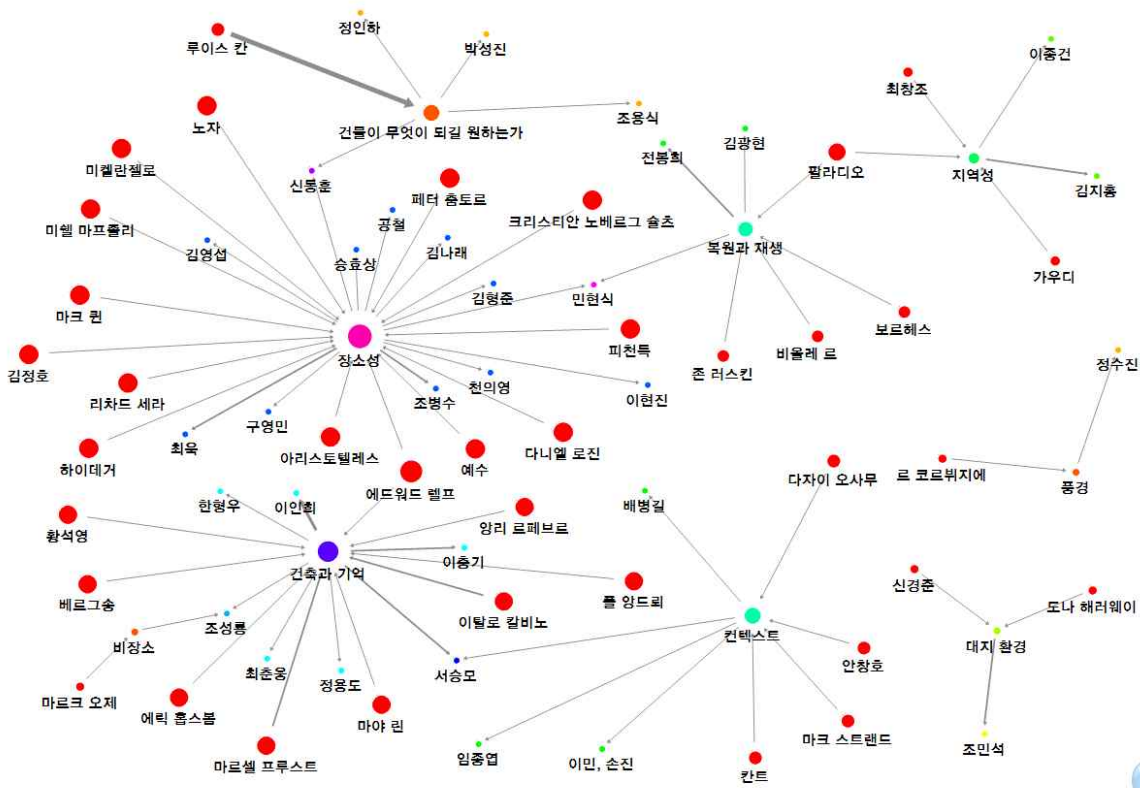


[그림 5-28] ‘장소성’ 밈플렉스의 세부 밈들과 발산 시기



[그림 5-28]은 ‘장소성’ 밈플렉스의 세부 밈들과 발산시기를 보여주고 있다. ‘장소성’ 밈플렉스는 1989년 ‘지역성’의 세부 밈으로 처음 등장한 뒤 최근으로 올수록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앞서 본 ‘현상학’ 밈플렉스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세부 밈을 좀 더 들여다보면 2010년 이전까지는 주로 ‘장소성’에 관한 일반적 밈들이 주로 도출되다가 2010년 이후로는 ‘건축과 기억’, ‘복원과 재생’과 같은 밈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다.

[그림 5-29]는 ‘장소성’에 속하는 세부 밈들의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들을 연결시킨 네트워크이다. 노드 사이즈는 크기와 근접 연결성이 비례하며, 색깔은 보라색의 근접 연결성이 가장 크고 노란색으로 갈수록 색 스펙트럼을 따라 줄어든다. 화살표의 굵기는 인물과 밈 내용이 연결된 횟수에 비례한다.



[그림 5-29] ‘장소성’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 연결 네트워크

‘장소성’은 특정 인물이 중심성을 높게 차지하지 않고, 대부분의 인물들에게서 골고루 밈들이 발산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밈 내용으로써 ‘장소

성'과 '건축과 기억'의 세부 밈 두 개가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있다. 매개 중심성으로는 건축가 민현식, 서승오, 신동훈과 같은 인물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장소성'은 '모더니즘'에 이어 전체 밈플렉스들 중 두 번째로 높은 근접 중앙성을 보이는 밈플렉스이다. 아무래도 건축인들이 건축물을 구상할 때 당연히 건물이 놓이는 대지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에 관한 밈들이 많이 언급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장소성' 밈플렉스가 등장하기 이전의 시기를 보면 장소성에 관한 밈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소성'보다는 주로 '형태'와 '모더니즘'에 관한 밈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는 환경과 건물을 함께 사유하는 태도가 의외로 최근에 와서야 강한 조류로 자리잡고 예전엔 르 코르뷔지에와 미스 반 데어 로에로 대변되는 모더니즘의 대가들의 사유에 영향받고 그것들을 구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장소성' 세부 밈은 단순히 건물 주변의 컨텍스트가 아닌, 더 넓은 범위의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는 태도를 언급하는 밈을 말한다. 따라서 '장소성'과 관련된 밈은 건축인 뿐만 아니라 지리학자 등 다양한 인물들에 의해 발산되었다.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에 인물상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돌 속에 갇혀있는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 단지 표피의 껍질을 걷어낸다고 했다. 건축은 대지의 영혼을 감싸기 위한 최소한의 껍질을 필요로 한다...*

(최욱, Under40, 1998년 5월호)

*"나를 한 영토에, 한 도시에 그리고 내가 다른 이와 공유하는 자연환경에 연결시켜주는 모든 것들이다. 바로 이것이 그 날 그 날의 자그마한 역사이다. 공간 속에 결정되어지는 시간, 이렇게 해서 한 장소의 역사가 개인적인 역사로 되는 것이다." - 미셸 마프졸리(프랑스 사회학자)*

(김영섭, 일상성의 유지, 2002년 5월호)

"그냥 그 자리에 오래오래 있어 왔듯이 혹은 그것이 태어나 지조차 않은 채로, 그래서 영구히 그곳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 노자, 도덕경 7장

(조병수, 사과 상자에 대한 생각, 2007년 4월호)

"장소는 그릇 사이의 경계일 뿐 아니라 비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이에 있는 어떤 것처럼 보이는 것이며, 만약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장소를 갖고 있다면 장소 또한 장소를 갖게 될 것이며, 이러한 관계는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구영민, 단층의 재코드, 2008년 6월호)

...김정호의 수선전도 등 서울 고지도를 살펴보면, 그것들이 장소의 특징과 그 이해를 반영한 상징이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도상학임을 알 수 있다...

(최옥, 마포대교 쉼터, 2009년 4월호)

페터 춰토르는... '경관 속의 건축'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건물을 계획할 때는 대지를 잘 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형에 변형을 가해야 한다면 원래 모습이 그런 것처럼 보여야 한다", "경관 속에 뭔가를 지을 때 건물의 자재가 그 경관에서 역사적으로 자란 소재와 어우러지게 하는게 중요하다. 지어진 건물의 물리적 성질이 그 지역의 물리적 성질과 동일한 울림을 가져야 한다."

(김형준, 풍경의 서사를 담은 건축, 2014년 4월호)

"건축은 장소의 혼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도를 지니며 건축가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를 창조해 낼 의무를 지닌다." - 노베르그 슐츠, "장소의 혼 : 건축의 현상학을 위하여" 중

(조병수, 지형따라 자연에 스며들기, 2015년 12월호)

*...사람들은 지속해서 방문하거나 거주하며 시간을 보내 익숙해진 공간과 신체적, 정서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의미 있는 장소에서 산다는 것이 곧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에드워드 렐프(영국 지리학자)는 말했다...*

(김나래, 형태에 관한 집념과 도전:경북도청 신도시 홍보관, 2017년 7월호)

교수 천의영은 건축가 노승범의 작품을 리뷰하며, 건축가와 건물, 대지와 관계를 사람간의 인연과 같은 것이라 비유하며, 수필가 피천득의 작품을 인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학적 인용 방식은 2000년대 이후로 자주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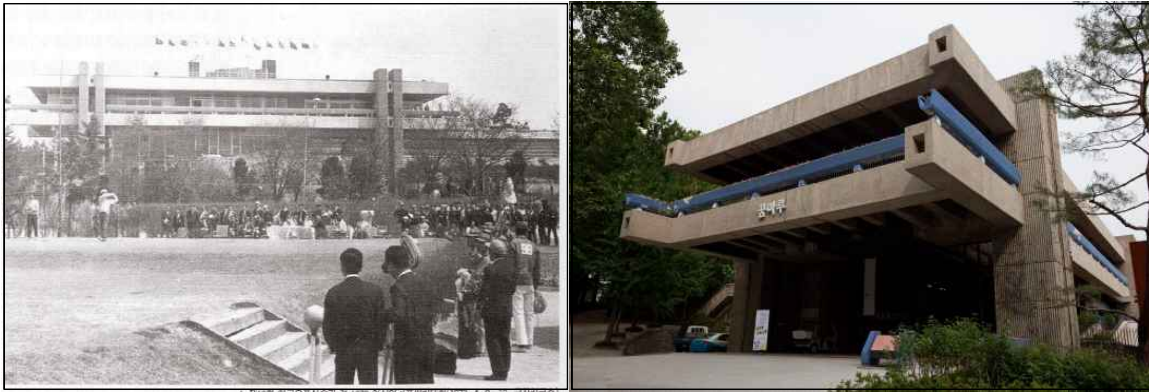
*..."그리워하는데도 한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라고 하던 피천득의 수필 '인연'...*

(천의영, 다이어그램적 공간 구축, 2017년 9월호)

이처럼 ‘장소성’에 관한 밈들은 밈 내용의 성격 때문인지 서정성이 담긴 텍스트가 많이 보이는게 특징이다. ‘장소성’ 밈에는 대지와 주변, 건축물간의 물리적, 지리적 관계가 담겨있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로 이러한 관계에 시간이 덧붙여지며 ‘건축과 기억’에 관련된 밈들이 언급되기 시작한다. 건축가 조성룡은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내에 위치한 교양관의 리모델링 프로젝트인 꿈마루([그림 5-30])와 선유도 공원의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다루며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Henri L. Bergson)을 언급한다. 앙리 베르그송은 인간의 기억과 시간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한 철학자이다.

*"과거를 현재 속에 통합해야 과거와 미래를 쉽게 왕래할 수 있다"-앙리 베르그송*

(조성룡, 시간의 공간 꿈마루와 선유도공원, 2011년 9월호)



[그림 5-30] 과거 서울컨트리클럽(좌, 나상진 설계)과 이를 리모델링한 꿈마루(우, 조성룡 설계)

교수 이충기는 서울시립대 내에 위치한 경농관, 박물관, 자작마루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건축과 기억’ 밈들을 언급한다.

*"도시의 과거는 보잘것없는 현재에 한층 영광스러운 배경을 마련해준다"-에릭 홉스봄(영국 역사학자)*

*"도시는 자신의 과거를 말로 하지 않습니다. 도시의 과거는 마치 손금들처럼 거리 모퉁이, 창살, 계단 난간, 피뢰침, 깃대에 쓰여 있으며 그 자체로 굵히고 잘리고 조각나고 소용돌이치는 모든 단편들에 담겨 있습니다."-이탈로 칼비노(이탈리아 문인), 보이지 않는 도시들*

(이충기, 오래된 현재, 2013년 5월호)

교수 이인희는 과거의 기억을 지우며 무차별적으로 개발되는 도시환경을 비판하기 위해 앙리 르페브르(H. Lefebvre)를 인용한다.

*...근대에 건설된 신도시나 기존 도시가 확장되며 새롭게 조성된 근대적 도시공간은 합리적 이성과 기술, 자본에 의해 주도*

되고 건축가에 의해 계획되고 규범화된 도구들로, 앙리 르페브르는 이를 두고 '공간의 재현'이라 비판했다...

(이인희, 시간의 경험과 기억의 장소, 2015년 2월호)

앞서 본 '장소성' 세부 밈처럼 서정성이 갖든 내용의 문학작품도 도시와 기억을 지워가는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 인용된다.

...소설가 황석영의 [해질 무렵]에서 주인공은 "그곳에는 우리가 살았던 기억의 흔적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곳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십여 년이 언제 이렇게 흘러갔는지 참 빠르기도 하네요..."라고 독백을 한다...

(한형우, 미래의 고고학, 2016년 3월호)

이제는 아예 건축이 가져야 할 중요한 기능으로 '기억의 저장'이 언급되기도 한다. 건축물이 단순한 형태적 오브제로만 다루어졌던 50년전 한국 건축인들의 사유들보다 그 깊이가 깊어지고 외연이 확장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처럼 만들어진 조각에 잊었던 기억을 떠올리는 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건축이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기능이자 존재 이유라고 본다. 땅의 기억, 없어진 집의 기억을 돌아봐야 한다.

(손진, 삶을 위한 섬세한 기록, 2017년 5월호)

'건축과 기억' 밈과 더불어 '복원과 재생' 밈들도 2010년대 이후에 함께 모습을 드러낸다. 밈 내용의 성격 상 이 두 가지 밈은 서로 상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처럼 '건축과 기억'과 '복원과 재생'에 관한 밈들은 한국 사회가 과거를 돌아보고 옛 것의 가치를 새롭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겨가고 있는 동시에 도시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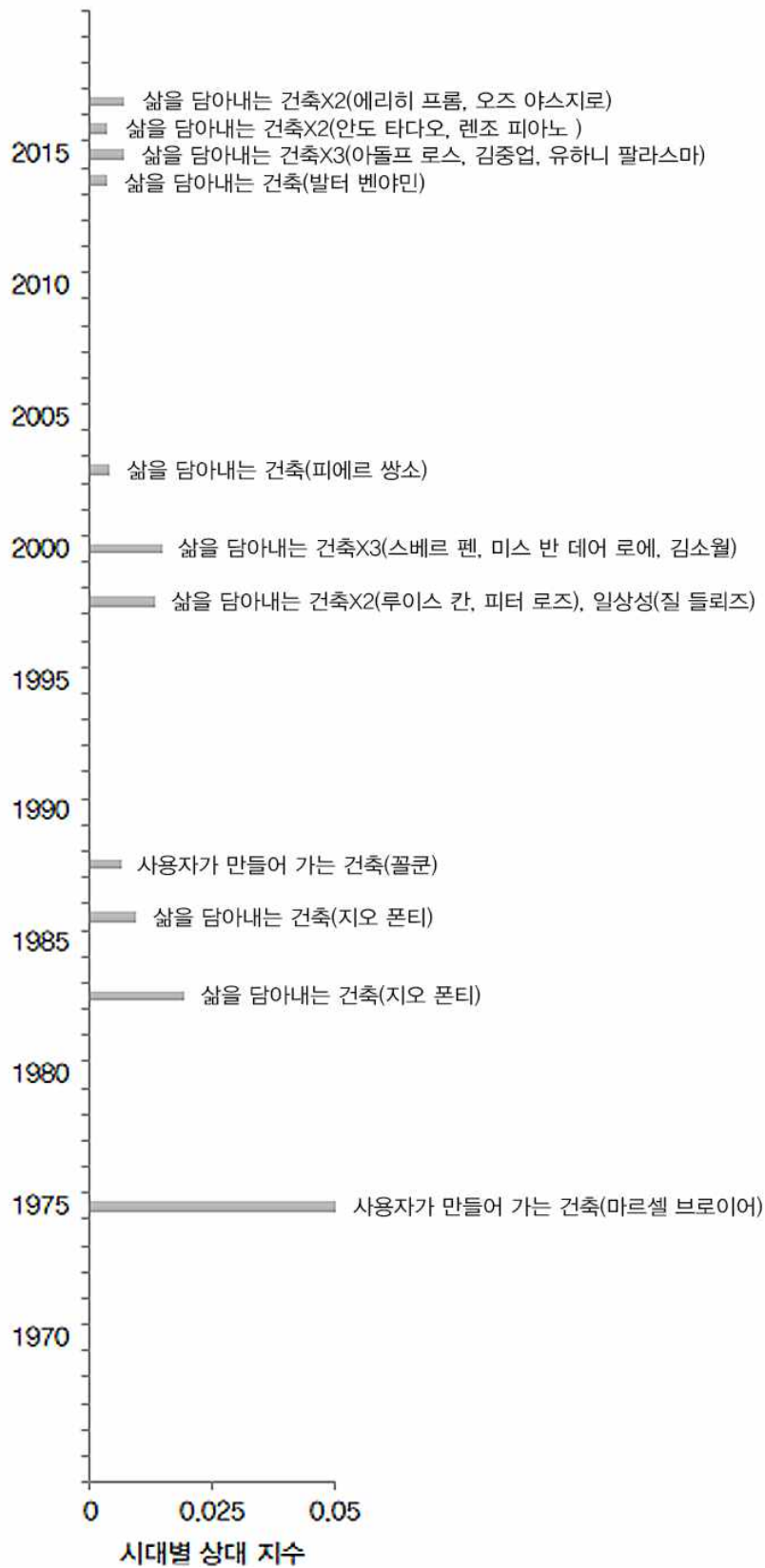
현상학의 외연을 좀 더 넓히면 ‘일상’ 밭플렉스도 연계가 가능하다. ‘일상’에 관한 밭플렉스는 [그림 4-10]에 나와있듯 시대별 상대 지수의 합으로 보았을 때 7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일상’에 관한 세부 밭들이 등장한 시기와 밭 분수들을 보면 [그림5-31]과 같다.

‘일상’에 관한 밭플렉스는 앞서 본 ‘현상학’, ‘장소성’과 달리 비교적 이른 1975년 ‘사용자가 만들어 가는 건축’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후 최근까지 전 시대에 걸쳐 고르게 모습을 드러냈다. ‘일상’에 관한 밭플렉스는 거의 ‘삶을 담아내는 건축’이라는 세부 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히 많이 쏠릴 정도로 언급되는 인물 없이 골고루 다양한 인물들에게서 밭들이 발산되고 있다. 이 ‘삶을 담아내는 건축’ 세부 밭이 현상학과 연계될 수 있는 세부 밭에 해당한다.

건축에서 하이데거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건축의 구축적 측면이었다. 건축은 거주하는 공간을 생산하는데, 여기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거주는 사람과 장소간의 총체적 관계를 의미한다. ‘거주’는 ‘구축의 행위’가 ‘존재’가 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기능에 따라 집을 지어놓고 ‘ 들어가 사는’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주자를 생각하여 ‘어떻게 지어서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하는 태도이다. 이런 방식의 계획과 구축이 진정한 의미의 거주(dwelling)의 개념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하이데거는 생각한 것이다.<sup>96)</sup> ‘삶을 담아내는 건축’은 건축물이나 공간을 오브제나 관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과 삶이 일어나는 동시에 그러한 흔적들이 기억의 쉼으로 쌓여나갈 수 있는 터전과 장소를 의미하며 그렇게 될 수 있게 건축을 바라보는 태도를 말하는 밭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일상’ 밭플렉스의 세부 밭들 중 ‘삶을 담아내는 건축’은 다른 세부 밭들보다 앞서 살펴본 ‘현상학’ 밭플렉스나 ‘건축과 기억’과 같은 세부 밭과 연관성을 보인다.

*"건축가는 창을 만들 때마다 그 창가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을 만들 때마다 사람이 그 문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계단을 만들 때마다 사람이 그것을 오*

96) 임기택. (2014). 현상학과 건축이론. Spacetime, p.50.



[그림 5-31] '일상' 밈플렉스의 세부 밈들과 발산 시기



르내리는 모습을, ... 현관을 만들 때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방을 만들 때마다 누군가가 그 안에서 생활할 것을, 이 모두를 상상해야 한다" - 지오 폰티 "건축예찬"

(조성룡, 신용보증기금을 위한 4개의 연작, 1983년 10월호)

"가장 행복한 건축가는 주인네가 만족하는 좋은 집을 지어 주고 만날 때마다 "당신이 지어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소"라는 인사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지오 폰티

(민현식, 진정 우리가 살 집, 1986년 12월호)

..루이스 칸의 브리티쉬 아트 뮤지엄 같은 것은 모뉴멘탈하면서 강한 축을 가진 매우 클래식한 공간이다. 그러나 근사한 입구를 들어가면 큰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공간이 전개되고.. 공간을 멋있게 만드는 것보다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그것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

(조병수, 거침, 인간적인 텍스처, 1998년 11월호)

"우리는 여기서 집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설계하였다." - 미스 반 데어 로에

(민현식, 웰컴시티, 2000년 6월호)

"집이란 사는 이에게 종알거리고 아양도 떨며 계절과 시간에 따라 꾸준히 인상을 바꿔가며 정이 깊은 곳으로...시간들이 축적되며... 하는 것" - 김중업

(박지영, 낮선 조화로움, 2015년 6월호)

건축을 경험할 때의 주요한 현상학적 차원의 문제들을 논했던 유하니 팔라스마는 "건축적 공간은 물리적 공간인 동시에 삶이 반영된 공간이며, 삶이 반영된 공간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형태와 측정 가능성의 경계를 넘어선다"고 했다.

(박찬일, 오목한 벽, 감성적 지각의 풍요로움, 2015년 6월호)

“건축은 삶에 오염된 것이기에 복합적인 예술” - 렌조 피아  
노

(조항만, 선정릉 근생빌딩:삶에 오염될 건축, 2016년 2월호)

따라서 ‘현상학’ 밈플렉스 하나만으로도 여러 밈플렉스 들 중에 높은 근접 중앙성을 보이지만 외연을 넓혀 현상학과 연관되는 ‘장소성’과 ‘일상’의 ‘삶을 담아내는 건축’ 세부 밈까지 포함하면 현상학과 연관된 담론들은 전체 담론계에서 상당히 높은 근접 중앙성을 보이게 된다. [표 4-12]에 나온 시대별 상대 지수를 고려할 때 가장 높은 지수를 보여준 밈플렉스는 ‘모더니즘’ 밈플렉스로 0.301이란 수치를 갖고 ‘현상학’ 밈플렉스는 0.151이란 수치를 갖는다. 하지만 ‘장소성’ 밈플렉스가 0.170이란 수치를 가지고 여기에 0.144란 수치를 갖는 ‘일상’ 밈플렉스를 더하면 현상학과 관련된 밈플렉스의 시대별 상대 지수는 0.465를 기록해 ‘모더니즘’ 밈플렉스의 수치를 능가하게 된다.

즉, 현상학과 관련된 밈들은 앞서 살펴본 ‘포스트모더니즘’, ‘후기 구조주의’, ‘생성의 철학’처럼 최근 들어와서 유행처럼 발산된 약간의 밈들이 아니라, 이제까지 한국 건축계에서 보여졌던 모더니즘의 과거 영향력을 능가할 정도로 많고 넓은 범위의 영향력을 보여왔고 현재도 여전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상학이 변증법적인 사유체계의 폭력성을 거부하며 출발된 사조인데<sup>97)</sup> 아이러니하게도 ‘모더니즘’과 그에 맞선 ‘반 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후기 구조주의, 생성의 철학, 현상학)이라는 변증법적 구도에 현상학이 가장 중요하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32]는 모더니즘, 현상학, 장소성 및 ‘일상’ 밈플렉스 중 ‘삶을 담아내는 건축’ 세부 밈들간의 시대적 상대지수 합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10년 단위로 출현 빈도를 합산하여 상기 서술된 밈플렉스들의 합을 100%로 하여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70년대 이전엔 위 4개의 밈플렉스

97) Ibid., p.14.

들 중 ‘모더니즘’ 밈플렉스만이 출현하다 80년대부터 현상학, 장소성, 일상 밈플렉스가 등장한다. 하지만 여전히 세 군의 밈을 다 합쳐도 모더니즘 밈플렉스를 앞서지 못하다가 90년대부터 이 세 밈들의 합이 모더니즘을 앞서기 시작하여 현재 시점에서 전 시대를 통틀어 볼 때 이 세 밈들의 시대별 상대 지수의 합이 모더니즘을 능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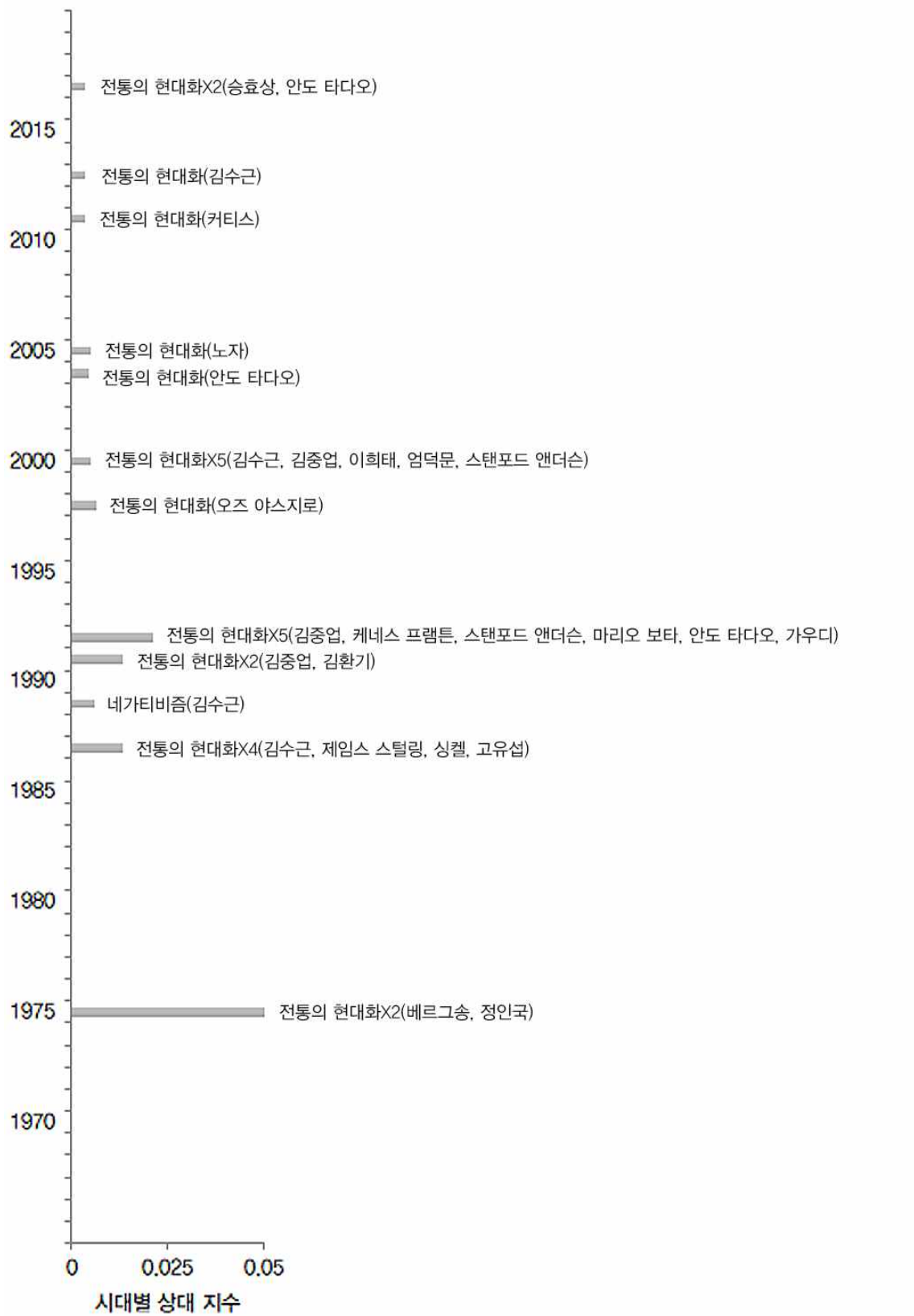


[그림 5-32] 모더니즘, 현상학, 장소성, 일상 밈플렉스들의 시대적 상대 지수 비교 면적 그래프

### 5.2.5. 전통

서구 건축이 곧 근대 건축이자 모던이던 해방 후의 한국에서 한국성, 즉 전통의 발현과 현대화는 언제나 국내 건축인들의 뜨거운 화두였다. [표 4-12]에서 나오듯 ‘전통’ 밈플렉스는 시대적 상대 지수 0.195를 보이며 전체 밈플렉스 들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단순 언급 횟수로는 11번째, 밈 내용과 연계시킨 네트워크 분석에선 9번째로 높은 근접 중앙성을 보여 최근보다 과거에 더 많이 발산되었던 밈임을 알 수 있다. 먼저 밈플렉스에 해당하는 세부 밈들이 출현했던 시기와 밈 발신자들을 보면 [그림 5-33]과 같다.

‘전통’에 관한 밈이 공간지에 처음 출현한 것은 1975년이였다. 건축가 김원이 이희태가 설계한 남산 국립극장을 리뷰하며 정인국 교수와 프랑수아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을 언급한다.



[그림 5-33] '전통' 밈플렉스의 세부 밈들과 발산 시기

"건축표현에서 이조, 고려, 신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 그것은 현대에서 작업하는 건축가들 전체에 대한 모독인 동시에 아름다운 가치있는 유산을 남겨준 선조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모든 잡념을 떨궈 버리는 공백상태에서 새로 시작해보자" - 정인국

우리의 전통은 우리의 창조적 생명력에 근원두어 져야하며 그가 "창조적 전개"에서 지적한대로 그 생명력은 "an artillery shell from which new shells scatter when it bursts"이어야 한다 - 앙리 베르그송

(김원, 국립극장을 통해보는 전통논쟁의 허구 : 한국 현대건축의 위기, 1975년 3월호)

이 인용으로 미루어볼 때, 이때에도 한국의 건축가들은 옛것의 재현이 아닌 현대적인 디자인으로의 번안이 중요한 과제임을 깨닫고 있었다. 앙리 베르그송이 했던 말의 "an artillery shell from which new shells scatter when it bursts"(터질 때 다시 새로운 포탄들로 흩어지는 하나의 포탄)은 그가 1907년 펴냈던 <창조적 진화 Évolution créatrice>에서 쓰여진 말로, 그가 관심있어 하던 '자유롭고 예측할 수 없는 창조적인 무질서'와 생명력을 비유하기 위한 것이었다.<sup>98)</sup> 이러한 생명력과 진화의 개념은 앙리 베르그송이 질 들뢰즈와 더불어 '생성의 철학'의 주요 철학자로 자리 매김한 사유들 중 하나였다.

'전통' 밈플렉스의 밈 발신자들은 김수근 4회, 김중업 3회 등 앞서 본 모든 다른 밈플렉스들과 달리 압도적으로 국내 인물이 많다. 특히 김수근은 국내 인물로는 유일하게 한국적 전통에서 나온 사유인 '네가티비즘'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밈을 언급하는 이들이 네가티비즘의 내용에 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비자발적으로 현대건축을 흡수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지붕

98) 한국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앙리 베르그송,

은 오랜 기간 넘어야 할 산 같은 숙제였다. 이를 위한 무수한 시도의 시작점에 김수근의 부여박물관 논란이 있었다. 문제는 이 시도들이 대부분 '재현적'이었다는 것이다...

(조민석, 일상과 조형, 그 사이의 전략, 2013년 10월호)

...한국 현대건축에서 전통성의 표현방식은 작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추구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구상적 표현에 관심이 있었던 작가가 있었나 하면 추상적 표현에 능한 건축가들도 있었다. 김중업의 프랑스대사관은...

그런가하면 김수근은...공간사옥에서 보듯이 추상화된 "공간"이나 "인간적 스케일"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임창복,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2000년 3월호)

교수 임창복은 '전통' 밈플렉스를 가장 많이 언급한 인물이었다. 공간사옥과 프랑스대사관을 예를 들며 전통의 현대화의 모범사례로 김수근과 김중업을 언급하고 있다.

...전통이라는 것이 없어졌다면 찾아져야겠지만 찾으려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일전에 고유섭 선생의 "조선미술사논총"에서 "전통은 손에서 손으로 넘겨지는게 아니라, 피에서 피로 쌓는 것"이라는 주장을 본적 있습니다...

(승효상, 우리시대의 전통논의, 1987년 9월호)

지금은 보기 힘든 논쟁이지만,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성과 전통은 공간지에서 종종 특집 대담의 소재로 다루어질만큼 건축인들 및 다른 예술 분야, 한국 사회의 열띤 쟁점이었다. 87년, 당시 젊은 승효상은 직접적이고 분별없이 재현되는 전통의 구현을 비판한다. 고유섭은 일제 강점기에 한국 전통 미술사를 연구한 얼마되지 않는 저명한 학자였다.

..."道可道非常道"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도는 도가 아니다... 한국성의 실천을 고민하면서 쉽게 빠져드는 수렁은 과거의 물상과 형식에 대한 집착이다. 그것을 진정한 한국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성이라는 표제에서 벗어났을 때 진정한 우리다움은 성취된다...

(정림건축, 국립중앙박물관, 2005년 11월호)

...어느 친구가 전통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분(김중업)은 "전통을 논의 하는것부터 속되다"는 얘기를 한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20대 후반의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때 이후로 평생 잊지 못할 말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배병길, 국제화랑, 1992년 1월호)

건축사무소 정림건축과 건축가 배병길은 노자는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도는 도가 아니라고 했고, 김중업은 아예 전통을 논의 하는 것 자체가 속되다고 한 예를 든다.

이와 같이 국내의 건축인들은 전통을 언급하며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을 계속하여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전통에 관한 밈들은 적은 빈도이지만 최근까지도 아주 가끔씩 검출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예상외로 60년대는 '전통'의 밈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앞 절에서 봤던대로 오히려 '모더니즘' 밈들이 강세를 이루던 시기였다. 이는 50년대와 60년대 시급한 국토의 재건 및 산업화로 인해 모더니즘과 국제주의의 적용이 우선시되다 70년대 이후로 당시 정권의 전통성 살리기 운동 등 한국성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sup>99)</sup>이 그 이유로 사료된다.

99) 임석재. (2013). 한국 현대건축의 지평 2권. 인물과 사상사, p.253.

## 제 6 장 밈 이론 기반 분석 방법론 해석

---

6.1 시대별 밈들의 관계와 변화 분석

6.2 기존 역사 연구들과의 비교를 통한 효용성 고찰

6.3 새로운 결과를 통한 효용성 고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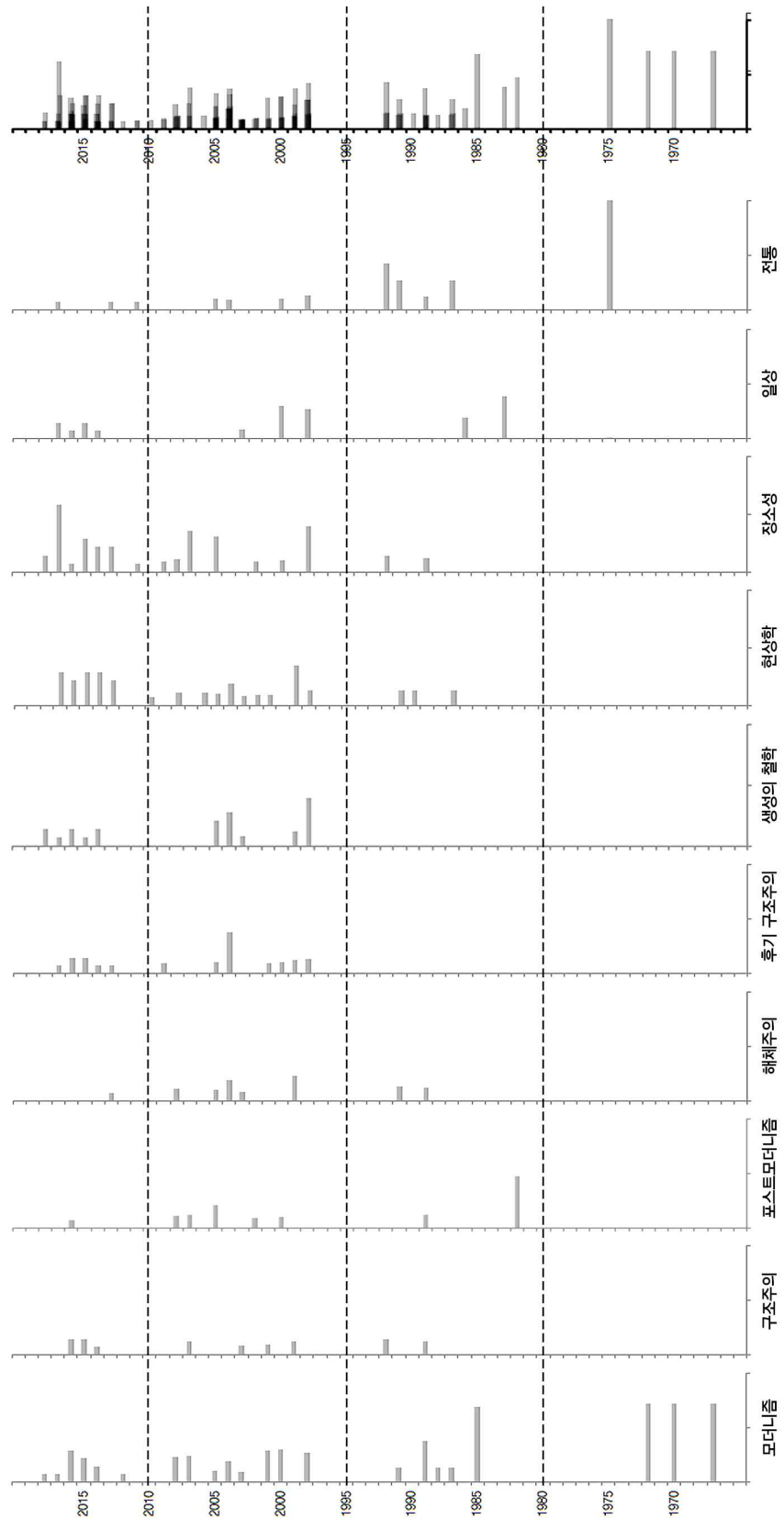


5장이 인물과 사조를 중심으로 한 분석 결과들을 보여주었다면, 이 장에서는 시대별 밈들과 인물의 관계와 변화 양상 등에 관해 추가 분석을 한 뒤 이 분석 결과를 한국 현대 건축에 관한 기존 연구들과 비교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밈 이론에 기반한 관찰 및 분석 방법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본 연구 방법을 통해 새롭게 관찰된 한국 현대 건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한다.

### 6.1. 시대별 밈들의 관계와 변화 분석

이 절에서는 시대에 따른 주요 밈 분수들과 내용들의 변화를 분석해 볼 것이다. 이는 마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역학 조사에서 숙주와 감염원 등을 파악하고 시간대에 따른 전파 양상을 보는 것과 같은 분석이다. 즉, 기존의 텍스트 분석법의 관점에서 벗어나 밈의 관점으로 대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시대 구분을 해야 하는데 흔히 통상적으로 90년대, 2000년대와 같이 동일기간을 기준으로 시대를 나누기에 앞서 앞 절에 나온 사조와 인물들의 밈 발산 타임라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그림 6-1]은 5.2절에 나온 주요 건축 사조들의 타임라인과 시대별 상대지수를 한 그림에 동시에 표시한 것이고, 가장 오른쪽의 타임라인은 이 타임라인들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이들의 타임라인과 합산 그래프에 나오는 밈들의 출현 시기를 동시에 참고한 결과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중반,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2010년대의 네 가지 시기로 크게 밈들의 출현이 뭉쳐있음을 관찰하였다. [그림 6-1]을 옆으로 누어 사조별이 아닌 점선으로 구분된 시대별로 보면 많이 출현하는 밈들의 사조가 확연히 달라짐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6-1] 5.2절의 사조들의 타임라인과 시대 구분

### 6.1.1. 시대별 인물과 담론의 양상

#### (1) 1960, 70년대

60년대와 70년대를 같은 성격의 시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시대를 관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두 시대 모두 군사정권에 의한 국가주도 성장과 급격한 도시화라는 환경은 비슷하지만, 지어진 건물의 양이나 활동한 건축가의 수를 놓고 볼 때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공간지의 텍스트를 놓고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분석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림 4-2]에서 보는바와 같이 60년대는 12개, 70년대는 18개의 밈들이 추출되어, 각각의 시대를 구분할 경우 일반적으로 통계학에서 최소의 큰 수로 여겨지는 30개에 미치지 못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게다가 적은 수의 밈들이긴 하나 [그림 6-1]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요 건축 사조의 출현에 있어서도 60년대와 70년대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대들은 함께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림 6-2]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밈들의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들을 연결시킨 네트워크이다. 노드 사이즈는 크기와 근접 연결성이 비례하며, 색깔은 보라색의 근접 연결성이 가장 크고 노란색으로 갈수록 색 스펙트럼을 따라 줄어든다. 화살표의 굵기는 인물과 밈 내용이 연결된 횟수에 비례한다. 근접 중앙성이 가장 큰 인물은 미스 반 데어 로에였으며 그 뒤를 이어 미세한 차이로 르 코르뷔지에가 높은 근접 중앙성을 보여 모더니즘의 두 거장이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그 밖에 밈 발신자 및 수신자로서 정인국, 엄덕문, 김수근, 김원, 김중업, 황일인 등의 한국 현대 초기 건축가와 학자들이 모습을 보인다. 밈 내용으로는 ‘형태’ 밈플렉스가 가장 높은 근접 중앙성을 보였으며 뒤를 이어 ‘모더니즘’ 밈플렉스가 높은 근접 중앙성을 보였다. 밈 발신자로 보나 밈 내용으로 보나 이 시대의 건축인들의 화두는 ‘모더니즘’과 ‘형태’의 압도적인 영향 하에 있음이 보여지고 있다. ‘전통’에 대한 밈도 예상보다는 별로 발산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대 건축가들은 한국적 전통의 구현 문제보다 서구의 모더니즘을 어떻게 더 잘 구



한 간격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서 있는 들의 장엄한 원주에서 현대적으로 발달한 곡선, 단순하면서도 검소한 한국의 국민성을 나타냈는데...

(김봉주, 정부종합청사 설계경기 응모작품, 1967년 5월호)

건축가 김봉주는 정부종합청사 설계경기에 응모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며, 작품에 나타난 외부의 오더를 한국 전통건축의 열주가 아닌, 오귀스트 페레(Auguste Perret)와 파르테논 신전을 빌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이용해 한국의 국민성을 나타내려 했다고 설명한다.

‘모더니즘’의 뒤를 이어 많이 언급된 밈플렉스는 ‘형태’였다. 1967년 3월호에 정길협이 김중업의 작품들을 리뷰하는데 글의 제목부터가 ‘작품론-조형형성의 과정에서 본’이었으며 글의 내용 역시 김중업 작품에서 보이는 형태에 집중하며 르코르뷔지에에게서 그 영향을 받았음을 수없이 언급한다. 건축가 안병의 또한 르 코르뷔지에에게서 형태적 영향을 받았음을 털어놓는다.

..이 작품 밑바닥에 깔린 생각은, 그 당시 내가 심취했던 [르 폴뷰쎈]의 건축관 그대로다...외부공간의 相通, 셸의 곡선과 직선, 콘크리트 루바의 리듬, [콘트라스트]를 취하므로써 다이내믹한 성격을 자아내는 조형들 하나같이 모두 [르폴뷰쎈]의 수범이다..

(안병의, 남산야외음악당, 1972년 6월호)

이밖에 ‘형태’에 관한 밈들과 대조적으로, 건축물의 설계시 일반적으로 형태와 함께 고려해야 할 ‘공간’이나 ‘컨텍스트’에 대한 밈들은 이 시대에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대 건축인들이 건물을 설계할 때 건물의 내부 공간보다는 외부의 형태적 오브제에, 그리고 내적완결성을 갖는 것에 더 집중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근대건축의 거장인 르코르뷔지에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온 김중업과 그의 스승과의 관계는 본인은 물론 다른 평론가 및 학자들도 다수 언급하였

다.

*..르 코르뷔지에에 사사하고 영향을 받은 이 작가는 주한불란서대사관에 이르러 절정을 이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 같다..*

(박춘상, 불란서 대사관, 1967년 11월호)

*건축가는 자기자신만을 위해 때때로 시간과 정열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르코르비제도 그랬어요. 그 양반만 해도 모들을 다듬고 있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지요. 그러나그가 쉬고 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김중업, 자신에게 충실했던 7년간의 해외생활, 1979년 3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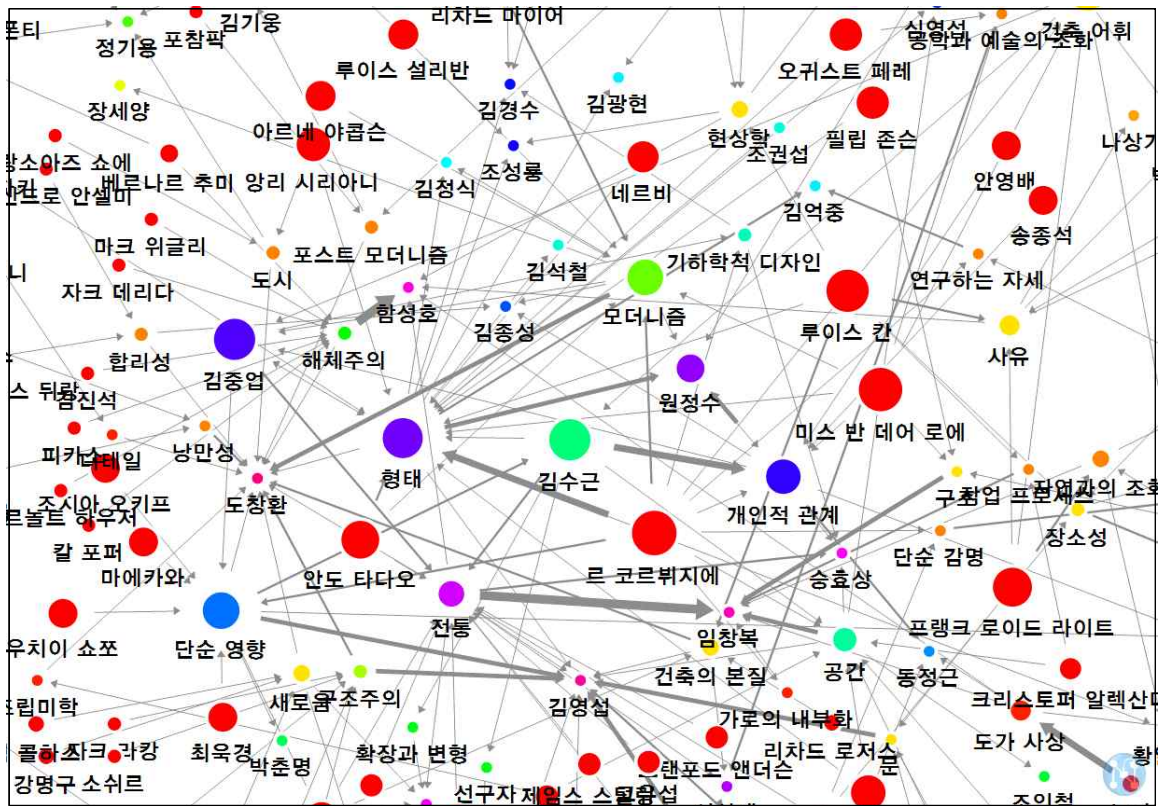
이처럼 한국건축의 60년대와 70년대는 서구 모더니즘 대가들의 큰 영향하에 있었으며 모더니즘의 충실한 구현에 관심이 많은 시기였다.

## (2) 1980년대와 90년대 초, 중반

1980년 정권의 교체 이후, 올림픽, 아시안 게임 유치의 분위기를 타고 우리 사회는 점차 세계 조류의 흐름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동시에 미술계에서는 민중미술이라 하는 유파가 형성되고 사회학은 민중사관의 민족주의적 발걸음을 내딛는다.<sup>100)</sup> 90년대 초반 문민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국가에서는 ‘세계화’ 기조를 내세웠고,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건축계에도 점차 다양한 사조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림 6-3]은 1980년대 전체와 1990년대 중반까지의 밈들의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들을 연결시킨 네트워크의 중심부이다. 노드 사이즈는 크기와 근접 연결성이 비례하며, 색깔은 보라색의 근접 연결성이 가장 크고 노란색으로 갈수록 색 스펙트럼을 따라 줄어든다. 화살표의 굵기는 인물과 밈 내용이 연결된 횟수에 비례한다. 노드와 링크 수가 60,70년대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많아졌으며 사조의 종류와 인물의 수도 훨씬 풍성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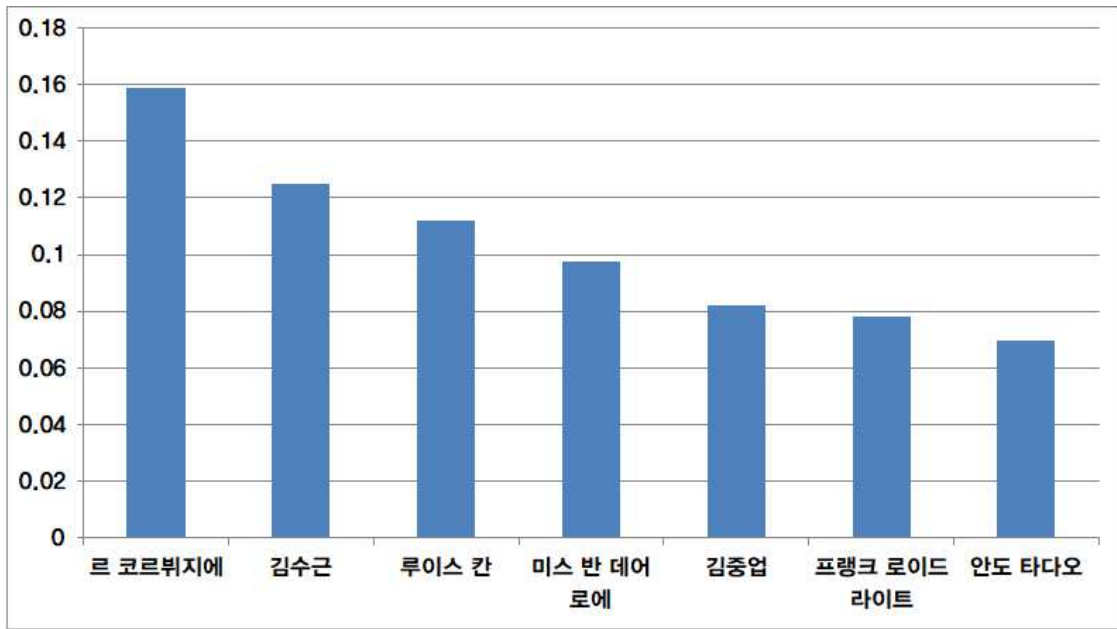
100) 박길룡. (2015). 한국 현대건축 평전. 공간, p.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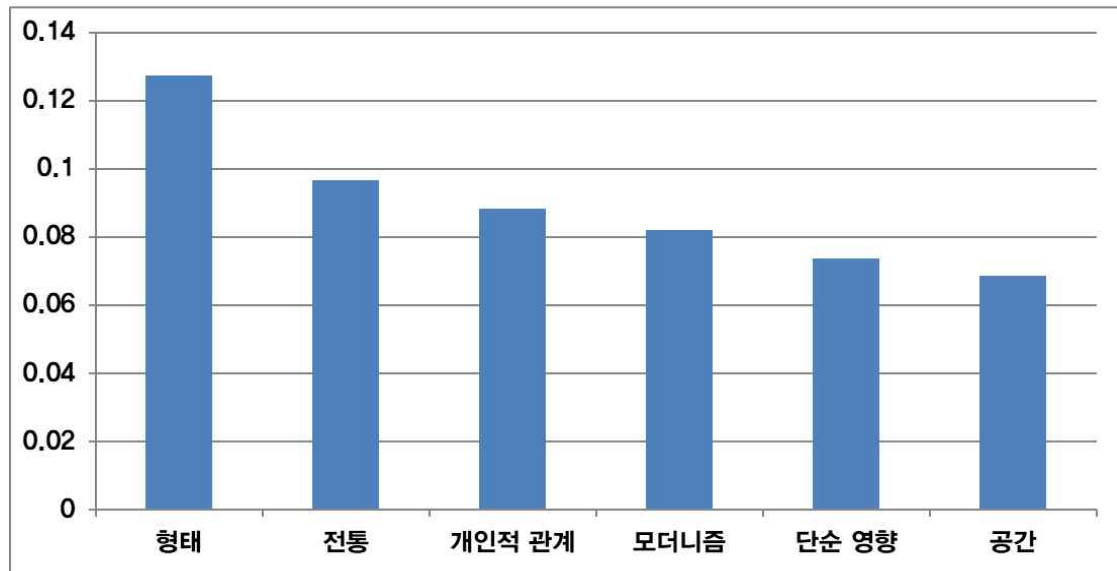
[그림 6-3]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의 밌 발신자, 수신자들과 밌 내용 연결 네트워크의 중심부

[그림 6-4]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의 주요 밌 발신자를 근접 중앙성이 높은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그림 6-2]에서 주요 밌 발신자가 거의 르 코르뷔지에와 미스 반 데어 로에 단 두 명에게 집중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다양한 인물들이 언급되었으며 60년대와 70대에 없던 루이스 칸과 안도 타다오의 출현이 눈에 띈다. 또한 김수근이 르 코르뷔지에 다음으로 근접 중앙성이 높았는데 오히려 김수근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높은 중앙성을 보였으며 이는 김수근의 타계 후 그를 기리는 건축인들과 그의 작품에 대한 재조명의 영향을 반증한다.

[그림 6-5]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의 주요 밌플렉스 및 세부 밌들을 근접 중앙성이 높은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형태’ 밌플렉스가 가장 중앙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통’과 ‘개인적 관계’ 밌플렉스가 뒤를 이었다. 주요 밌플렉스 리스트에 오른 ‘개인적 관계’, ‘단순 영향’들은 특별한 이론이나 철학적 배경, 특별한 이유가 언급되지 않은 채 어떤 인물이나 작



[그림 6-4]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의 주요 밈 발신자 근접 중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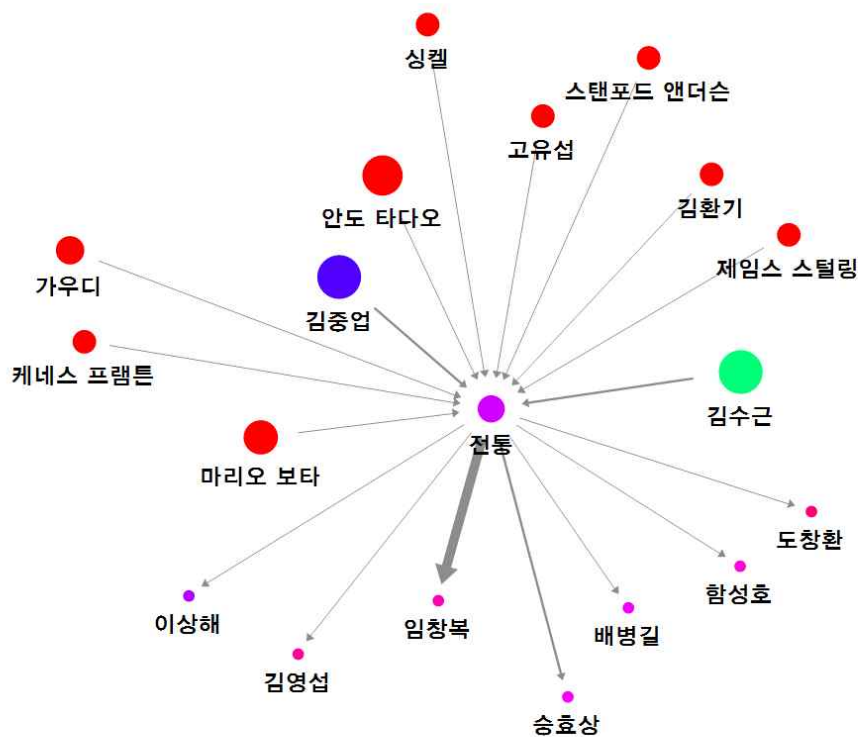
[그림 6-5]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의 주요 밈플렉스 및 세부 밈 근접 중앙성

품에게 영향을 받았다고만 서술된 것들이다. 이 시대 건축가들이 건축 잡지에 작품을 소개하면서 게재했던 글은 대부분 계획안과 설계 과정에 대한 기술이었다. 건축물의 프로그램 소개, 설계 과정의 에피소드, 시공 과정의



아쉬움, 조형 언어의 증언, 신변잡기, 변명에 머무르는 일들이 많았다.<sup>101)</sup> 이후 시대의 건축 텍스트들이 다양한 이론적, 철학적 사조들과 함께 작성되는 경향과 비교되는 대목들이다.

‘전통’ 밈플렉스는 60~70년대보다 80~9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에서 더 순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림 6-6]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의 ‘전통’ 밈플렉스의 발신자들과 수신자들을 한 눈에 보여준다. 링크의 굵기는 밈 발신, 수신 횟수에 비례한다. 80년대와 90년대 중반은 한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큰 때였다.<sup>102)</sup> 김수근과 김종업을 중심으로 안도 타다오, 마리오 보타 등의 발신자들에게서 ‘전통’ 밈플렉스가 발산되고 있으며 교수 임창복을 중심으로 승효상, 배병길, 김영섭 등에게 주로 ‘전통’ 밈플렉스가 수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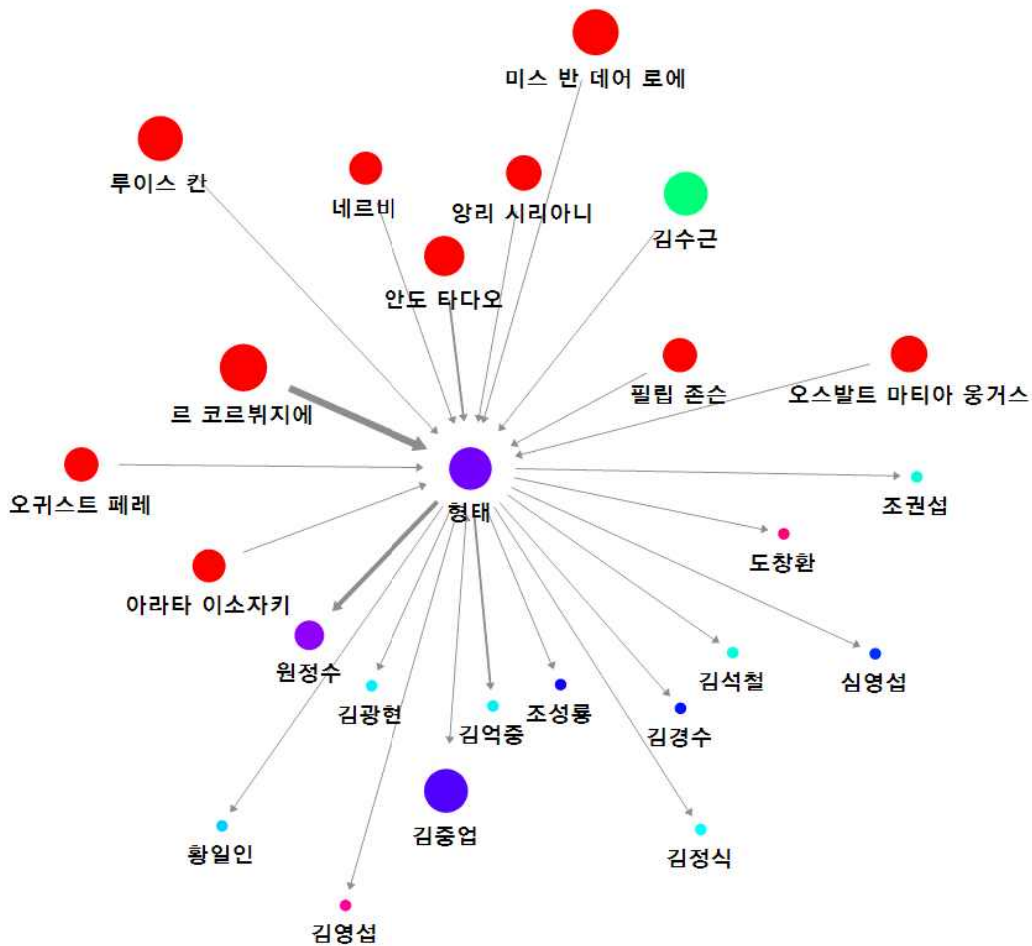


[그림 6-6]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의 ‘전통’ 밈플렉스의 발신자들과 수신자들

101) 최원준. (2014). 전환기의 한국 건축과 4.3그룹, 함께 하는 말, 홀로 서는 말. 집, pp. 106-107.

102) 당시 사회적으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유치로 국가적 자부심이 상승해 있었으며, 예술계에 민중 유파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당시 언어의 조류를 보아도 그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는데 순 한글 사용을 기조로 ‘한겨레신문’이 창간된 것이 1988년이었으며 컴퓨터를 ‘셈틀’이라는 순우리말로 번안하여 부르던 시기가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이었다. 그리고 구 조선총독부 건물이 해체된 것이 1995년이였다.

[그림 6-7]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의 ‘형태’ 밈플렉스의 발신자들과 수신자들을 한 눈에 보여준다. 링크의 굵기는 밈 발신, 수신 횟수에 비례한다. 르 코르뷔지에를 중심으로 안도 타다오 및 여러 건축가들에게서 ‘형태’ 밈플렉스가 발산되는 것이 보이며, 건축가 원정수, 김억중 등에게 밈이 수신 되는 것이 보인다.



[그림 6-7]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의 ‘형태’ 밈플렉스의 발신자들과 수신자들

김중엽은 ‘형태’ 밈플렉스가 수신되기도 했지만 발산되기도 했다. 당시 젊은 건축가 김석철은 김중엽에게 형태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말한다.

...대개 곡선이란 남의 흉내를 내기 어려워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게 되죠. 따라서 제가 초기부터 김중엽 선생님에게 강요

를 받은 것이 주된 이유할 수 있겠지요...

(김석철, 논리와 표현의 대차(貸借), 1985년 5월호)

김중업이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교수 김경수는 김중업의 작품들을 리뷰하며 김중업이 르코르뷔지에에게 형태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대신하여 말한다.

...르 꼬르뷔제와의 만남으로부터 얻어낸 조형 정신과 구체적 모티프들이 두드러지는 초기의 경향...초기 김중업의 작품은 부산대와 서강대에서 명확히 보여주듯 르 꼬르뷔제를 가리키고 있다... (후술 매우 많음)

(김경수, 작가의 양식과 수법 - 김중업론, 1986년 3월호)

교수 김경수는 위 언급만큼 자신있게는 아니지만 김수근에 대해서도 아라타 이소자키(磯崎新)에게 영향을 받았음을 추측한다.

...광명시청사 : ... 외관은 일본의 "이소자키"의 작품들처럼 긴장된 표정을 보인다. 특히 진입층 민원실 부분 정면은 "키타 큐슈 미술관"이 보여주는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다...

(김경수, 시대와 작가의 변모 - 김수근과 "공간"그룹, 1986년 9,10월호 합본)

1974년부터 시작되어 우여곡절 끝에 87년에 완성된 한국은행 별관 건물의 설계는 부부 건축가인 원정수, 지순이었다. 원정수는 자신의 작품의 형태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한다.

...그들의 유작들을 보면 사람과 닮은 유기체적 건축의 표현이 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스 반 데 로에 설계의 내셔널 뮤지엄은 기단, 몸체, 루프가 있고 미국 AT&T에서도 강제적 스페셜 오더로 페디멘트를 제시하고 있는 등 그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수, 건축계의 이벤트, 한국은행 현상설계, 1988년 1월호)



[그림 6-8] 한국은행 본관에서 보여지는 과거 요소의 차용 형태  
(출처 : 빌딩문화, 정성 D&M)

원정수가 ‘유기체적 건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기단, 몸체, 루프를 말하며 예를 든 미국 AT&T 빌딩은 필립존슨의 포스트모더니즘 대표작으로 꼽히는 건물이었다. 한국은행 별관의 형태에서도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징후가 뚜렷하다. 기단, 몸체, 루프의 뚜렷한 3단 구성이 눈에 들어오며 기단과 루프에는 단순화한 형태의 그리스식 오더가 빼곡했다. 이렇듯 과거 요소를 차용하는 수법은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디자인 방법이었지만,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포스트모더니즘 양식에 속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건축가 황일인은 자신에게 형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김수근을 꼽으며 이렇게 말한다.

*...그가 구사하던 형태조형에서 기능을 앞서 절대적 가치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경지를 보았습니다. 즉 기능이란.. 없어질 수도, 바뀌어 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바뀌어질 수 없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형태라는 것이지요...*

(황일인, 한국의 현대건축가론 : 황일인, 1988년 3월호)

‘경지’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황일인은 김수근의 영향을 평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는 김수근의 타계라는 당시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 1986년 김수근이 타계한 이후, 김수근을 거쳐간 수많은 동료와 제자들은 그를 그리워했으며 그러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당시 공간지들에 묻어난다.

[그림 6-9]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의 밸 들 중 김수근이 언급된 밸의 내용과 밸 수신자들을 보여준다. 링크의 굵기는 밸 발신, 수신 횟수에 비례한다. ‘개인적 관계’나 ‘전통’에 관한 밸플렉스가 주로 발산된 가운데 원정수, 승효상, 동정근, 배병길 등 설계사무소 ‘공간’에서 김수근과 함께 일했던 동료와 제자들의 이름이 눈에 띈다. 이렇듯 김수근을 추억하고 그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밸들은 김수근 사후 몇 년간, 주로 90년대 중반까지 집중돼서 발산된 후 점차 모습을 감춘다. ‘공간’지가 김수근에 의해 창간된 만큼 공간지에 실린 김수근에 관련된 기사와 그의 사후 추모 형식의 텍스트는 훨씬 더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한대로 작품 리뷰만을 통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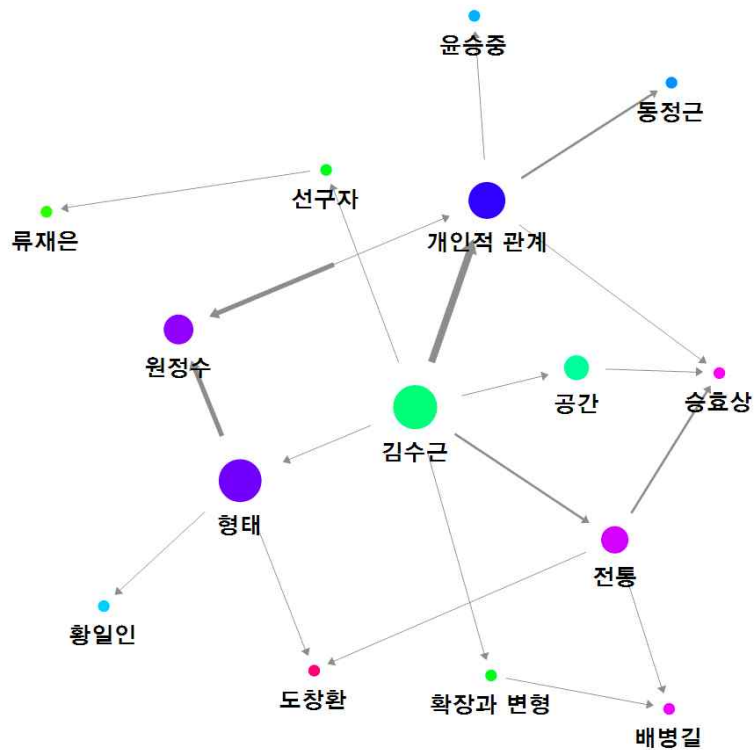
80년대와 9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는 세계 조류에 맞춰 다양한 사조들이 점차 국내 건축계에 유입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림 6-1]에서 보듯 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현상학, 장소성에 관한 밸들이 처음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로버트 벤추리의 이론대로 modern skeleton에 그대로 historic element를 액세서리로 사용해 버려도 그만이다. Context 자체를 옛것으로 한다거나 skeleton을 옛것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는 무의미한 것이다...*

(김기웅, 전주, 목포시청사 건축모형현상설계, 1982년 5월호)

*...베르나르 추미의 다이내믹한 해체이론... 등이 교차하면서 떠오른다...*

(도창환, 서초동 정원빌딩, 1989년 2월호)



[그림 6-9]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김수근을 중심으로 한 밈플렉스의 발신자들과 수신자들

...대지를 바라보고 그 곳에 어떠한 정서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3년전 가을녘이 생각난다...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둔 일관성 있는 "집 만들기" 작업이 자리잡을 수 있을까 되물곤 했다...루이스 칸이 묻던 "What the Building wants to be"에 이르자 많은 날을 원점에서 맴돌게 했다...

(조용식, 루이스 칸, 1992년 6월호)

또한 이 시기는 [그림 6-5]에서 볼 수 있듯 ‘공간’에 관한 밈플렉스가 점차 많아지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여전히 ‘형태’에 관한 밈들이 더 많이 발산되긴 했으나 이전 시기에 ‘공간’에 속한 밈이 하나도 발산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큰 변화였다.

...마치 옹거스가 그의 작품에 [집속의 집], [공간속의 공간]

을 연출하는 층화된(layering) 기법이 응용되었듯 집안에 들어서서도 외부공간에 서있는 듯한 묘한 중성적 공간감을 전달해 주고 있다...

...찰스무어의 주택작품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법은...좁은 공간속에서도 [다양한 시점]을 추구하는 건축을 한다는 점이다... (임창복, 철골구조에 의한 중성적 공간의 추구, 1992년 7월호)

...승효상의 건축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발견되는 공간의 시퀀스, 즉 건축과 공간의 문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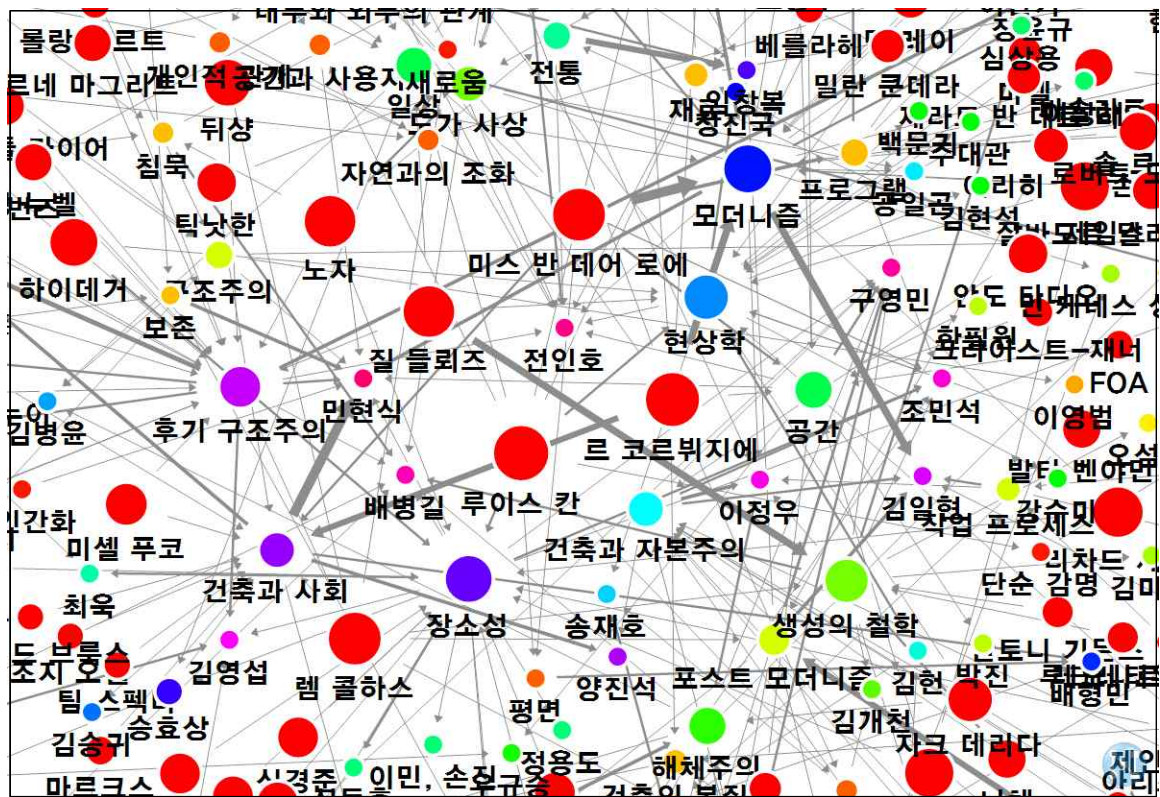
(전진삼, 학동 수졸당을 통해서 본 뿌리 깊은 건축의 메시지, 1993년 8월호)

80년대와 90년대 중반은 특히 이전 시기에 비해 밈 발신자와 수신자의 수, 밈 내용의 다양성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와 증가를 보여주었다. 서구의 다양한 이즘(-ism)이 유입이 되기 시작하였으나 한국성과 전통에 관한 관심도 같이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고, 김수근의 타계와 함께 그를 기리는 밈 수신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가 국내 건축계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공간’ 밈의 증가와 ‘현상학’, ‘장소성’ 밈플렉스 들의 출현은 점차 변화해 가는 국내 건축계의 조류를 느끼게 한다.

### (3) 1990년대 중, 후반과 2000년대

90년대 중반, 한국은 OECD에 가입하지만 바로 그 다음해 IMF체제에 접어든다. 평화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세기말을 지나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는 등 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앞만 보고 달려오며 성장했던 한국 사회는 90년대 중반 이후 이전에 볼 수 없던 많은 부침과 발전을 겪는다. IMF 체제 이후 경제계는 물론 건축계도 타의반 자의반으로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세계의 흐름에 동참해야 했으며, 건축 담론계에 있어서도 보다 더 많은 다양한 사조와 흐름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림 6-10]은 1990년대 중, 후반과 2000년대 밈들의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들을 연결시킨 네트워크의 중심부이다. 노드 사이즈는 크기와



[그림 6-10] 1990년대 중, 후반과 2000년대의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 연결 네트워크의 중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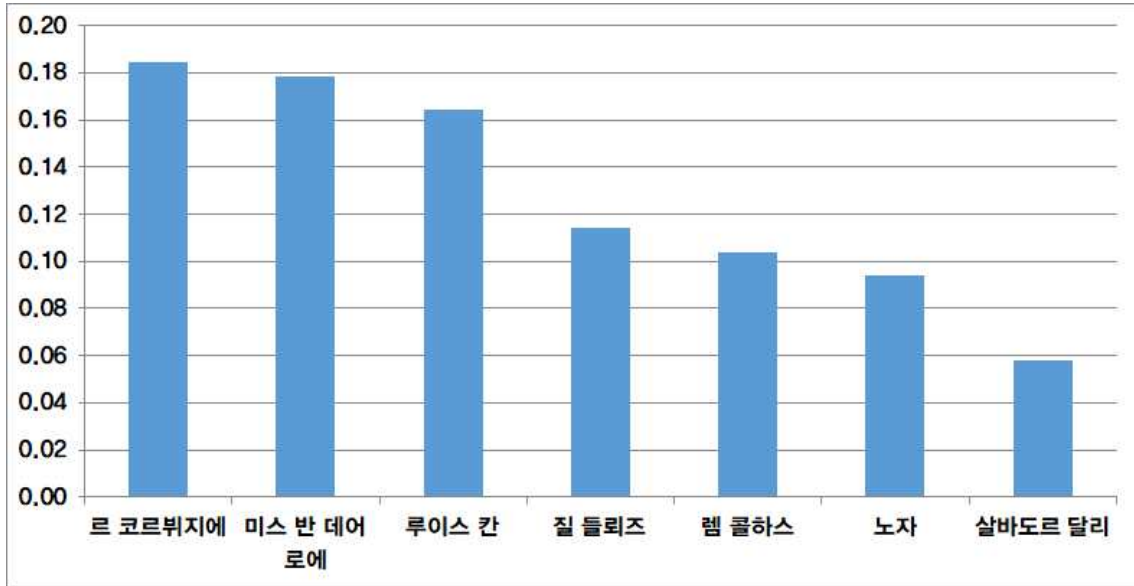
근접 연결성이 비례하며, 색깔은 보라색의 근접 연결성이 가장 크고 노란색으로 갈수록 색 스펙트럼을 따라 줄어든다. 화살표의 굵기는 인물과 밈 내용이 연결된 횟수에 비례한다. 이전 시대인 [그림 6-3]의 그래프보다 더 노드와 링크가 많아졌다.

[그림 6-11]은 1990년대 중, 후반과 2000년대의 주요 밈 발신자를 근접 중앙성이 높은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이전 시대처럼 르 코르뷔지에를 필두로 미스 반 데어 로에와 루이스 칸이 뒤를 잇는 가운데 질 들뢰즈, 램 콜하스, 노자의 출현이 눈에 띈다. 노자와 질 들뢰즈는 생성의 철학에 연계된 철학자들로서, 건축계의 주요 담론의 변화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전시대에 높은 수치를 기록하던 김수근과 김중업이라는 두 한국 현대 건축의 거장은 이제 더 이상 주요 밈 발신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램 콜하스는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건축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밈 분수로 그가 근대건축 거장들의 뒤를 이어 자리잡은 것



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의 밈이 처음 공간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98년이었다.



[그림 6-11] 1990년대 중, 후반과 2000년대 주요 밈 발신자 근접 중앙성

*...자유로운 단면의 시도로 새로운 공간에 접근을 시도하는  
렘 콜하스에게 찬사를 보낸다...*

(전인호, under 40, 1998년 5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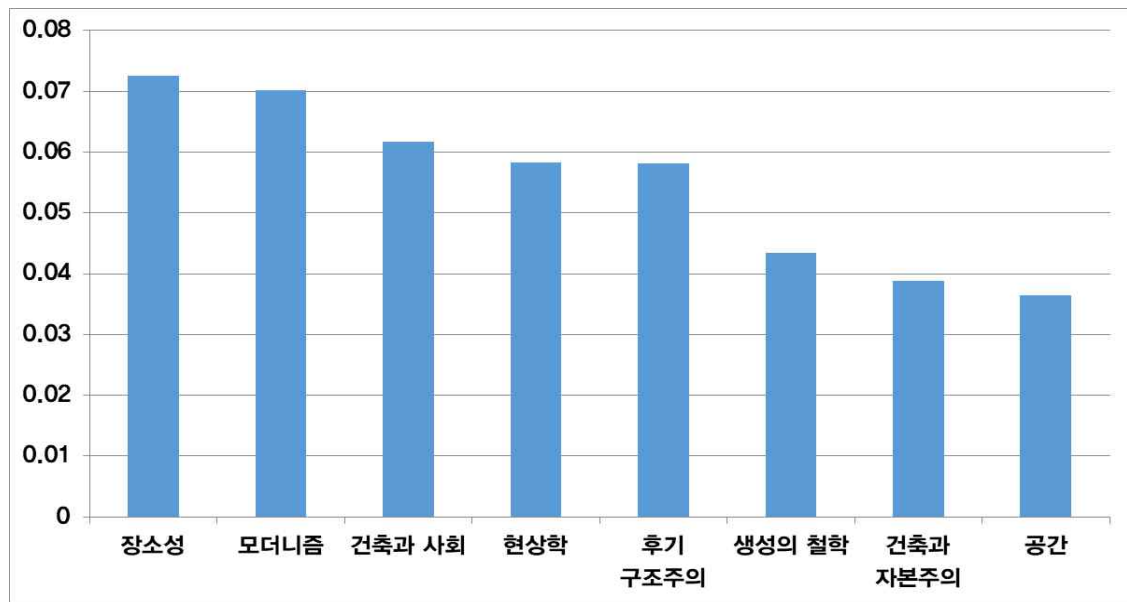
렘 콜하스에게선 특별한 쓸림 없이 다양한 종류의 밈들이 발산되었다. 교수 배형민은 그의 세계적 명성과 영향력에 대해 그 이유를 특유의 글쓰기로 평하는데, 3.1에서 설명했던 밈의 코드화, 텍스트화가 밈을 퍼뜨리는데 더 유리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렘 콜하스는 특유의 글쓰기를 통해 "고밀도의 문화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를 끌어안을 수 있었다. 그의 언어는 건축에 대한 언어인 동시에 건축을 생산하는 언어다. 그는 이론가 입장에서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처럼 세계적 대도시들을 배회하고 관찰하고, 동시에 실천가 입장에서 미*

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공상가이자 철저한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된 역할 놀이를 하면서 그는 세계적 명성을 얻었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배형민, 필연과 선택의 건축 언어, 2010년 1월호)

[그림 6-12]는 1990년대 중, 후반과 2000년대의 주요 밈플렉스 및 세부 밈들을 근접 중앙성이 높은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그림 6-12] 1990년대 중, 후반과 2000년대 주요 밈플렉스 및 세부 밈 근접 중앙성

‘장소성’ 밈플렉스가 가장 높은 근접 중앙성을 나타냈고 ‘모더니즘’, ‘건축과 사회’ 밈플렉스들이 뒤를 이었다. ‘모더니즘’ 밈플렉스가 다시 이전 시대보다 순위가 높아졌으며 [그림 6-5]에서 보이던 이전 시대의 주요 밈플렉스들 중에서 ‘모더니즘’과 ‘공간’ 밈플렉스를 제외하고 모든 밈플렉스들이 새롭게 바뀌어 이 시대가 이전 시대와 여러모로 변화가 많이 있었던 시대임을 보여준다. ‘전통’, ‘형태’, ‘개인적 관계’에 관한 밈플렉스 들은 주요 밈플렉스 리스트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전 시대들에선 ‘-ism’으로 대표되는 이론적, 철학적 담론들이 주요 밈플렉스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 시기에는 ‘현상학’, ‘후기 구조주의’, ‘생성의 철학’ 등 서구, 주로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생겨난 철학적 사조들이 물밀듯 들어오기 시작했다.

또한 동시에 ‘건축과 사회’와 ‘건축과 자본주의’ 밌플렉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해서 건축인들의 사유가 건축계 내부뿐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로 넓어지며, 동시에 점점 고도화 되어가는 자본, 상업과 건축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건축가 민현식은 승효상의 웰콤시티를 리뷰하며 르 코르뷔지에의 환경결정론을 상기시킨다.

*...이 집은 르 코르뷔지에의 구세군 [피난처 섬](Cit du Refuge, l' Arm e du Salut)과 유사한 태도의 사회공학적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다는 사상으로, 궁극적으로는... 환경결정론에까지 이르는 주장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민현식, 웰콤시티, 2000년 6월호)

그는 다른 밌 발신자들의 예를 들어 다시 환경결정론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장 아누이의 연극 '도둑들의 무도회'의 대사 한 토막을 들어보자 "어떤 질(質)의 공간은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한다."...*

(민현식, 민현식, 2001년 8월호)

양진석은 2000년대 초반 MBC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많이 얻어 한때 가장 유명세가 높은 건축가였다. 그는 우리나라 건축인들이 대중과의 소통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건축이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승효상의 웰콤시티... 나는.. 이를 '문화적인 건축'이라 표현하고 싶다. 나, 건축계, 대중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거의 전부*

그 작품에 공통적으로 찬사를 보낸다. 여기서 '공통적으로'라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계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즐기고 대화하고 논하는 것이다. 비로소 건축이 문화가 되어 있는 것이다...

...램 콜하스가 각종 도시 스케일의 건축을 선보이며 패션과 건축의 접점 속에서 대중문화를 얘기할 때... 문화마케팅으로서의 건축이 성립되는 것이다...

... 안도 타다오가 일본에서 가장 각광받는 건축가로 인식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의 작품세계만을 갖고 논해서는 안된다...그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경제와 문화적 논리에 착목해야 한다. 그가 추구하고 있는 노출콘크리트의 형태미학과 젠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그의 공간철학이 사회 전반의 문화흐름 현상과 조우되면서부터이다...그는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해왔고 그러한 결과에 대한 반응이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면서 그의 건축은 빛이 난 것이다...일본에서 그는 최고의 문화 마케팅 선구자인 것이다...

(양진석, 문화마케팅으로서의 건축, 2001년 10월호)

이 시대는 이처럼 대중들에게 조금씩 건축이 다른 예술 분야처럼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고 그 요인은 자본주의와 상업주의의 고도화와 맞물려 출현한 스타 건축인들과 작품들이었다. 세계적인 스타 건축가로 떠오르던 사람들에게는 프랭크 게리, 램 콜하스 등이 있었고 그들의 건축은 일종의 브랜드화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었다.

..."디자인 앤 크라임"에서 할 포스터는, 스펙터클이 돼버린 프랭크 게리의 건축을 '이미지가 자본이 되는 지점에서 축적되는 이미지'라고 정의내렸다...

(이정우, 딸기가 좋아, 2004년 7월호)

대중과의 소통뿐 아니라 건축물이 지어지는 주변 커뮤니티, 더 나아가 사회와의 소통과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인식도 함께 생겨나기 시작했다.

*..."서울대 미술관은 캠퍼스와 지역 사회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러한 연계는 건물의 형태 이면에 깔려 있는 결정적인 논리이다." 이 건물은 미술관이라 불리지만 프로그램이나 건립 취지에 있어서 르 코르뷔지에가 설계한 하버드대의 카뎀터센터와 같이 교육시설, 또는 커뮤니티 시설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배형민, 서울대 미술관, 2005년 12월호)

*"변호사는 자신의 클라이언트에 대해 충실하면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지만 건축가는 클라이언트 외에도 건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충실해야 하며 건물이 갖춰야 할 도덕적 측면에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 정당한 공공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건축가의 직업적 임무의 중심이다"-팀 스펙터*

(이필훈, 농촌 공공시설 재생과 활성을 위한 참여, 2006년 10월호)

설계 사무소 ‘mass studies’의 조민석은 서초동에 집합 주거건물인 ‘부띠크 모나코(Boutiques Monaco)’를 설계했는데, 모든 세대가 다 동일한 평면을 갖던 기존 집합 주거건물의 양식이 아닌, 각기 다른 평면을 가져 화제가 되었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며, 이러한 대량생산과 다양성의 조화를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의 프로슈머(Prosumer) 개념을 예를 들며 말을 한다.

*...1970년 앨빈 토플러가 그의 저서 "미래쇼크(Future Shock)"에서 미래의 역설적 결합의 하나로 예견한 '대량생산'과 '맞춤'의 결합은 이미.. 보편화되고 있다...이는 'producer +*

*consumer = prosumer'*라는 개념과 인과향을 이룬다...

(조민석, mass studies, 2005년 10월호)

교수 박길룡은 2000년대를 후기 구조주의가 앞세워진 ‘개념의 시장’이라고 표현하였다.<sup>103)</sup> 그만큼 이 시기는 수많은 이론, 사조와 담론들이 넘쳐나던 시기였다. [그림 6-1]을 보면 이 시기가 밈 개수에선 2010년대보다 적지만 그 종류의 가짓수에 있어선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5.2절에서 살펴보았듯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도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밈들이 발산되었다가 2010년대엔 그 유행이 사그러듬을 알 수 있다. 후기 구조주의가 다원성과 다양성을 뼈대로 하듯 전체적인 공간지에서 관찰되는 밈의 발산 흐름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 (4) 201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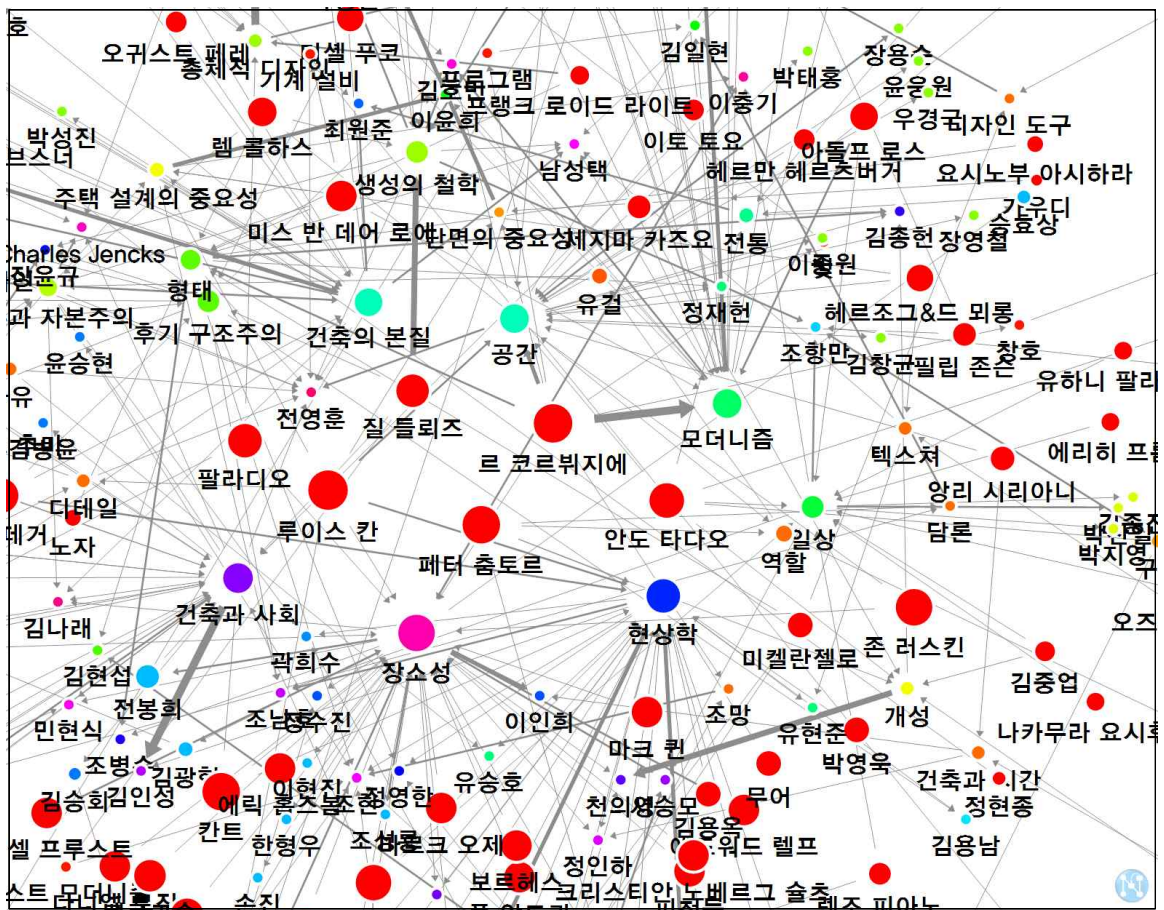
2010년대에 접어들며 한국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sup>104)</sup> 이제 더 이상 외국의 유행이나 사조를 따라가는데 이전시대만큼 급급해 하거나 열등감을 갖지 않게 되었다. 유행과 사조들의 다양성이 이전시대보다는 다소 잦아들고 그 빈자리를 자본 논리들이 메꾸게 된다. 형태와 이론에 대한 집착을 떠나 실제 사용자들의 삶을 충실히 도와주면서 경제적이지만 그 가운데 소박하고 서로의 차별성을 두는 방향으로 건축계의 디자인은 진화해 간다.

공간지에서 언급된 밈 발신자들의 면면과 텍스트의 양을 보아도 이전 어떤 시기보다 풍부함을 보인다. 앞서 살펴본 15년 단위의 어떤 단일 시기보다 2011년 이후 검출된 밈들의 양이 가장 많으며 밈 발신자들의 수도 가장 많다. 어떤 특정인물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은 영향력이 발산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와 인물들에게서 비교적 골고루 영향력이 발산되며 후기 구조주의의 다원적 특징을 보여준다.

103) 박길룡. (2015). 한국 현대건축 평전. 공간, p.322-377.

104) HIE OECD(OECD 고소득 회원국), DAC(OECD 개발원조위원회), CIA AE(CIA 월드팩트북에서 분류한 선진 경제국), IMF AE(IMF에서 분류한 선진 경제국), QoL30(EIU에서 평가한 삶의 질 상위 30개국), HDI VH(UNDP 인간개발지수 매우 높은 국가), CDI DC(CGD가 평가한 선진국), NBC30(뉴스위크에서 평가한 세계 최고의 국가 상위 30개국)에 한국은 모두 해당하며 이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 23개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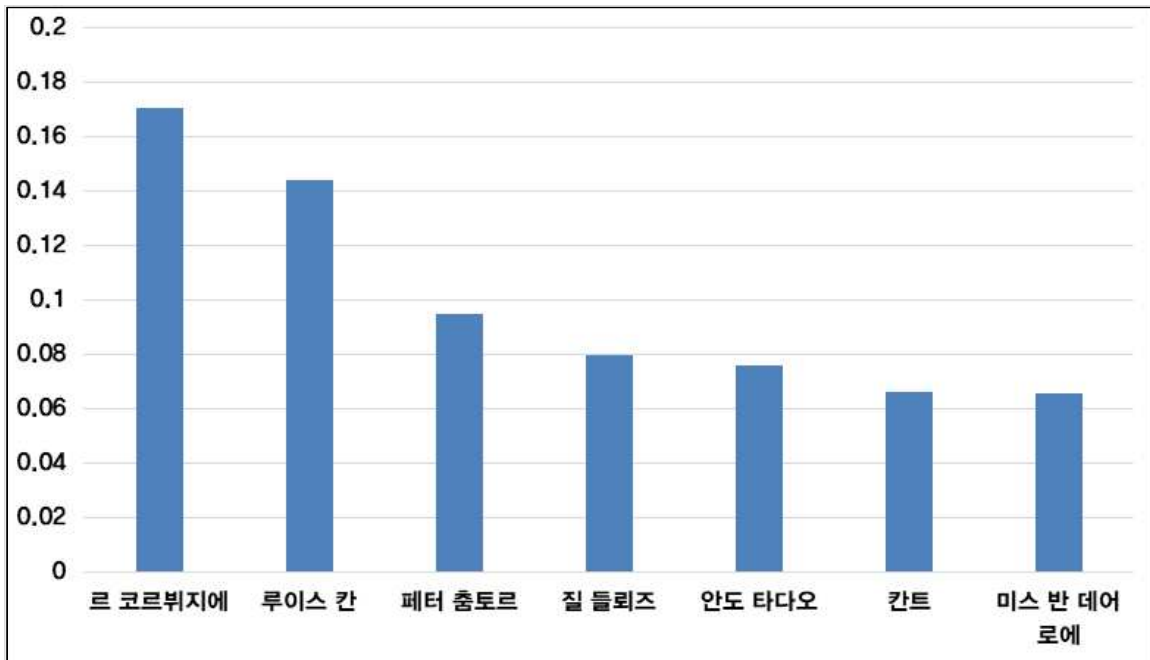
[그림 6-13]은 2010년대 밈들의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들을 연결시킨 네트워크의 중심부이다. 노드 사이즈는 크기와 근접 연결성이 비례하며, 색깔은 보라색의 근접 연결성이 가장 크고 노란색으로 갈수록 색 스펙트럼을 따라 줄어든다. 화살표의 굵기는 인물과 밈 내용이 연결된 횟수에 비례한다. 2010년대 7년 간의 네트워크임에도 불구하고 15년 단위의 이전 어느 단일 시대 기준 그래프들보다 더 노드와 링크가 많아졌다.



[그림 6-13] 2010년대의 밈 발신자, 수신자들과 밈 내용 연결 네트워크의 중심부

[그림 6-14]는 2010년대의 주요 밈 발신자를 근접 중앙성이 높은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여전히 르 코르뷔지에는 모더니즘의 대표 인물로써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며, 루이스 칸이 뒤를 잇고 있다. 유니버설 스페이스와 철과 유리로 대표되는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순위가 많이 밀려났으며 그 자리를 물성과 재료를 잘 쓰기로 유명한, 프리츠커 수상자인 페터 Zumthor

(Peter Zumthor)가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앞서 5.2.7에서 설명한대로 최근 건축의 흐름에서 현상학적 사유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축인들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14] 2010년대 주요 밈 발신자 근접 중앙성

페터 Zum토르의 밈이 처음 공간지에 나타난 것은 2012년이였다. 그런데 물성과 재료 등을 주제로 나타난게 아니라 건축가의 역할과 주체성에 관련된 것이였다. 이는 페터 Zum토르 자신이 유행 등에 휩쓸리지 않고 스위스에서 로컬 건축가로 오랫동안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있게 유지하다 뒤늦게 유명세를 탄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일부 건축가들은 여전히 주변의 변화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중요한 개념을 유지한다. 피터 Zum터가 대표적인 예다...*

(하니 라시드, 하니 라시드 : 새로운 미래에 대처하는 건축가의 자세, 2012년 11월호)

*...헐리우드의 유명 커플이 피터 Zum터에게 설계를 의뢰...건*



축가의 본질적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이름만 쫓아온 그들에게  
 줌터는 자신에 대해 알고 오라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렇게 다  
 시 돌아가 공부를 하고 돌아온 건축주에게 줌터의 건축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다...

(유결, 뜨거운 논란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 2012년 11월호)  
 그 후에도 그의 주체성과 관련된 밌들이 검출된다.

...그는 상업적 건축을 거부하며 브루더 클라우스 채플, 콜롬  
 바 뮤지엄, 희생당한 마녀들의 추념공간 등 비영리 목적의 건축  
 물만 수도승처럼 아주 독특하게 만들기도 한다...

(천의영, 융합과 변이의 건축적 유전자, 2014년 7월호)

그 외에 장소성과 물성 등을 언급할 때 페터 춤토르가 언급되었다.

페터 춤토르는... '경관 속의 건축'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건물을 계획할 때는 대지를 잘 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형에 변형을 가해야 한다면 원래 모습이 그런  
 것처럼 보여야 한다", "경관 속에 뭔가를 지을 때 건물의 자재  
 가 그 경관에서 역사적으로 자란 소재와 어우러지게 하는게 중  
 요하다. 지어진 건물의 물리적 성질이 그 지역의 물리적 성질과  
 동일한 울림을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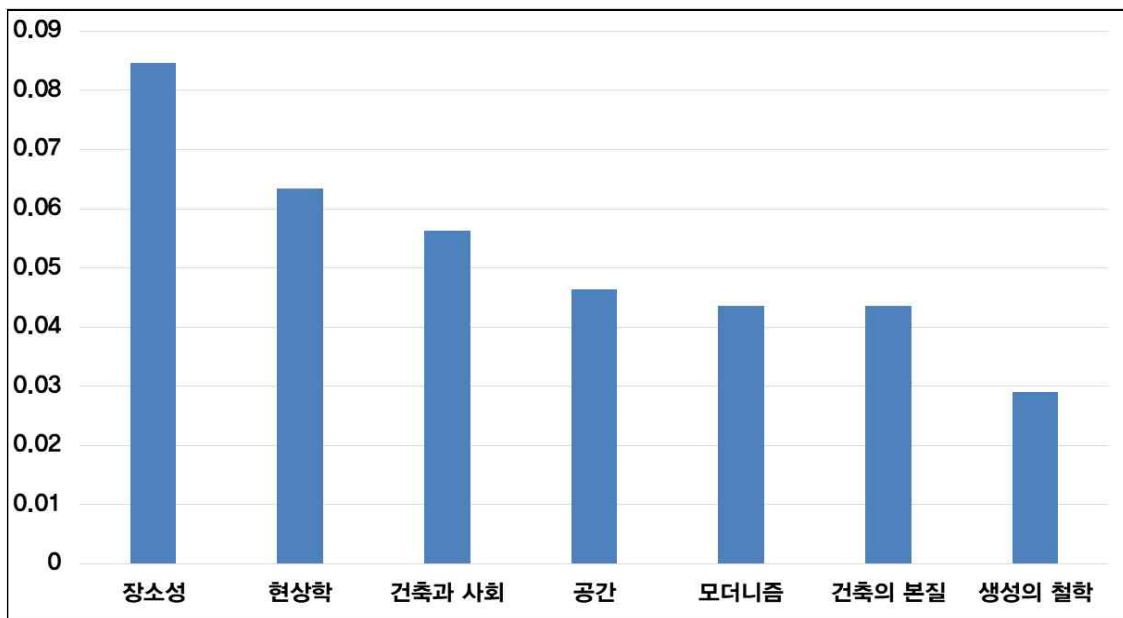
(김형준, 제주 베이힐폴앤빌라\_자기본위적 풍광편집, 2014년 4  
 월호)

...페터 춤토르나 헤르조그 드 뮈론의 시도와 같이 고유한 텍  
 스톱처를 만들고, 물성을 살리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유현준, 정제된 풍경, 조율된 관계, 2016년 7월호)

[그림 6-15]는 2010년대의 주요 밌플렉스 및 세부 밌들을 근접 중앙성  
 이 높은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이전 시대에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장소

성'과 '현상학'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더 높은 중앙성을 기록했으며 '건축과 사회'와 '모더니즘' 또한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제 '형태' 밈플렉스는 이전 시대에 이어 주요 밈플렉스 리스트에서 완전히 빠지고 그 자리를 '공간' 밈플렉스가 이전 시대에 이어 주요 리스트에서 자리를 차지함과 동시에 '건축의 본질'을 묻는 밈플렉스가 주요 리스트에 올라 달라진 한국 건축인들의 관심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15] 2010년대 주요 밈플렉스 및 세부 밈 근접 중앙성

2010년대 주요 밈플렉스 리스트에 새로 등장한 '건축의 본질' 밈플렉스는 건축이 예술 장르 중 하나로써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건축의 원형은 무엇인지 등을 사유하는 밈플렉스이다. 이전 시대에도 소수 나오긴 했으나 2010년대에 들어 훨씬 그 수가 많아진다.

18세기 프랑스 건축가이자 학자였던 마크 앙트완 로지에 (Marc-Antoine Laugier)는 원시 오두막을 설명하며 건축과 구축의 본질과 기원에 관해 말하는데, 이는 2010년대 한국 건축인들이 건축과 구축의 본질을 말할 때에도 여전히 인용되었다.

...18세기 마크 앙트완 로지에가 [건축에 관한 수상]에서 설

명한 원시 오두막의 개념으로 다가온다. 이 집의 전체적 구성상, 집 뒤편 숲에서 이어져 내려와 박공지붕으로 마무리된 기다란 건물은 그가 말하는 이상적 이미지와 연결된다...작가의 말에서 드러나는 불변성을 향한 열망.. 장식적 요소를 건물 구조 논리의 일부로 통합해 '구조와 장식 간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것'  
...

(프랑수아 블랑시악, 양평 펼친 집, 2013년 4월호)

... 마크 앙트완 로지에가 제시했던 원시오두막이 보여주듯 나무가, 본질적인 구조 요소들로 건축을 정의하고자 한 로지에에게는, 건축의 원형이기 때문이다...

(최원준, JHW 이로재 아키텍츠, 2017년 6월호)

...원시오두막은 본질적인 것으로 "질서가 부여되지 않은 모든 것이 제거된" 이상적 상태를 표상하며 영속적인 것을 본질로 주장하는 전통을 낳았다...

(남성택, 불완전함이라는 가능성:네임리스 건축, 2018년 4월호)

‘건축의 본질’ 밈플렉스에 속해있는 ‘건축의 예술성’이라는 세부 밈은 예술로서의 건축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다른 예술 장르들과 비교해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한 밈을 말한다. 출판인 박정현은 일반적인 ‘건물’과 예술적인 ‘작품’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논하기 위해 하이데거를 인용한다.

...주택이 작품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일종의 폐쇄회로가 작동해야 한다. 한갓 집과 구분되는 건축작품은 건축가가 만들고... 이때 건축은 거의 전적으로 건축 내적 가치로 평가받는다. 공간과 형태, 디테일의 완성도가 중요하다. 건축주의 취향은 억누를수록 유리하다. 담론적 체계로서의 '건축'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하이데거가 [예술작품의 기원]에서 말한 예술을 만

들어내는 순환논리와 닮았다...

(박정현, 바라움, 2013년 8월호)

이후 다양한 밈 수신자들에 의해 동일한 고민은 계속 이어진다.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은 예술이 아니다"라는 세네카의 말처럼 내부 의지와 분리되어 수동적으로 이뤄진 형태와 공간의 기계적 결합은 절대 건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박성진, 한남동 657-14 근린생활시설, 2014년 4월호)

...1918년 저술된 헤르만 쇠젤의 건축미학에는 흥미로운 질문들이 들어 있다. "셸링이.. 건축은 '조형의 경관'이나 '조형의 음악'이라고 말할 때, 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바그너가 '건축가는 본래 조형예술의 시인이다'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레오폴트 치글러가 건축을 무용에 비교하며 '고딕의 건축구조를 보면 그 안에서 건축은 춤을 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것을 더 이해하게 되는가?"...

(김영철, 율동하는 공간, 조형의 음악, 2014년 12월호)

...건축을 학습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교훈적으로 암기하는 내용이 있다. 니콜라스 페브스너가 정의한 '건축(architecture)'과 '건물(building)'의 비교이다. '건물'은 기능적인 완성도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건축'은 미학적 완성도를 부여해야 하며 감동을 주어야만 한다...

(박준호,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2016년 9월호)

"기술자는 만들어지지만, 건축가는 태어나는 것"-오귀스트 페레

(전영훈, 합리와 창의의 조율 : 디엠피, 2018년 1월호)

자본 논리가 점차 중요해져 가는 사회적 환경에서 건축가의 역할과 함께 ‘예술’로서의 건축 작품과 ‘경제적이며 기능을 충족하기만 하면 되는’ 적당한 구축체 사이의 타협점에 대한 고민이 커져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건축과 사회’ 밈플렉스의 일부를 봐도 알 수 있다.

*...야마모토 리켄은 "건축가는 건축 법규를 형태화하는 자동 번역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건축가는 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이 도시에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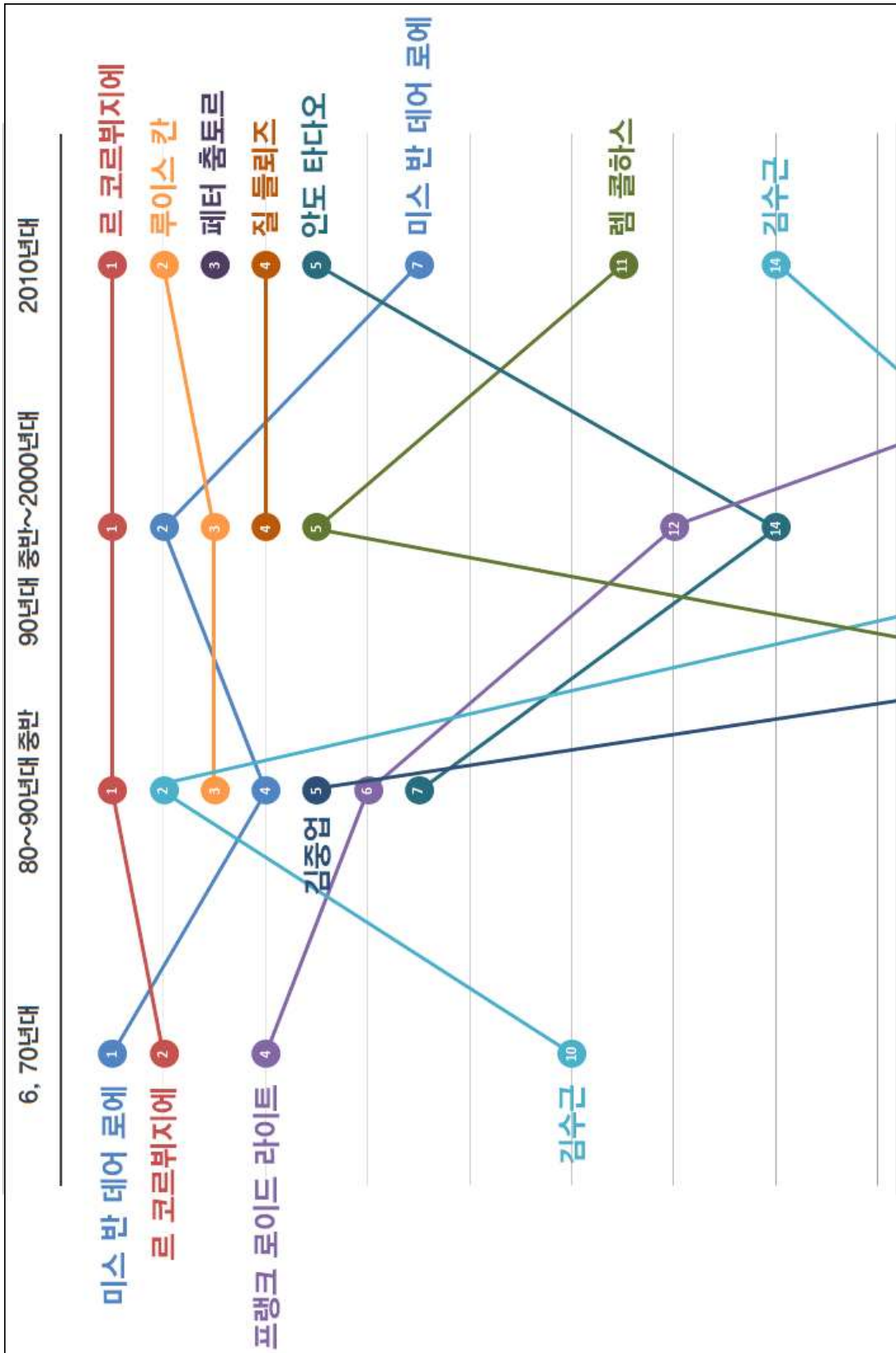
(사무소 효자동, C 프로젝트, 2011년 6월호)

이전 시대들이 서구의 다양한 사조들과 인물들을 소개하고 탐구해보느라 바빴던 시기였다면 2010년대는 밈 발신자들과 사조들의 종류가 다소 줄어들어 대신 보다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물음들 - 장소성, 지각, 감각, 예술성 등 - 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르 코르뷔지에와 루이스 칸 등 근현대 건축의 거장들의 강한 영향력은 오히려 이전시대에 비해 더 건재한 모습을 보였다.

### 6.1.2. 시대별 양상의 변화 추이

이제 앞 절에서 4가지 시대로 나누어 살펴 보았던 각각의 양상들의 변화 추이를 한 눈에 살펴볼 것이다. 먼저 각 시대에 강세를 보였던 주요 밈 발신자들의 변화 추이를 보면 [그림 6-16]과 같다.

근대 건축의 거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르 코르뷔지에, 미스 반 데어 로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보면 르 코르뷔지에에게서 단연 전 시대에 걸쳐 가장 많은 밈들이 발산되고 있으며 미스 반 데어 로에에게서 역시 르 코르뷔지에와 비슷하게 많은 밈들이 발산되었으나 2010년대 들어와서는 순위가 많이 밀렸다. 이는 5장에서 살펴본대로 현상학, 후기 구조주의와 같은 밈



[그림 6-16] 시대별 주요 밈 발신자들의 근접 중앙성 순위 변화

플렉스의 강세로 인해 균질함, 철과 유리로 대표되는 미스 반 데어 로에의 특질이 약화됐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같은 경우 6,70년대를 제외하고는 앞의 두 인물과 밈 발산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났으며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10위권 밖으로 쳐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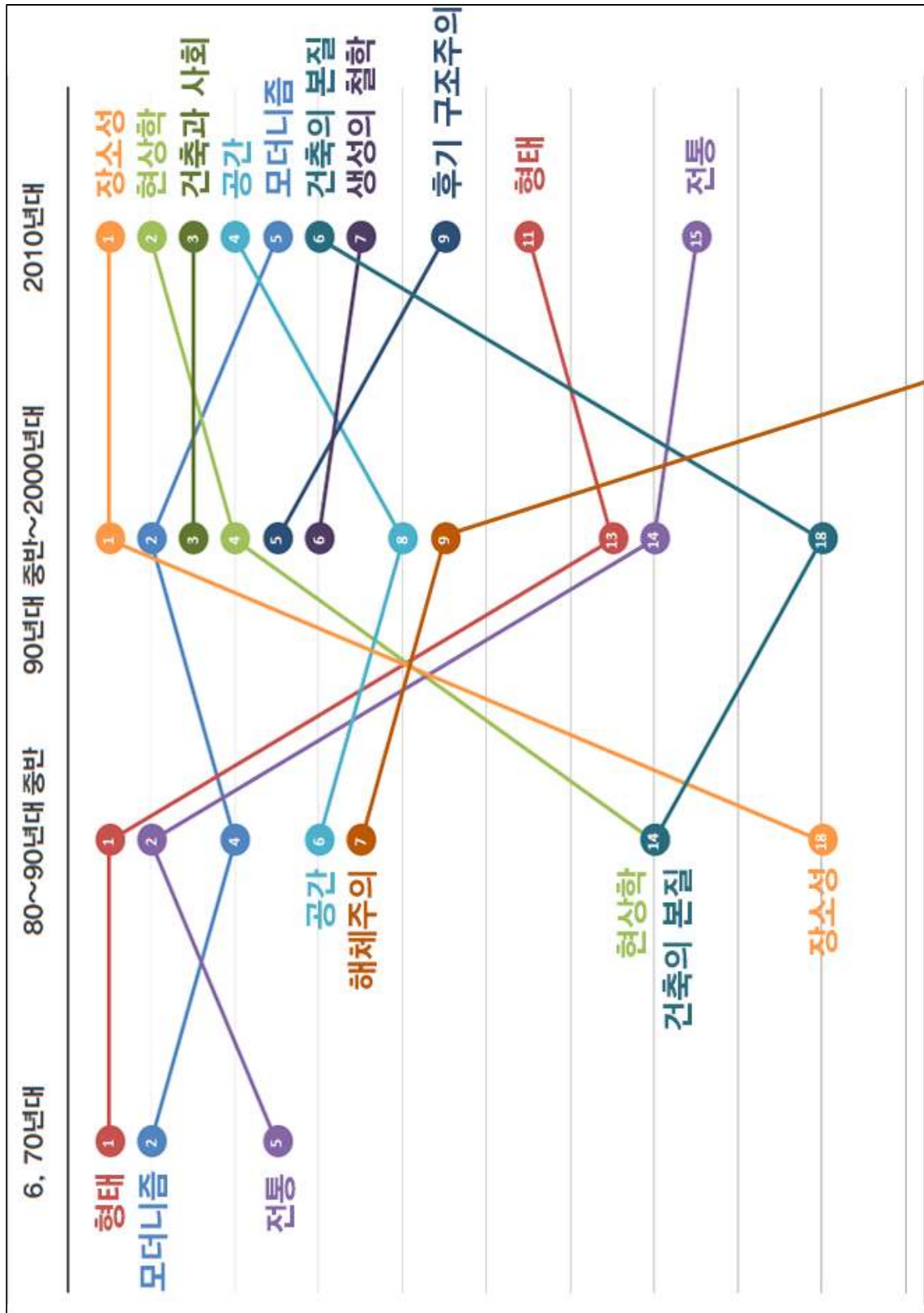
근대 건축의 거장이라 일컬어지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보다 오히려 훨씬 많은 밈들이 발산되며 르 코르뷔지에와 미스 반 데어 로에와 어깨를 나란히 한 인물은 루이스 칸이었다. 루이스 칸은 1974년 사망 이후 80년대 이후 밈들이 공간지에서 포착되기 시작했으며 2010년대 최근까지도 계속 상위 3위 안에 들 정도로 많은 밈들이 그로부터 발산되고 있다.

한편, 한국 현대 건축의 두 거목으로 일컬어지는 김수근과 김중업의 경우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 두 인물의 밈들이 많이 발산되었다. 특히 김수근은 1986년 사망 이후 그를 기리는 동료와 제자 건축가들의 언급으로 인해 르 코르뷔지에에 이어 두 번째로 밈들이 많이 포착되었다. 그러나 두 인물 모두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밈들이 급격히 감소되어 밈 발산 상위권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전 시대를 살펴볼 때 김수근의 밈들이 김중업보다 많이 포착되었다.

6,70년대에는 근대 건축의 거장들과 김수근이 주요 밈 발신자들이었지만 80년대~90년대 중반에 해외의 많은 밈 발신자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 중 상위권에 머무른 대표적인 인물들은 일본의 안도 타다오와 네덜란드의 렘 콜하스였다. 또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에는 건축계에 유행하기 시작한 후기 구조주의와 생성의 철학과 맞물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의 밈들이 많이 발산되기 시작하였다. 이 또한 1995년 그의 사후부터 밈들이 포착되기 시작하였으며 쟁쟁한 건축인들을 제치고 90년대 중반부터 최근인 2010년대까지 4위에 해당하는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밈 내용에 해당하는 밈플렉스의 시대별 변화 추이는 [그림 6-17]과 같다. 전 시대에 걸쳐 ‘모더니즘’ 밈플렉스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2010년대 들어와 5위로 조금 낮은 순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다른 밈플렉스들이 시대에 따른 순위변동이 심했음을 고려해보면 전반적으로 한국 건축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론적 사조는 ‘모더니즘’이라 할 수 있다.

‘전통’ 밈플렉스는 90년대 중반까지 강했으나 그 이후로는 급격히 순위



[그림 6-17] 시대별 주요 민플렉스들의 근접 중앙성 순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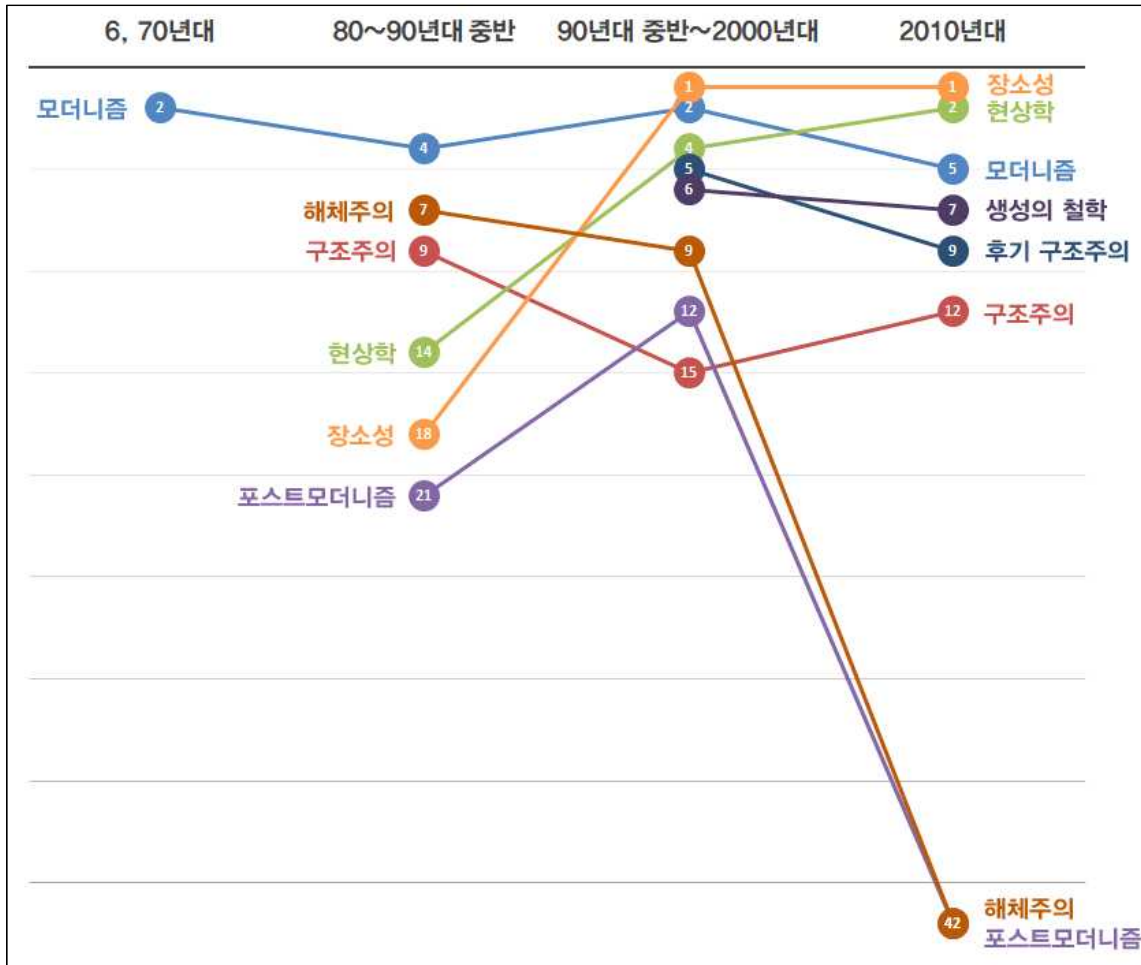
가 떨어졌으며 ‘형태’ 밈플렉스도 ‘전통’ 밈플렉스와 유사한 변화 추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공간’ 밈플렉스는 80년대 등장 이후 2010년대까지 계속해서 상위권에 머물러 형태에서 공간으로 옮겨진 건축인들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과 사회’ 밈플렉스도 90년대 중반 등장 이후 2010년대까지 계속해서 3위에 랭크되어 사회적 문제를 건축의 참여로 개선하려는 건축인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18]은 5.2절에서 다루었던 주요 이론과 철학 사조들의 순위 변화만을 표시한 것이다. ‘모더니즘’ 밈플렉스가 전시대를 통틀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80~90년대 중반에 여러 가지 이론과 철학 사조들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 보인다. 80~90년대 중반에는 새롭게 등장한 이론과 철학 사조들 가운데 ‘해체주의’ 밈플렉스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나 2010년대 들어와서는 급격히 순위가 떨어졌으며, 내용적으로 비슷한 성격을 갖는 ‘포스트모더니즘’ 밈플렉스 역시 2010년대 들어와 ‘해체주의’와 함께 급격히 순위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80~90년대 중반에 낮은 순위를 차지했던 ‘현상학’과 ‘장소성’ 밈플렉스는 90년대 중반부터 순위가 급격히 올라 2010년대에 들어서면 ‘모더니즘’ 밈플렉스를 앞서며 가장 지배력이 높은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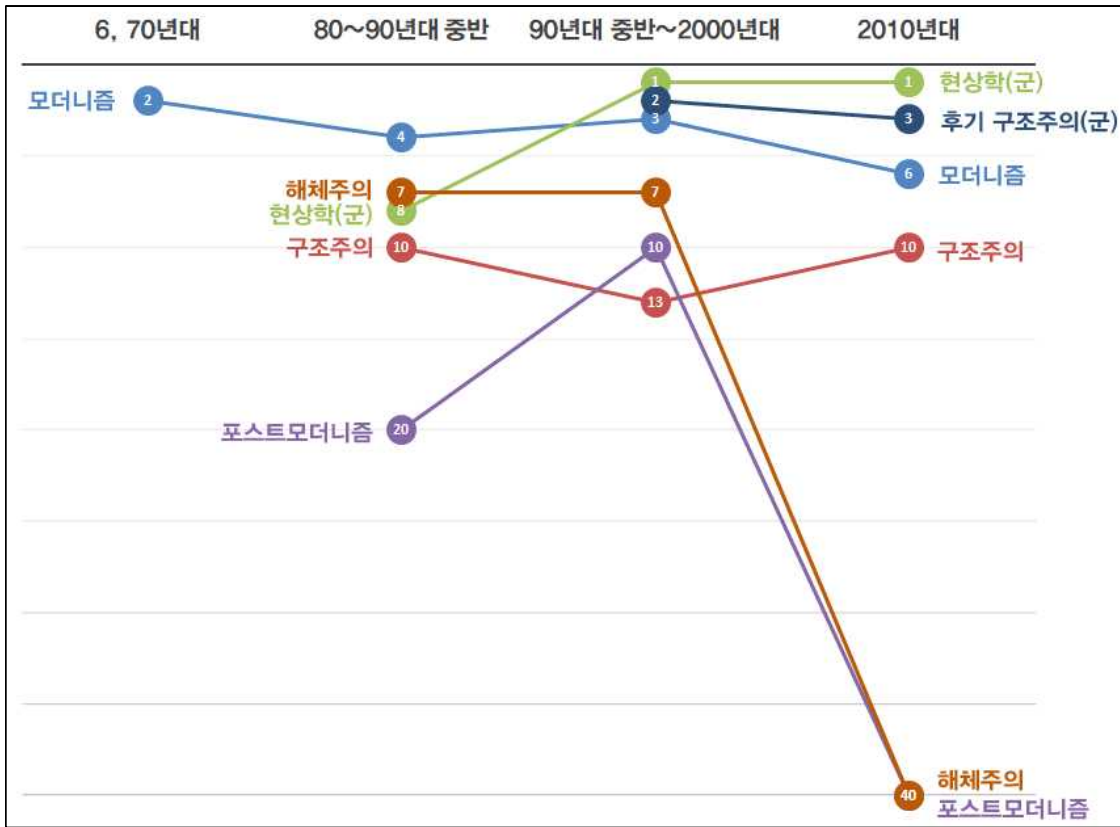
한편 ‘질 들뢰즈’와 ‘미셸 푸코’등으로 대표되는 ‘생성의 철학’과 ‘후기 구조주의’는 90년대 중반에 중위권 정도의 순위로 출현해 2010년대까지도 비슷한 순위를 보인다. 5.2.4절에서 언급했다시피 ‘장소성’ 밈플렉스와 ‘일상’ 밈플렉스의 일부는 내용의 성격상 현상학에 포함될 수 있으며, 질 들뢰즈를 중심으로 한 ‘생성의 철학’ 역시 연구자에 따라서는 ‘후기 구조주의’에 포섭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 ‘장소성’과 ‘일상’ 밈플렉스의 일부를 ‘현상학’으로, ‘생성의 철학’ 밈플렉스를 ‘후기 구조주의’에 포함시킨 후 다시 순위를 내보면 [그림 6-19]와 같다.

현상학(군)의 경우 80년대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해체주의’와 거의 비슷한 영향력을 보였지만 이내 90년대 중반부터 가장 강한 영향력을 차지하게 된다. 후기 구조주의는 주요 이론, 철학 담론 중 가장 늦게 90년대 중반에서야 모습을 드러냈지만 처음부터 현상학의 뒤를 이어서, 모더니즘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2010년대까지 계속해서 매우 강한 강세를 보인다.

즉, 최근으로 올수록 감성, 현상적 모습과 다원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흐름이 강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18] 시대별 주요 이론, 철학 밈플렉스들의 근접 중앙성 순위 변화



[그림 6-19] 현상학과 후기 구조주의 밈플렉스의 재조정 이후 순위 변화

## 6.2. 기존 역사 연구들의 검증을 통한 효용성 고찰

본 절에서는 6.1절의 시대별 분석이 기존 역사 연구에서 제시됐던 시대별 상황과 얼마나 비슷하고 다른지 비교해볼 것이다. 비슷할수록 이는 본 연구의 밈 이론 기반 분석법이 기존 연구들의 정성적인 서술들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검증했다는 뜻이 되며 이를 통해 밈 이론 기반 텍스트 분석법의 효용성이 검증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 현대 건축사의 전반적인 연구가 담긴 서적과 문헌들을 살펴보았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단행본을 비교 대상의 연구 발췌 문헌으로 삼기로 했다.

- 박길룡. (2015). 한국 현대건축 평전. 공간서가.
- 대한건축학회. (2014). 한국건축통사. 대한건축학회.
- 임석재. (2013). 한국 현대건축의 지평 2권(건물비평). 인물과 사상사.
- 배형민 외. (2014). 전환기의 한국 건축과 4.3 그룹. 집.

본 문헌들을 선택하게 된 이유로는, 1. 한국의 60년대부터 최근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현대건축 역사와 비평이 실려야 했다는 점과, 2. 정확한 시대상의 반영을 위해 신진 연구자들의 논문이 아닌 기성 연구자들과 건축가들의 경험이 담겨야 한다는 점이였다.

교수 박길룡의 ‘한국 현대건축 평전’은 공간지에 연재하던 글들을 모은 책인데 해방 후부터 2010년대까지의 한국 현대건축사가 담겨있어 시대의 범위가 넓으며 작품과 인물들에 대한 언급도 풍부하여 텍스트의 양도 가장 많았다.

대한건축학회에서 출간된 ‘한국건축통사’는 여러 기성연구자들의 연구를 모은 것으로, 선사시대부터 최근까지를 다룬 연구들이 담겨있어 ‘한국 현대건축 평전’보다도 시대의 범위는 훨씬 넓다. 하지만 해방 후의 현대건축만을 보면 ‘한국 현대건축 평전’보다 분량은 많이 적다.

교수 임석재는 연구와 간행물의 다작으로 유명한 기성 연구자이며, ‘한국 현대건축의 지평 2권(건물비평)’은 주로 90년대와 2000년대의 한국 건축의 경향과 양상들을 연구가자 지정한 건물들을 중심으로 비평하며 다룬

책이다.

교수 배형민 외의 다양한 연구자들이 함께 글을 모아 펴낸 ‘전환기의 한국 건축과 4.3 그룹’은 1990년 결성된 당시 젊은 건축가들의 모임인 4.3그룹을 중심으로 주로 1990년대 한국 건축의 모습이 담긴 책인데 마지막 두 권들은 앞선 두 권들과 달리 80년대 이전의 모습과 최근인 2010년대의 모습이 담기지 않은 점이 아쉽다.

다음 표는 상기 책들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시대별로 정리한 후 5장 및 6.1절의 결과들과 비교해본 것이다. 먼저 60년대와 70년대에 언급된 내용들과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통한 검증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1]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대해 언급됐던 시대상

서적 명칭	항목	내용	검증 여부
한국 현대건축 평전	1	공간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빈곤하며.. 이에 비해 형태에 집착이 강하나.. (p.52) 형태에 몰두하는 조형주의는...(p.61) 확실히 70년대 한국 건축의 주제는 형태에서 공간으로 확대되는 경향은 분명하다 (p.221)	O
	2	1970년대 후반 즈음, 한국에도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당장 결별할 것 같은 기세로 다가온다. (p.236)	X
	3	1950년도 이후 한국 현대건축의 연보를 그려보면 1970년대가 유난히 공백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본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한국의 건축이 건설 드라이브라는 가치에 젖다가 잃은 시간이다. (p.208)	△
	4	정인국은 여러 매체를 이용해 ‘건축에 있어서 로컬리티 locality’ 를 강변한다. (p.134)	O
한국 현대건축의 지평	5	적어도 1970년대까지 한국 건축에서 역사 선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워져야 할 대상이었다. 물론 ...중요한 전통 논의들이 있었지만.. 일부에 국한되었으며 그 결과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유는...당시 사회 분위기는 서양 것을 좇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서... 사회적 반응을 불러일	O

	으키지 못하고.. (p.252)	
--	-------------------	--

60~70년대에 관한 서술들 중 본 연구와 관련된 언급은 네 권의 책들 중 ‘한국 현대건축 평전’과 ‘한국 현대건축의 지평’에서만 얻을 수 있었다.

1번은 공간과 형태에 관한 언급으로 공통적으로 이 시대에 공간보다 형태에 건축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그림 6-17]에도 뚜렷이 나타나있듯 심지어 90년대 중반까지도 ‘형태’ 밈플렉스가 강세를 나타내다 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순위가 하락하며 ‘공간’ 밈플렉스와 순위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번은 국내의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언급이다. 저자는 70년대 후반부터 ‘당장 결별할 것 같은 기세로’ 포스트모더니즘이 국내에 상륙했다고 하지만 본 연구의 관찰 분석 결과로는 [그림 6-18]에 나와있듯 ‘포스트모더니즘’ 밈플렉스는 80년대 이후에야 처음 등장한다.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이 현상은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주로 작품 리뷰들이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건축가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론 이야기와 작품이 따로 논다는 것이다.<sup>105)</sup> 다른 가능성으로는, 조사 대상의 텍스트 수의 절대적인 부족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4.1에 나온 것처럼, 60~70년대의 포착된 밈의 전체 수는 30여개 남짓으로 그 수가 적어 ‘모더니즘’과 ‘전통’과 같이 그나마 수가 많은 사조들의 경우 조심스럽게 경향을 포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조들 같은 경우는 경향을 단정하기 어렵다.

3번은 [그림 6-1]에 나와 있듯 70년대의 밈들이 거의 포착되지 않은 점과 합치되어 보인다. 하지만 공간지와 건축 리뷰의 성격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간지는 80년대 중반 이전까지 건축 잡지라기보다 종합 예술지로써의 성격이 더 강하였다. 따라서 건축에 관한 내용은 미술, 연극, 음악과 같은 예술 분야와 동일한 분량으로 적게 배분되었으며, 그

105) “일부 건축가들 입에서 탈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작품과 대조해보면 ‘이론 따로 건물 따로’다. 탈모더니즘은 이 시대 지식인으로 행세하기 위해 암송하는 겉치레 상식이고 실제 작품은 모더니즘의 틀 안에 강하게 매여 있다. 불일치다.” - 임석재. (2013). 한국 현대 건축의 지평 2권. 인물과 사상사, p.340.

나마 실려있는 기사들도 주로 사진과 도면으로 채워졌으며, 건축 이론이나 사조를 언급한 리뷰는 거의 없었다.

4번은 건축가 겸 교수 ‘정인국’에 관한 언급으로, 그가 localty, 즉 지역성에 관심이 많았다고 언급되었는데, 실제로 그는 ‘전통의 현대화’와 관련된 언급을 하였다.

*"건축표현에서 이조, 고려, 신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 그것은 현대에서 작업하는 건축가들 전체에 대한 모독인 동시에 아름다운 가치있는 유산을 남겨준 선조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모든 잡념을 떨궈 버리는 공백상태에서 새로 시작해보자"*

(정인국, 극장문화와 국립극장, 1975년 3월호)

‘정인국’에 의해 발산된 밈은 두 건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상기 서술된 ‘전통의 현대화’와 관련된 밈이었다. 당시의 다른 출처를 이용한 더 많은 텍스트를 살펴보았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5번 역시 ‘전통’ 밈플렉스에 관한 내용인데, 70년대가 ‘전통’보다는 서양의 것들을 더 추구하는 시대였다는 언급이다. 이 역시 [그림 6-17]에 나와있듯이, 모더니즘이 우세를 점하던 시기였고, 전통은 5위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합치된다 할 수 있다.

[표 6-2]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중반에 대해 언급됐던 시대상

서적 명칭	항목	내용	검증 여부
한국 현대건축 평전	1	70년대 이후 한국 건축은 형태에서 관심의 초점을 옮긴다. 건축은 점차 어떻게 채우는가보다 어떻게 비우는가에 흥미를 느낀다. (p.148)	△
	2	김수근성(性)은 것처럼 이 시대 문화를 깨우려는 강석원, 민현식, 이종호, 유걸, 승효상, 김종규 등의 김수근문화상 수상자들이 그의 주변에 있다 (p.125) 김중업과 김수근 두 사람의 긴 그림자는 한국의 모더니즘이 건	○

		는 들판에서 귀중한 방향 표지가 된다. (p.126)	
	3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술은 민중미술의 한 유파를 형성하고 사회학은 민중사관의 민족주의적 발걸음을 내딛는다. (p.174) 87년 ‘청년건축인협의회’는 ...민족과 민중의 가치를 우선하고 이를 도시와 주거와 건축 등에 실천할 것을 천명한다. (p.175)	○
	4	한국에서는 1990년대가 되어서야 포스트모더니즘의 원본을 본다. (p.239) 건축이 모더니즘에서 벗어나.. 형태의 감각에 탐닉한다..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의 건축은 심미에 탐닉하면서 화장술이 늘고, 수다스럽게 된다. (p.249)	△
한국 현대건축 의 지평	5	90년대는 다양한 실험을 시도 (p.5)	○
	6	전통.. 1990년대 한국 사회.. 새로운 민족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사회의 보편적 풍조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p.253)	○
전환기의 한국건축 과 4.3그룹	7	90년대로의 진입기는 80년대에 걸쳐 다방면에서 농축된 변화의 움직임들이 응집해 우리 사회의 일대 전환을 이끌어낸 시기였다. 군부독재 체제가 청산되고 올림픽 개최와 해외여행 자유화로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사유와 가치의 체계가 분화되었으며, 수년간 계속된 높은 경제성장률은 두터운 중산층을 형성하면서 본격적인 대중문화의 장을 여는 기반을 마련했다. 건축적으로는...전통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해외양식의 유입으로 건축적 가치의 혼란을 겪던 터였다. (p.94) 80년대 이후 작가주의적 담론, 혹은 건축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담론이 활성화된 배경을 살펴보려면, 당시 매체 환경의 변화를 빼놓을 수 없다. 80년대에 이르러 건축 전문지의 증가 및 활성화와 이를 통한 건축가의 발언 기회가 확대되었으며...(p.113)	○
	8	80년대에 유행한 포스트모더니즘은 굳건한 이론과 이념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형태모방일 뿐이기에 오히려 천착해야 할 것은 모더니즘과 근대건축이라는 인식은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p.40)	○
한국건축	9	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모더니즘 건축의 획일성에서 탈피하려	○



		는 노력이 보편화되어갔다. (p.673)	
	10	당시 벌어졌던 논란에 비해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이 구현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p.691)	0
통사	11	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어 국가적으로 우리 전통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세상에 알리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전통건축에 대한 관심도 심화되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p.673) 1980년대 이후 한국성에 대한 논의는 이전과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p.696)	0
	12	우리나라에서 포스트모더니즘...1980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과거의 현존-금지의 철폐”란 전시를 주도해 포스트모더니즘을 사회의 주된 이슈로 만들어낼즈음 시작되었다. 김기웅은 전주시청사와 독립기념관을 통해 전통건축이 갖고 있는 지붕이나 성벽, 아치 등의 형태상의 스케일의 변화를 통해 전체 건물의 형태적 변화를 추구했다. (p.691)	0

[표 6-2]에서 보는대로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에 대한 언급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많은 수를 보였다.

1번 항목은 이전 시대와 달리 ‘형태’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공간’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언급하는데, [그림 6-17]을 보면 여전히 ‘형태’ 밈플렉스가 가장 많이 발산되고 있지만 ‘공간’ 밈플렉스가 6위를 기록하며 비교적 상위권에 랭크되며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여전히 ‘형태’에 대한 관심이 더 크긴 하나 ‘공간’에 대한 관심도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언급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번 항목은 김수근과 김중업이라는 두 거장의 영향력을 언급하고 있다. [그림 6-16]을 보면 실제로 그 어느 시대보다 김수근과 김중업의 영향력이 가장 높으며, 이 시대의 모든 인물들 중 김수근은 근접 중앙성이 2위, 김중업은 5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한다. 또한 김수근의 주변에 있는 인물로 언급한 사람들 중 [그림 6-9]를 보면 승효상이 함께 나와있으며 다른 시대를 통틀어봤을 때 김수근의 밈을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 역시 승효상이었

다.

3, 6, 11번 항목들은 공통적으로 이 시대가 전통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았음을 말하고 있다. 이 점 역시 [그림 6-17]을 보면 잘 드러나는데, 이 시대의 ‘전통’ 밈플렉스가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시대의 다른 모든 밈플렉스들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4, 8, 10, 12번 항목들은 이 시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력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림 6-18]을 보면 이 시대에 처음으로 ‘포스트모더니즘’ 밈플렉스가 포착되었다. 그만큼 영향력의 확산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뜻으로 4번 항목이 합치되는 듯 하나 건축이 형태적 감각에 탐닉하며 화장술로 수다스러워진다는 언급은 [그림 6-17]에서 보이는 ‘포스트모더니즘’ 밈플렉스의 약한 영향력과 다소 불합치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책에 언급된 8번과 10번 항목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실제로는 모더니즘에 여전히 지배당하고 있으며 정작 건축물로 구현된 것은 많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건축물의 리뷰를 대상으로 밈들이 조사됐다는 것을 감안할 때 ‘포스트모더니즘’ 밈플렉스의 영향력이 약했던 관찰결과와 합치된다.

5, 7, 9번 항목들은 이전 시대에 거의 모더니즘밖에 없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 시대에 다양한 사조와 담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 현상 역시 [그림 6-18]을 보면 잘 나타나있는데, 이 시대에 ‘해체주의’, ‘구조주의’, ‘장소성’, ‘현상학’, ‘포스트모더니즘’ 밈플렉스들이 모두 새롭게 등장하였다.

마지막으로 12번 항목은 건축가 김기웅의 언급에 관한 것인데, 전주시청사와 독립기념관을 언급하며 김기웅이 설계한 건축물이 과거 요소의 차용을 이용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력을 받았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본 논문에서 조사한 700여개의 밈들 중 건축가 김기웅이 수신한 밈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포스트모더니즘’ 밈플렉스에 속하며 밈의 내용 역시 표에 언급된 대로 전주시청사와 과거 요소의 차용을 이용한 포스트모더니즘을 말하고 있다.

...로버트 벤추리의 이론대로 *modern skeleton*에 그대로 *historic element*를 액세서리로 사용해 버려도 그만이다. *Context* 자체를 옛것으로 한다거나 *skeleton*을 옛것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는 무의미한 것이다...

(김기웅, 전주, 목포시청사 건축모형현상설계, 1982년 5월호)

[표 6-3]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전체까지의 한국 건축계에 대한 언급을 정리한 표이다.

[표 6-3] 1990년대 중,후반과 2000년대에 대해 언급됐던 시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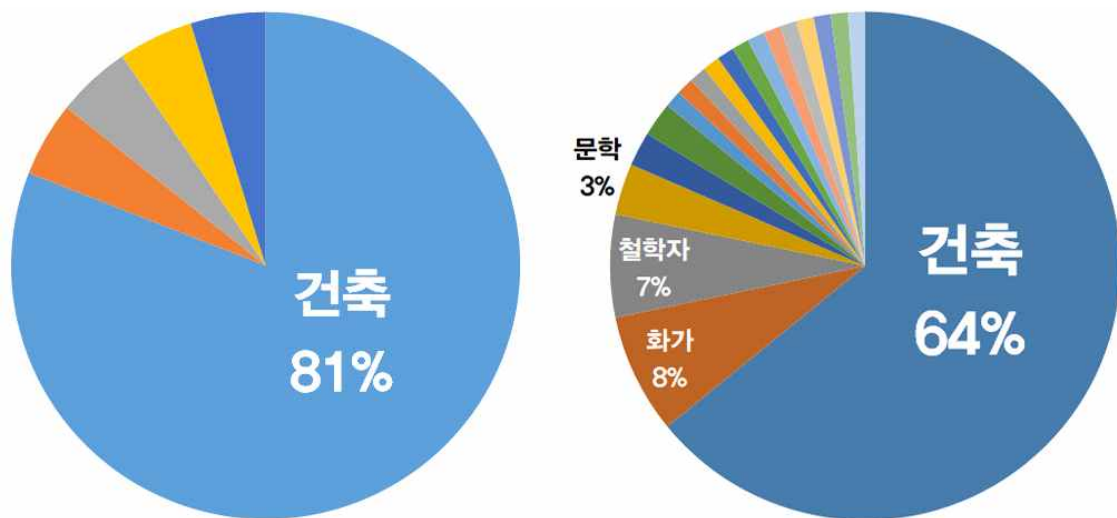
서적 명칭	항목	내용	검증 여부
한국 현대건축 평전	1	이제의 건축 상황을 개념의 소매시장이라고 하겠다. 장르가 무색해지고 건축도 영화와 미술과 과학을 넘나들며 박물관적으로 해박해진다.(p.261) 건축은 이웃의 예술, 인문사회, 언어학, 철학 등의 경계가 번지며..(p.267) 이 책의 처음 부분인 60년대에 비해 한국의 건축가들이 얼마나 더 지적으로 성장했는가는 측량해 볼 필요조차 없다.(p.291) 세계 문화가 포스트구조주의의 장을 들추면서 우리의 젊은 건축가들도 언변이 윤택해진다....현대 건축은 예술과 철학 사이에서 많은 언질을 받았다. (p.329) 20세기 후기의 이 세대는 곧잘 미술, 영화, 문학을 원용한다. 이제 예술이 경계를 섞는 것은 보편적 사실이 되었다.(p.352) 현대 건축은 언어학, 심리학, 수학, 물리학에 더 가까이 간다 (p.353)	○
	2	건축의 사회참여라는 전선戰線을 형성한 이들 세대는 곧 건축적 사유의 세계를 열었다... '더 이상 형태가 건축의 주제가 되지 못한다' 는 뜻이 조형주의에서 일탈한다. (p.264) 건축이 프로그램을 부유하게 하며, 텍토닉한 사실이 되며, 구조를 일탈하면서, 자연히 건축의 목적이 조형에 있지 않다고 한다. 형태에 대한 회의 다음에 끌어안게 되는 것이 공간이다. (p.351)	○
	3	건축가의 사회참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는 오랜만이	○

		다. (p.261)	
	4	장소(도시와 땅), 경계를 흐리기, 텍토닉스(질료, 재료, 구법), 물질 -> 10' 제 차次세대의 선언과 자기 성찰'의 소목차를 후기 구조주의에 이르면 건축가들은 새로운 풍수장이처럼 행세한다. 도시와 땅의 이력을 다시 그리고, 공간 질서를 새로운 지도로 그리고...(p.336)	○
	5	1997년 IMF에 이르며, 문화와 예술에도 한파가 닥친다....흥청거리던 문화는 싸늘해지고 시장에도 마른 바람이 분다. 경색되는 사회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일탈 행위와 유희주의는 무색하게 된다. (p.295)	△
	6	미니멀리즘이 세기말에서 다시 단단하여졌다. (p.314) 극소조형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잡탕과 차이를 두면서 모더니즘 이후 다시 부활하였다. (p.316)	○
한국 현대건축의 지평	7	2000년대 한국 건축은.. 자본의 논리에 심하게 귀속.. WTO가입, IMF 외환위기, FTA체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모든 기준이 경제 논리 하나로 획일화.. 2000년 이후의 건축은 부동산 개발이 99퍼센트를 차지해버렸고... (p.6)	○
	8	80년대말 90년대 초와 94년은 이미 상업주의와 대중문화 중심으로 담론의 구도가 완전히 재편...(p.36)	△
전환기의 한국건축과 4.3그룹	9	...한국 건축에서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자기의 건축에 대해서 말하고 서로 소통해야 되는 상황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개념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거죠. 요즘 여라 매체들이 건축에 관심은 있지만 왜 이렇게 어렵냐, 뭐 그렇게 난해한 말,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느냐고 하죠. 그리고 학생들조차도 건축을 할 때 개념에서 출발해야 되는, 제가 보기엔 정당하지 않은 이 부담감을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면 4.3그룹에서 모이게 됩니다...4.3그룹 앞 세대와 4.3그룹 이후 세대 사이는 확실히 구분됩니다. (p.140)	○

1, 9번 항목은 이 시대에 폭발적으로 건축계의 담론이 늘었음을 말하고 있다. 건축이 인문, 사회, 철학, 언어학 등과 섞이고 담론이 증가하여 60년대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박길룡은 말하고 있으며, 교수 배형민은 ‘전환기의 한국건축과 4.3그룹’에서 4.3그룹으로 인해 그 전

과 후의 건축을 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졌다 말한다. 즉, 건축을 할 때 이제 는 개념과 사유에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은 [그림 6-1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90년대 중반~2000년대가 되면, 먼저 그 이전 시대에 하위권에 머물러있던 ‘현상학’, ‘장소성’ 밈플렉스의 언급이 급격히 많아졌고, ‘생성의 철학’과 ‘후기 구조주의’ 밈플렉스가 높은 순위로 첫 등장한다. ‘해체주의’ 밈플렉스의 순위가 한단계 낮아지긴 했으나 상위 열 번째 안에 들어있어 결과적으로 ‘장소성’, ‘현상학’, ‘생성의 철학’, ‘후기 구조주의’, ‘해체주의’가 전부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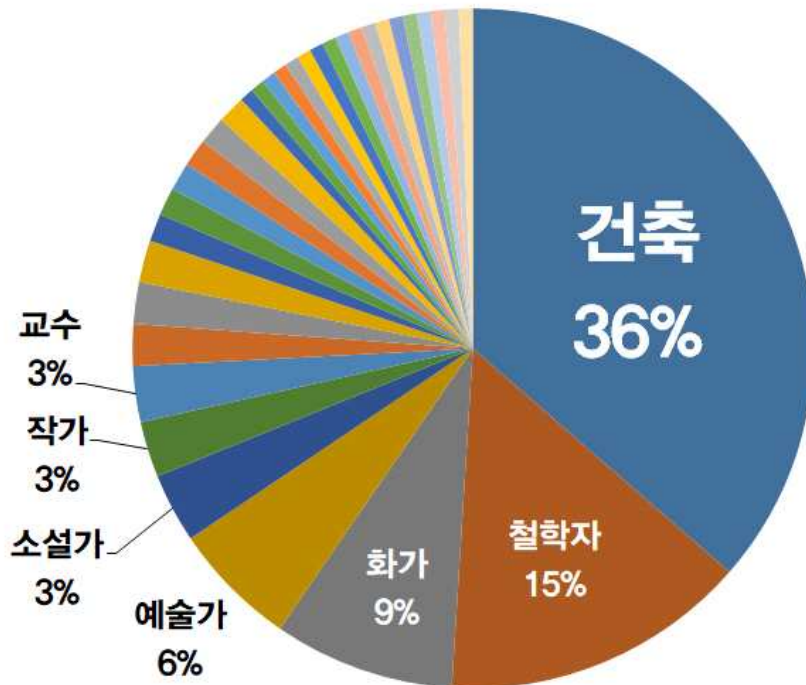
또한 [그림 6-20]을 보면, 60,70년대에 비해 80,90년대 초중반의 밈 발신자들 직업분포가 좀 더 다양해지고, 건축인의 비중이 줄어든 대신 화가, 철학자, 문학인들이 생겨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계속 이어져 [그림 6-21]을 보면 90년대 중,후반과 2000년대의 밈 발신자 직업군 같은 경우 건축인이 절반이 안되며, 철학자, 화가, 예술가, 소설가 등 수많은 직업군의 인물들이 들어오게 되며 코미디언, 영화감독 등 1번 항목에 나와있는대로 예술은 물론 모든 사회, 과학의 분야를 넘나드는 분야의 밈 발신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20] 60,70년대(왼쪽)와 80년대, 90년대 초중반(오른쪽)의 밈 발신자 직업군 분포 비교

2번 항목은 건축인들의 관심이 형태에 관한 관심을 벗어나 공간에 대한

관심으로 초점을 옮겼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 역시 [그림 6-17]을 보면 잘 나타나있는데, ‘공간’ 밈플렉스가 8위로 주요 이론적 사조 다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 시대까지 가장 많은 발산을 보이던 밈플렉스인 ‘형태’가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13위로 떨어져 ‘공간’ 밈플렉스보다 약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21] 90년대 중,후반과 2000년대의 밈 발신자 직업군 분포

3번 항목은 건축인들의 사회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듯 [그림 6-17]을 보면 ‘건축과 사회’ 밈플렉스가 이 시대에 3위라는 아주 높은 순위로 등장한다.

4번 항목은 이 시대 건축인들의 관심 중 하나가 장소성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이 역시 [그림 6-17]에 나와있듯이 이전시대엔 18위라는 낮은 순위를 보였던 ‘장소성’ 밈플렉스가 이 시대엔 가장 많이 발산되는 순위에 오르게 된다.

5번 항목은 90년대말의 경제위기로 인해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이 약화되었다는 언급인데 이는 [그림 6-19]를 볼 경우 이전 시대보다 오히려

밈플렉스의 순위가 높아진 경향을 보여 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경우 10위라는 낮은 순위를 보여 포스트모더니즘이 그리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한 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6번 항목은 미니멀리즘이 유행하였다는 언급으로 이는 5.2.1 모더니즘 절에 있는 [그림 5-9]를 보면 신기할 정도로 명확히 그 경향이 드러난다. ‘미니멀리즘’은 ‘모더니즘’ 밈플렉스의 세부 밈으로, [그림 5-9]의 타임라인을 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발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8번 항목은 IMF체제 이후 한국 건축계가 자본 논리에 심하게 귀속되며 모든 기준이 경제 논리로 획일하게 되고 상업화 되어간다는 언급인데 이러한 경향 역시 밈플렉스의 발산 양상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12]를 보면 ‘건축과 자본주의’ 밈플렉스가 처음 등장하는데 전체 밈플렉스들 중 7위라는 비교적 높은 순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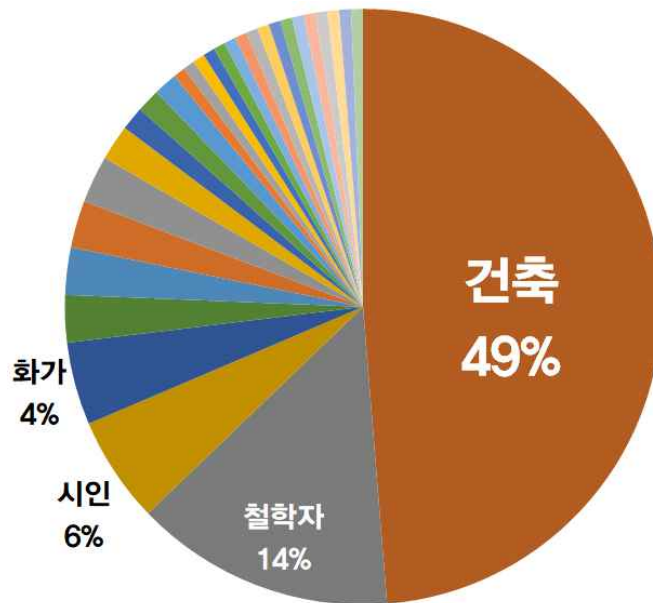
[표 6-4] 2010년대에 대해 언급됐던 시대상

서적 명칭	항목	내용	검증 여부
한국 현대건축 평전	1	한국 현대건축은 관념과 이념을 넘어 다시 사실의 자태로 돌아온 듯하다. 그 많은 개념은 지쳤는지, 포스트모더니즘의 자유, 인문학의 그럴듯함, 통섭의 몸짓은 자지러진다. (p.384)	△

[표 6-4]는 2010년대에 언급된 시대상인데, ‘한국 현대건축 평전’에서만 언급되었다. 언급된 내용은 이전 시대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이 약해지고, 통섭의 양상이 줄어들었다는 언급이다. 이의 확인을 위해 먼저 [그림 6-18]을 보면 ‘해체주의’ 및 ‘포스트모더니즘’ 밈플렉스들이 이전시대에 비해 현저하게 순위가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섭의 양상을 확인해보기 위해 2010년대 밈 발신자들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6-22]와 같다.

이전 시대의 밈 발신자 직업군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 6-21]과 비교하면 건축인들의 분포가 이전 시대 36%에서 2010년대엔 49%로 늘었고, 직업의 종류 수도 이전 시대엔 33가지였으나 2010년대엔 29가지로 근소하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전 시대에 비해 통섭의 경향이 줄어든 것은 맞으나 [그림 6-20]에 나오는 90년대 중반의 시기와 비교하면 건축인들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큰 견지에서 볼 때는 여전히 통섭의 흐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22] 2010년대 밈 발신자 직업군 분포

[표 6-5]는 이 네 권의 책들에 나온 사항들 중 딱히 어느 시대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 기타 다른 사항에 관한 내용들 중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일치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표 6-5] 언급됐던 다른 사항들

서적 명칭	항목	내용
한국 현대건축 평전	1	강석원은 76년 홍익대와 프랑스 국립대 건축미술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현장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비교적 화사하지만 이지적인 감성은 스승인 팡귀송Pinguisson의 영향으로 보인다. (p.226)
	2	포스트모더니즘을 빌미로 하지만 그 뜻은 파사드에서 그럴 뿐이다. 몇 가지 서양의 요소가 수사를 주도하는데, 아치, 베이 윈도우, 원



		주, 페디먼트 등인데 그 장식을 위한 소재들이 자의적이다... 이 건물을 포스트모더니즘의 사례로 보는 것 자체가 자조적이지만...한국은행 본점..앞선 대안들에서 강조하던 공간과 도시의 의도는 휘발되고, 이제 역사 형태가 승리한다. (pp.240-242)
한국 현대건축의 지평	3	한국 현대건축에서는 모더니즘이 유난히 강세다..작가를 자처하는 주요 건축가들도 아직 모더니즘 건축 안에 굳게 갇혀 있다. (p.339) 일부 건축가들 입에서 탈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작품과 대조해보면 ‘이론 따로 건물 따로’ 다. 탈모더니즘은 이 시대 지식인으로 행세하기 위해 암송하는 걸치레 상식이고 실제 작품은 모더니즘의 틀 안에 강하게 매여 있다. 불일치다. (p.340) ..많은 현대 사조가 등장했다. 모두 모더니즘의 단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지만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단막극으로 끝나버렸다...한국 현대건축에서는 이런 현상이 매우 압축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1990년대에 다양한 사조 운동이 잠시 시도되다가 곧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p.341) 모더니즘 건축세계는 순결주의purism나 미니멀리즘minimalism을 기본 조형관으로 삼으면서 산업 부재가 구축하는 순수 형태shape를 구체적 결과로 제시했다. (p.165)
전환기의 한국건축과 4.3그룹	4	민현식은.. 비평과 건축 담론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언어적인 텍스트의 생산에 적극적이었다. (p.90)

1번 항목은 건축가 강석원이 프랑스에서 수학을 하여 스승인 프랑스 건축가 팽귀송(Pinguisson)의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이러한 내용은 공간지에 그대로 담겨 있으며 (5.2.4 참조) 이 언급은 ‘현상학’ 밈플렉스가 공간지에서 처음 등장한 사례이기도 하다.

2번 항목은 87년에 완공된 한국은행 별관 건물이 포스트모더니즘을 보여준다는 것인데, 이 역시 건축가 원정수의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다. (6.1.1 참조)

3번 항목은 한국 건축계의 모더니즘에 관한 언급인데, 이런저런 사조들이 그동안 많이 명멸했지만 결국 모더니즘이라는 거대한 영역 안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며 건축가들 역시 말로는 탈(脫)모더니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어지는 작품은 그렇지 않다는 언급이다. 이 사항은 [그림 6-18]에도

잘 나와있는데 ‘모더니즘’을 제외한 모든 밈플렉스들은 시대에 따라 순위의 부침이 심하게 있으나 오직 ‘모더니즘’ 밈플렉스만이 전시대에 걸쳐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대에 와서는 [그림 6-19]에서 보듯 ‘현상학’과 ‘후기 구조주의’ 밈플렉스가 매우 강세를 보이며 이전시대까지의 ‘모더니즘’ 밈플렉스의 강한 영향력을 상당히 대체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는 아마도 임석재의 서적의 주된 언급 대상과 시대에서 최근인 2010년대의 경향이 빠진 데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더니즘은 미니멀리즘과 퓨리즘을 주된 골격으로 삼고 있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 또한 5.2.1의 [표 5-7]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모더니즘’ 밈플렉스의 세부 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미니멀리즘’ 세부 밈이고 ‘퓨리즘’은 네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합치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4번 항목은 건축가 민현식이 텍스트의 생산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 점은 4.2.4의 [표 4-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결 중심성이 높은 상위 10 밈 수신자 중 민현식은 세 번째로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시대별 연구 결과들과 본 연구의 밈 이론 기반 분석에 의한 결과들을 비교해 볼 때 기존의 한국 현대건축사 연구에 서술되었던 시대적 양상들은 상당수 본 연구의 정량적 결과로 객관적인 검증이 되었다. 따라서 밈 이론에 기반한 본 연구의 분석법은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담론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는 효용성이 높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었던 기존 연구들의 세부 사항들도 있었다. 2010년대의 상황은 기존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 및 6.1의 분석에서 도출된 많은 사항들 - 현상학(장소성 포함)과 후기 구조주의(생성의 철학 포함)의 강세, 시대별 중심 인물 혹은 인물 중심 서술, 한국 고유 담론의 부재, 통계적 서술 등 - 은 기존의 시대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없어 검증이 불가능하였다.

### 6.3. 밌 이론 기반 분석 방법에 의한 새로운 시각

6.2절에서 기존 역사 연구 결과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밌 이론 기반 분석 방법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를 보았다면 이 절에서는 기존 역사 연구나 담론 연구들에서 보이지 않았던, 본 연구에서 밌 이론 기반 분석 방법을 통해 새롭게 도출된 결과들을 살펴볼 것이다.

#### 6.3.1. 담론의 양상들

6.1에서 예시로 시대별 담론의 양상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시대구분이었다. 한국건축의 시대구분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크게 볼 경우 선사시대부터 삼국 시대,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 강점기, 해방 후로 보통 나누나 해방 후의 현대건축만을 시대 구분하여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6.2에서 검증의 비교를 하기 위해 사용했던 서적들 중 박길룡의 ‘한국 현대 건축 평전’은 해방 후의 한국 현대건축을 자체적으로 시대구분하여 타임라인을 제시하였고, ‘한국 건축 통사’ 같은 경우 ‘70년대, 80년대’와 같이 10년 단위로 구분짓거나 올림픽, 김수근, 김중업과 연관지어 시대별 특징들을 짚막하게 언급하고 있다.

‘한국 현대 건축 평전’에서는 한국의 현대 건축을 여섯 개의 시기로 나누는 타임라인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세대 : 박길룡, 박동진’으로 명명되었고, 1930년대와 1940년대를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 시기는 ‘전후 복구 시기’로 대략 1950년대를 말하고 있고 세 번째 시기는 ‘2세대 : 한국의 모더니즘’이라 명명되었으며 대략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중반을 말하고 있다. 네 번째 시기는 ‘3세대 : 중견세대와 중흥기’라 명명되었으며 대략 1970년대 중, 후반과 1980년대 전체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 다섯 번째 시기는 ‘4세대 : 4.3그룹’으로 명명되었으며 대략 1990년대 전체와 2000년대 전체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시기를 ‘제 5세대의 등장’이라 명명하고 201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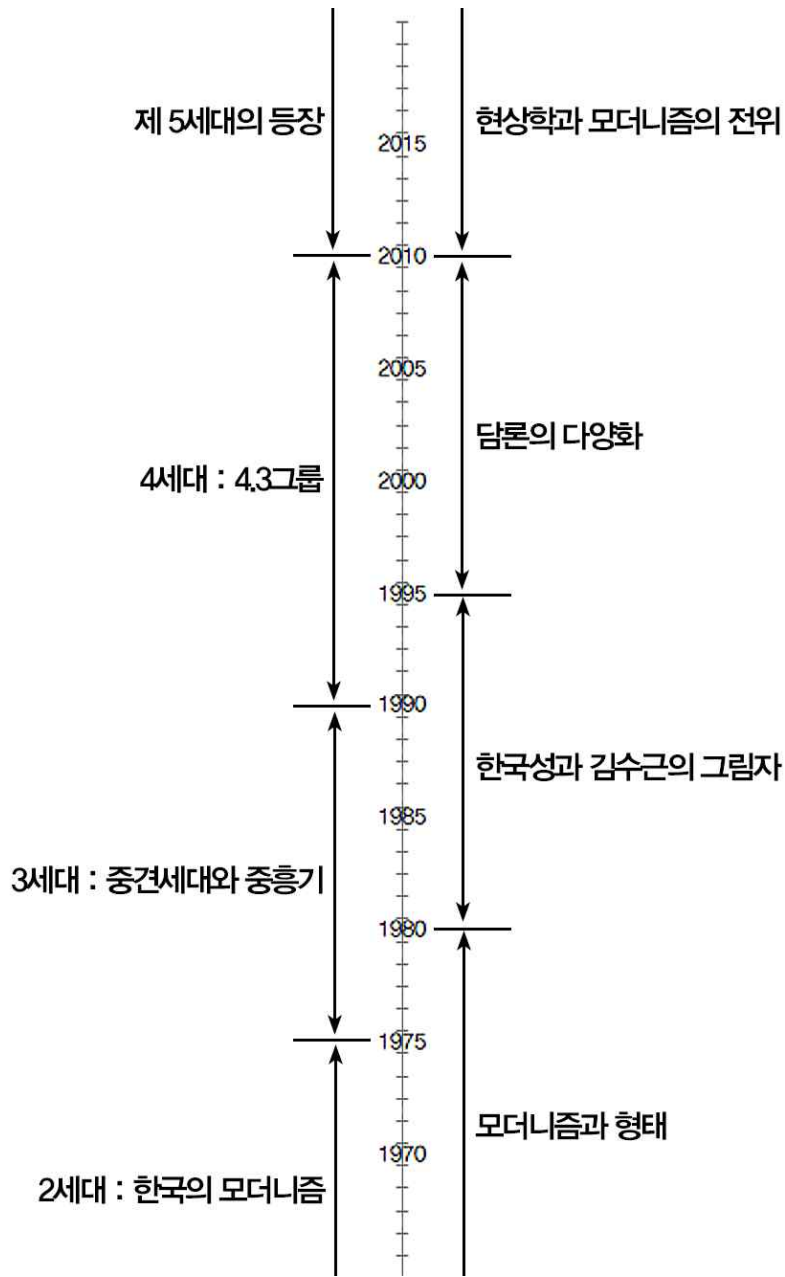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6.1의 시대구분에서 보여주었듯 주요 건축 담론 별 밈의 출현 양상들을 취합하여 중첩시켜가며 살펴본 뒤 시대 구분을 하였고 시대별 특징을 부제로 붙여본 결과

1. 60,70년대 : 모더니즘과 형태
2. 80년대 전체와 90년대 초, 중반 : 한국성과 김수근의 그림자
3. 90년대 중, 후반과 2000년대 : 담론의 다양화
4. 2010년대 : 현상학과 모더니즘의 전위(轉位)

의 네 가지 시대로 한국 현대 건축을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분은 다른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결과였으며 각 시대별로 중앙성을 크게 보였던 인물과 사조의 확연한 변화들은 이러한 시대 구분이 타당함을 보여주었다. 시대별로 강한 중앙성을 보였던 밈들의 변화를 볼 때 1번과 2번 시대를 구분지었던 요인은 정치권력의 교체와 올림픽 유치 등으로 인한 외국문화의 개방적 포용과 동시에 민족주의, 국수주의의 강세로 여겨졌고 2번과 3번 시대를 구분짓게 한 요인으로서는 4.3그룹 등의 젊은 건축가 집단의 출현, IMF체제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꼽을 수 있었다. [그림 6-23]은 ‘한국 현대 건축 평전’과 본 연구의 시대구분을 비교해 놓은 타임라인이다.

‘한국 현대 건축 평전’의 경우 주로 시대별 건축가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대 구분을 하였기 때문에 건축가들의 집단적, 출신적 특성이 변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세대 구분이 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밈의 내용들과 출현 양상에 맞추어서 세대 구분을 하였기 때문에 시대 구분이 달라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밈 이론 기반 분석이 드러내준 또 다른 결과 중 하나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주로 공간지의 ‘작품 리뷰’가 많았던 만큼 실제 지어진 건물들을 둘러싼 담론과 이론적 논쟁으로써의 담론이 다르다는 사실이었다. 대표적 사례가 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밈플렉스의 약세로, 포스트모더니즘의 당시 담론적 논쟁의 강도에 비해 실제 지어진 건축물 리뷰를 대상으로 조사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밈플렉스의 출현이 미약한



[그림 6-23] ‘한국 현대 건축 평전’의 시대구분(左)과 본 연구의 시대구분(右) 비교

모습을 보인 것이었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80, 90년대 한국 현대 건축에 포스트모더니즘이 강한 유행을 일으켰다는 결과와 배치되는 모습이었고, 심지어 본 연구에서는 그나마 포스트모더니즘에 속하는 밈들이 강하게 포착된 시기가 2000년대로 조사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주로

공간지의 작품 리뷰였던만큼 실제로 지어지는 작품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지 못해서가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했고, ‘이론 따로 건물따로’의 불일치가 강했다는 교수 임석재의 언급<sup>106)</sup>은 그러한 추측을 뒷받침했다. 또한, 2000년대의 강한 상업주의와 자본주의 논리로 인한 건물의 패션화, 자유로워진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다양해진 취향들로 인한 건축 디자인의 다양화들이 오히려 기호로서의 건축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속성이 더 잘 구현되게 해준 것으로 여겨졌다. 2000년대에 강한 상업주의와 자본주의가 국내 건축계에 끼친 영향 등은 6.1.2의 변화 추이를 보면 사실임을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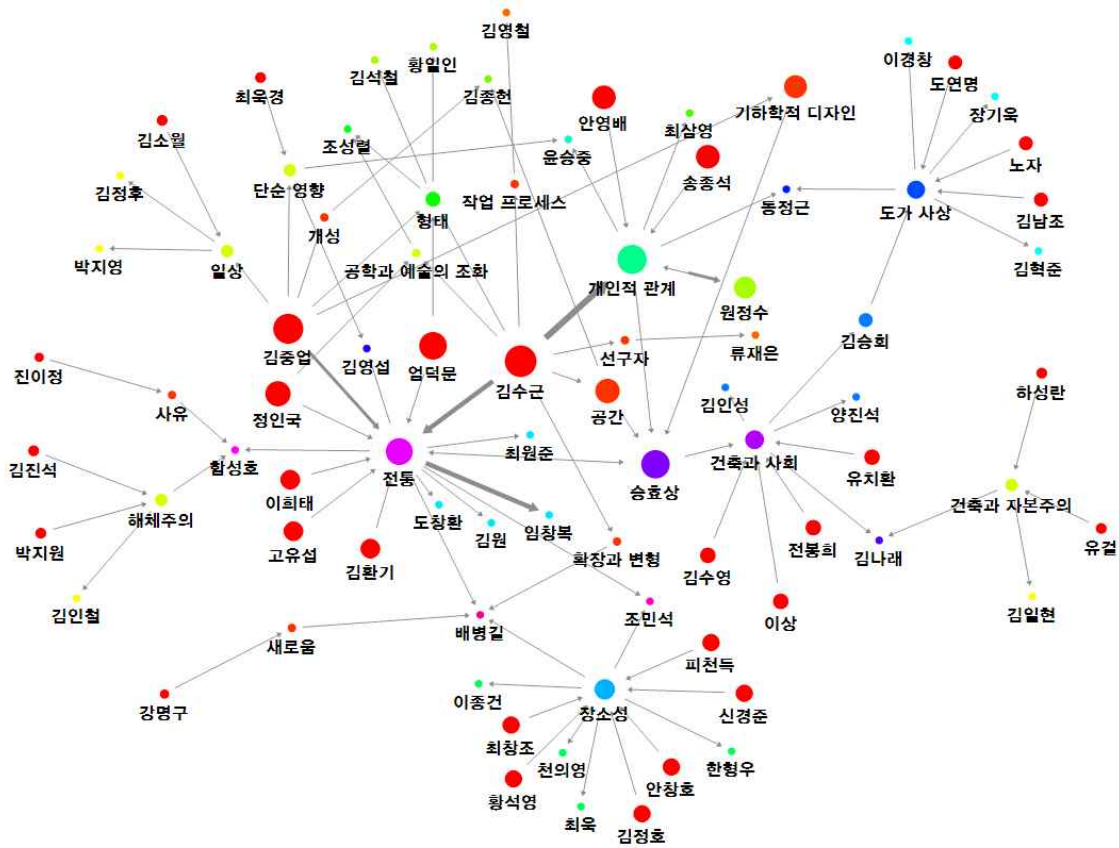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6.2에서 언급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현상학의 강세에 관한 언급들이 전혀 없었다. ‘한국 현대 건축 평전’에서 ‘후기 구조주의’가 최근에 강세를 보였다는 언급이 있었을 뿐, 현상학의 강세에 관해선 나와있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의 강세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세부 내용 또한 감각과 지각, 장소성, 건축과 기억, 복원과 재생 등이 강세를 보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물론 6.2의 연구들이 아닌, 현상학과 건축을 연구한 다른 연구들을 보면 현상학이 최근 한국 건축에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알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학의 강세가 5.2.4의 [그림 5-32]처럼 한국 현대 건축 전체 역사를 놓고 볼 때 모더니즘의 전체적인 영향보다도 크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가장 강한 담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본 연구만의 결과였다. 이러한 담론들의 영향력 비교와 순위 도출 등은 밈들의 정량적 측정으로 가능한 결론이었다.

### 6.3.2. 국내의 밈 운반자들과 자생적 담론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한국 현대 건축 담론계의 모습 중 특징적인 결과들 중 하나는 자생적 담론의 부재였다. [그림 6-24]는 국내 밈 발신자들에게서 나온 밈들과 수신자들을 연계하여 작성한 네트워크 그래프인데 가장 근접 중앙성이 높게 나온 밈플렉스는 ‘전통’이었으며, 뒤를 이어 높게 나온 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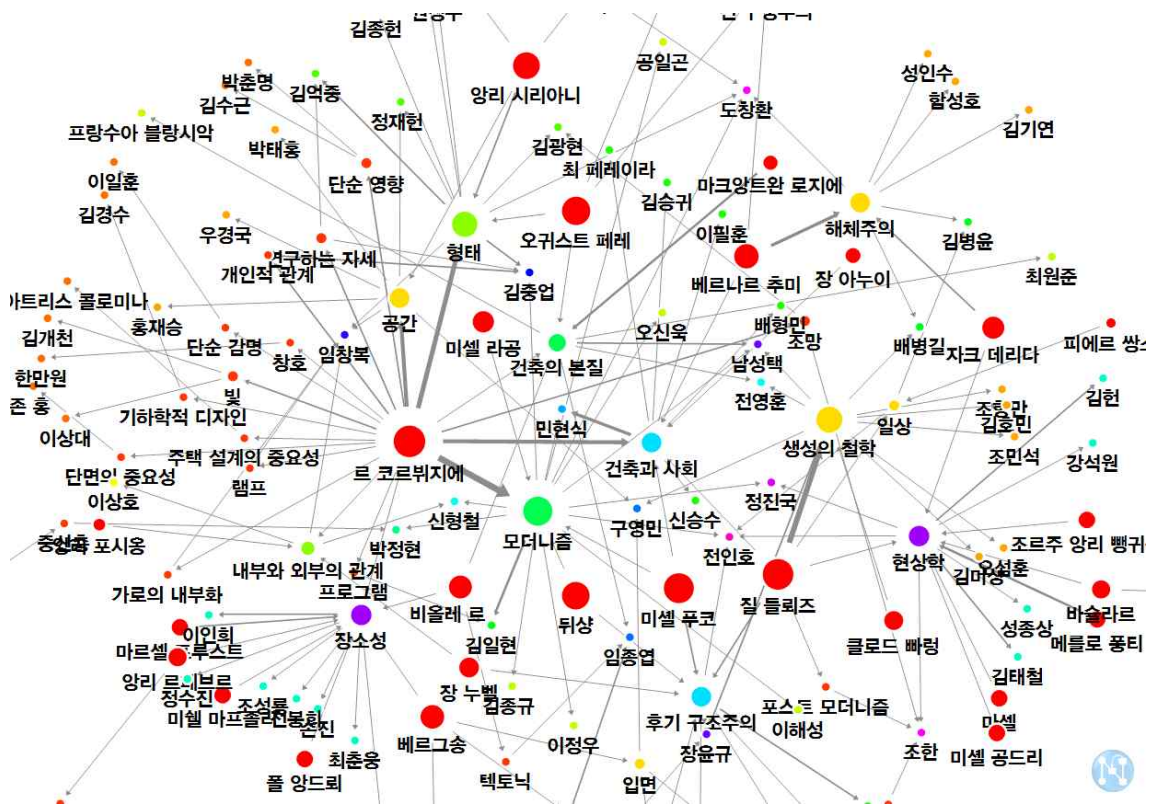
106) 임석재. (2013). 한국 현대건축의 지평 2권(건물비평). p.340.

플렉스는 ‘개인적 관계’였다. 즉, 이론적, 철학적 사조가 아닌, 한국성의 발현에 대한 고민과 스승, 동료로 추억되는 언급들이 주를 이룬 것이다. 이는 [그림 6-25]에 보이는 프랑스 밈 발신자들과 밈플렉스, 밈 수신자로 작성된 네트워크와 비교하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그림 6-25]의 경우 노드 수가 더 많은게 눈에 들어오며, ‘모더니즘’ 밈플렉스를 선두로, ‘생성의 철학’, ‘형태’, ‘현상학’ 등의 밈플렉스들이 뒤를 잇는다. 즉, 한국의 네트워크와 달리 이론적이고 철학적 담론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림 6-24] 한국 밈 발신자들의 밈 내용과 밈 수신자들을 연결한 네트워크

현대 건축 자체가 서구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해방 후 서구의 발달된 기술과 이론을 배워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담론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의 자생적인 담론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은 여전히 내리기 쉽지 않다.



[그림 6-25] 프랑스 밈 발신자들의 밈 내용과 밈 수신자들을 연결한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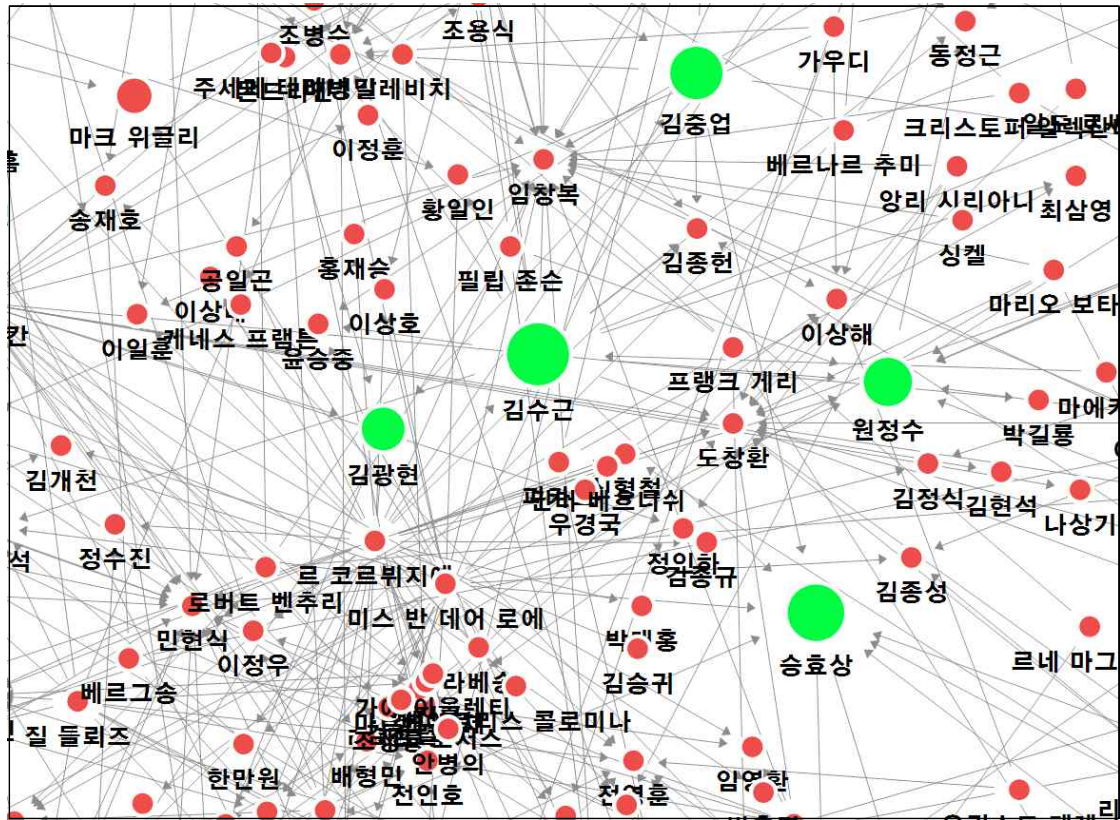
[그림 6-26]은 전 시대 밈 발신자와 밈 수신자들을 이은 네트워크인데, 이 그림에서는 본 연구의 앞 절들에서 주로 봐오던 근접 중앙성이 아닌, 매개 중앙성에 초점을 맞춰 네트워크를 작성하였다. 노드의 사이즈는 매개 중앙성에 비례하는데, 매개 중앙성이란 말 그대로 네트워크의 주요 길목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누군가에게서 밈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밈을 주기도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런데 이백명이 넘는(107) 국내의 밈 발신자와 밈 수신자들 중 매개 중앙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인물은 [그림 6-26]에 색깔이 다르게 표시된 ‘김수근’, ‘승효상’, ‘김중업’을 필두로 한 11명에 불과하다. 즉, 누군가에게 언급되기도 한 동시에 누군가를 언급한 인물이 11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며 이는 국내 건축인들 간의 상호 언급이 매우 미약하다는 뜻이다. 논쟁과 의견 교환보다 외국의 의견이나 사상을 일방적으로 받아오는 모습이 주로 관찰되었고(108)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공

107) 국내의 밈 수신자와 밈 발신자들을 모두 합치면 총 241명이다.

108) “영화계나 미술계, 음악계 등에서 발행되는 잡지들을 보노라면 비평, 논쟁, 의견 들이 활발히 생산되고 또



간지 텍스트에서도 여전히 관찰되고 있다. 담론이라는 것이 상호 언급과 비판, 의견개진을 통해 만들어지는 만큼 근시일내에 한국의 자생적 사조나 담론이 활발히 생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낙관적으로 내리기 어렵다.



[그림 6-26] 전 시대 밌 발신자, 밌 수신자들의 매개 중심성

한편, 밌 운반자(vehicle)를 관찰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국내 담론계에 영향을 준 사람, 즉 밌 발신자가 아닌 밌 수신자에 대한 사항이 조사된 점도 다른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결과였다. 4.2.4의 [표 4-8]에 나와있는 것처럼 밌 수신자 중 근접 중앙성이 가장 높은 인물은 ‘임창복’, ‘김영섭’, ‘민현식’순이었는데, 임창복은 1985년부터 2001년까지 16년간, 김영섭은 1989년부터 2002년까지 13년간, 민현식은 1986년부터 2015년까지 29년간 텍스트를 작성하며 밌이 수신된 흔적이 관찰되었다. 담론계에서

교환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건축계처럼 여론과 쟁점과 사건이 실종된 분야도 없을 것이다.”-강혁. (2006.6). 건축 잡지와 담론 공간. 건축, p.19.

밈 발신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들의 밈들을 받아 공간지라는 텍스트의 장에서 이들 밈을 국내 건축계에 퍼뜨린 밈 수신자들도 한국 건축 담론계의 현재 모습을 갖추게 한 중요 요소임을 간과할 수 없다. 흥미로운 것은 위에 언급한 주요 세 명의 밈 수신자들이 모두 학자들이고, [표4-8]에 나와 있는 밈 수신자 상위 4명 또한 모두 학자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학자들이 국외의 주요 사조나 담론들을 국내에 소개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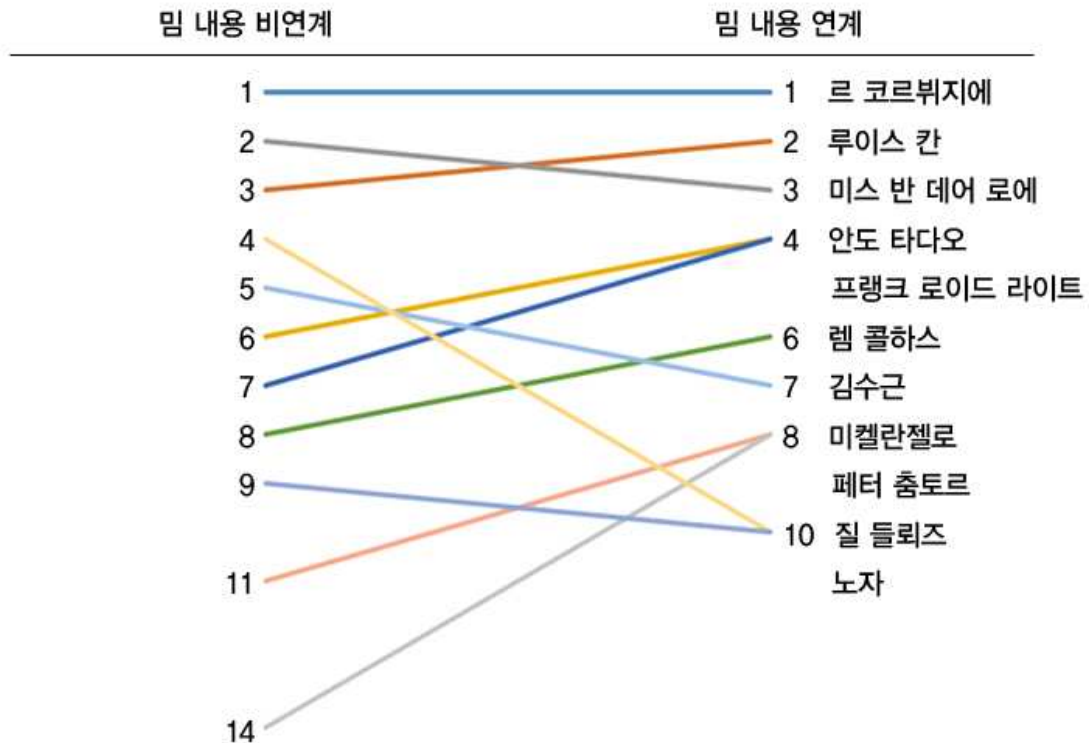
### 6.3.3. 정량적 분석의 틀

5장의 인물 중심, 사조 중심, 6.1절의 시대 중심 결과를 볼 때 네트워크 그래프, 밈 출현 타임라인, 인물간 근접 중앙성 그래프, 밈플렉스 근접 중앙성 그래프 등은 항상 함께 제시되었다. 즉, 활자로 된 텍스트 속 담론을 네트워크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등으로 수치화, 시각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위 도출과 변화 양상까지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담론 내용과 인물을 함께 분석하여 더 의미있고 합리적인 중앙성을 도출하였다. [그림 6-27]은 5.1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밈 내용을 연계시키지 않고 인물들끼리만 매긴 근접 중앙성 순위와 밈 내용을 함께 네트워크에 노드로 두고 인물들과 연결지어 매긴 근접 중앙성 순위의 비교이다. 순위가 다소 바뀐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밈 내용을 연계시킬 경우 특정 인물에게서 발산된 밈 내용이 중요한 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해당 인물의 순위가 달라지게 된다. 가령 순위가 상승한 루이스 칸, 안도 타다오, 렘 콜하스 등에게서 발산된 밈들이 건축인들이 더 많이 언급한 밈이 되어 이 인물들의 중앙성이 높아진 것이며, 순위가 하락한 질 들뢰즈 같은 경우 언급 횟수로만 볼때는 4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으나 그에게서 발산된 밈들이 ‘생성의 철학’ 밈플렉스에 많이 치우쳐 있어 순위가 낮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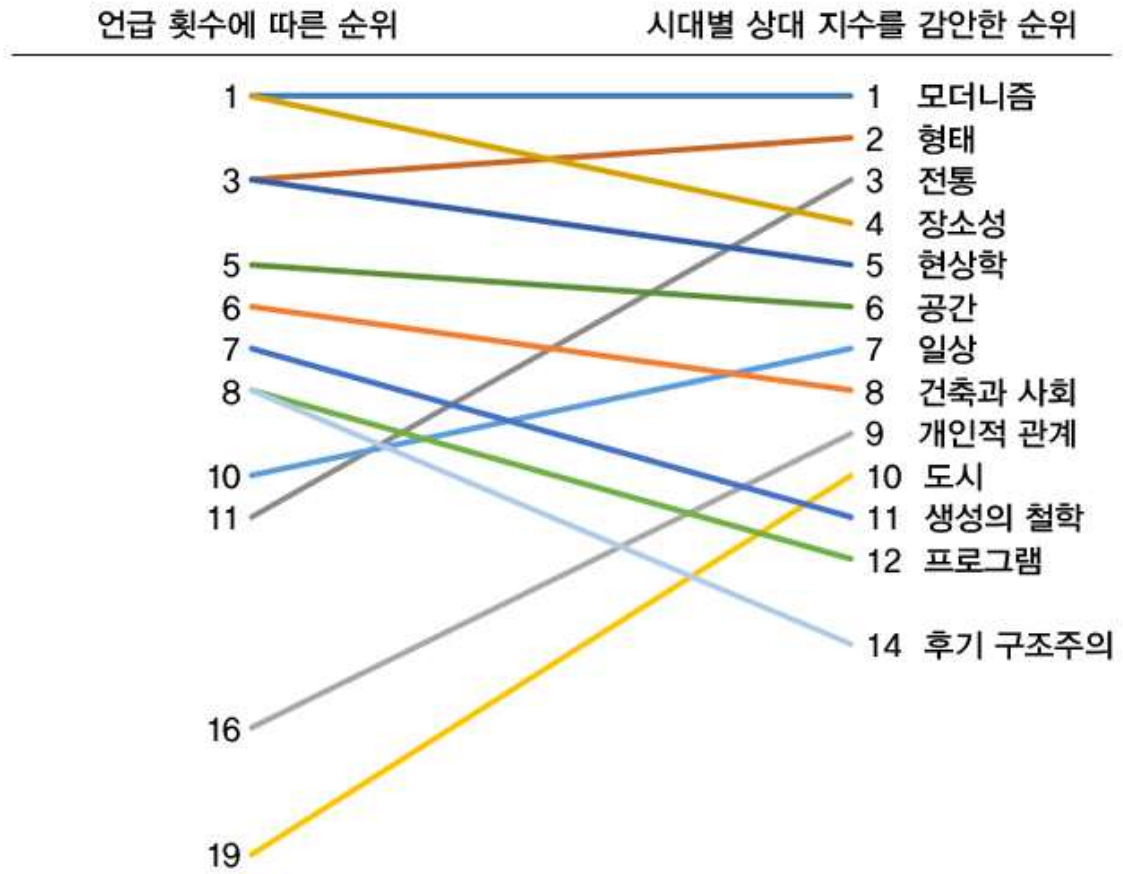
이와 유사하게 ‘시대별 상대 지수’의 도입도 의미가 있었다. 최근으로 올수록 분석 대상이 된 텍스트의 양과 검출된 밈들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최근 많이 포착된 밈플렉스들의 영향력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밈이 검출되었을 때 그 즈음의 텍스트 양을 감안하여 상대적 비율을 따진 것이다. 결국 자연스럽게 절대적 언급 횟수보다 더 의미있는 시대별 영향력이 계산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그림 6-28]과 같은 순위 변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림 6-27] 밈 내용 비연계시와 밈 내용 연계시의 순위 변동 비교

과거에 많이 등장했던 ‘전통’, ‘개인적 관계’ 등의 밈플렉스 순위가 많이 올라갔으며, 최근에 많이 모습을 드러낸 ‘장소성’, ‘후기 구조주의’ 밈플렉스 등의 순위가 다소 내려가 텍스트 수에 따라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순위들이 보정되고 시대별 영향력을 제대로 반영하는 순위가 도출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6-28] 언급 횟수와 시대별 상대 지수 적용시의 순위 변화

## 제 7 장 결 론

---

7.1 연구의 요약

7.2 밑 이론 기반 분석 방법론

7.3 의의 및 한계

---

## 7.1. 연구의 요약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훗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1974년 그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밈’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밈은 일종의 ‘문화유전자’로, 실제 유전자처럼 스스로를 퍼뜨리려는 성질을 갖고 있으며 변형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선택받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한 성질을 똑같이 갖는다. 즉, 유전, 변이, 선택이라는 진화의 기본 메커니즘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리처드 도킨스는 종교, 유행가, 패션, 그리고 건축 양식 등 모든 문화가 밈의 예시라 말했고,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에서 나타나는 밈들을 포착하여 살펴보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밈 이론을 적용한 조사방법이 얼마나 효용성있게 작동할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3장은 본 연구의 밈 조사 방법을 담고 있다. 밈들을 살펴볼 수 있는 대상을 텍스트로 정한 후, 여러 텍스트들을 담고 있는 매체 중 독자층의 양과 범위, 발간 역사 등을 고려하여 월간 잡지인 ‘공간(SPACE)’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결국 밈이라는 것은 마치 유전자나 바이러스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뇌를 숙주처럼 이용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건축물 리뷰 텍스트들 중에서 글쓴이가 다른 이를 언급한 부분만을 골라 밈들을 조사한 뒤, 이들을 정제 및 분류한 뒤 네트워크 분석을 하여 중심성과 관계성들을 도출하기로 하였다.

4장은 조사 결과의 개괄을 담고 있다. 조사 서적은 공간지 총 601권이었고, 추출한 밈의 수는 총 708개였다. 밈의 추출 분량은 과거보다 현재로 올수록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언급된 인물 즉, 밈이 발산된 인물인 ‘밈 발신자’의 수는 총 349명이었으며 미국, 한국, 프랑스 순으로 많은 국적을 보였다. 이 인물들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근접 중심성을 도출한 결과 르 코르뷔지에, 미스 반 데어 로에, 루이스 칸, 김수근, 질 들뢰즈 순으로 높은 근접 중심성을 보였고 이는 해당 인물들이 인물들의 전체 네트워크에서 얼마큼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인물들의 관계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국내의 인물들끼리 밈들을 주고받은 것이 매우 드물며 거의 외국의 인물들로부터 밈들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담론이라는 것이 서로 소통하고 논쟁하는 가운데 생기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현상이었다.

한편, 인물이 아닌 밈의 내용의 경우 먼저 내용에 따라 비슷한 내용의 세부 밈으로 분류한 후 다시 같은 성격의 세부 밈들을 묶어서 밈들의 더 큰 집합체를 일컫는 용어인 ‘밈플렉스’로 분류하였다. 가령, ‘미니멀리즘’, ‘퓨리즘’, ‘건축의 5원칙’ 등의 내용을 가진 세부 밈들을 묶어서 ‘모더니즘’이라는 밈플렉스로 분류한 것이다. 그 결과 세부 밈의 종류는 총 291종류로 나눌 수 있었으며 이들을 다시 묶은 밈플렉스의 경우 총 24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밈플렉스에 포함시킬 수 없는 단일 세부 밈들도 다수 존재했다.) 이 24가지 밈플렉스들을 시대에 따른 텍스트 개수를 고려하여 상대적인 영향력을 감안해 순위를 낸 결과 ‘모더니즘’ 밈플렉스가 가장 순위가 높게 나왔으며 ‘형태’, ‘전통’, ‘장소성’, ‘현상학’이 뒤를 이었다. 이는 해방 이후 한국 현대 건축인들의 관심사의 총합과 그 순위를 보여준다 할 수 있다.

5장은 4장에서 따로 조사했던 인물들과 밈 내용 - 주요 건축 사조 - 들을 함께 살펴본 것이다. 인물들과 밈 내용들을 함께 연결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하면 4장에서 도출했던 각각의 순위들보다 더 의미있고 정확한 순위가 나온다. 더 많이 언급되는 밈이 발산되는 밈 발신자의 순위가 더 상승하며, 마찬가지로 더 많이 언급되는 밈 발신자에 의해 발산된 밈 내용의 순위가 올라간다. 즉, 밈 발신자와 밈 내용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순위가 산출된다. 그 결과 르 코르뷔지에, 루이스 칸, 미스 반 데어 로에, 안도 타다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순으로 높은 근접 중앙성이 나왔으며 밈 내용은 ‘장소성’, ‘건축과 사회’, ‘모더니즘’, ‘현상학’, ‘후기 구조주의’ 순으로 근접 중앙성이 높게 나왔다. 5.1에서는 주요 밈 발신자별로 밈들이 발산되었던 시대를 보여주는 타임라인과 해당 인물이 발산했던 밈들을 공간지에 실제 나왔던 텍스트들을 제시하며 보여주었고, 5.2에서는 주요 건축 이론 사조별로 해당 사조의 밈들이 발산되었던 시대를 보여주는 타임라인과 해당 사조의 밈들을 발산했던 인물들을 보여주었다.

6장은 밈 이론 기반의 관찰 분석법의 예시 및 타당성과 효용성을 보기 위해 5장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시대구분을 한 후 시대별로 주요 밈 발신자와 밈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대변화에 따른 주요 밈 발신자와 밈 내용들의 변화 추이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시대별 주요 밈 발신자의 경우, 르 코르뷔지에는 전 시대에 걸쳐 가장 높은 근접 중앙성을 보여주어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로 도출되었다. 6, 70년대엔 현대 건축의 3대 거장으로 꼽히는 르 코르뷔지에, 미스 반 데어 로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80~90년대 중반에는 김수근이 르 코르뷔지에 다음인 두 번째로 높은 근접 중앙성을 보였다. 또한 이때 루이스 칸의 밈이 처음 등장하였는데 김수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근접 중앙성을 보였다.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엔 질 들뢰즈와 렘 콜하스가 4위와 5위라는 높은 순위로 처음 등장하였다. 이전 시대에 높은 순위를 보였던 김수근과 3대 거장중 하나로 꼽히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순위가 많이 하락하여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 이는 건축 실무나 개인적인 관계보다 후기 구조주의와 같은 철학적 사조가 강세를 끼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 2010년대는 미스 반 데어 로에마저 순위가 다소 하락하였으며 텍토닉과 현상학적 사유의 대표 인물중 하나인 페터 Zumthor가 3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르 코르뷔지에, 루이스 칸, 질 들뢰즈 역시 이전 시대에 이어 1, 2, 4위라는 여전히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시대별 주요 밈플렉스의 경우, 전 시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밈플렉스는 ‘모더니즘’이었다. 6,70년대엔 ‘형태’ 밈플렉스가 가장 근접 중앙성이 높았으며, 80~90년대 중반에도 역시 ‘형태’ 밈플렉스가 가장 근접 중앙성이 높았고, 시대적 분위기를 타고 ‘전통’ 밈플렉스가 두 번째로 높은 근접 중앙성을 기록했다. 또한 이 시대에 ‘해체주의’, ‘현상학’, ‘포스트모더니즘’, ‘구조주의’와 같은 다양한 사조들이 처음 등장하기도 하였다.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밈플렉스들의 순위 변동이 심해졌다. 줄곧 건축인들의 가장 많은 관심사이던 ‘형태’ 밈플렉스는 급격히 순위가 낮아졌으며 ‘공간’ 밈플렉스에 역전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장소성’, ‘현상학’, ‘후기 구조주의’와 같은 철학적, 이론적 밈플렉스가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여 확연한 변화를 느끼게 하였다. ‘건축과 사회’ 밈플렉스의 높은 순위 또한 사회 개선에 책임을 느끼고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인들의 관심사를 보여주었다. 최근인 2010년대 들어오면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와 같은 밈플렉스는 완전히 순위가 낮아지며 주요 밈플렉스 리스트에서 사라지고 ‘장소성’과



‘현상학’ 밈플렉스가 나란히 매우 높은 근접 중앙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공간’ 밈플렉스가 네 번째로 높은 순위를 보여 ‘형태’에서 달라진 현대 한국 건축인들의 관심사를 분명히 드러내었다. 또한 이전시대에 이어 ‘건축과 사회’, ‘생성의 철학’, ‘후기 구조주의’ 역시 주요한 밈플렉스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건축의 본질’ 밈플렉스가 6위라는 높은 순위로 올라오게 된다.

6.2에서는 한국 현대 건축사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 서술되어 있던 역사적 사실 및 해석들과 밈 이론 기반 분석 방법의 결과들인 5장과 6.1의 결과들의 합치율 여부로 객관적인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많은 부분이 성공적으로 검증되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밈 이론 기반의 분석법은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6.3은 기존의 한국 현대 건축사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없던, 본 연구의 밈 이론 기반 분석 방법으로 관찰할 수 있었던 새로운 결과들을 서술하였다. 한국 건축사의 시대구분 같은 경우, 밈들의 출현 양상을 종합해본 결과 1. 60,70년대, 2. 80년대~90년대 중반, 3. 90년대 중반~2000년대, 4. 2010년대로 시대를 구분할 수 있었으며, 건축인들의 말들에 의한 담론과 실제 지어지는 건축물을 둘러싼 담론에는 내용상 차이가 있었음이 관찰됐다. 또한 전 시대를 통틀어 봤을 때 최근 들어와 현상학의 영향력의 총합이 모더니즘의 영향력의 총합을 능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내 밈 발신자들에게서 나온 담론들이 ‘전통’과 ‘개인적 관계’에 머물렀고 국내 건축인들끼리의 논쟁이나 의견 교환이 부족한 현상을 밝혔다. 그리고 인물과 밈 내용 들을 함께 네트워크 분석하면 더 정확한 중앙성들이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7.2. 미 이론 기반 분석 방법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미 이론 기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가진다.



[그림 7-1] 본 연구의 미 이론 기반 분석 방법 과정

이 프로세스에 의한 분석 방법은 기타 시각 자료가 아닌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며, 적절한 텍스트가 선정된 후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미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한다.

### 1) 미 포착 및 채집

텍스트 작성자가 ‘타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발화한 부분’을 골라 텍스트를 작성한 사람, 텍스트에서 언급된 인물, 언급된 내용을 기록한다. 이 때 작성자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시로써 든 부정적 언급과 화자의 의견이라고 말할 수 없는 단순한 사실 인용 등은 제외한다. 텍스트의 작성자는 타인을 언급하며 미를 받아왔으므로 ‘미 수신자’, 언급 대상이 된 타인은 텍스트 작성자에게 미를 준 결과가 되므로<sup>109)</sup> ‘미 발신자’로 칭한다.

이렇게 언급된 말의 내용 - 미 - 을 그대로 기록하는 동시에 미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사항들을 별도로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문장만 봐서는 텍스트 작성자의 언급 의도와 내용을 추후에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인이 언급된 문장의 앞뒤 텍스트들을 추가적으로 기록해 놓는 것이 좋으며 텍스트의 소제목과 기사 제목까지 함께 기록해 놓는 것이 좋다.

### 2) 정제 및 분류

상기 방법으로 조사한 미들은 거의 서로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그

109) 엄밀히 말해 미 이론의 관점에 의하면 사람이 ‘미를 준 것’이 아니라 ‘미 스스로 사람들 사이의 뇌를 이동한 것’이다.

러나 담론의 경향, 중심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밈들을 정제하고 분류할 필요가 있다. 정제란 긴 문장으로 되어있는 밈을 중심 내용인 한 단어나 문장 등으로 요약하여 세부 밈으로써의 명칭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가령, 아돌프 로스가 말한 “장식은 죄악이다”라는 밈을 ‘비장식성’이라는 세부 밈으로 축약한 것이 정제이며, 이 세부 밈은 내용 상 ‘모더니즘’이라는 카테고리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모더니즘’이라는 카테고리에는 ‘비장식성’외에도 ‘미니멀리즘’, ‘근대건축의 5원칙’과 같은 세부 밈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결국 ‘모더니즘’이라는 카테고리는 몇 개의 세부 밈들의 집합체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밈플렉스’라 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세부밈과 밈플렉스의 명칭들은 어디까지나 경향과 통계를 보기 위한 밈의 카테고리이며, 원래 밈의 의미를 칭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경우 총 708개의 밈들이 291가지의 세부 밈들과 24가지의 밈플렉스로 분류될 수 있었다.

### 3) 네트워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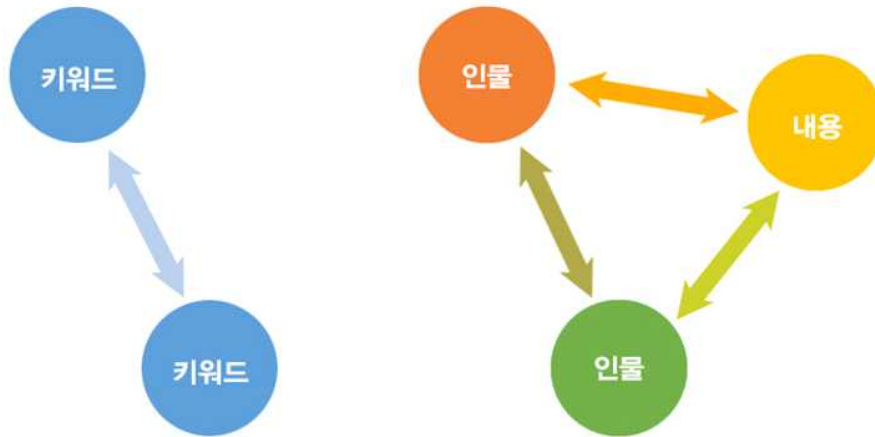
정제와 분류를 거친 밈들의 관계와 흐름, 중앙성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밈들을 노드화 한 뒤 네트워크 분석을 실행한다. [그림 7-2]는 기존 텍스트 분석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작성 방법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작성 방법의 차이를 보여준다. 기존 텍스트 분석에서는 대개 한 문장이나 구절 안에 등장하는 단어나 키워드끼리 링크로 연결시키지만 밈 이론 기반 분석 방법에서는 ‘내용’에 해당하는 밈이 두 인물 노드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합리적이고 정확한 중앙성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밈의 흐름들을 더 보기 좋게 보여준다.

이는 밈이 바이러스처럼 숙주, 즉,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기 때문에 인물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 때문이며, 동시에 밈의 관점에서 흐름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 4) 지표 산출 및 활용

네트워크 작성을 마친 후 이를 바탕으로 지표들을 산출한다. 네트워크 관계를 계량화 하는 지표는 매우 다양하지만 주로 전체 담론장에서의 중심

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접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주로 도출하였다.



[그림 7-2] 기존 텍스트 분석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작성 방법(左)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네트워크 작성 방법(右)

근접 중심성은 네트워크 전체적인 중심성, 즉 영향력을 보여준다 할 수 있으며, 매개 중심성은 네트워크의 길목에 위치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써, 밈의 발산과 수신이 둘 다 활발히 이루어지는 인물과 밈들이 높게 산출된다.

이러한 절차들을 거쳐 밈 이론에 기반한 방법으로 공간지를 분석한 결과 기존 역사 연구들에서 정성적으로 서술되어 있던 사실들을 상당수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였고, 현상학의 영향력이 최근 들어와 모더니즘을 능가한 점, 국내 건축인들 사이의 논쟁 부족과 결과적으로 우리만의 자생적 담론이 부재한 점, 담론장(場)의 인물들과 사조들 간 보다 더 정확한 중앙성을 도출할 수 있었던 점 등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없던 사항들을 새롭게 밝혀내었다.

결국 기존 역사 연구들과의 합치 여부와 밈 이론 기반 분석으로 새롭게 도출된 결과들의 효용성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본 연구의 밈 이론에 기반한 분석 방법은 객관적이고 정량화 된 담론 분석 방법으로써 정확하고 차별성 있게 담론장 텍스트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결론 내릴 수 있었다.

### 7.3.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진화 생물학에서 발원되어 주로 사회학, 신경과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다뤄지던 ‘밈’이라는 소재를 건축과 결합시킨 드문 통섭적인 속성의 연구이다. 또한 밈을 직접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계량하는 시도를 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이런 시각으로 한국 현대건축의 역사와 담론장을 공간지를 통해 살펴보고, 그동안 연구되었던 기존의 역사 연구들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증명하기도 하였으며 동시에 새로운 분석 결과들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쓰인 방법론은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향후 건축만이 아닌 다른 분야의 담론장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도 본 연구의 방법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작업과 공간지라는 단일 매체의 한정 등으로 인해 700여 개의 밈들만 추출했지만, DB화가 되어있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거나 매체 수를 더 늘리거나 연구자가 더 많아진다면 보다 많은 밈들을 추출하여 더 높은 정확성의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60~70년대의 밈들이나 구조주의와 같은 특정 사조의 경우 추출된 밈의 수가 너무 적어 결과를 내기 조심스러웠다. 또한 다른 잡지들끼리 혹은 다른 국가들끼리의 밈 출현 양상들을 비교해보아도 더 많은 논의거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밈의 추출을 위한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텍스트이다. 하지만 건축의 밈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자료인 사진이나 도면으로도 전달될 수 있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잡지와 같은 출판물보다도, SNS나 웹같은 온라인 상의 자료들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경향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공간지라는 잡지 매체를 선택했지만 시대에 따라서는 매체를 변경하거나 시각적 자료들을 관찰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및 보고서

- Carl Zimmer (2013). *바이러스 행성 : 바이러스는 어떻게 인간을 지배했는가*. (이한음 역). 서울: 위즈덤하우스.
- Daniel Dennett (2006). *마음의 진화*. (이희재 역). 서울: 사이언스북스.
- Gilles Deleuze (2010). *푸코*. (권영숙 역). 서울: 중원문화.
- Kevin N. Laland 외 (2014). *센스 앤 넌센스*. (양병찬 역). 서울: 동아시아.
- Louis Hellman (1999). *재미있는 건축이야기*. (임종엽 역). 서울: 도서출판국제.
- Peter J. Richerson, Robert Boyd (2009). *유전자만이 아니다*. (김준홍 역). 서울: 이음.
- Richard Dawkins (2016). *리처드 도킨스 자서전 2:나의 과학 인생*. (김명남 역). 서울: 김영사.
- Richard Dawkins (2012). *눈먼 시계공*. (이용철 역). 서울: 사이언스북스.
- Richard Dawkins (2013). *이기적 유전자*. (홍영남 역). 서울: 을유문화사.
- Susan Blackmore (2010). *뭉 : 문화를 창조하는 새로운 복제자*. (김명남 역). 서울: 바다출판사.
- 대한건축학회 (2014). *한국건축통사*. 서울: 대한건축학회.
- 문혜진 (2015). *90년대 한국 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현실문화.
- 박길룡 (2015). *한국 현대건축 평전*. 서울: 공간서가.
- 배형민 외 (2014). *전환기의 한국 건축과 4.3 그룹*. 서울: 집.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2012 감염병 역학조사 연보*. 보건복지부.
- 원중호, 이한별 외 (2017).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경제심리 관련 문서 분류*. 한국은행.
- 이수상 (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 이정동 외 (2017). *인공물들의 진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종건 (1999). *해체주의 건축의 해체*. 서울: 발언.
- 임기택 (2014). *이성의 명암과 건축이론*. 서울: Spacetime.

- 임기택 (2014). *현상학과 건축이론*. 서울: Spacetime.
- 임기택 (2014). *구조주의와 건축이론*. 서울: Spacetime.
- 임기택 (2014). *포스트모더니즘과 건축이론*. 서울: Spacetime.
- 임기택 (2014). *해체주의와 건축이론*. 서울: Spacetime.
- 임기택 (2016). *생성의 철학과 건축이론*. 서울: Spacetime.
- 임기택 (2016). *후기 구조주의와 건축이론*. 서울: Spacetime.
- 임석재 (2013). *한국 현대건축의 지평 2권(건물비평)*. 서울: 인물과 사상사.
- 장대익 (2017). *다윈의 정원*. 서울: 바다출판사.
- 장대익 (2015). *인간 본성의 진화론적 이해. 과학적 사유와 인간 이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과학*. 서울: 민음사.
- 정광수 외 (2010). *과학기술과 문화예술(과학문화연구1)*. 서울: 한국학술정보.
- *글로벌 세계 대백과 사전. 종교, 철학*. 서울: 도서출판 범한.

## 학술논문

- Heylighen, Francis (1993). Selection Criteria for the Evolution of Knowledge, in: *Proceedings of the 13th International Congress on Cybernetics, Namur, Belgium, Association International de Cybernétique*. 524-528.
- Heylighen, Francis (1997). Objective, Subjective and Intersubjective Selectors of Knowledge. *Evolution and Cognition* 3:63-67.
- HILLIER, B; HANSON, J; GRAHAM, H; (1987). Ideas are in Things - an Application of the Space Syntax Method to Discovering House Genotypes. *ENVIRON PLANN B*, 14 (4). 363-385.
- McNamara, A. (2011). Can we measure memes?. *Frontiers in Evolutionary Neuroscience*.
- Jure Leskovec, Lars Backstrom, & Jon Kleinberg. (2009). Meme-tracking and the Dynamics of the News Cycle. 497-506.
- Salingaros, Nikos A. (2006). Architectural memes in a universe of information. *Mondes Francophones*.

- Salingaros, N. A., & Mikiten, T. M. (2002). Darwinian Processes and Memes in Architecture: A Memetic Theory of Modernism. *Journal of Memetics*, 6(1), 23-42.
- Salingaros, Nikos A. (2000). The Structure of Pattern Languages. *Architectural Research Quarterly* 4:149-161.
- Shinji Ogawa. & Bipin Indurkha (2012). A Meme-Based Architecture for Modeling Creativit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Creativity*: 170-174.
- 김상우, 이동연 (2004). 데리다의 “텍스트”와 들뢰즈의 “기계”개념을 통한 한국현대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24권 2호*.
- 김승남 (2015).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건축도시 분야 핵심 학술지 탐색.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31권 12호(통권326호)*, 104.
- 김진형 (2008). 한국 건축의 절충주의적 경향과 포스트모더니즘 수용.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도연정, 전봉희 (2016).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1920-30년대 부엌담론에 관한 연구 - 『동아일보』의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32권 7호*.
- 마정혜 (2008).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적 특성을 적용한 박물관 사례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3권 1호(통권 5호)*.
- 박하나 (2009). 들뢰즈의 주름론으로 본 해체주의 건축 - 프랭크 게리, 렘 콜 하스, 피터 아이젠만을 중심으로. *현대미술사연구 제25집*.
- 오세민, 김영진 외 (2011). BIM기반 시뮬레이션 모델의 상호운용성과 유전 알고리즘, 파레토 최적을 이용한 건축디자인의 최적화.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2011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윤일, 조벽호 (2009). 밈(meme)의 현상이 문화에 수용되는 공간적 구조.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4권 3호(통권10호)*.
- 윤희진, 이성호 (2013). 들뢰즈의 미학이 현대건축에서 다중성의 개념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프랑스문화연구 제26집*.
- 이미경 (2011). 현대 공간디자인에서의 현상학적 특징과 가능성-메를로퐁티의 시각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0권 2호(통권*



85호).

- 이영미, 천득염 (2008). 후기 구조주의의 생성의 관점을 통해 본 라이프니츠 모나드론의 건축 철학으로서의 가능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4권 6호(통권236호)*.
- 이현진, 이상준 (2014). 재생 공간에 나타나는 밈(Meme)적 특성 연구 -독일의 줄페라인 탄광 지구 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3권 6호(통권 107호)*.
- 장대익 (2008). 일반 복제자 이론 : 유전자, 밈, 그리고 지향계. *과학철학 제11권*.
- 장대익 (2012). 호모 리플리쿠스 : 모방, 거울뉴런, 그리고 밈. *인지과학 제23권 제 4호*.
- 정인하 (1999). 1960년대 이후 등장한 건축적 담론들과 언어이론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8권 2호 통권 19호*.
- 정인하 (2003). 현대 도시이론과 언어담론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2권 3호(통권35호)*.
- 조준영, 양내원 (2008). 현대 병원건축에서 나타나는 구조주의적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14권 2호*.
- 최원준 (2010). 국내발간 건축잡지의 작품소개체계 변천에 대한 개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6권 2호(통권256호)*.
- 한진욱, 안정찬 외 (2015). 소셜 빅데이터를 통한 한국 프로야구 SNS 밈 (meme) 분석.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20권 5호, pp. 1-16*.

## 학위논문

- 김승범 (2012). 공공건축물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서울대 박논.
- 변나향 (2012). 아파트단지와 단위세대 평면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 서울대 박논.
- 이상희 (2013). 건축 출판의 시대별 양상 연구, 경기대 석논.
- 조영진 (2009). 인간시지각에 기초한 공간분석모델 개발 연구, 서울대 박논.

## 신문기사

- 김경일 (2014. 4. 14). 공감과 거울 뉴런 그리고 인간의 진화, *동국대학원 신문*, 182호.
- 김봉렬 (2001. 6. 07). ‘포스트모더니즘’ 국내 건축계에서는..., *중앙일보*.
- 박능생 (2016. 5. 30). 예술가는 왜 장소성에 집착하는가?, *경남일보*.
- 승효상 (2018. 9. 22). 네거티브즘, 그린벨트 그리고 비무장지대, *중앙일보*.

## 정기간행물

- 공간 (1966-2018), 제2호-제605호, 서울: 공간사.
- 강혁. (2006). 건축 잡지와 담론 공간. *건축*. 2006년 6월호.

## 웹사이트

- <http://www.courseinreligion.org>
- <http://www.journalism.org/2009/10/05/meme-tracker-analysis-what-ideas-reverberated-media/>
- [http://sti.kostat.go.kr/window/html/2017\\_win\\_3.html](http://sti.kostat.go.kr/window/html/2017_win_3.html)

---

**Abstract**

**A Methodological Research on Meme-Based Analysis of  
Architectural Discourse in Korea**

Yang, Wanseok

Department of Architecture

Ph.D. Course i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Choi, Jaepil

---

Richard Dawkins, a British evolutionary biologist, proposed the concept of "Meme" in his book "Selfish Gene" in 1976. Meme is a kind of 'culture gene' that collectively refers to all types of human-made cultural units which can mutate and compete between the human brain, similar to real genes. Like genes, memes also have a disposition to spread themselves, accordingly they have competition with other memes. So Richard Dawkins cited architecture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meme, saying, "... examples of memes are songs, ideas, propaganda, fashion of clothes, how to make pottery, building styles and so on ...". Therefore, in this study, I tried to quantitatively measure and analyze memes in the architectural discourse, and tried to establish discourse analysis methodology based on memetic theory.

I decided to research the architectural discourse on the text of

the magazine, a medium in which the architects have been actively expressing their ideas, and considering the publication history, number and scope of subscribers, the monthly magazine "Space" published since 1967 were decided as a magazine for analysis. In the review text of the work and the interview of the architect, choose only where the author refers to someone else, contents and information about the person who wrote it, the person mentioned, and the title of the article were researched. In this process, the part where the writer refers to the other is the meme. Mem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content, and the network analysis was performed after nodesizing the contents of the meme and persons who exchanged memes. In conclusion, the procedure of the analytic method based on memetic theory was defined by four steps - 1. Capture and collection of memes, 2. Refinement and classification of memes, 3. Create network, 4. Calculation and application of indicators.

As a result, the total number of books researched was 601, the number of memes extracted was 708,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memes emanated from was 34. An overview of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s contained in Chapter 4, and the results of a more in-depth look at these memes around the major meme senders and major architectural current of thoughts - Modernism, Structuralism, Postmodernism, Deconstructivism, Post-Structuralism, Philosophy of Creation, Phenomenology, Tradition - were contained in Chapter 5.

In Chapter 6, I further analyzed key meme senders by period, meme content and trend of change in order to see the effectiveness of the observational analysis method based on meme theory, and compared and contrasted these results with existing historical research. As a result, it was judged that much of the study's meme

theory-based discourse analysis method was useful as it was found to b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and facts of existing historical studies. In addition, the following points about the history of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al discourse were newly revealed by the analysis method based on memetic theory.

1. Korean modern architecture was divided into four periods: a) 1960s and 70s, b) 1980s and the early and mid-1990s, c) mid- to late 1990s and 2000s, and d) 2010s, and the theoretical discourse among architects and the discourse surrounding actual works was different. Also, it was found that the sum of the influences of Phenomenology in the discourse of modern Korean architecture surpassed the sum of the influence of modernism recently.

2. Korean architects mostly took memes one-sidedly from foreign people, and the memes exchanged between Korean architects were mainly related to 'personal relationships' and 'tradition' rather than theoretical topics or discourse. This phenomenon has continued until recently, and there is still a lack of debate among Korean architects and a lack of self-sustaining discourse.

3. Using a meme theory-based analysis method, the influence of people and theories could be analyzed together to assess their centralization more accurately. Using this, it was possible to quantitatively derive and compare the influences of the key figures and theories of the architecture that were evaluated qualitatively.

This study is a study of the controversial properties that combine architecture with meme, which is dealt with in the field of science such as evolutionary biology, sociology. An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measure memes directly objectively and quantitatively. It is expected that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analyze discourse of other fields in the future.

Keywords: Meme, Meme Theory, Architectural Discourse, Korean  
Modern Architecture, Network Analysis, Discourse Analysis

Student Number: 2009-30142